

IN

Y

P

I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 I : IEA ICCS 2016 - 총괄보고서

책임연구원

성은모

공동연구원

백혜정 진성희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 I : IEA ICCS 2016 -총괄보고서-

- ▶ 책임연구원 : 성은모(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부연구위원)
- ▶ 공동연구원 : 백혜정(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부연구위원)
진성희(인하대학교 · 연구교수)
- ▶ 연구보조원 : 허선영(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위촉연구원)
정민주(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위촉연구원)
김균희(인하대학교 · 박사과정)

발 간 사 ■ ■ ■

21세기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사회를 지식정보화 사회라 일컬음에 따라 과거 산업사회에서 요구하는 역량과는 차원이 다른 역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하고 성공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지식정보화 사회에 적응하고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려는 역량이 보다 중요하게 여겨지는 기로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발맞추어 미래사회에서 핵심인력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청소년의 역량과 이를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에 대한 관심도 점차 깊어지고 있습니다. 현재와 미래로 이어지는 삶에서 일상생활 및 직업생활 등 생활전반에 걸쳐 필요한 역량은 과연 무엇인지 규명하고 이를 육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퍼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미래사회를 주도할 청소년의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청소년이 꿈꾸는 밝은 미래’라는 청소년 정책의 비전을 제시하며, 제 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의 핵심과제로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강화’를 내세워 청소년 역량증진 활동 활성화, 글로벌·다문화 역량강화, 청소년 인성교육 강화 등을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시대적 변화와 정부의 제 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의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보다 구체화하고, 청소년의 역량을 국제적으로 비교 분석함으로써 청소년 역량을 국제적 수준으로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 및 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연구: IEA ICCS 2016’라는 정책연구과제를 발굴하여 2014년부터 2017년도 까지 진행되는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연구: IEA ICCS 2016’의 1차년도 연구과제로서 청소년 역량을 경험·과학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도구를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15~2017년 IEA 2016 ICCS 국제비교를 위한 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 역량 증진을 위해 우리 사회가 개선해야 할 정책 및 제도적 부분이 무엇인지 점검하고 정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연속성 있게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2014년 12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 노 혁 드림

국 문 초 록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따른 사회의 변화 속에서 청소년들이 성공적으로 기능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산업사회와는 차별화된 개인의 역량이 요구된다. 이러한 변화와 함께 미래에 핵심인력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청소년의 역량과 이를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에 대한 국제적 관심도 점차 깊어지고 있으며, OECD, UNESCO 등의 국제기관에서는 역량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청소년의 핵심역량 증진에 관심을 갖고 교육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그 일환으로 5개년 계획인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연구: IEA ICCS 2016’ 연구 계획을 수립하였다. 본 연구는 제 1차년도 연구과제로써, 청소년 역량을 경험·과학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도구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과제는 청소년 역량의 국제비교 연구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수행에 있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도구 개발 및 국제 비교 연구를 총괄하며, 5개의 청소년 역량지수 중 생애학습역량, 생활관리역량, 진로개발역량, 대인관계역량 관련 측정도구 개발을 담당하고, 협동기관으로써 한국교육개발원이 사회참여역량에 대한 부분을 담당하여 연구과제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최종적으로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도구 개발을 위한 핵심역량 5개와 하위요소 16개가 도출되었다: 생애학습역량(사고력, 지적도구활용력, 학습적응성), 생활관리역량(건강관리, 과제관리, 상황대처, 정서조절), 진로개발역량(진로설계, 여가활용, 개척정신), 대인관계역량(관계형성, 리더십, 협동), 사회참여역량(개인 시민성, 공동체 시민성, 세계 시민성). 도출된 5개의 핵심역량군을 중심으로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을 위해 총 322개의 문항을 구성하였고, 개발된 측정도구 문항의 타당화 검증을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전국 16개 시·도의 표본학급을 추출하여 초등학교 48개 학교, 중학교 81개 학교, 고등학교 96개 학교 등 총 225개 학교를 할당하였고, 설문조사에 참여한 총 6,758명의 데이터 중 121명의 데이터를 제거하여 최종 6,637명의 자료가 활용되었다. 설문조사 후 문항분석과 모형의 적합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생애학습역량 37개, 생활관리역량 48개, 진로개발역량 39개, 대인관계역량 46개, 사회참여역량 63개 등 총 234문항이 도출되었으며, 5개의 역량과 16개의 하위요소들 모두 모형의 적합도가 확인되었다.

핵심어: 청소년역량, 생애학습역량, 생활관리역량, 진로개발역량, 대인관계역량, 사회참여역량

1. 연구목적

- 현대에 들어서면서 우리 사회의 과학기술은 매우 급속하게 발전하였고 그에 따라 지식의 양도 과거와는 비교가 될 수 없을 만큼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많은 양의 지식을 소유하기 보다는 보다 질 높은 지식을 선별하여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새로운 생활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 즉, 현대 지식기반 사회에 적응하고 보다 기능적이고 성공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인의 역량이 근대 산업사회에서 요구하던 역량과는 다르게 요구되는 시점임
 - 예를 들어, 개인의 창의성이나 자기 주도성이 과거에 비해 중요한 개인의 능력으로 평가됨
-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발맞추어 미래사회에서 핵심인력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청소년의 역량과 이를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에 대한 관심도 점차 깊어지고 있음
 - OECD DeSeCo(Defining and Selection Key Competencies) 프로젝트에서는 OECD 국가들을 중심으로 개인의 성공적인 삶과 순기능적 사회로 발전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역량을 규명하고 이러한 역량들을 증진시키는 것을 생애 학습과 교육 체제의 가장 큰 목표로 설정함
 - UNESCO는 브루킹스 연구소와 공동으로 배움 매트릭스(Learning Matrix)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21세기에 맞추어 양질의 교육에 보다 집중하여 교과 중심의 교육을 넘어 소통, 협상, 창의력 등 비인지적인 21세기 기술(Noncognitive 21st century skills) 교육으로의 전환을 도모함
- 우리나라도 미래사회의 인재가 되기 위해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는 것에 교육의 중점을 둔 2009 개정 교육과정(미래형 교육과정)을 실행 중임
 -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 인재가 지녀야 할 핵심역량 증진을 위한 기초교육을 강화하면서, 인성교육을 위해 탐구활동 및 예체능 교육, 창의적 체험활동을 강화하는 정책을 시행 중임

- 이처럼 미래의 개인과 사회를 위해 현재 우리 청소년들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과연 그 역량이 무엇이며,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의 필요성 제기됨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교육과정과 관련된 핵심역량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학생역량지표 개발 연구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청소년 관련 핵심역량 개발 연구를 수행하며 핵심역량의 하위 영역들을 도출해내고 이를 육성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해 왔음
- 그러나 지금까지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나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역량에 관한 선행연구들에서는 대상과 내용 부분에서 제한점을 가지고 있음
 - 연구 대상의 한계: 연구대상으로 청소년 중에서도 학생만을 포함하고 있음
 - 연구 내용의 한계: 직업기초능력이나 학교교육과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청소년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전반적인 역량을 다루지 못하고 있음
 - 우리나라 특성을 반영한 역량 개발의 한계: 우리나라 청소년의 생애핵심역량을 규명하고 청소년들의 전반적인 삶에서 필요한 역량을 다루고자 하였으나 국제 수준을 비교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국제역량 지표를 우리 청소년들에게 적용함
- 이에 다음과 같은 청소년 역량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됨
 - 미래지향적 관점을 바탕으로 청소년들이 전 생애에 걸쳐 학교나 직업생활 뿐 아니라 모든 생활 영역에서 성공적이고 효과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역량을 규명하고, 측정할 필요가 있음
 - 청소년들이 여러 영역에서 성장 및 발달 단계에 있어 이들의 역량 역시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른 변화 및 발달을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한 다년간의 연구로 수행될 필요가 있음
 - 청소년 핵심역량이 우리나라의 특성을 반영할 뿐 아니라 지구촌 사회의 시민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역량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국제 비교 연구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청소년 역량 증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정부는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청소년이 꿈꾸는 밝은 미래’라는 청소년 정책의 비전을 제시하고 제 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고 있음
 - 이러한 정책과제의 일환으로 2013년도 「청소년 역량지수 개발 연구」(성은모 외, 2013)를 실시하여 청소년 역량에 대한 지수 체계를 구성함

- 그러나 실제로 청소년의 역량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구체적인 도구는 제공되지 않아 청소년 역량의 수준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측정도구의 개발 및 보급이 시급한 실정임
- 이상과 같은 필요성을 바탕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 IEA ICCS 2016’ 라는 정책연구과제를 발굴하여 2014년부터 2017년도 까지 진행되는 5개년 계획을 수립함

○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제 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의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 강화’ 를 위한 정책과제를 기반으로 2013년도 시행되었던 「청소년 역량지수 개발 연구」(성은모 외, 2013)의 후속연구임
- 이와 동시에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연구: IEA ICCS 2016’ 의 1차년도 연구과제로써 청소년 역량을 경험·과학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도구를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음
- 따라서 2013년도 실시된 「청소년 역량지수 개발 연구」에 근거한 5가지 영역 15개 청소년 역량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도구를 개발하고 타당화하고자 함
 - : 청소년 역량지수의 국제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지구촌 사회의 시민으로서의 수준을 가늠해보고 국제사회에서 통용될 수 있는 청소년 역량 측정 도구를 개발하고 이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성 확보
 - : 청소년 역량 측정도구를 중심으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의 개발방향과 프로그램평가 방향에 대해 논의
 - : 청소년 역량 증진을 위해 우리 사회가 개선해야 할 정책 및 제도적 부분이 무엇인지 점검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2. 연구내용

- 1) 국제비교(ICCIS 2016)를 위한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도구 프로토타입(prototype) 개발
 - 국제비교를 위한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도구 개발을 위한 선행연구 분석
 - 국제비교를 위해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도구 개발 방법론에 대한 탐색
 - 국제비교를 위한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도구의 프로토타입 개발
- 2) 개발된 청소년 역량 측정도구 프로토타입(prototype)의 신뢰도와 타당성 검증
 - 개발된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도구 프로토타입(ptototype)의 타당화
 - 개발된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도구 검증을 위한 전국단위 조사 실시
 -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도구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

3. 연구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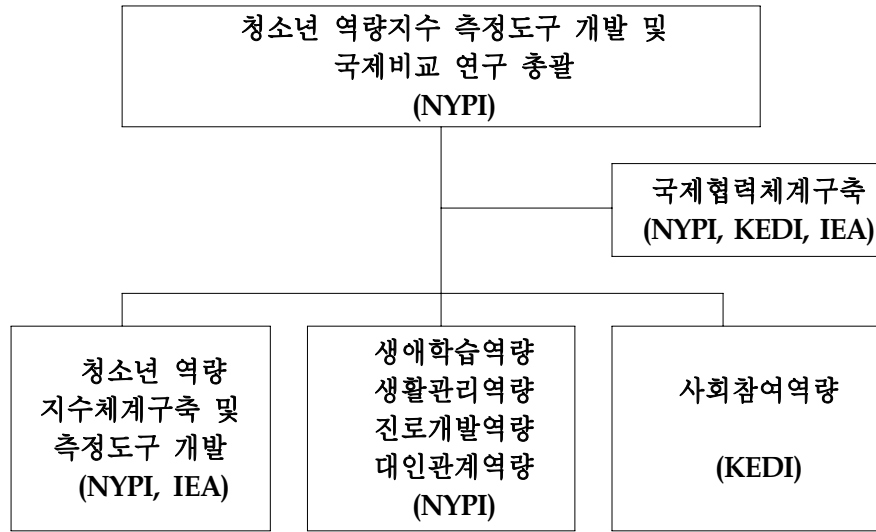
- 본 연구는 제 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의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기반으로 2013년도 시행되었던 「청소년 역량지수 개발 연구」(성은모 외, 2013)의 후속연구임
- 이와 동시에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5개년 계획으로 구성한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연구: IEA ICCS 2016’의 1차년도 연구과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

1단계 (2014년)	목적	· 청소년 역량 표준 설정 ·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도구 개발 및 타당화
	내용	· 국내 및 해외 사례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 청소년 역량 개념화 및 지표체계 구축 · 청소년 역량지표 구성체계의 타당화 · 청소년 역량 측정도구 1차 프로토타입 개발 · IEA ICCS 2016 조사 연구기관과의 국제협력체계 구축
	방법	· 문헌연구, 2차 자료 분석, 전문가 FGI조사, 전문가협의회

	· 집단검사, 출장면담조사 · 청소년 역량 측정도구 개발 타당성 조사, 통계분석						
2단계 (2015~2016년)	<table> <tr> <td>목적</td><td> · 청소년 역량의 국제비교(PISA, PIAAC, ICCS)를 통한 청소년 역량의 현황분석 · 청소년 정책기본계획에 따른 역량중심 청소년 정책 및 역량증진 교육프로그램 개발 추진방안을 위한 실천적 전략 제시 · 역량중심 청소년 정책 및 역량증진 교육프로그램 개발 </td></tr> <tr> <td>내용</td><td> · 측정지표체계에 대한 평가와 수정 · 전국규모 조사를 통해 청소년 역량 진단 · 청소년 역량의 국제비교(PISA, PIAAC, ICCS) · 역량중심 청소년 정책체계 구축을 위한 로드맵 제시 · 청소년 발달단계에 따른 역량중심 교육프로그램 개발 방안 제시 </td></tr> <tr> <td>방법</td><td> · 문헌연구, 2차 자료 분석, 전문가 FGI조사, 전문가협의회 · 집단검사, 출장면담조사 · 전국 규모 청소년 역량 진단조사 · 청소년 역량의 국제비교분석(PISA, PIAAC, ICCS) </td></tr> </table>	목적	· 청소년 역량의 국제비교(PISA, PIAAC, ICCS)를 통한 청소년 역량의 현황분석 · 청소년 정책기본계획에 따른 역량중심 청소년 정책 및 역량증진 교육프로그램 개발 추진방안을 위한 실천적 전략 제시 · 역량중심 청소년 정책 및 역량증진 교육프로그램 개발	내용	· 측정지표체계에 대한 평가와 수정 · 전국규모 조사를 통해 청소년 역량 진단 · 청소년 역량의 국제비교(PISA, PIAAC, ICCS) · 역량중심 청소년 정책체계 구축을 위한 로드맵 제시 · 청소년 발달단계에 따른 역량중심 교육프로그램 개발 방안 제시	방법	· 문헌연구, 2차 자료 분석, 전문가 FGI조사, 전문가협의회 · 집단검사, 출장면담조사 · 전국 규모 청소년 역량 진단조사 · 청소년 역량의 국제비교분석(PISA, PIAAC, ICCS)
목적	· 청소년 역량의 국제비교(PISA, PIAAC, ICCS)를 통한 청소년 역량의 현황분석 · 청소년 정책기본계획에 따른 역량중심 청소년 정책 및 역량증진 교육프로그램 개발 추진방안을 위한 실천적 전략 제시 · 역량중심 청소년 정책 및 역량증진 교육프로그램 개발						
내용	· 측정지표체계에 대한 평가와 수정 · 전국규모 조사를 통해 청소년 역량 진단 · 청소년 역량의 국제비교(PISA, PIAAC, ICCS) · 역량중심 청소년 정책체계 구축을 위한 로드맵 제시 · 청소년 발달단계에 따른 역량중심 교육프로그램 개발 방안 제시						
방법	· 문헌연구, 2차 자료 분석, 전문가 FGI조사, 전문가협의회 · 집단검사, 출장면담조사 · 전국 규모 청소년 역량 진단조사 · 청소년 역량의 국제비교분석(PISA, PIAAC, ICCS)						
3단계 (2017~2018년)	<table> <tr> <td>목적</td><td> · 청소년 역량의 국제수준 비교 분석 · 역량중심 청소년 정책 및 역량증진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효과성 분석 · 청소년 정책기본계획에 따른 청소년 역량성과 분석 </td></tr> <tr> <td>내용</td><td> · 청소년 역량의 국제비교(PISA, PIAAC, ICCS)를 통한 청소년 역량의 현황분석 · 청소년 정책기본계획에 따른 청소년 역량성과 분석 </td></tr> <tr> <td>방법</td><td> · 문헌연구, 2차 자료 분석, 전문가 FGI조사, 전문가협의회 · 집단검사, 출장면담조사 · 전국 규모 생애핵심역량 진단조사, 통계분석 </td></tr> </table>	목적	· 청소년 역량의 국제수준 비교 분석 · 역량중심 청소년 정책 및 역량증진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효과성 분석 · 청소년 정책기본계획에 따른 청소년 역량성과 분석	내용	· 청소년 역량의 국제비교(PISA, PIAAC, ICCS)를 통한 청소년 역량의 현황분석 · 청소년 정책기본계획에 따른 청소년 역량성과 분석	방법	· 문헌연구, 2차 자료 분석, 전문가 FGI조사, 전문가협의회 · 집단검사, 출장면담조사 · 전국 규모 생애핵심역량 진단조사, 통계분석
목적	· 청소년 역량의 국제수준 비교 분석 · 역량중심 청소년 정책 및 역량증진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효과성 분석 · 청소년 정책기본계획에 따른 청소년 역량성과 분석						
내용	· 청소년 역량의 국제비교(PISA, PIAAC, ICCS)를 통한 청소년 역량의 현황분석 · 청소년 정책기본계획에 따른 청소년 역량성과 분석						
방법	· 문헌연구, 2차 자료 분석, 전문가 FGI조사, 전문가협의회 · 집단검사, 출장면담조사 · 전국 규모 생애핵심역량 진단조사, 통계분석						

○ 본 연구는 청소년 역량의 국제비교 연구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협동연구과제이며, 추진체계는 다음과 같음

- 연구수행에 있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도구 개발 및 국제 비교 연구를 총괄하며, 5개의 청소년 역량지수 중 생애학습역량, 생활관리역량, 진로개발역량, 대인관계역량 관련 측정도구 개발을 담당하고, 협동기관으로써 한국교육개발원이 사회참여역량에 대한 부분을 담당하여 연구과제를 수행함



4. 연구방법

○ 국내외 문헌분석

- 청소년 역량의 목표와 체계적인 지표에 관한 국내외 문헌 및 자료 수집, 분석을 통하여 국내외 연구에서 제안한 청소년 역량지수 개념설정 및 하위구성요소 범주화
- 국내외 선행연구에서 제안된 역량지수 측정도구 수집 및 분석을 통한 역량지수 측정도구 지표 설정 및 측정 방법 선정
-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도구 개발방법론에 관한 선행연구분석을 통한 체계적인 개발 방법 도출

○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도구 개발을 위한 자문회의 실시

- 학계 및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도구 개발방법론 탐색을 위한 자문회의를 1회에 걸쳐 실시함
- 제 1차 자문회의: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도구 개발방법론 탐색 및 개발 방법 설정
- 학계 및 현장전문가, 청소년 활동관련 현장전문가, 초중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도구 프로토타입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위한 자문회의를 2회에 걸쳐 실시함
- 제 1차 자문회의: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도구 프로토타입(prototype) 타당화와 초안 개발

- 제 2차 자문회의: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도구 초안에 대한 청소년 활동 현장에서 실제 활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측정의 용이성 평가 후 2차 설문안 개발
- 청소년 핵심역량지수 신뢰도 타당도 검증 본조사
 - 조사 지역: 전국 16개 시·도
 - 조사 대상
 - 학생수 기준: 초등학생(1/2/3/4/5/6학년), 중학생(1/2/3학년), 고등학생(1/2/3학년)
 - 조사대상 학생은 6,000명을 목표표본으로 설정한 뒤 2013년 교육통계연부를 표집틀로 하여 단순비례배분에 의한 층화집락표집 방식으로 추출
 - 학교수 기준: 총225개 학교(초등학교 48개, 중학교 81, 고등학교 96개)
 - 학급수 기준: 표본 선정 학교에서 1개 학년 1개 학급 무작위 추출
 - 조사 일정
 - 사전조사: 2014년 5월 10일~11일 양일간 실시
 - 초등학생 10명, 중학생 20명, 고등학생 19명 등 총 49명
 - (남학생 21명, 여학생 28명)
 - 설문 확정: 사전조사 실시 내용을 바탕으로 설문 문항 수정 및 확정
 - 본조사: 2014년 6월 12일~7월 25일
 - 자료처리 및 보고: 2014년 7월 25일~10월 14일

5. 연구결과

1) 청소년 역량 측정도구의 타당화 측정모형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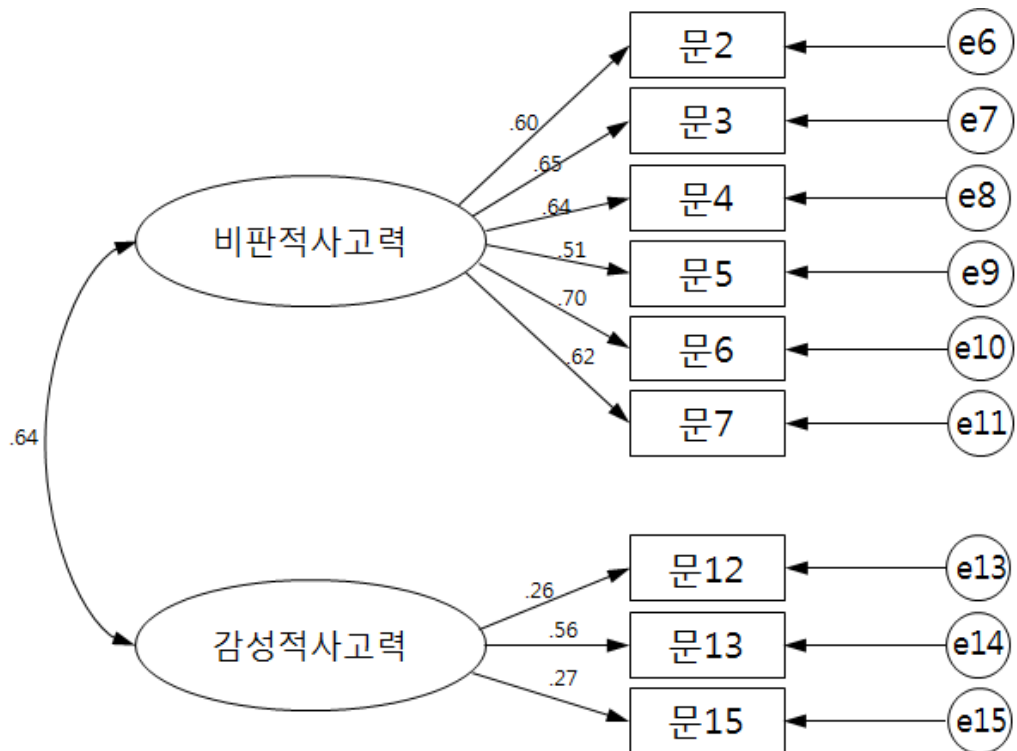
(1) 생애학습역량

- 생애학습역량의 하위요인들에 대한 측정모형 분석 결과, 척도의 적합도가 확인됨

- 사고력

변인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비판적 사고력	문항1-2	1.000	.599 ***
	문항1-3	1.112	.646 ***
	문항1-4	1.273	.640 ***
	문항1-5	.953	.511 ***
	문항1-6	1.277	.696 ***
	문항1-7	1.150	.617 ***
감성적 사고력	문항1-12	1.000	.264 ***
	문항1-13	1.862	.562 ***
	문항1-15	.879	.26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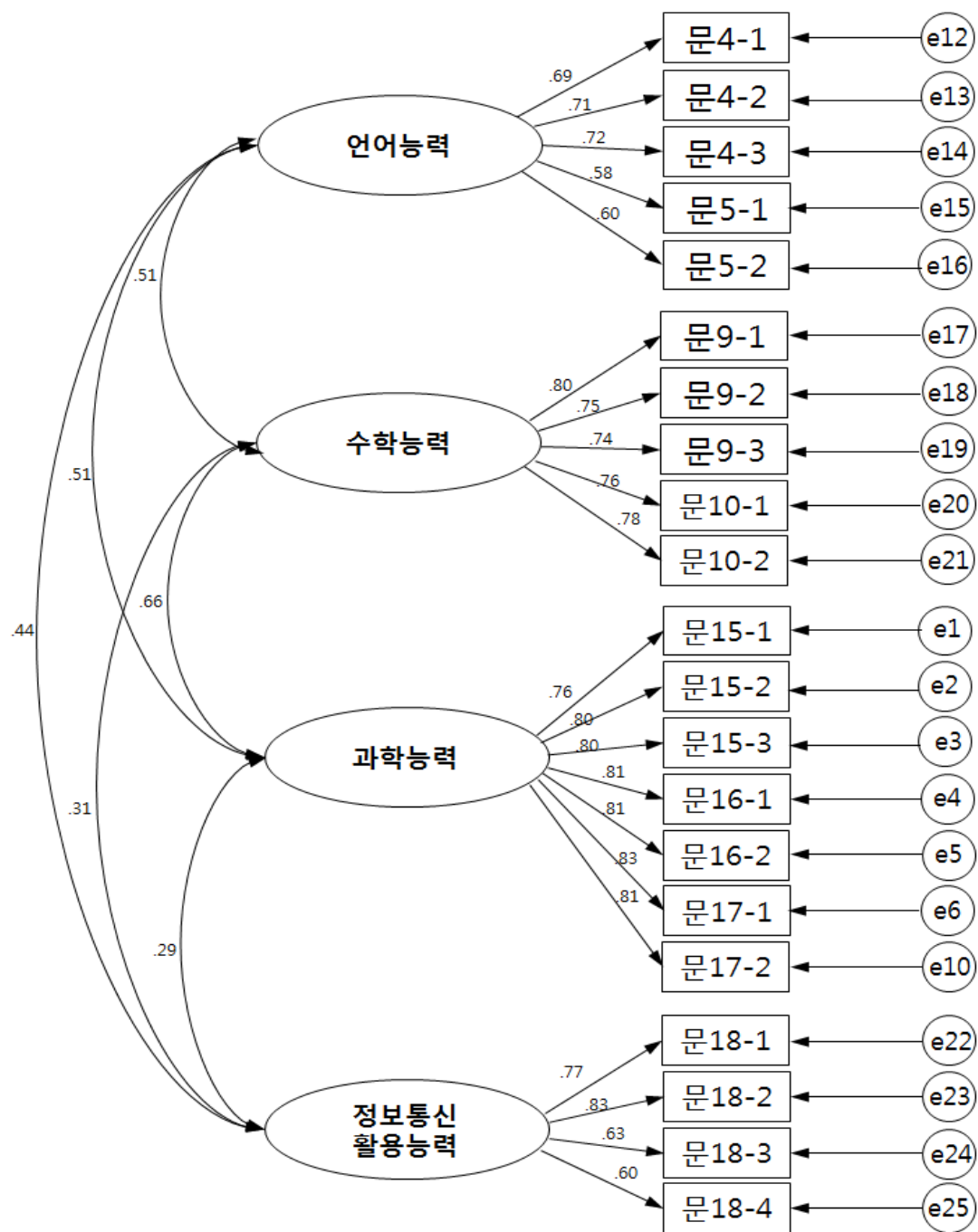
$\chi^2(df)$	CFI	NFI	TLI	RMSEA
653.502(26)***	0.942	0.940	0.900	0.065



- 지적도구활용

변인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언어능력	문항4-1	1.000	.689 ***
	문항4-2	1.017	.707 ***
	문항4-3	1.076	.720 ***
	문항5-1	.987	.582 ***
	문항5-2	1.044	.598 ***
수학능력	문항9-1	1.000	.802 ***
	문항9-2	.916	.750 ***
	문항9-3	.861	.744 ***
	문항10-1	1.066	.760 ***
	문항10-2	1.145	.775 ***
과학능력	문항15-1	1.000	.758 ***
	문항15-2	1.016	.797 ***
	문항15-3	1.028	.800 ***
	문항16-1	1.147	.814 ***
	문항16-2	1.157	.808 ***
	문항17-1	1.053	.833 ***
	문항17-2	1.085	.814 ***
정보통신활용 능력	문항18-1	1.000	.769 ***
	문항18-2	1.187	.827 ***
	문항18-3	1.088	.632 ***
	문항18-4	.976	.59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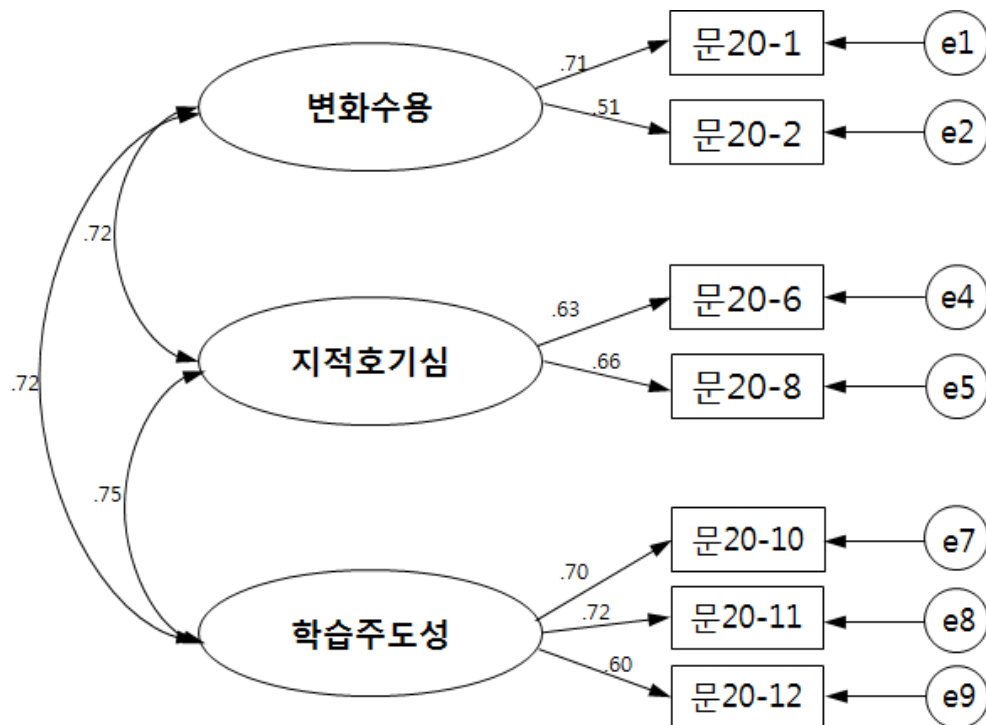
$\chi^2(df)$	CFI	NFI	TLI	RMSEA
13590.810(183)***	0.837	0.835	0.837	0.105



- 학습적응성

변인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변화수용력	문항20-1	1.000	.706 ***
	문항20-2	.891	.510 ***
지적호기심	문항20-6	1.000	.630 ***
	문항20-8	1.048	.660 ***
학습주도성	문항20-10	1.000	.702 ***
	문항20-11	.983	.720 ***
	문항20-12	.785	.597 ***

$\chi^2(df)$	CFI	NFI	TLI	RMSEA
158.771(11)***	0.985	0.984	0.985	0.0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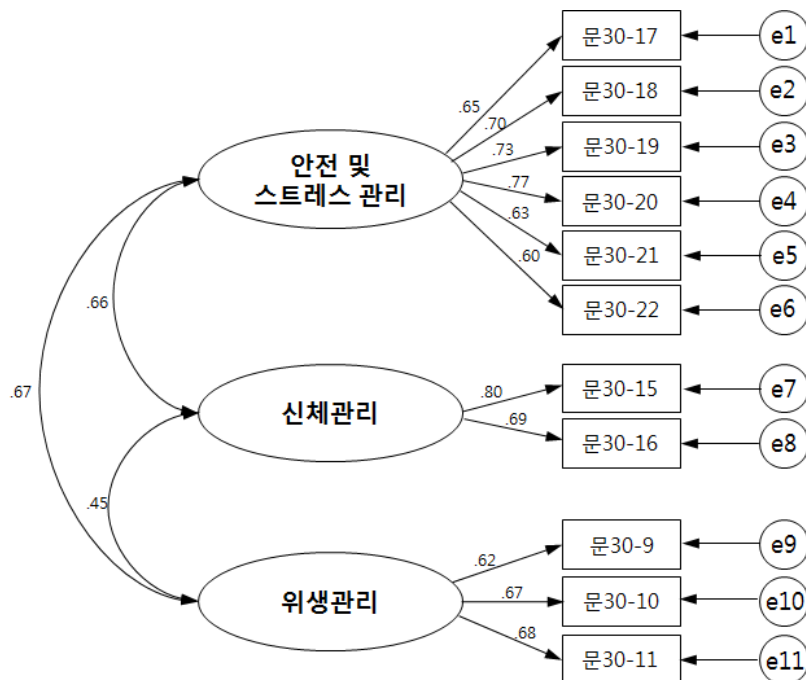
(2) 생활관리역량

○ 생활관리역량의 하위요인들에 대한 측정모형 분석 결과, 척도의 적합도가 확인됨

– 건강관리

변인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안전 및 스트레스 관리	문30-17	1.000	.650 ***
	문30-18	1.018	.697 ***
	문30-19	.980	.734 ***
	문30-20	1.010	.768 ***
	문30-21	.877	.628 ***
	문30-22	.939	.605 ***
신체관리	문30-15	1.000	.804 ***
	문30-16	.989	.690 ***
위생관리	문30-9	1.000	.615 ***
	문30-10	.940	.668 ***
	문30-11	1.047	.67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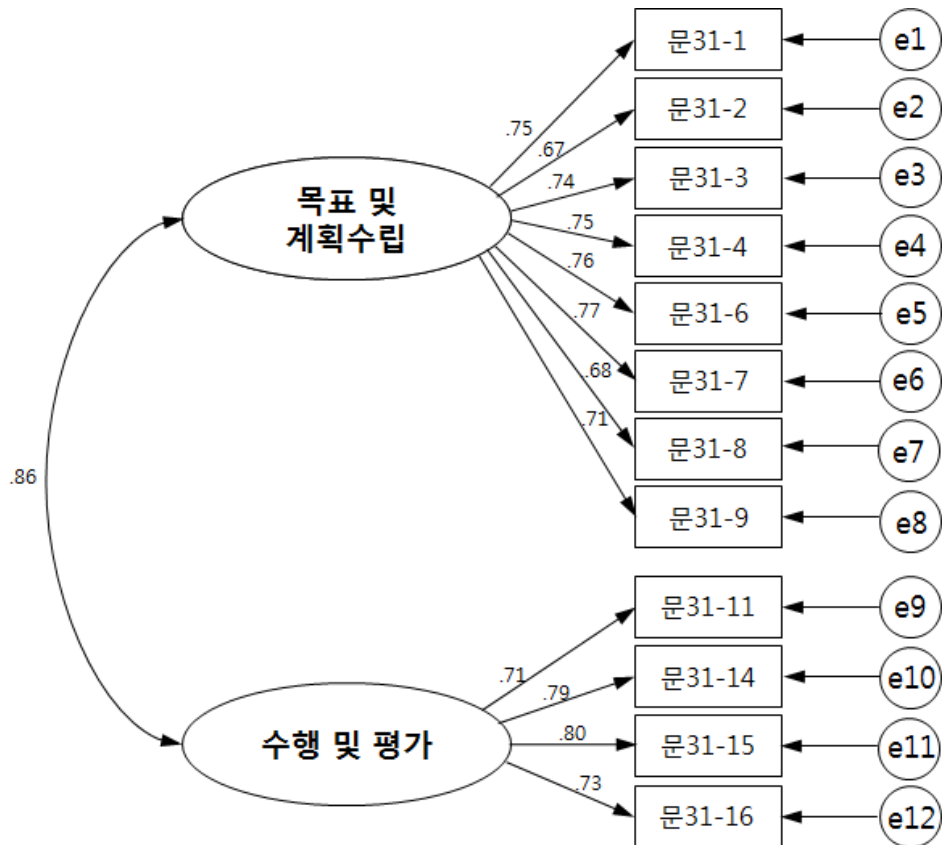
$\chi^2(df)$	CFI	NFI	TLI	RMSEA
1547.705(41)***	0.937	0.936	0.899	0.074



- 과제관리

변인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목표 및 계획수립	문31-1	1.000	.750 ***
	문31-2	.877	.674 ***
	문31-3	.926	.742 ***
	문31-4	.949	.750 ***
	문31-6	.964	.757 ***
	문31-7	1.038	.769 ***
	문31-8	.819	.675 ***
	문31-9	.850	.706 ***
수행 및 평가	문31-11	1.000	.706 ***
	문31-14	1.036	.789 ***
	문31-15	1.104	.804 ***
	문31-16	1.016	.73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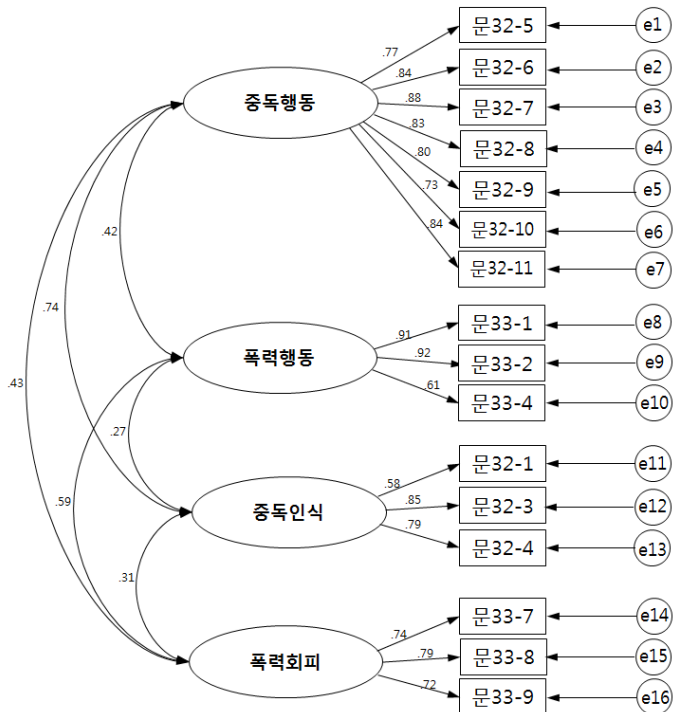
$\chi^2(df)$	CFI	NFI	TLI	RMSEA
2234.047(53)***	0.949	0.948	0.925	0.079



- 상황대처

변인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중독행동	문32-5)	1.000	.774 ***
	문32-6)	1.014	.837 ***
	문32-7)	1.095	.879 ***
	문32-8)	1.053	.833 ***
	문32-9)	1.012	.796 ***
	문32-10)	.861	.727 ***
	문32-11)	1.054	.841 ***
폭력행동	문33-1)	1.000	.907 ***
	문33-2)	1.012	.922 ***
	문33-4)	.702	.606 ***
중독인식	문32-1)	1.000	.581 ***
	문32-3)	1.421	.851 ***
	문32-4)	1.368	.792 ***
폭력회피	문33-7)	1.000	.739 ***
	문33-8)	1.123	.786 ***
	문33-9)	1.008	.72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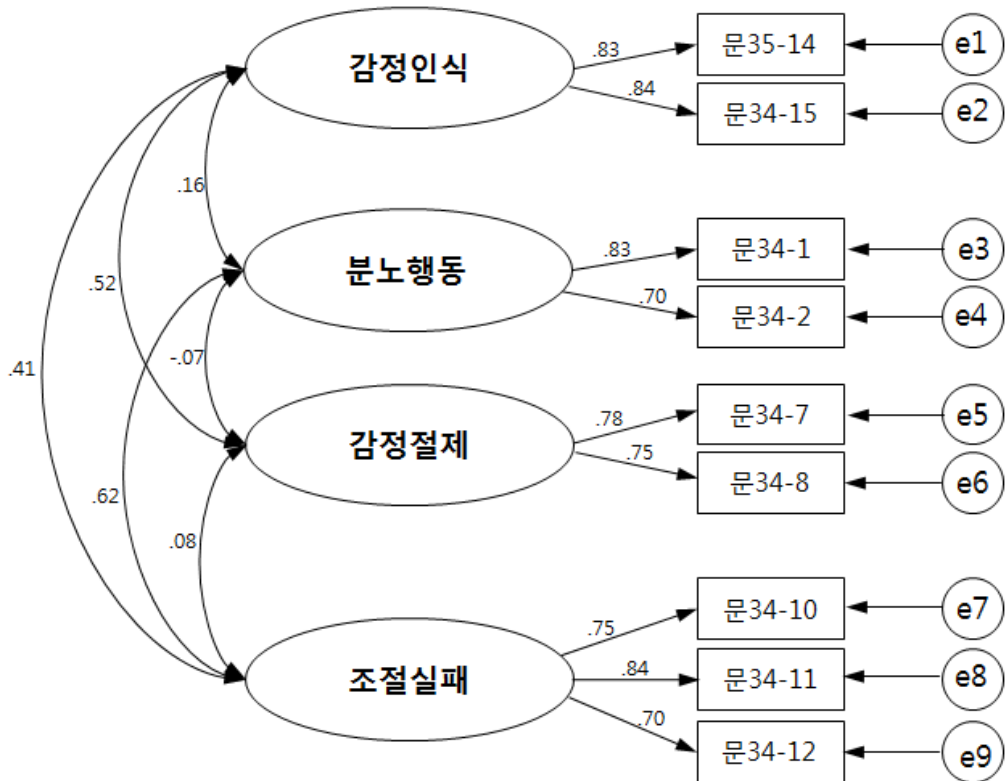
$\chi^2(df)$	CFI	NFI	TLI	RMSEA
2371.028(98)***	0.965	0.963	0.951	0.059



- 정서조절

변인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분노행동	문34-1)	1.000	.834 ***
	문34-2)	.837	.698 ***
감정절제	문34-7)	1.000	.778 ***
	문34-8)	.956	.752 ***
조절실패	문34-10)	1.132	.750 ***
	문34-11)	1.000	.840 ***
	문34-12)	.993	.704 ***
감정인식	문34-14)	1.000	.829 ***
	문34-15)	1.033	.840 ***

$\chi^2(df)$	CFI	NFI	TLI	RMSEA
555.571(21)***	0.974	0.973	0.944	0.0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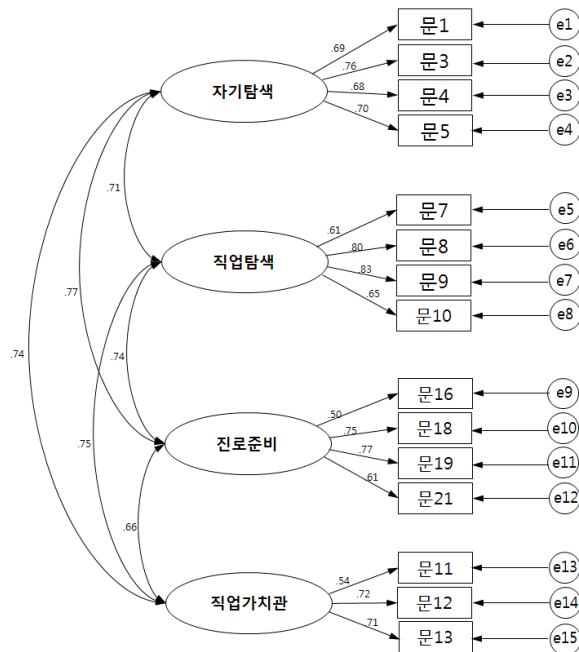
(3) 진로개발역량

○ 진로개발역량의 하위요인들에 대한 측정모형 분석 결과, 척도의 적합도가 확인됨

– 진로설계

변인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자기탐색	문1	1.000	0.691	***
	문3	1.044	0.761	***
	문4	1.014	0.683	***
	문5	1.049	0.701	***
직업탐색	문7	1.000	0.605	***
	문8	1.189	0.798	***
	문9	1.213	0.827	***
	문10	1.040	0.648	***
진로준비	문16	1.000	0.496	***
	문18	1.597	0.749	***
	문19	1.675	0.769	***
	문21	1.237	0.612	***
직업가치관	문11	1.000	0.544	***
	문12	1.070	0.723	***
	문13	1.080	0.70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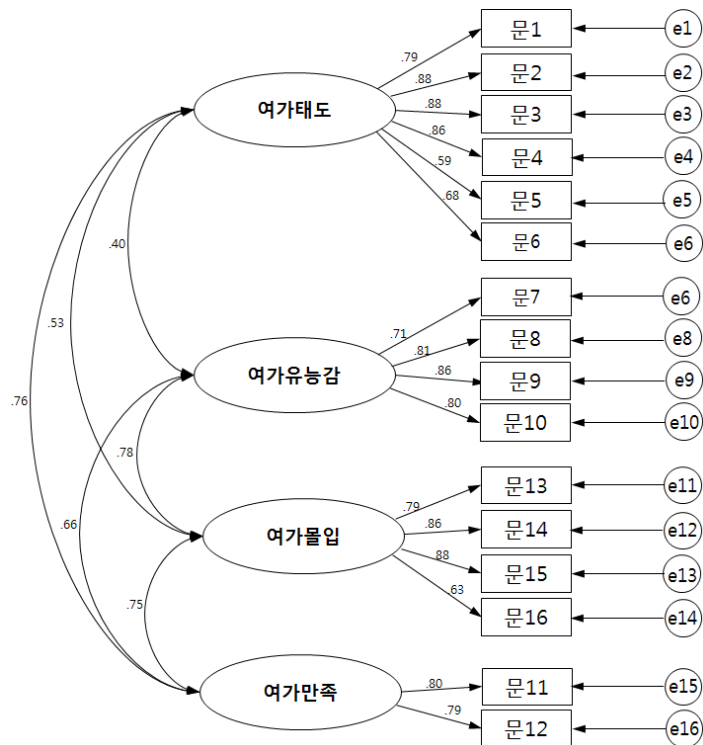
$\chi^2(df)$	CFI	NFI	TLI	RMSEA
1965.5(84)***	0.951	0.949	0.930	0.058



- 여가활용

변인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여가태도	문1	1.000	0.795***
	문2	1.080	0.878***
	문3	1.096	0.885***
	문4	1.087	0.858***
	문5	0.964	0.585***
	문6	0.964	0.683***
여가 유능감	문7	1.000	0.705***
	문8	1.161	0.806***
	문9	1.251	0.865***
	문10	1.112	0.796***
여가몰입	문13	1.000	0.792***
	문14	1.047	0.86***
	문15	1.053	0.877***
	문16	0.876	0.628***
여가만족	문11	1.000	0.801***
	문12	0.985	0.7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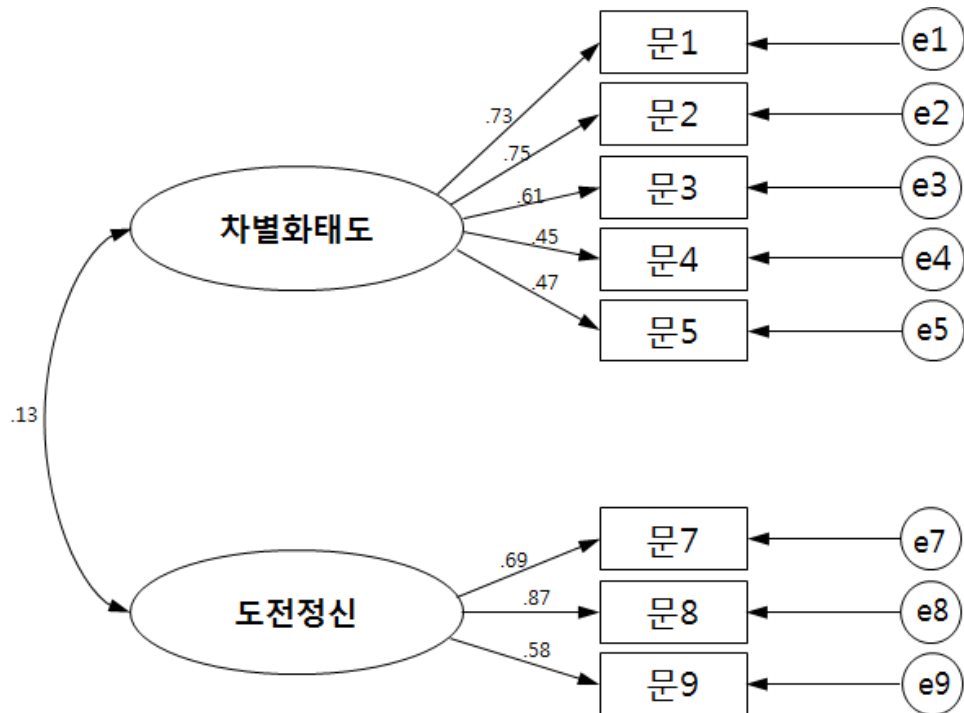
$\chi^2(df)$	CFI	NFI	TLI	RMSEA
3778.731(98)***	0.947	0.946	0.927	0.075



- 개척정신

변인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차별화 태도	문1	1.000	0.733 ***
	문2	0.979	0.752 ***
	문3	0.811	0.613 ***
	문4	0.653	0.454 ***
	문5	0.611	0.473 ***
도전정신	문7	1.000	0.691 ***
	문8	1.252	0.875 ***
	문9	0.827	0.579 ***

$\chi^2(df)$	CFI	NFI	TLI	RMSEA
611.390(19)***	0.953	0.951	0.910	0.0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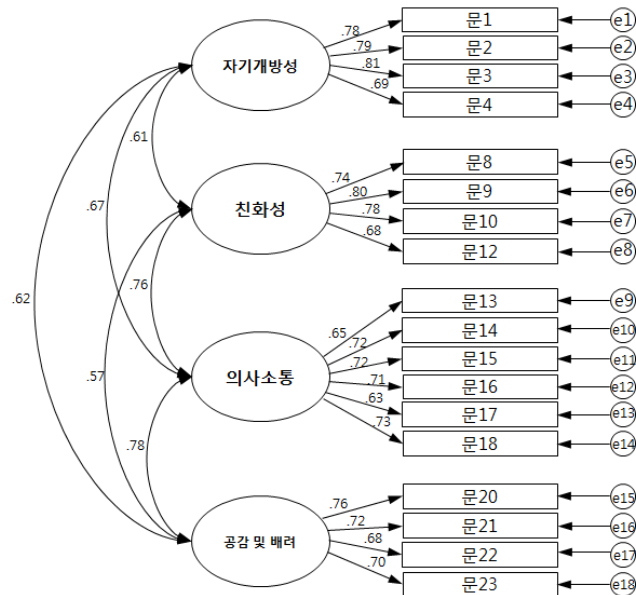
(4) 대인관계역량

○ 대인관계역량의 하위요인들에 대한 측정모형 분석 결과, 척도의 적합도가 확인됨

– 관계형성

구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자기 개방성	자기개방성 → 문1	1.00	0.78 ***
	자기개방성 → 문2	1.12	0.79 ***
	자기개방성 → 문3	1.04	0.81 ***
	자기개방성 → 문4	1.00	0.69 ***
친화성	친화성 → 문8	1.00	0.74 ***
	친화성 → 문9	1.07	0.80 ***
	친화성 → 문10	0.97	0.78 ***
	친화성 → 문12	0.87	0.68 ***
의사소통	의사소통 → 문13	1.00	0.65 ***
	의사소통 → 문14	1.01	0.72 ***
	의사소통 → 문15	1.00	0.72 ***
	의사소통 → 문16	1.05	0.71 ***
	의사소통 → 문17	1.04	0.63 ***
	의사소통 → 문18	1.04	0.73 ***
공감 및 배려	공감 및 배려 → 문20	1.00	0.76 ***
	공감 및 배려 → 문21	1.01	0.72 ***
	공감 및 배려 → 문22	0.99	0.68 ***
	공감 및 배려 → 문23	0.94	0.7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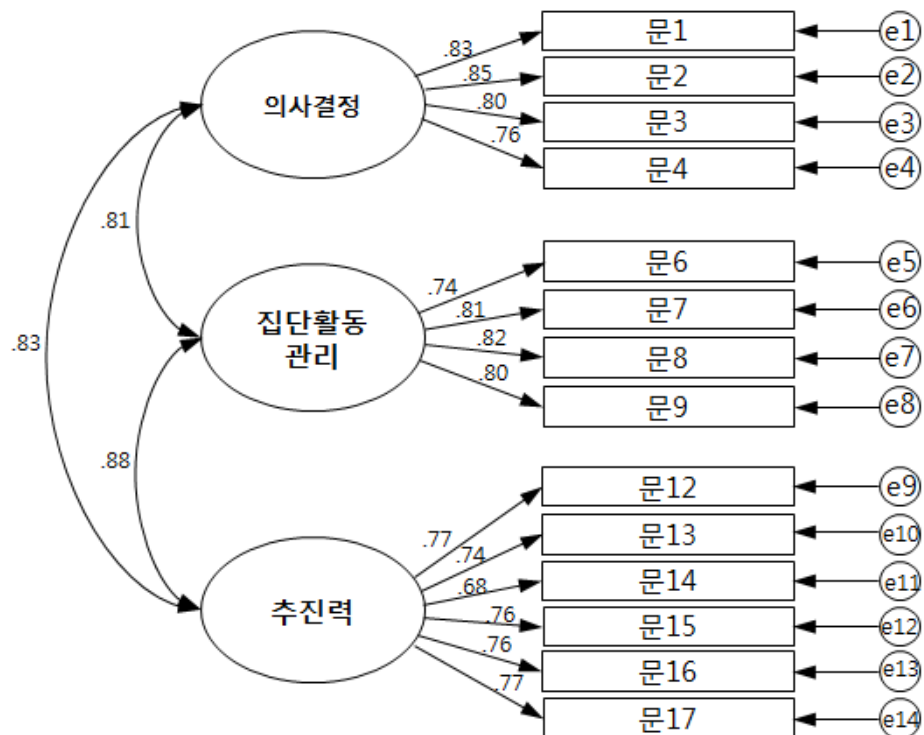
$\chi^2(df)$	CFI	NFI	TLI	RMSEA
2572.586(129)***	0.956	0.954	0.942	0.053



- 리더십

구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의사결정	의사결정 → 문1	1.00	0.83 ***
	의사결정 → 문2	1.06	0.85 ***
	의사결정 → 문3	1.01	0.80 ***
	의사결정 → 문4	0.94	0.76 ***
집단활동 관리	집단활동 관리 → 문6	1.00	0.74 ***
	집단활동 관리 → 문7	0.96	0.81 ***
	집단활동 관리 → 문8	0.94	0.82 ***
	집단활동 관리 → 문9	1.01	0.80 ***
추진력	추진력 → 문12	1.00	0.77 ***
	추진력 → 문13	0.99	0.74 ***
	추진력 → 문14	0.94	0.68 ***
	추진력 → 문15	1.01	0.76 ***
	추진력 → 문16	0.94	0.76 ***
	추진력 → 문17	0.97	0.7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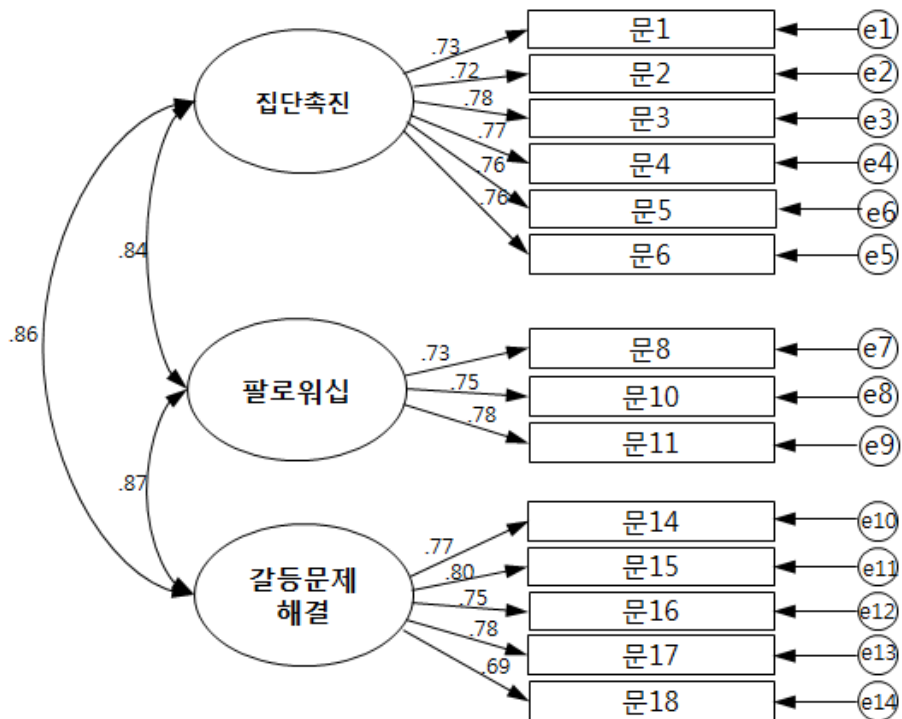
$\chi^2(df)$	CFI	NFI	TLI	RMSEA
1627.696(74)***	0.973	0.972	0.962	0.056



- 협동

구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집단 촉진	집단촉진 → 문1	1.00	0.73 ***
	집단촉진 → 문2	0.89	0.72 ***
	집단촉진 → 문3	1.06	0.78 ***
	집단촉진 → 문4	1.08	0.78 ***
	집단촉진 → 문5	1.10	0.76 ***
	집단촉진 → 문6	1.07	0.76 ***
팔로워십	팔로워십 → 문8	1.00	0.73 ***
	팔로워십 → 문10	1.14	0.75 ***
	팔로워십 → 문11	1.15	0.78 ***
갈등 문제 해결	갈등문제해결 → 문14	1.00	0.77 ***
	갈등문제해결 → 문15	1.06	0.80 ***
	갈등문제해결 → 문16	1.05	0.75 ***
	갈등문제해결 → 문17	1.04	0.78 ***
	갈등문제해결 → 문18	0.94	0.69 ***

$\chi^2(df)$	CFI	NFI	TLI	RMSEA
1492.625(74)***	0.973	0.972	0.962	0.0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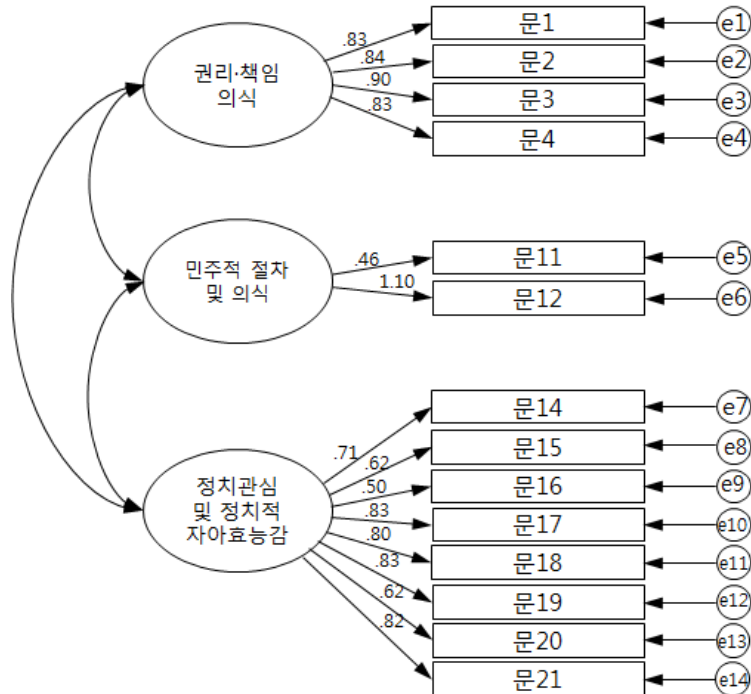


(5) 사회참여역량

- 사회참여역량의 하위요인들에 대한 측정모형 분석 결과, 척도의 적합도가 확인됨
 - 개인시민성

변인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권리·책임의식	문항1	1.000	0.829 ***
	문항2	1.046	0.841 ***
	문항3	1.064	0.895 ***
	문항4	1.035	0.830 ***
민주적 절차 및 의식	문항11	1.000	0.456 ***
	문항'2	2.508	1.103 ***
정치적 관심 및 정치적 자아효능감	문항14	1.000	0.710 ***
	문항15	.860	0.623 ***
	문항16	.694	0.500 ***
	문항17	1.119	0.830 ***
	문항18	1.102	0.798 ***
	문항19	1.140	0.832 ***
	문항20	.918	0.623 ***
	문항21	1.139	0.82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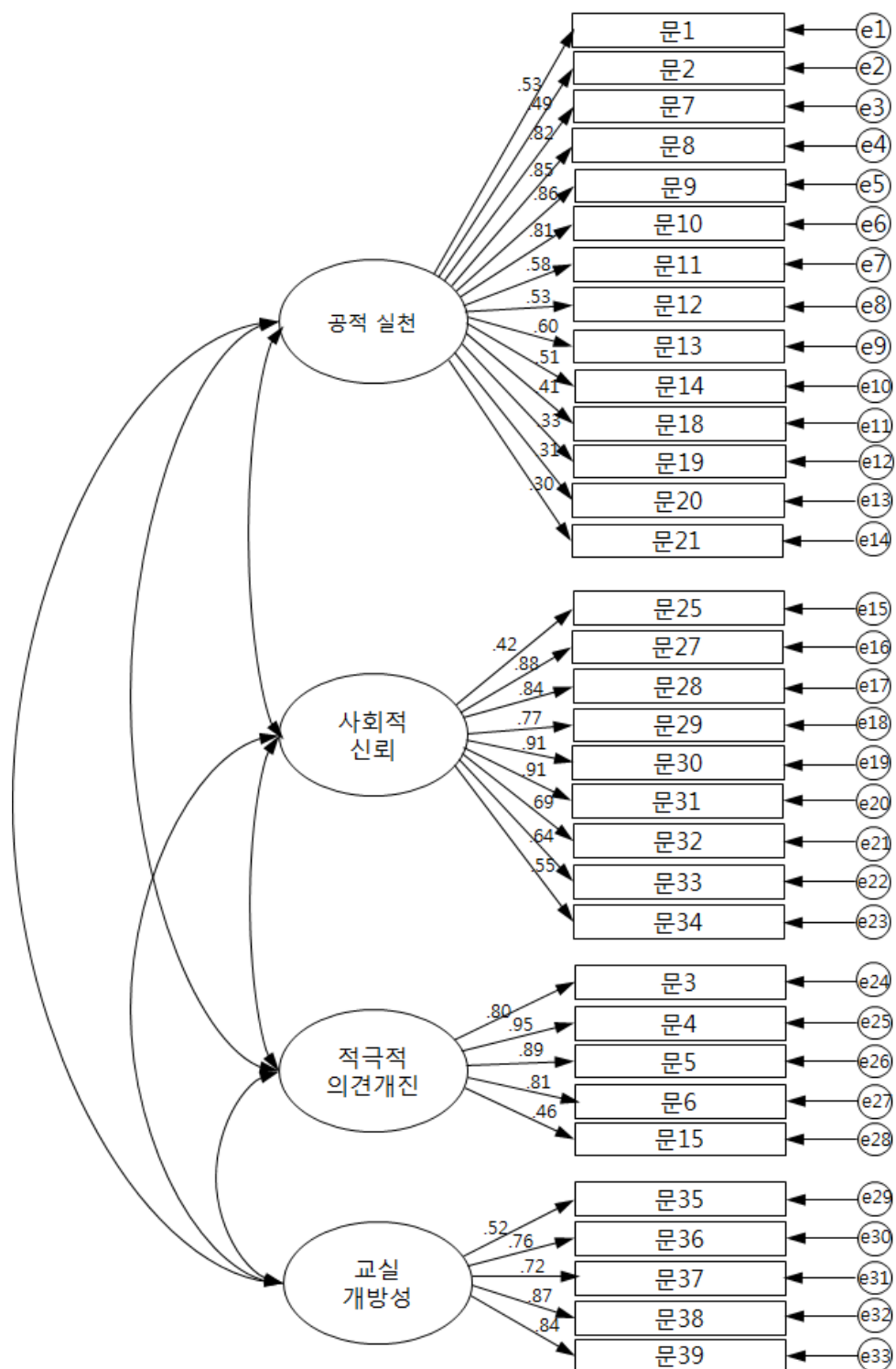
$\chi^2(df)$	CFI	NFI	TLI	RMSEA
5583.089(74)***	0.892	0.891	0.847	0.106



- 공동체시민성

변인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공적 실천	문항1	1.000	0.527 ***
	문항2	1.148	0.487 ***
	문항7	1.560	0.819 ***
	문항8	1.647	0.851 ***
	문항9	1.691	0.859 ***
	문항10	1.590	0.808 ***
	문항11	1.283	0.576 ***
	문항12	1.244	0.534 ***
	문항13	1.365	0.604 ***
	문항14	1.202	0.513 ***
	문항18	0.828	0.408 ***
	문항19	0.798	0.330 ***
	문항20	0.785	0.314 ***
	문항21	0.367	0.301 ***
사회적 신뢰	문항25	1.000	0.420 ***
	문항27	2.331	0.883 ***
	문항28	2.175	0.836 ***
	문항29	2.001	0.774 ***
	문항30	2.311	0.911 ***
	문항31	2.375	0.912 ***
	문항32	1.692	0.687 ***
	문항33	1.598	0.638 ***
	문항34	1.355	0.553 ***
적극적 의견개진	문항3	1	0.798 ***
	문항4	1.151	0.954 ***
	문항5	1.06	0.885 ***
	문항6	1.019	0.814 ***
	문항15	0.545	0.457 ***
교실 개방성	문항35	1	0.521 ***
	문항36	1.662	0.756 ***
	문항37	1.434	0.723 ***
	문항38	1.898	0.868 ***
	문항39	1.793	0.83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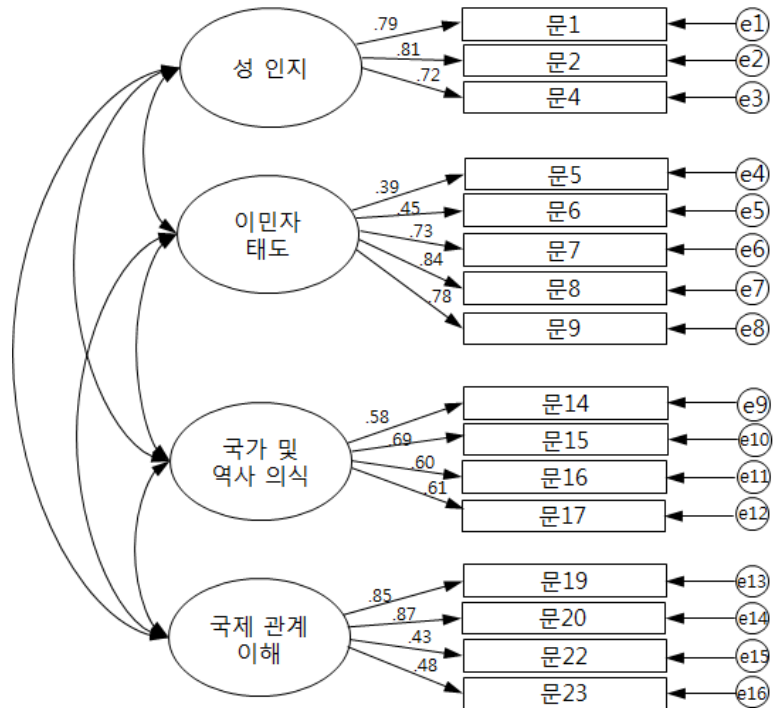
$\chi^2(df)$	CFI	NFI	TLI	RMSEA
25139.424(489)***	0.812	0.809	0.784	0.087



- 세계시민성

변인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성 인지	문항1	1	0.792 ***
	문항2	1.046	0.812 ***
	문항4	0.957	0.718 ***
이민자에 대한 태도	문항5	1	0.393 ***
	문항6	1.184	0.450 ***
	문항7	1.87	0.733 ***
	문항8	2.029	0.837 ***
	문항9	2.057	0.775 ***
국가 및 역사 의식	문항14	1	0.576 ***
	문항15	1.146	0.693 ***
	문항16	1.154	0.601 ***
	문항17	0.993	0.610 ***
국제 관계 이해	문항19	1	0.845 ***
	문항20	1.017	0.866 ***
	문항22	0.484	0.425 ***
	문항23	0.485	0.476 ***

$\chi^2(df)$	CFI	NFI	TLI	RMSEA
6189.709(98)***	0.826	0.824	0.759	0.097



2)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문항 도출

○ 생애학습역량 37개, 생활관리역량 48개, 진로개발역량 39개, 대인관계역량 46개, 사회참여역량 63개 등 총 234문항이 도출됨

역량군	하위역량	조사영역	문항수
생애학습역량	사고력	비판적 사고력	6
		감성적 사고력	3
	지적도구활용	언어능력	5
		수학 능력	5
		과학능력	7
		정보통신활용능력	4
	학습 적응성	변화수용력	2
		지적호기심	2
		학습주도성	3
	합계		37
생활관리역량	건강관리	안전 및 스트레스 관리	6
		신체관리	2
		위생관리	3
	과제관리	목표 및 계획수립	8
		수행 및 평가	4
	상황대처	중독행동	7
		폭력행동	3
		중독인식	3
		폭력회피	3
	정서조절	감정인식	2
		분노행동	2
		감정절제	2
		조절실패	3
	합계		48
진로개발역량	진로설계	자기탐색	4
		직업탐색	4
		직로준비	4
		진업가치관	3
	여가활용	여가태도	6
		여가유능감	4
		여가몰입	4
		여가만족	2
		(경험)	1
		차별화태도	5
	개척정신	도전정신	3
	합계		40

역량군	하위역량	조사영역	문항수
대인관계역량	관계형성	자기 개방성	4
		친화성	4
		의사소통	6
		공감 및 배려	4
	리더십	의사결정	4
		집단활동관리	4
		추진력	6
	협동	집단촉진	6
		팔로워십	3
		갈등문제 해결	5
합계			46
사회참여역량	개인 시민성	권리 · 책임의식	4
		민주적 절차 및 의식	2
		정치 관심 및 정치적 자아 효능감	8
	공동체 시민성	공적실천	14
		사회적 신뢰	9
		적극적 의견개진	5
		교실 개방성	5
		성 인지	3
	세계 시민성	이민자에 대한 태도	5
		국가 및 역사의식	4
		국제관계이해	4
		합계	63
합계			234

5. 논의 및 정책적 제언

1) 논의

○ 생애학습역량

- ‘사회의 변화에 맞추어 자신의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생애에 걸쳐 지속적으로 학습하는 능력’이라는 정의와 함께 사고력, 지적도구활용, 그리고 학습적응성의 하위역량 요인으로 구성되었음
- 이는 기존 생애역량과 구별되는 주요한 특성으로써 급격히 변화하는 미래사회의 특성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학습(learning)’을 통해 변화하여야 한다는 관점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보다 확보한 것이라 할 수 있음

○ 생활관리역량

- ‘자신이 삶속에서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여 자신과 자신의 삶을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라는 정의와 함께 건강관리, 과제관리, 상황대처, 그리고 정서조절 등의 하위역량으로 구성되었음
- 생활관리역량은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되며, 상호작용의 질이 이들의 역량의 수준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음
- 이러한 관점에서 청소년 시기는 주변환경의 변화에 민감하게 상호작용함으로써 인지적, 정신적 발달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생태학적 관점으로 접근하여 청소년들이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자신이 주체가 되어 자신의 생활을 주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는 역량에 초점을 두어 생활관리역량을 제안하였음

○ 진로개발역량

- ‘일생에 걸쳐 한 개인의 생애 역할, 경험, 관계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개인의 흥미와 적성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과 차별화되는 독특성을 개발하고 인생의 경험의 폭을 넓혀가며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역량’이라는 정의와 함께, 진로설계, 여가활용, 그리고 개척정신 등의 하위역량 요인으로 구성되었음
- 최근 장기간의 경제침체로 인한 청년실업률이 증가함에 따라 자기의 적성과 일치하지 않는 학습과 업무를 하면서 학교나 사회에서 부적응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면서, 청소년기의 진로개발에 대한 역량 증진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음

○ 대인관계역량

- ‘개인 또는 집단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타인들과 개방적으로 관계를 형성하고,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주도적으로 협력하여 의사소통하는 역량’이라는 정의와 함께 관계형성, 리더십, 그리고 협동 등의 하위역량 요인으로 구성되었음
- 대인관계역량은 기존의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을 타인과 관계를 형성하고 스스로 리더십을 발휘하여 협동을 통해 집단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역량으로 재개념화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음

○ 사회참여역량

- ‘청소년이 민주시민으로서 사회적 선을 위하여 타인과 협력하고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역량’이라는 정의와 함께 개인 시민성, 공동체 시민성, 그리고 세계 시민성 등의 하위역량 요인으로 구성되었음
- 사회참여역량에서는 청소년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하여 사회참여의 대상을 개인적, 공동체적, 세계시민적으로 구분하여 구성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음

○ 연구결과의 시사점

- 청소년 역량지수의 구성체계와 개념적 정의는 기존의 역량관련 연구와 달리 보편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역량으로 구성되어 그 차별성을 확보하였음
- 청소년 정책의 중장기적인 변화를 역량중심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였음
- 청소년 역량지수 구성체계와 측정도구 개발은 현재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역량을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어떠한 역량을 보다 구체적으로 신장시켜야 할지에 대한 거시적 관점에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음

2) 정책적 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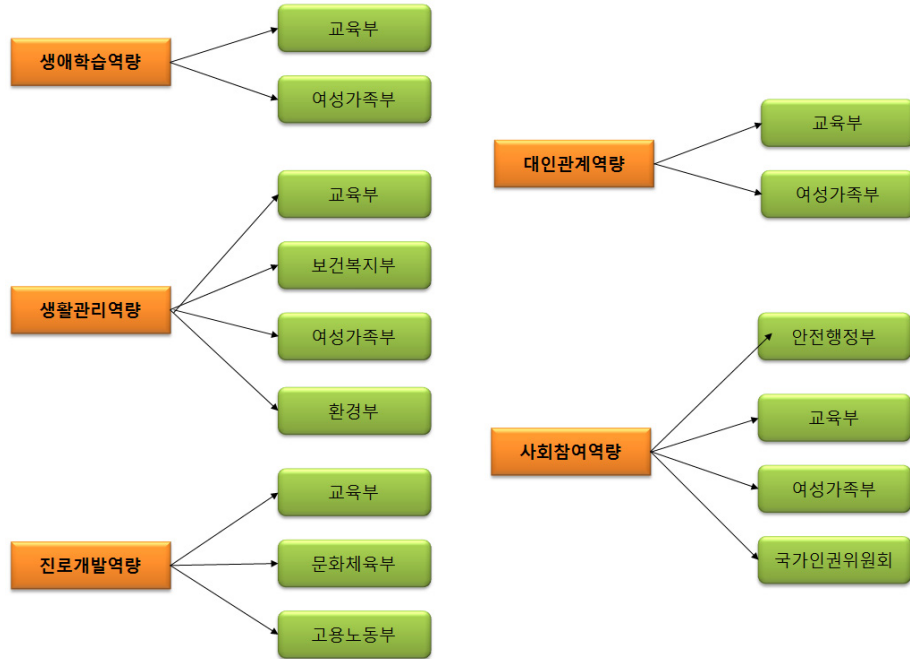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도구 개발에 따른 논의와 시사점을 바탕으로 이러한 연구결과에 대한 실천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에 대한 제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음

○ 제5차 청소년 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실행, 그리고 평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

- 청소년 정책의 기본계획에 있어 청소년 정책을 다시한번 청소년 역량지수 구성체계에 맞춰 재구성해봄으로써 현장에서의 실제적인 활용계획의 수립과 실행정책의 적용가능성, 그리고 이를 평가할 수 있는 방향성에 대한 조정(alignment)을 할 필요

- 청소년 역량지수 구성체계 및 측정도구 개발에 따라 중앙부처 및 시도단위 청소년 정책에도 적극 반영될 수 있는 전략적 방안을 제시

- 중앙부처의 청소년 관련 정책사업을 청소년 역량기반으로 재분류 및 재배치



- 청소년 역량 수준과 변화정도를 주기적으로 진단하고 이를 청소년 정책에 반영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

- 2014년 ‘청소년 역량지수 개발’ 사업 중 하나로 , 청소년역량지수(Youth Competencies Index) 법적 근거 마련’이 제시되어 있음

- 향후 법적 근거를 기초로 매년 혹은 2~3년마다 정기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청소년 역량의 변화에 대하여 시계열 분석이 가능하도록 한다면,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도구의 활용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됨

- 청소년 역량 증진을 위한 역량기반 청소년 활동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

- 청소년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앞서 진행된 평가결과를 기반으로 어떠한 역량을 보다 더 신장시켜야 할 것인가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임

- 청소년과 함께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과 사회시대적인 요구를 반영하여 합의된 청소년 역량 개발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어야 함

- 청소년 역량기반 정책 및 활동 프로그램의 성과평가 및 보상 시스템 구축
 - 청소년 역량기반 정책과제에 따른 청소년 단체나 기관, 시설 등에 지원되는 지원사업들의 기준을 재설정하고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역량에 기반한 성과달성 여부를 평가하고 이에 따른 실제적인 지원책들이 마련되어야 함
 - 특히 청소년 정책 영향 평가를 역량중심의 성과평가체제로 방향전환을 이끌어내는 노력 또한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청소년 역량에 대한 청소년 (예비)지도사의 전문성 강화 및 청소년 활동 기관 컨설팅 제공
 - 청소년 역량증진에 따른 청소년 활동과 청소년 정책이 효과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가장 일선에서 청소년들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 (예비)지도사에 대한 전문성 강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
 - 아울러 청소년 지도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원하는 해당 청소년 기관에 대한 역량관련 컨설팅이 동시에 제공되어야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음
-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를 위한 로드맵 제시



목 차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내용	6
1) 국제비교(ICCS 2016)를 위한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도구 프로토타입(prototype) 개발	7
2) 개발된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도구 프로토타입(prototype)의 신뢰도와 타당성 검증	8
3. 연구추진체계	9
II. 청소년 역량에 대한 선행문헌분석	13
1. 청소년 역량의 개념 및 특징	15
1) 청소년 역량의 개념	15
2.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의 개념 및 하위구성요소의 탐색	17
1) 생애학습역량(Life-long Learning Competency)의 개념	17
2) 생애학습역량의 하위구성 요소	20
3. 생활관리역량의 개념 및 하위구성요소의 탐색	25
1) 생활관리역량지표	25
4. 진로개발역량의 개념 및 하위구성요소의 탐색	29
5. 대인관계역량의 개념 및 하위구성요소의 탐색	34
6. 사회참여역량의 개념 및 하위구성요소의 탐색	43
III. 연구방법	45
1.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도구 개발 개요	47
2.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도구 예비 문항 개발	48
1) 생애학습역량 측정도구 예비 문항 개발	48
2) 생활관리역량 측정도구 예비 문항 개발	53

3) 진로개발역량 측정도구 예비 문항 개발	62
4) 대인관계 역량 측정도구 예비 문항 개발	69
5) 사회참여역량 측정도구 예비 문항 개발	73
3.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도구 문항 개발 예비 본 조사 개요	79
1) 조사대상 표집절계	79
2) 조사내용	83
3) 조사결과	86
4. 자료분석	89

IV. 연구결과: 청소년 역량 측정 도구 예비 문항 개발	93
1. 생애학습역량 측정도구 문항 개발	95
1) 생애학습역량 척도 문항 분석 및 정규성 평가	95
2) 생애학습역량 측정도구 문항의 구성타당도	98
2. 생활관리역량 측정도구 문항 개발	115
1) 생활관리역량 척도 문항 분석 및 정규성 평가	115
2) 탐색적 요인분석	120
3) 확인적 요인분석	130
3. 진로개발역량 측정도구 문항 개발	141
1) 진로개발역량 척도 문항 분석 및 정규성 평가	141
2) 진로개발역량 척도의 구성타당도	144
4. 대인관계역량 측정도구 문항 개발	161
1) 대인관계역량 척도 문항 분석 및 정규성 평가	161
2) 대인관계 역량 척도의 구성타당도	165
5. 사회참여역량 측정도구 문항 개발	184
1) 사회참여역량 척도 문항 분석 및 정규성 평가	184
2) 사회참여역량 척도의 구성타당도	187

6.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도구 최종 영역 및 문항 구성	197
7. 청소년 역량지수 구성 체계에 다른 개념적 특징	200
V. 논의 및 정책제언	215
1. 논의	217
2. 정책적 제언	222
참 고 문 헌	233
부 록	245

표 목 차

〈표 II-1〉 생애학습역량 관련 선행연구 정리	19
〈표 II-2〉 생애학습역량의 하위요소	20
〈표 II-3〉 생애학습역량 세부지표	24
〈표 II-4〉 생활관리역량의 구조 및 지표	28
〈표 II-5〉 진로개발역량 관련 선행연구 정리	30
〈표 II-6〉 진로개발역량의 하위요소	34
〈표 II-7〉 역량 하위요인에 대한 국내외 선행연구에서의 역량 하위요인	36
〈표 II-8〉 대인관계 역량의 하위요소(성은모 외, 2013)	38
〈표 II-9〉 대인관계역량의 구조 및 지표	43
〈표 II-10〉 사회참여 역량 측정도구의 구성요소 및 문항준거	44
〈표 III-1〉 사고력 영역 최종 문항 및 출처	50
〈표 III-2〉 지적도구활용능력 영역 최종 문항 및 출처	51
〈표 III-3〉 학습적응성 영역 최종 문항 및 출처	53
〈표 III-4〉 건강관리 문항	55
〈표 III-5〉 과제관리 문항	57
〈표 III-6〉 상황대처 문항	60
〈표 III-7〉 정서조절 문항	62
〈표 III-8〉 ‘진로설계’ 영역 문항 및 출처	65
〈표 III-9〉 ‘여가활용’ 영역 문항 및 출처	67
〈표 III-10〉 ‘개척정신’ 영역 문항 및 출처	68
〈표 III-11〉 관계형성의 초안 및 출처	70
〈표 III-12〉 리더십 초안 및 출처	71
〈표 III-13〉 협동 초안 및 출처	72
〈표 III-14〉 사회참여 역량 예비조사 측정도구 ‘개인 시민성’ 영역 최종 문항 및 출처	74

〈표 III-15〉 사회참여 역량 예비조사 측정도구 ‘공동체 시민성’ 영역 최종 문항 및 출처	75
〈표 III-16〉 사회참여 역량 예비조사 측정도구 ‘세계 시민성’ 영역 최종 문항 및 출처	78
〈표 III-17〉 모집단 구성 및 목표표본 표집설계	80
〈표 III-18〉 단순비례배분에 의한 표본크기 할당: 학교 수(225개)	80
〈표 III-19〉 사전조사 응답자 수	82
〈표 III-20〉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도구 개발 본 조사절차 및 일정	82
〈표 III-21〉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도구 조사내용	84
〈표 III-22〉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도구 조사 표집 학생수와 학급수	86
〈표 III-23〉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도구 조사 표집 학생수와 학급수	87
〈표 IV-1〉 사고력 문항분석 결과	96
〈표 IV-2〉 지적도구활용 문항분석 결과	97
〈표 IV-3〉 학습적응성 문항분석 결과	98
〈표 IV-4〉 사고력의 KMO 표본 적합성 측도와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결과	99
〈표 IV-5〉 사고력 척도의 요인구조	100
〈표 IV-6〉 사고력 척도의 요인 간의 상관	101
〈표 IV-7〉 KMO와 Bartlett의 검정 결과	102
〈표 IV-8〉 지적도구활용능력 척도의 요인구조	103
〈표 IV-9〉 지적도구활용능력 척도의 요인 간의 상관	104
〈표 IV-10〉 KMO와 Bartlett의 검정 결과	105
〈표 IV-11〉 학습적응성의 요인구조	107
〈표 IV-12〉 학습적응성 척도의 요인 간의 상관	107
〈표 IV-13〉 사고력 타당화 측정모형 분석	108
〈표 IV-14〉 사고력 타당화 측정모형의 적합도	109
〈표 IV-15〉 지적도구활용 타당화 측정모형 분석	109

〈표 IV-16〉 지적도구활용능력 타당화 측정모형의 적합도	110
〈표 IV-17〉 학습적응성 타당화 측정모형 분석	112
〈표 IV-18〉 학습적응성 타당화 측정모형의 적합도	112
〈표 IV-19〉 생애학습역량 척도 최종 문항	113
〈표 IV-20〉 건강관리 문항분석 결과	116
〈표 IV-21〉 과제관리 문항분석 결과	117
〈표 IV-22〉 상황대처 문항분석 결과	118
〈표 IV-23〉 정서조절 문항분석 결과	119
〈표 IV-24〉 건강관리의 KMO 표본 적합성 측도와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결과	120
〈표 IV-25〉 건강관리 척도의 요인구조	122
〈표 IV-26〉 건강관리 척도의 요인 간의 상관	122
〈표 IV-27〉 과제관리의 KMO 표본 적합성 측도와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결과 ...	123
〈표 IV-28〉 과제관리 척도의 요인구조	124
〈표 IV-29〉 과제관리 척도의 요인 간의 상관	124
〈표 IV-30〉 상황대처의 KMO 표본 적합성 측도와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결과	125
〈표 IV-31〉 상황대처 척도의 요인구조	126
〈표 IV-32〉 상황대처 척도의 요인 간의 상관	127
〈표 IV-33〉 정서조절의 KMO 표본 적합성 측도와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결과	128
〈표 IV-34〉 정서조절 척도의 요인구조	129
〈표 IV-35〉 정서조절 척도의 요인 간의 상관	130
〈표 IV-36〉 건강관리 타당화 측정모형 분석	130
〈표 IV-37〉 건강관리 타당화 측정모형의 적합도	131
〈표 IV-38〉 과제관리 타당화 측정모형 분석	133
〈표 IV-39〉 과제관리 타당화 측정모형의 적합도	133
〈표 IV-40〉 상황대처 타당화 측정모형 분석	135
〈표 IV-41〉 상황대처 타당화 측정모형의 적합도	135

〈표 IV-42〉 정서조절 타당화 측정모형 분석	137
〈표 IV-43〉 정서조절 타당화 측정모형의 적합도	137
〈표 IV-44〉 생활관리역량 척도 최종 문항	139
〈표 IV-45〉 진로설계 문항분석 결과	142
〈표 IV-46〉 여가활용 문항분석 결과	143
〈표 IV-47〉 개척정신 문항분석 결과	144
〈표 IV-48〉 진로설계의 KMO 표본 적합성 척도와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결과	145
〈표 IV-49〉 진로설계 척도의 요인구조	146
〈표 IV-50〉 진로설계 척도의 요인 간의 상관	148
〈표 IV-51〉 진로설계 요인과 자기탐색검사참여빈도 간의 상관	148
〈표 IV-52〉 KMO와 Bartlett의 검정 결과	148
〈표 IV-53〉 여가활용 척도의 요인구조	149
〈표 IV-54〉 여가활용 척도의 요인 간의 상관	151
〈표 IV-55〉 여가활용 척도의 요인 간의 상관	151
〈표 IV-56〉 KMO와 Bartlett의 검정 결과	151
〈표 IV-57〉 개척정신 척도의 요인구조	152
〈표 IV-58〉 개척정신 척도의 요인 간의 상관	153
〈표 IV-59〉 진로설계 타당화 측정모형 분석	154
〈표 IV-60〉 타당화 측정모형의 적합도	155
〈표 IV-61〉 여가활용 타당화 측정모형 분석	156
〈표 IV-62〉 타당화 측정모형의 적합도	156
〈표 IV-63〉 개척정신 타당화 측정모형 분석	158
〈표 IV-64〉 타당화 측정모형의 적합도	158
〈표 IV-65〉 진로개발역량 척도 최종 문항	160
〈표 IV-66〉 관계형성 문항분석 결과	162
〈표 IV-67〉 리더십 문항분석 결과	163

〈표 IV-68〉 협동 문항분석 결과	164
〈표 IV-69〉 관계형성의 KMO 표본 적합성 측도와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결과 ..	166
〈표 IV-70〉 관계형성 척도의 요인구조(패턴행렬)	167
〈표 IV-71〉 관계형성 요인 간의 상관	168
〈표 IV-72〉 리더십의 KMO 표본 적합성 측도와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결과	169
〈표 IV-73〉 리더십의 총분산	169
〈표 IV-74〉 리더십 척도의 요인구조(패턴행렬)	170
〈표 IV-75〉 리더십 척도의 요인 간의 상관	172
〈표 IV-76〉 협동의 KMO 표본 적합성 측도와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결과	172
〈표 IV-77〉 협동의 총분산	172
〈표 IV-78〉 협동 척도의 요인구조(패턴행렬)	173
〈표 IV-79〉 협동 척도의 요인 간의 상관	175
〈표 IV-80〉 관계형성 타당화 측정모형 분석	175
〈표 IV-81〉 관계형성 척도의 적합도 지수	176
〈표 IV-82〉 리더십 타당화 측정모형 분석	178
〈표 IV-83〉 리더십 척도의 적합도 지수	178
〈표 IV-84〉 협동 타당화 측정모형 분석	180
〈표 IV-85〉 협동 척도의 적합도 지수	180
〈표 IV-86〉 생활관리역량 척도 최종 문항	182
〈표 IV-87〉 개인 시민성 문항 신뢰도 검증 결과	184
〈표 IV-88〉 공동체 시민성 문항 신뢰도 검증 결과	185
〈표 IV-89〉 세계 시민성 문항 신뢰도 검증 결과	187
〈표 IV-90〉 개인 시민성 척도의 요인 구조	188
〈표 IV-91〉 공동체 시민성 척도의 요인 구조	189
〈표 IV-92〉 세계 시민성 척도의 요인 구조	190
〈표 IV-93〉 개인 시민성 타당화 측정모형 분석	191

〈표 IV-94〉 개인시민성 타당화 측정모형의 적합도	192
〈표 IV-95〉 공동체 시민성 타당화 측정모형 분석	193
〈표 IV-96〉 공동체 시민성 타당화 측정모형의 적합도	193
〈표 IV-97〉 세계 시민성 타당화 측정모형 분석	195
〈표 IV-98〉 세계 시민성 타당화 측정모형의 적합도	195
〈표 IV-99〉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도구 최종 영역 및 문항 구성	198
〈표 IV-100〉 청소년 역량지수 구성체계에 따른 개념적 특징	207

그림 목 차

【그림 Ⅰ-1】 연도별 연구추진계획	10
【그림 Ⅰ-2】 연구추진체계	11
【그림 Ⅲ-1】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도구의 개발, 조사 및 타당화 절차	47
【그림 Ⅳ-1】 사고력 스크리 도표	100
【그림 Ⅳ-2】 지적도구활용 스크리 도표	102
【그림 Ⅳ-3】 학습적응성 스크리 도표	106
【그림 Ⅳ-4】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사고력 요인구조 모형과 표준화된 요인계수	109
【그림 Ⅳ-5】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지적도구활용 요인구조 모형과 표준화된 요인계수	111
【그림 Ⅳ-6】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학습적응성 요인구조 모형과 표준화된 요인계수	112
【그림 Ⅳ-8】 건강관리 스크리 도표	121
【그림 Ⅳ-9】 과제관리 스크리 도표	123
【그림 Ⅳ-10】 상황대처 스크리 도표	126
【그림 Ⅳ-11】 정서조절 스크리 도표	129
【그림 Ⅳ-12】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건강관리 요인구조 모형과 표준화된 요인계수	132
【그림 Ⅳ-13】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과제관리 요인구조 모형과 표준화된 요인계수	134
【그림 Ⅳ-14】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상황대처 요인구조 모형과 표준화된 요인계수	136
【그림 Ⅳ-15】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정서조절 요인구조 모형과 표준화된 요인계수	138
【그림 Ⅳ-17】 진로설계 스크리 도표	146
【그림 Ⅳ-18】 여가활용 스크리 도표	149

【그림 IV-19】	개척정신 스크리 도표	152
【그림 IV-20】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진로설계 요인구조 모형과 표준화된 요인계수	155
【그림 IV-21】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여가활용 요인구조 모형과 표준화된 요인계수	157
【그림 IV-22】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개척정신 요인구조 모형과 표준화된 요인계수	159
【그림 IV-24】	관계형성 스크리 도표	166
【그림 IV-25】	리더십 스크리 도표	170
【그림 IV-26】	협동 스크리 도표	173
【그림 IV-27】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관계형성의 요인구조 모형과 표준화된 요인계수	177
【그림 IV-28】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리더십의 요인구조 모형과 표준화된 요인계수	179
【그림 IV-29】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협동의 요인구조 모형과 표준화된 요인계수	181
【그림 IV-31】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개인 시민성의 요인구조 모형과 표준화된 요인계수	192
【그림 IV-32】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공동체 시민성의 요인구조 모형과 표준화된 요인계수	194
【그림 IV-33】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세계 시민성의 요인구조 모형과 표준화된 요인계수	196
【그림 V-1】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결과에 따른 7대 정책제언 ...	222
【그림 V-2】	제5차 청소년 정책기본계획 체계	223
【그림 V-3】	청소년 역33의 유관 중앙부처 관계도	225
【그림 V-4】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추진 로드맵	232

제 I 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추진체계
3. 연구내용
4. 연구방법

제 I 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대에 들어서면서 우리 사회의 과학기술은 매우 급속하게 발전하였고 그에 따라 지식의 양도 과거와는 비교가 될 수 없을 만큼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그 결과 우리는 이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게 되었고 많은 양의 지식을 소유하기 보다는 보다 질 높은 지식을 선별하여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새로운 생활과제로 대두하였다. 즉 현대 지식기반 사회에 적응하고 보다 기능적이고 성공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인의 역량이 근대 산업사회에서 요구하던 역량과는 다르게 요구되는 시점에 서 있다. 예를 들어 과거에 비해 개인의 창의성이나 자기 주도성을 보다 중요한 개인의 능력으로 평가하는 것이 그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발맞추어 미래사회에서 핵심인력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청소년의 역량과 이를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에 대한 관심도 점차 깊어지고 있다. 즉 현재와 미래로 이어지는 삶에서 일상생활 및 직업생활 등 생활전반에 걸쳐 필요한 역량은 과연 무엇인지 규명하고 이를 육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퍼져나가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OECD DeSeCo(Defining and Selection Key Competencies) 프로젝트를 들 수 있다. 이 프로젝트는 OECD 국가들을 중심으로 개인의 성공적인 삶과 순기능적 사회로 발전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역량을 규명하고 이러한 역량들을 증진시키는 것을 생애 학습과 교육 체제의 가장 큰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미국, 영국, 호주, 벨기에 등 선진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자국의 교육과정 틀을 역량기반 학습 체계(competency-based learning system)로 전환 중에 있다(Eurydice European Unit, 2002). UNESCO 역시 브루킹스 연구소와 공동으로 배움 매트릭스(Learning Matrix)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21세기에 맞추어 교육 인식 자체에 변화를

* 이 부분은 성은모 부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 집필하였음.

피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과거 공장식 학교 교육을 통한 교육의 양적 확산에 집중하였던 것에서 탈피, 양질의 교육에 보다 집중하여 교과 중심의 교육을 넘어 소통, 협상, 창의력 등 비인지적인 21세기 기술(Noncongitive 21st century skills) 교육으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 (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 & Center for Universal Education at the Brookings Institution, 2013).

우리나라도 미래사회의 인재가 되기 위해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는 것에 교육의 중점을 둔 2009 개정 교육과정(미래형 교육과정)을 실행 중에 있다. 이는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 인재가 지녀야 할 핵심역량 증진을 위한 기초교육을 강화하는 동시에 폭넓은 인성교육을 위해 탐구활동 및 예체능 교육, 창의적 체험활동을 강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미래형 교육과정에 대한 논의와 그에 따른 비판이 없지는 않으나 핵심역량의 강화라는 측면은 OECD국가들의 교육정책에 발맞추어 나가기 위한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미래의 개인과 사회를 위해 현재 우리 청소년들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과연 그 역량이 무엇이며,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보다 크게 제기되고 있다. 물론 지금까지 국내에서 청소년 역량지표 관련 연구가 전무했었던 것은 아니다. 국내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교육과정과 관련된 핵심역량에 관한 연구를 수행해 왔으며(윤현진, 김영준, 이광우 전제철, 2007; 이광우, 민용성, 전제철, 김미영, 김혜진, 2008; 이근호, 곽영순, 이승미, 최정순, 2012),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학생역량지표 개발 연구를(김창환, 엄문영, 김기현, 김종민, 박종효, 박현정, 이광현, 이상, 2013),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청소년 관련 핵심역량 개발 연구를 수행해 왔다(김기현, 장근영, 조광수, 박현준, 2010). 이러한 연구들은 모두 핵심역량의 하위 영역들을 도출해내고 이를 육성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는 노력들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나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수행한 역량연구는 대상과 내용 부분에서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연구대상으로 청소년 중에서도 학생만을 포함하고 있으며, 내용에서도 직업기초능력이나 학교교육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청소년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전반적인 역량을 다루고 있지 못한 것이다. 한편 지금까지 수행되어 온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역량 연구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생애핵심역량을 규명하고 청소년들의 전반적인 삶에서 필요한 역량을 다루고자 하였으나 국제 수준을 비교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국제역량 지표를 우리 청소년들에게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현재와 다가올 미래에 필요한 시대적,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하였다(성은모, 최창욱, 김혜경, 오석영, 진성희,

2013). 이러한 선행연구의 제한점들은 보다 미래지향적 관점을 바탕으로 청소년들이 전 생애에 걸쳐 학교나 직업생활 뿐 아니라 모든 생활 영역에서 성공적이고 효과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역량을 규명하고 이를 측정하고자 하는 노력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 역량 연구는 단년의 연구로 그칠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한 다년간의 연구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 이는 청소년들이 여러 영역에서 성장 및 발달 단계에 있어 이들의 역량 역시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른 변화 및 발달을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연속선상의 있는 다년간의 연구는 시간이 지날수록 빠르고 다양하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필요한 역량의 하위 영역들이 명확히 규명되었는지, 하위 영역에서 수정·보완될 부분은 없는지 점검하는데 보다 도움이 될 것이다. 덧붙여 청소년에게 필요한 핵심역량들이 국내의 특성에 부합할 뿐 아니라 지구촌 사회의 시민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역량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국제 비교 연구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국내의 청소년 역량 증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는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청소년이 꿈꾸는 밝은 미래’라는 청소년 정책의 비전을 제시하며, 제 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의 핵심과제로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강화’를 내세워 청소년 역량증진 활동 활성화, 글로벌·다문화 역량강화, 청소년 인성교육 강화 등을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의 일환으로 2013년도 「청소년 역량지수 개발 연구」(성은모 외, 2013)를 실시하여 청소년 역량에 대한 지수 체계를 구성하였다. 성은모 외(2013)에 의하면, 청소년 역량을 “청소년이 현재와 미래(성인기)의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요구되는 핵심 행동특성으로서 청소년기의 발달과업에서 경험하고 충족시켜야 할 능력(지식, 기술, 태도)을 의미한다.”라고 정의하면서, 생애학습역량(사고력, 지적도구활용, 학습적응성), 생활관리역량(건강관리, 과제관리, 상황대처, 정서조절), 진로개발역량(진로설계, 여가활용, 개척정신), 대인관계역량(관계형성, 리더십, 협동), 그리고 사회참여역량(개인 시민성, 공동체 시민성, 세계 시민성) 등 5개 영역의 역량군과 15개의 하위역량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 청소년 역량지수의 구성체계는 제시하였지만, 실제적으로 청소년의 역량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구체적인 도구는 제공되지 않았다. 실제적으로 청소년 활동 현장에서 청소년 역량의 수준을 선언적으로 사용되는 수준을 넘어 보다 경험과학적인 방식으로 청소년 역량의 수준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측정도구의 개발 및 보급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상과 같은 청소년 역량 연구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제 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의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보다 구체화하고

연속적이면서 일관성 있게 수행하고 청소년의 역량을 국제적으로 비교 분석함으로써 청소년 역량을 국제적 수준으로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 및 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연구: IEA ICCS 2016’라는 정책연구과제를 발굴하여 2014년부터 2017년도 까지 진행되는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제 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의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기반으로 2013년도 시행되었던 「청소년 역량지수 개발 연구」(성은모 외, 2013)의 후속연구의 성격을 가짐과 동시에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연구: IEA ICCS 2016’의 1차년도 연구과제로써 청소년 역량을 경험·과학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도구를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2013년도 실시된 「청소년 역량지수 개발 연구」에 근거한 5가지 영역 15개 청소년 역량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도구를 개발하고 타당화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첫째, 청소년 역량지수의 국제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지구촌 사회의 시민으로서의 수준을 가늠해보고 국제사회에서 통용될 수 있는 청소년 역량 측정 도구를 개발하고 이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둘째, 청소년 역량 측정도구를 중심으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의 개발방향과 프로그램평가 방향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역량 증진을 위해 우리 사회가 개선해야 할 정책 및 제도적 부분이 무엇인지 점검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본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연구문제, 그리고 이론적 배경 분석을 통해 이번 연구에서 수행하게 될 내용은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구분되는데, ‘국제비교를 위한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도구 개발’과 ‘개발된 청소년 역량 측정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 영역이 그것이다.

연구내용 1: 국제비교(ICCS 2016)를 위한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도구 프로토타입(prototype) 개발

- 1) 국제비교를 위한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도구 개발을 위한 선행연구 분석
- 2) 국제비교를 위해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도구 개발 방법론에 대한 탐색
- 3) 국제비교를 위한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도구의 프로토타입 개발

연구내용 2: 개발된 청소년 역량 측정도구 프로토타입(prototype)의 신뢰도와 타당성 검증

- 1) 개발된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도구 프로토타입(prototype)의 타당화
- 2) 개발된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도구 검증을 위한 전국단위 조사 실시
- 3)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도구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

1) 국제비교(ICCS 2016)를 위한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도구 프로토타입(prototype) 개발

국제비교를 위한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도구 프로토타입(prototype)개발 영역에서 다루게 될 연구내용은 세 가지 주제로 구분된다.

첫째, 국제비교를 위한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도구 개발을 위한 선행연구 분석이다. 이론적 배경에 제시되었듯이 청소년 역량에 대한 연구가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청소년 역량지수를 측정하려는 관점 또한 상이하기 때문에 국가수준에서 청소년 역량지수를 측정하기 위한 검사도구의 개발에 많은 걸림돌이 되어왔다. 이는 그만큼 청소년의 역량을 측정하기란 쉬운 과제가 아니란 점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보다 체계적인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도구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역량관련 정책의 목표아래 이러한 역량의 변화가 나타났는가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청소년 역량의 목표와 체계적인 지표를 바탕으로 국제수준에서 신뢰성있고 타당성 있는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도구 개발을 위한 선행문헌분석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한다.

둘째, 국제비교를 위해 청소년 역량 측정도구 개발 방법론에 대한 탐색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청소년 역량을 측정한다는 것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중의 하나이다. 특히, 다양한 연령대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달하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들의 역량을 측정한다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보다 효과적으로 청소년 역량을 측정하기 위한 측정도구 개발에 대한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청소년 역량을 제대로 측정하고 있는지에

대한 타당도와 정확하게 측정하고 있는지에 대한 신뢰도 확보를 위해 청소년 역량 측정도구 개발방법론에 대한 탐색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셋째, 국제비교를 위한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도구 프로토타입(prototype) 개발이다. 청소년 역량 측정도구 개발방법론과 국내외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도구에 대한 선행문헌분석을 기반으로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도구 프로토타입을 개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청소년 역량개발 관련 학계전문가, 현장전문가, 그리고 실제 청소년의 의견을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도구 개발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피드백을 받음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개발과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한다.

2) 개발된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도구 프로토타입(prototype)의 신뢰도와 타당성 검증

국제비교(ICCIS 2016)를 위해 개발된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도구의 프로토타입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성 검증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다음의 세 가지 주제를 진행하고자 한다.

첫째, 개발된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도구 프로토타입(prototype)의 타당화이다. 이를 위해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도구가 역량의 개념에 맞게 타당하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검증하였다.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도구 프로토타입에 대하여 역량전문가, 청소년 학계전문가, 청소년 활동 관련 현장전문가, 그리고 초중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측정도구 프로토타입에 대한 타당화 검증을 수행하고자 한다. 특히,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도구 프로토타입의 타당화에 있어서는 내용의 타당성도 중요하지만, 청소년 활동 현장에서 실제 활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측정의 용이성도 함께 다루고자 한다.

둘째, 개발된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도구 검증을 위한 전국단위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국제적 수준의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도구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실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측정도구의 신뢰도와 타당성 등에 통계적 검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전국단위 초중고 청소년들을 모집단으로 하여 통계검증을 위한 표집샘플을 추출한 후 이들을 대상을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도구 개발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조사로 수집된 자료를 기반으로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도구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을 통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측정도구 개발을 위한 체계적인 통계적 분석 방법으로서 측정문항에 대한 평균 및 표준편차, 문항-전체 상관관계(item-total correlation),

문항 제거 시 신뢰도계수(alpha if item deleted), 그리고 정규분포(normality) 분석을 기반으로 청소년 역량지수 체계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증적 요인분석을 적용하고 한다. 이와 같이 검증된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도구를 기반으로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 부모의 특성, 그리고 가구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3. 연구추진체계

본 연구는 제 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의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기반으로 2013년도 시행되었던 「청소년 역량지수 개발 연구」(성은모 외, 2013)의 후속연구의 성격을 가짐과 동시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5개년 계획으로 구성한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연구: IEA ICCS 2016’의 1차년도 연구과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 연구는 총 5개년에 걸친 다년간의 연구로서 청소년 역량 표준을 설정하고 측정도구를 개발하여 전국 규모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역량을 측정할 뿐 아니라 국제비교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역량 수준을 보다 명확히 진단하고자 한다.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의 5개년 연구추진계획의 개요를 제시하면 [그림 I-1]과 같다.

1단계 (2014년)	목적	· 청소년 역량 표준 설정 ·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도구 개발 및 타당화
	내용	· 국내 및 해외 사례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 청소년 역량 개념화 및 지표체계 구축 · 청소년 역량지표 구성체계의 타당화 · 청소년 역량 측정도구 1차 프로토타입 개발 · IEA ICCS 2016 조사 연구기관과의 국제협력체계 구축
	방법	· 문헌연구, 2차 자료 분석, 전문가 FGI조사, 전문가협의회 · 집단검사, 출장면담조사 · 청소년 역량 측정도구 개발 타당성 조사, 통계분석
▼		
2단계 (2015~2016년)	목적	· 청소년 역량의 국제비교(PISA, PIAAC, ICCS)를 통한 청소년 역량의 현황분석 · 청소년 정책기본계획에 따른 역량중심 청소년 정책 및 역량증진 교

		· 육프로그램 개발 추진방안을 위한 실천적 전략 제시 · 역량중심 청소년 정책 및 역량증진 교육프로그램 개발
	내용	· 측정지표체계에 대한 평가와 수정 · 전국규모 조사를 통해 청소년 역량 진단 · 청소년 역량의 국제비교(PISA, PIAAC, ICCS) · 역량중심 청소년 정책체계 구축을 위한 로드맵 제시 · 청소년 발달단계에 따른 역량중심 교육프로그램 개발 방안 제시
	방법	· 문헌연구, 2차 자료 분석, 전문가 FGI조사, 전문가협의회 · 집단검사, 출장면담조사 · 전국 규모 청소년 역량 진단조사 · 청소년 역량의 국제비교분석(PISA, PIAAC, ICCS)
▼		
3단계 (2017~2018년)	목적	· 청소년 역량의 국제수준 비교 분석 · 역량중심 청소년 정책 및 역량증진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효과성 분석 · 청소년 정책기본계획에 따른 청소년 역량성과 분석
	내용	· 청소년 역량의 국제비교(PISA, PIAAC, ICCS)를 통한 청소년 역량의 현황분석 · 청소년 정책기본계획에 따른 청소년 역량성과 분석
	방법	· 문헌연구, 2차 자료 분석, 전문가 FGI조사, 전문가협의회 · 집단검사, 출장면담조사 · 전국 규모 생애핵심역량 진단조사, 통계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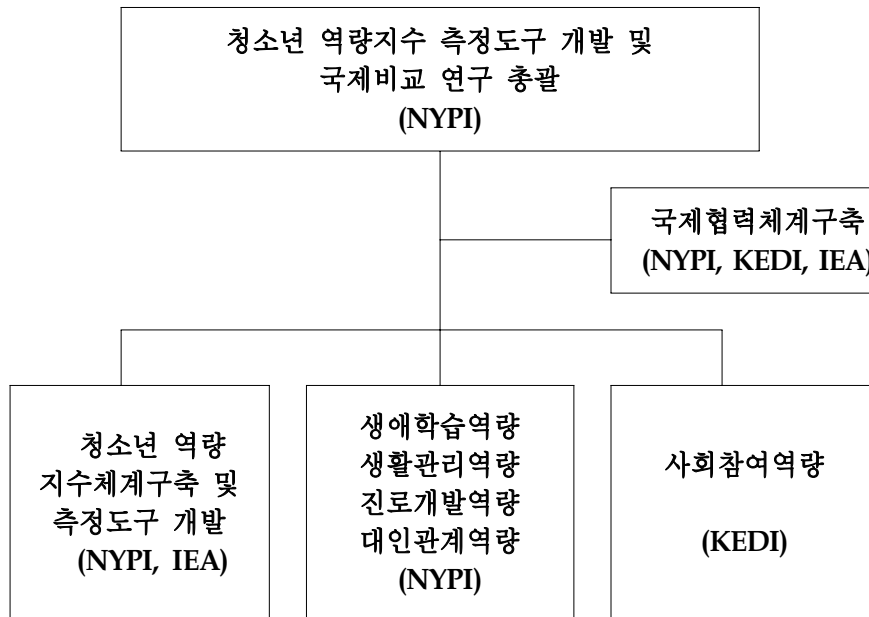
[그림 I-1] 연도별 연구추진계획

1차년도 연구과제는 ‘국제비교를 위한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도구 개발’이 주요목적이며, 2~3차년도 연구과제는 실제적으로 전국규모의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을 통해 청소년 역량의 국내외 수준을 진단하고 청소년 역량증진 및 강화를 위한 정책,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의 실천적 전략을 제시하고, 3~5차년도 연구과제는 청소년 역량지수를 연차별로 측정하여 이들의 변화정도를 측정하고 청소년 역량증진 및 강화 정책의 실행과 성과 분석을 진행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의 추진체계속에서 1차년도 연구인 본 연구목적은 ‘국제비교를 위한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도구 개발’을 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청소년 역량 진단을 목표로 하여 국내 및 국외 사례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도구에 대한 프로토타입을 개발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검증하는 연구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였다.

특히, 본 연구과제는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연구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청소년 역량의 국제비교 연구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협동연구과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2009년부터 ICCS와 지속적으로 청소년의 민주시민 사회역량에 대한 국제비교 연구를 수행하여온 한국교육개발원과 공동으로 협동연구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협동 연구로 진행되는 연구의 특성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도구 개발 및 국제 비교 연구의 총괄을 담당한다. 연구수행에 있어 청소년 역량지수 5가지 역량군(생애 학습역량, 생활관리역량, 진로개발역량, 대인관계역량, 사회참여역량) (성은모 외, 2013)에 있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생애학습역량, 생활관리역량, 진로개발역량, 대인관계역량 관련 측정 도구 개발을 담당하고, 사회참여역량이 기존 민주시민 사회역량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 사회참여역량에 대한 부분을 한국교육개발원이 담당하여 협동연구과제를 수행하고자 한다. 아울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한국교육개발원이 연구협조체계를 바탕으로 IEA와의 긴밀한 국제 협력을 통하여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도구 개발을 진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협동연구과제 추진체계를 제시하면 [그림 I-2]와 같다.



【그림 I-2】 연구추진체계

제 II 장

청소년 역량에 대한 선행문헌 분석

1. 청소년 역량의 개념 및 특징
2.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의 개념 및
하위구성요소의 탐색
3.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의 개념 및
하위구성요소의 탐색
4.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의 개념 및
하위구성요소의 탐색
5.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의 개념 및
하위구성요소의 탐색
6. 청소년 사회참여역량의 개념 및
하위구성요소의 탐색

제 II 장 청소년 역량에 대한 선행문헌분석*

1. 청소년 역량의 개념 및 특징¹⁾

1) 청소년 역량의 개념

역량(competency)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을 효과적으로 해낼 수 있는 힘이나 능력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한 개인이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특정한 상황에서 우수한 성취 결과를 효과적으로 창출해 낼 수 있는 내적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의미가 될 것이다. Dubois(1993)는 역량을 “다양한 상황에서 개인에게 주어진 과제를 효과적이고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의 집합체”로 정의하며, 이러한 역량 가운데 구성원들이 공통적으로 반드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역량을 핵심역량(core competency)이라고 정의하였다. Mirabile(1997)은 역량을 “높은 수준의 성취와 연관이 되어 있는 지식, 기술, 능력, 또는 특성”으로 정의하고 있다.

심리학에서는 McClelland(1973)에 의해 역량이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제시되었다. 그는 전통적인 지능검사가 학업성취 이외의 다양한 생활 장면에서 보이는 성공적인 수행을 제대로 예측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비판하면서 역량을 측정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성공의 원인이 되는 개인의 내적 특성을 규명한다는 그의 생각은 이후 다양한 장면에서 개인의 역량을 파악하고자 하는 연구들의 기초가 되었다.

Spencer와 Spencer(1993)는 McClelland의 역량 개념을 보다 구체화시켜 역량을 특정한 직무나 상황에서 효율적인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비교적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개인의 내재적 특성

* 이 장의 1절은 성은모 부연구위원과 백혜정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으며, 2,5절은 성은모 부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3절은 백혜정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4절은 진성희 교수(인하대학교), 6절은 협동연구과제 연구책임자 김태준 연구위원(한국교육개발원)이 집필하였으며 해당 내용의 일부를 요약정리하였음.

1) 이 부분은 성은모 부연구위원과 백혜정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 집필하였음.

(Spencer & Spencer, 1993)으로 정의하며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측정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개인의 내재적 특성을 동기(Motive), 특질(Traits), 자아개념(self-concept), 지식(knowledge), 기술(skill) 다섯 가지로 구분하였다.

역량에 대한 연구들은 평균적인 수행자에 비해 뛰어난 수행자들이 공통적으로 보이는 내재적 요소를 파악하려는 노력에서 비롯된 것으로 주로 직무현장과 관련하여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필요한 개인의 보편적인 역량을 규명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어 왔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DeSeCo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다. 이 프로젝트에서 의미하는 역량은 단순한 지식이나 기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개인의 모든 심리사회적 자원까지 포함하고 있다. 또한 핵심 역량은 개인과 사회의 성공적인 성취에 기여할 수 있는 개인의 자원으로 모든 개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Rychen & Salganik, 2001, 2002, 2003).

개인의 역량을 파악하고 측정하고자 하는 노력은 점차적으로 다양한 학문 및 사회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국내의 청소년 및 교육 분야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김기현 외(2010)는 DeSecCo의 정의에 기초하여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핵심역량을 정의하였다. 즉 “한 개인의 성공적인 삶 뿐 아니라 사회에도 기여할 수 있는 능력으로 생애발달단계에서 청소년기에 핵심적으로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를 포함하는 복합적, 종합적 능력으로 정규교육 뿐 아니라 지역사회나 가정에서도 학습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교육과정 평가원(윤현진, 김영준, 이관우 전제철, 2007)은 미래 한국인의 핵심역량과 관련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연구에서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역량을 업무 수행자가 특정한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녀야 할 지식, 기술, 태도, 경험 등의 내·외적 특성으로 정의하였으며, 핵심역량은 역량이라는 개념 안에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사회 경쟁력을 지속하기 위해 구성원들이 지녀야 할 핵심적인 지식, 기술, 태도, 경험 등 내·외적 특성의 총체라고 정의하였다. 학생이 갖추어야 할 역량을 의미한다. 한국교육개발원(김창환 외, 2013)에서는 학생역량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여기서 학생역량이란 배우는 존재로서의 학생이 “현재 사회와 미래 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학교교육을 통해 갖추어야 할 역량으로 정의”하였다. 학생역량은 학습 관련 역량(학습역량 등), 학생 생활 관련 역량(지적 역량, 공동체 역량 등), 미래 시민으로서의 역량(진로능력, 시민성 등)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청소년들의 전반적인 역량에 대한 연구 이외에 좀 더 특정한 영역과 관련된 역량연구들도 진행되었다. 일례로 윤명희, 장아름(2008)는 생활역량을 중점으로 청소년의 역량을 살펴보았는데

여기서 이들은 생활역량을 “개인이 일상생활 및 주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실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여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개인의 행동과 감정, 사고를 변화시킬 수 있는 내적, 외적인 역량”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김영인(2010)은 청소년의 시민역량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청소년의 시민역량을 청소년이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지식, 기능, 가치, 태도를 바탕으로 공공선을 신념하고 공동체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실천적인 참여능력”으로 정의하였다.

이상과 같은 역량 관련 정의들을 바탕으로 청소년 역량에 대해서는 청소년으로서의 현재 삶과 미래 세대의 구성원으로서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개인의 특성으로 정의내리고자 한다. 특히 이 연구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청소년 역량은 비단 가정 및 학교생활 뿐 아니라 생태학적 관점에서 청소년들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사회 체계와 관련된 것이며, 더 나아가 미래 사회에 성공적으로 대응하는데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 즉 공간적으로는 개인, 가정, 학교, 또래집단, 지역사회, 국가, 세계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역량이어야 하며, 시간적 관점에서는 현재 청소년기에만 필요한 역량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성인으로서 필요한 역량을 준비하는 것까지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어느 특정 영역과 관련된 것이기 보다는 모든 상황에 통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역량으로 정의하는 것이 보다 적합할 것이다.

2.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의 개념 및 하위구성요소의 탐색²⁾

1) 생애학습역량(Life-long Learning Competency)의 개념

생애학습역량이란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자신의 능력을 꾸준히 신장시키기 위해 생애에 걸쳐 지속적으로 학습하는 능력을 의미한다(성은모 외, 2013). 기술의 발달과 함께 사회의 변화가 급속도로 일어나면서 청소년들에게 이러한 사회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능력은 삶의 연속적인 과정에서 학습을 통해 개발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2) 이 부분은 성은모 부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 집필하였음.

이러한 요구에 따라 OECD는 1998년부터 2002년까지 DeSeCo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핵심역량(Key Competency)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에서는 DeSeCo 프로젝트(2006)에서 제안한 “상호작용적 도구사용 역량”, “이질적인 그룹과 상호작용 역량”, “자율적 행동 역량”의 세 가지 핵심범주를 기반으로 지적도구활용와 사고력 역량을 제안하였다(김기현 외, 2010). 지적도구활용은 “언어, 상징, 문자를 상호적으로 사용하기”, “지식과 정보를 상호적으로 사용하기”, “기술을 상호적으로 사용하기”로 구분하였고 사고력은 “창의적, 논리적 사고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의사결정, 추론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비판적 사고기술과 비판적 사고성향으로 구분하였다.

한편, 미국의 국제기관인 Partnership for 21st century skills(이하 P21)에서는 21세기의 핵심 과목을 영어, 세계 언어, 수학, 과학, 경제학 사회학 등으로 선정하며, 이러한 교과를 기반으로 그 안에서 비판적 사고력, 문제해결능력, 소통 및 협력 등의 역량을 구축할 것을 제안하였다(Greenhill, 2009) 비판적사고력 및 문제해결력의 내용에는 “효과적으로 추론하기”, “시스템 사고 사용하기”, “판단과 의사결정하기” 등이 포함된다. 또한 P21에서는 변화하는 미래사회에 필요한 기술로 “학습과 혁신 기술”, “정보미디어와 테크놀로지 활용 기술”, “생활과 직업기술”을 설명하고 있고,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으로 “유연성”과 “적응성”, “주도적 자기조절능력”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미국의 EFF(Equipped for the future) 프로젝트에서는 핵심역량 16가지를 “의사소통기술”, “의사결정기술”, “대인관계기술”, “평생학습기술”등의 4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제안하였다(Merrifield, 2000). 이 중 생애학습역량과 관련 있는 의사소통기술의 하위 역량으로서 “이해하면서 읽기”, “생각을 글로 옮기기”, “타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말하기”, “적극적으로 경청하기”, “비판적으로 주시하기”를 제안하였고, 평생학습기술의 하위 역량으로는 “학습에 대한 책임감 가지기”, “반영과 평가”, “조사를 통한 학습”, “정보와 의사소통기술 사용하기”를 제안하였다.

미국의 SCANS에서는 제안한 근로자가 갖추어야 할 직업기초능력 8개의 핵심역량을 제안하였는데 그 중 기본능력으로 기초능력, 사고력을 제시하였다. 기초능력의 하위 역량으로는 읽기능력, 쓰기능력, 수리능력, 듣기능력, 말하기능력이 제안되었고, 사고력의 경우 창의력, 의사결정력, 문제해결능력, 심미적 사물 관찰 능력, 학습능력, 합리적 사고력이 하위 역량으로 제안되었다. 직무현장역량과 관련하여 정보처리능력, 시스템능력, 기술활용능력을 보고하였다(이종범 외, 2008). 선행 연구들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 <표 II-1>와 같다.

연구	생애학습역량 관련 역량
DeSeCo (OECD)	• 도구를 상호적으로 활용하기
김기현 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지적도구활용 • 사고력
Partnership for 21st century skills	• 비판적 사고와 문제해결(효과적으로 추론, 시스템 사고 사용) • 정보활용능력(정보 접근 및 평가, 정보 사용 및 관리) • 미디어 활용 능력(미디어 분석, 미디어 생성) • 정보 통신 및 기술 활용능력(기술의 효과적 적용)
EFF (USA)	• 의사소통능력(읽기, 생각을 글로 옮기기, 타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말하기, 적극적으로 경청하기, 비판적으로 주시하기) • 평생학습능력(학습에 대한 책임감 가지기, 반영과 평가, 조사를 통한 학습, 정보와 의사소통기술 사용하기)
SCANS (USA)	• 기초능력(읽기능력, 쓰기능력, 수리능력, 듣기능력, 말하기능력) • 사고력(창의력, 의사결정력, 문제해결능력, 심미적 사물 관찰 능력, 학습능력, 합리적 사고력) • 정보처리능력 • 시스템능력 • 기술활용능력

이러한 생애역량관련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역량을 바탕으로 성은모 외(2013)의 연구에서는 생애학습역량으로 사고력, 지적도구활용능력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사고력, 지적도구활용능력과 함께 정의적 측면의 역량으로 학습적응성을 제안하였는데, 학습적응성은 학습적응성과 관련된 개념으로, 변화하는 사회에 민첩하게 반응하며 학습하기 위한 태도관련 역량이다. 21세기 사회는 끊임없이 신속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청소년들이 지식과 기술을 민감하게 수용하고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인지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정의적인 측면에서의 태도관련 역량이 함께 요구된다. 이에 성은모 외(2013)는 학습적응성을 생애학습역량의 하위역량으로 제안하였다.

2) 생애학습역량의 하위구성 요소

국내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성은모 외(2013)는 생애학습역량의 하위역량을 사고력, 지적도구 활용능력, 학습적응성으로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성은모 외(2013)의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를 토대로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도구를 개발하고자 하기에 위 연구 결과에서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생애핵심역량의 하위요인을 고찰하도록 한다.

성은모 외(2013)에서 도출된 생애핵심역량의 하위요소와 그 세부 지표는 다음 <표 II-2>와 같다.

표 II-2 생애학습역량의 하위요소

하위영역	세부지표
사고력(Thinking)	- 개념: 통합적 사고를 바탕으로 현상을 비판적 또는 감성적으로 판단하여 의사결정 및 추론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 세부지표: 통합적 사고력, 비판적 사고력, 감성적 사고력
지적도구활용(Intellectual tools)	- 개념: 언어, 상징, 문자, 지식과 정보, 기술을 상호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개인이 세상과 적극적으로 대화하며 개인의 목적에 맞게 변화를 유도하고 기술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도구로서 언어, 상징, 문자, 지식과 정보,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 세부지표: 언어능력(읽기, 쓰기, 말하기), 수리과학능력, 정보통신활용능력
학습적응성(Learning agility)	- 개념: 지적호기심을 바탕으로 새롭게 접하는 상황이나 경험을 통해 신속하게 학습하는 능력 - 세부지표: 변화수용력, 지적 호기심, 학습주도성

출처 : 성은모 외(2013). 청소년 역량지수 개발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pp59-60.

(1) 사고력 (Thinking)

사고력이란, 통합적 사고를 바탕으로 현상을 비판적 또는 감성적으로 판단하여 의사결정 및 추론하는 능력을 의미한다(진미석 외, 2007; 김기현 외, 2008; 성은모 외, 2013에서 재인용). 오늘날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청소년은 그들에게 제공되는 정보들을 적절히 종합 및 분석하여 상황에 맞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고력이 요구되며, 이에 사고력은 현대 사회를 살아가기 위한 핵심 역량이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사고력은 삶의 질과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 행복을 위한 필수 조건이기 때문에(김종순, 1998), 사고력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분야에서 관심있는 주제로 다루어져 왔으며, 사고력의 하위요인이 선행연구들을 통해 제시되었다.

선행연구들에서는 사고력의 하위역량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김기현 외 (2010)의 연구에서는 사고력의 하위역량을 인지적 영역과 정의적 영역으로 분류하여 ‘비판적 사고기술’과, ‘비판적 사고성향(체계성 포함)’을 제안하였다. P21의 경우 비판적 사고와 문제해결 역량을 제안하며 ‘효과적으로 추론하기,’ ‘시스템 사고 사용하기,’ ‘판단과 결정하기,’ ‘문제해결하기’를 하위 역량으로 제안하였다(Greenhill, 2009). 효과적으로 추론하기는 상황에 맞게 적절한 추론방법(발산적, 수렴적 사고)을 사용하는 것이고, 시스템 사고 사용하기는 복잡한 체계 속에서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해 전체를 구성하는 부분들이 서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분석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또한 판단과 결정하기는 증거, 논쟁 등을 분석하고 관점들을 파악하며 정보를 해석해 결론을 도출하고 성찰하는 과정까지를 포함하는 것이고, 문제해결하기는 익숙하지 않은 문제들을 전형적인, 혹은 혁신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 더 나은 해결안을 찾기 위해 의미있는 질문을 던지는 과정이라 정의된다. 성은모 등(2013)은 사고력의 하위역량으로 선행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통합적 사고력(시스템적 사고)과 비판적 사고력을 제안하였고, 추가적으로 감성적 사고력을 제안하였다. 감성적 사고력은 배려에 기반을 둔 의사결정을 하는 능력이다. 청소년들이 민주시민의식을 가지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실리추구 뿐 아니라 배려를 기반으로 상황과 맥락을 반영한 의사결정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감성적 사고력을 제안하였다(성은모 외, 2013).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사고력의 하위역량을 바탕으로 ‘통합적 사고력,’ ‘비판적 사고력,’ ‘감성적 사고력’을 사고력의 하위요인으로 설정하고 사고력 측정도구를 개발하도록 한다.

- ① 통합적 사고력: 사물과 현상을 바라볼 때 그것과 다른 부분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하면서 전체를 볼 수 있는 사고 능력을 의미한다(오현석 외, 2013).
- ② 비판적 사고력: 사태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그 타당성, 정확성, 신뢰성, 가치성을 평가하여 합리적인 결론을 추론하는 사고 능력을 의미한다(Beyer, 1985; Facione, 1990).
- ③ 감성적 사고력: 실리를 취하기 보다는 가치있는 일을 선택하기 위해 감성에 기반하여 사고하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예를 들어, 장애인이 만든 손지갑이 공장에서 만든 손지갑과 유사한 질이라 하더라도 그 가치를 높게 평가하여 생각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2) 지적도구활용능력(Intellectual Tools)

DeSeCo 프로젝트에서 제안한 핵심역량인 ‘도구를 상호적으로 사용하기’ 능력은 언어, 문자, 지식과 정보, 기술 등의 도구를 상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개인이 속한 세상과 대화하며 개인이 추구하는 대로 변화를 유도하고, 기술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능력을 의미한다(OECD, 2006). 도구는 개인과 사회가 소통하는 데에 필요한 매개이며, 이러한 도구의 활용을 통해 인간은 사회에 적응하고 변화를 주도할 수 있다. 도구들 중 특히 언어기술과 수리기술은 사회에서 역할을 수행하고, 개인과 사회와의 대화에 효과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필수적인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최동선, 최수정, 이진남, 2010). 언어, 수리기술과 함께 지식과 정보를 활용하는 능력 또한 청소년들이 사회에서 잘 기능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인간이 생애에 모든 영역에서 지식과 정보에 접근하고, 분석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의견을 형성하며 그것에 책임지기 위해 필요한 핵심역량이라고 할 수 있다(최동선 외, 2010).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데에 지식과 정보를 활용하는 능력 못지않게 중요한 능력은 기술을 활용하는 능력이다. DeSeCo에서 제안하는 기술 활용 능력은 빠르게 발전되는 기술에 민감하게 적응하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려고 하는 개방된 자세를 의미한다(최동선 외, 2010). 청소년들은 발전된 기술을 매일 접하고 있으며, 그 기술은 청소년들의 생애 모든 영역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Voogt와 Roblin(2010)은 21세기 역량을 정리한 연구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량은 정보통신기술활용(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이하 ICT)능력이며, 빠르게 발전하는 정보통신의 발달은 ICT능력과 함께 기술문해력(technology literacy)도 함께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P21은 21세기를 살아가기 위해 청소년들이 배워야 할 핵심 과목에 읽기와 수학, 과학이 포함되어 있으며 핵심역량으로 창의성, 비판적 사고력 등의 역량들과 함께 정보통신활용능력(ICT literacy)도 함께 제시한다. 정보통신활용능력은 정보를 검색하고 조직하고 평가하고 소통하기 위해 기술을 도구로 사용하고, 디지털 기기(컴퓨터, PDA 등)를 네트워킹과 커뮤니케이션 도구로 활용하여 정보에 접근, 활용하는 데에 사용하며, 정보기술을 사용하는 데에 필요한 윤리적, 법적인 이슈를 이해하고 적용하는 능력을 말한다(Greenhill, 2009). 이러한 선행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지적도구활용 관련 핵심 역량은 성은모 등(2013)이 제안한 하위 역량인 언어능력(읽기, 쓰기, 말하기), 수리과학능력, 정보통신활용능력과 유사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은모 등(2013)이 제안한 역량을 바탕으로 척도를 개발하고자 한다.

① 언어능력(읽기, 쓰기, 말하기): 글과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능력을 의미한다(김기현 외, 2009).

- ② 수리과학능력: 개인 및 사회생활에서 수를 사용하여 정량적인 사고와 과학적 사고를 하는 능력을 의미한다(이종범 외, 2008; 최동선 외, 2008).
- ③ 정보통신활용능력: 정보를 수집, 분석, 처리, 표현하기 위해 컴퓨터를 포함한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하는 능력을 의미한다(김기현, 2009).

(3) 학습적응성(Learning agility)

글로벌화, 기술의 급격한 발전, 등으로 인해 사회는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소년이 변화에 뒤처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정의적 영역의 역량으로 학습적응성이 기본으로 요구된다. 학습적응성(Learning adaptability)이란 새로운 상황이나 경험에 대해 지적호기심을 가지고 접근하여 신속하게 학습하는 능력을 의미하는데(오현석 외, 2013), 급변화하는 현대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태도라 할 수 있다. 즉, 학습적응성은 경험을 통해 학습하여 그 학습한 성과를 새로운 상황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학습적응성은 인간의 경험을 통해 배우는 과정에서 개발될 수 있는 능력이다(Swisher, Hallenbeck, Orr, Eichinger, Lombardo, & Capretta, 2013). 즉, 학습적응성은 인간이 변화에 적응하고 수용하면서 그 경험을 통해 주도적으로 배우며, 그 과정을 성찰하는 과정에서 개발된다고 할 수 있다. Lombardo와 Eichinger(2000)은 학습 적응성을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새로운 능력과 기술을 열심히 배우는 능력이라고 정의하며, 네 가지 요인을 도출하였다. 그 요인은 사람 적응성(people agility), 결과 적응성(result agility), 정신 적응성(mental agility), 변화 적응성(change agility)이다. 사람 적응성은 스스로를 잘 알고 경험을 통해 배우며 변화에 대한 부담을 갖지 않는 특성을 의미하며, 결과 적응성은 어려운 조건 속에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정신 적응성은 사람들이 문제를 새로운 관점으로 생각하고 복잡성과 애매모호함에 거부감을 갖지 않는 특성을 의미하고, 변화 적응성은 호기심을 갖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산하는 데에 열정이 있으며 실험적인 도전을 하는 특성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발전시켜 Swisher, Hallenbeck 과 그의 동료들은(2013) 그들의 연구에 Korn/Ferry International이 위 네 가지 요인에 자기 인식(self-awareness)를 추가하여 제시한 요인을 설명하며 각각의 요인의 특징을 정리하였다. 사람 적응성은 개방적 특성, 상황에 유연성, 갈등해결 등의 특성을 가지고, 정신 적응성은 질문이 많으며 폭넓게 인지하고 정보를 연결하는 등의 특성을 가지고, 결과적응성은 지략 있으며, 추진력이 있고,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등의 특징을 가진다.

변화적응성은 끊임없이 발전하며 실험적이고, 혁신적인 특성을 가지며, 자기 인식 특성은 성찰하며 피드백을 추구하며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등의 특성 가진다. 선행연구들을 분석한 결과, 변화에 개방적이고, 상황에 유연하며, 새로운 관점으로 생각하고, 호기심을 갖고, 실험적인 도전을 하며, 경험을 바탕으로 피드백을 추구하며 주도적으로 학습한다는 특징이 공통적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위 선행연구 결과들은 주로 성인, 그 중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성공요인을 분석한 것이기 때문에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종합 및 분석하여 청소년들이 가져야 하는 역량에 맞도록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성은모 등(2013)은 학습적응성의 하위요소로 변화수용능력, 지적호기심, 학습주도성으로 구성하여 제시하였다. 학습주도성은 미국의 EFF 프로젝트, 한국청소년의 핵심역량에서 자율적 행동의 하위역량으로 제안한 것으로 자신의 학습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고 계획, 실행, 실천하는 마음가짐을 의미한다. 변화수용능력, 지적호기심, 학습주도성은 앞선 선행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학습적응성의 요인이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 측정 가능한 요인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은모와 그의 동료들(2013)이 제시한 학습적응성의 하위요인들은 그대로 적용하여 측정도구를 개발하고자 한다.

- ① 변화수용력: 외부의 자극이나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활용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 ② 지적호기심: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을 좋아하는 성향을 의미한다.
- ③ 학습주도성: 자신의 학습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고 계획, 실행, 성찰하는 마음가짐을 의미한다.

생애학습역량과 그 하위 영역에 관한 위의 내용들을 종합하면 다음 <표 II-3>와 같다.

표 II-3 생애학습역량 세부지표

영역	하위영역	세부지표
생애학습 역량 (Life-long learning competency) 사회의 변화에 맞추어	• 사고력(Thinking) 통합적 사고를 바탕으로 현상을 비판적 또는 감성적으로 판단하여 의사결정 및 추론하는 능력	• 통합적 사고력 사물과 현상을 바라볼 때 그것과 다른 부분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하면서 전체를 볼 수 있는 사고 능력(오현석 외, 2013) • 비판적 사고력 사태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그 타당성, 정확성, 신뢰성, 가치성을 평가하여 합리적인 결론을 추론하는 사고 능력(Beyer, 1985; Facione, 1990)

영역	하위영역	세부지표
자신의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생애에 걸쳐 지속적으로 학습하는 능력		• 감성적 사고력 실리를 취하기보다는 가치있는 일을 선택하기 위해 감성에 기반하여 사고하는 능력
	• 지적도구활용(Intellectual tools) 언어, 상징, 문자, 지식과 정보, 기술을 상호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개인이 세상과 적극적으로 대화하며 개인의 목적에 맞게 변화를 유도하고 기술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도구로서 언어, 상징, 문자, 지식과 정보,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	• 언어능력(읽기, 쓰기, 말하기) 글과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능력 (김기현, 2009) • 수리과학능력 개인 및 사회생활에서 수를 사용하여 정량적인 사고와 과학적 사고를 하는 능력(이종범 외, 2008; 최동선 외, 2008)
		• 정보통신활용능력 정보를 수집, 분석, 처리, 표현하기 위해 컴퓨터를 포함한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하는 능력 (김기현, 2009)
	• 학습적응성(Learning agility) 지적호기심을 바탕으로 새롭게 접하는 상황이나 경험을 통해 신속하게 학습하는 능력	• 변화수용력 외부의 자극이나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어 활용하는 능력(미래인재역량) • 지적 호기심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을 좋아하는 성향 • 학습주도성 자신의 학습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고 계획, 실행, 성찰하는 마음가짐(take responsibility for learning) (미국 EFF)

3. 생활관리역량의 개념 및 하위구성요소의 탐색³⁾

1) 생활관리역량지표

생활관리역량이란 자신이 삶속에서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여 자신과 자신의 삶을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성은모 외 2013). 청소년들의 생활환경을 고려하여 가정, 학교,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전체 생활의 주체자로서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3) 이 부분은 백혜정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 집필하였음.

능력도 다른 역량 못지않게 중요하다. 생애역량 관련 선행연구에서는 해당 역량을 찾아보기 힘들으나 일본에서 개발한 아동역량, 청소년의 생활역량, 대학생 직업기초능력에서 관련 유사 역량을 제안한 바 있다.

일본의 아동역량의 5가지 역량 중 신체역량과 생활역량이 관련 있으며, 구체적으로 신체역량에서는 운동능력과 신체적능력, 생활역량에서는 자기관리(시간관리, 자율성, 책임, 인내심, 경제감각) 등을 제안하였다. 청소년기는 성장기에 있어 신체적 발달과 건강이 뒷받침되어야 다른 역량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관리가 가장 기본이 되는 역량이라고 볼 수 있다.

청소년 생활역량도 6개의 역량군에 22개의 생활기술을 제안하였다. 생활관리역량과 관련있는 역량으로는 자기조절역량과 상황대처역량이다. 자기조절역량의 하위 생활기술로는 감정조절기술, 신체관리기술, 시간활용기술, 합리적 소비기술을 제안하였고 상황대처역량으로는 휴대폰중독대처기술, 인터넷 중독 대처 기술, 유해물질대처기술, 폭력대처기술을 제안하였다(윤명희, 김진화, 2007). 자기조절역량과 상황대처역량은 현재의 청소년들의 생활특성을 반영한 실효성있는 역량들이라 생각되어 본 연구에도 포함시켰다.

대학생 직업기초능력 연구에서도 하나의 세부역량으로 자기관리역량을 제안하면서 ‘자신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개인적 목표를 설정,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자기조절력을 나타내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관련 선행연구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청소년들이 자신의 생활을 주체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건강과 과제를 관리하고 위험한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정서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생활관리역량의 하위역량으로 건강관리, 과제관리, 상황대처, 정서조절능력을 제안하였다.

(1) 건강관리 (Health Management)

건강관리란 자신의 건강 및 신체에 대한 기능을 정확하게 인식하여 신체를 단련하고 관리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일본의 아동역량의 신체역량과 청소년 생활역량의 하위 생활기술 중 신체관리기술을 참조하여 해당 역량을 개발하였다.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9~24세의 학생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와 학원 및 인지적인 능력을 발달시키는데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잠자는 시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간을 책상에 앉아서 생활하는 청소년들이 많다보니 가장 신체발달과 건강에 신경써야 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신체발달 및 운동능력 개발에는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아동·청소년기는 학교라는 특별한 공간을 통해서 일생동안의 건강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하고 사회화를 형성하는 성장기이다. 특히 청소년기의 흡연, 음주와 약물복용, 보호되지 않는 성행위, 신체활동의 부족과 부적절한 식습관 등은 성인기 이후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생애주기에서 이 단계에 있는 아동과 청소년이 집단적으로 생활하는 학교에서의 건강관리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김혜련, 2010).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청소년들의 신체관리가 중요함을 강조하기 위해 건강관리역량을 제안하였다. 건강관리와 관련해서는 제2차 성장기를 포함하고 있는 청소년기에는 건강 및 생리기능에 대한 기본상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신체적 발달과 함께 신체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꾸준히 운동하는 습관 또한 중요하다. 이와 함께 경제적 성장으로 인한 과잉영양섭취로 인해 상당수의 청소년들이 다이어트를 무리하게 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자신의 식습관을 현명하게 조절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건강관리역량의 하위역량으로 건강 및 생리기능에 대한 기본지식, 신체운동능력, 식습관 관리 능력을 제안하였다.

(2) 과제관리(Task Management)

과제관리를 위해서는 우선 학생 스스로 시간관리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시간을 관리한다는 것은 주어진 시간 내에서 자신의 욕구와 필요에 맞게 목표와 계획을 우선순위를 정하고 알맞게 시간을 배분하여 사용하는 것이다(이나표, 2007). 즉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시간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동안의 활동을 계획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환경과 자신을 조정하고 활동관리와 생활관리를 통하여 자신의 삶을 적극적으로 통제하는 인간의 인지적인 자기관리 전략의 일종이다(이원휘, 2000). 과제관리는 실제로 자기주도적학습과 관련이 있는데 어떤 과제에 내적흥미를 보이는 학습자는 눈에 띄는 보상이 없을 때조차도 계속해서 학습에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유능하고 총명한 자기주도 학습자들은 구체적이고 중심적인 목표와 지엽적인 목표를 위계적으로 연결하고 그 실행을 평가한다(Bandura, 1993). 과제관리 하위역량으로는 관리하는 과제에 따라 구분하기 보다는 목표설정, 계획 수립 및 실행, 자기점검 및 평가와 같이 과제관리를 하는데 요구되는 능력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3) 상황대처 (Situation handle)

상황대처란 개인 또는 사회적 문제상황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다. 예를 들면, 휴대폰이나 인터넷 중독에 대한 대처기술, 유해물질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기술, 폭력 등에 대처하는 기술 등이 포함된다(윤명희, 김진화, 2007). DeSeCo 프로젝트에서

자율적 행동 역량으로 거시적 맥락 속에서 행동하는 능력을 강조하고 있는데, 자신의 행동 패턴 및 체계를 이해하고 행동의 결과를 인지하여 그 다음 행동을 선택해야 하는 행동인지역량으로서의 특성을 가진다. 상황대처역량은 매체(휴대폰, 인터넷, 컴퓨터) 중독이나 유해물질(흡연, 음주, 약물, 대마초, 마약 등) 중독의 문제상황에서 청소년들이 자신의 행동 패턴을 인지하고 새로운 행동을 취사선택하여 대처하는 자율적 행동 역량으로 이해될 수 있다. 특히, 청소년폭력이나 유해물질(마약, 음주 등)에 대한 대처 능력은 IEA의 ICCS 2009에서도 포함되어 국제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4) 정서조절(Affective control and management)

정서조절은 자기조절의 하위 요인으로 개인의 성향과 외부 환경에 대해 인식하고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기술로(윤명희, 김진화, 2007),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외부의 반응에 대해 자신의 감정 에너지를 유용하고 사회적으로 수용되는 방식으로 표현하도록 조절하는 능력이다.

이와 같이 지금까지 기술 한 생활관리역량지표의 각 영역 개념과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역량지표 및 세부역량지표를 정리하여 제시하면 <표 II-4>과 같다.

표 II-4 생활관리역량의 구조 및 지표

역량지표	세부역량지표
건강관리	건강 및 생리기능에 대한 기본 지식
	신체운동능력
	식습관 관리 능력
과제관리	목표설정
	계획 수립 및 실행
	자기점검 및 평가
상황대처	매체중독 대처
	유해물질 대처
	유해행위 대처
정서조절	자아정체성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
	감정조절 및 통제

4. 진로개발역량의 개념 및 하위구성요소의 탐색⁴⁾

진로개발은 한 개인의 전 생애과정에서 행복하고 의미 있게 살기 위해 다양한 상황에서 자기주도적으로 경험을 선택, 계획, 준비하는 활동이다(김봉환 외, 2006). 이러한 진로개발 개념을 바탕으로 관련 선행연구에서는 진로개발역량을 “개인이 진로개발을 하는 데 필요한 역량으로서 삶의 지향점을 설정하고, 진로를 선택하고, 그러한 선택이 실제로 구현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가치와 성향”이라고 정의하였다(이지현, 2002; 류재운, 이유경, 2012: p.101 재인용).

진로개발역량은 생애역량을 포함한 다양한 역량개발 선행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표적인 생애역량개발연구인 OECD의 DeSeCo 프로젝트에서도 세 가지의 핵심역량 중 “자율적으로 행동하기”의 하위영역으로 “인생설계와 개인적 계획을 세우고 수행하기”를 포함하고 있어 진로개발역량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써 개인적으로 성공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핵심역량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수행한 학생역량의 6가지 하위 영역 중 하나가 진로역량이며 그 세부역량으로 자기이해역량, 진로탐색역량, 진로준비행동역량을 정의하였다(김창환 외, 2013).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수행한 미래 한국인의 핵심역량 10가지 중 하나로 진로개발능력을 제안하였으며(이근호 외, 2012),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수행한 직업기초능력 중 “자기개발지향영역”의 하위요소로 진로개발능력을 제안한 바 있다(주인중 외, 2012).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는 진로개발역량이 생애를 걸쳐 필요한 핵심역량이며,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학생역량 및 직업기초역량임과 동시에 미래사회에서 요구하는 핵심역량이므로 청소년 역량에 적합한 역량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 <표 II-5>와 같다.

4) 이 부분은 진성희 교수(인하대학교)가 집필 집필하였음.

표 II-5 진로개발역량 관련 선행연구 정리

연구	진로개발역량 관련 역량	
	핵심역량	하위역량
DeSeCo (OECD)	• 자율적으로 행동하기	인생설계와 개인적 계획을 세우고 수행하기
학생역량 (김창환 외, 2013)	• 진로역량	- 자기이해역량 - 진로탐색역량 - 진로준비행동역량
미래사회대비 핵심역량 (이근호 외, 2012)	• 진로개발역량	- 진로인식 - 진로탐색 - 진로설계
직업기초능력 (주인중 외, 2010)	• 진로개발능력	- 직업윤리 - 진로설계 및 실천 - 변화대응

진로개발활동은 협의적 진로개발과 광의적 진로개발로 구분될 수 있다. 협의적 진로개발활동은 진로 직업에 대한 정보 탐색 및 진로 의사결정을 하는 실질적 진로 설계(Career Design)활동을 의미한다. 광의적 진로 개발활동으로는 여가 경험을 통해 주체적으로 인생에 몰입하고 정형화되고 의도되지 않은 경험을 통해 삶의 목표를 찾는 여가활용(Leisure Use)을 포함한다. 아울러 진로는 개발하는 동시에 개척하는 것이므로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에 도전하며 위험을 기회로 인지하는 적극적 삶의 자세인 개척정신(Pioneer spirit) 역시 광의적 진로 활동의 중요한 요소로 실질적 진로 설계활동을 도와 방향성을 제시한다.

최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09)에서 시행된 청소년 진로·직업 지표조사에서는 진로개발역량을 협의적으로 정의하고, 이 정의를 토대로 하위영역을 진로선택 시 고려되는 개인적 특성(자신의 능력, 흥미 등)에 해당하는 자기이해, 진로·직업에 대한 정보, 전망 등에 대한 지식을 얼마나 많이 획득하였는가에 대한 진로·직업지식, 자신의 심리적 특성 및 진로·직업의 환경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 의사결정, 이상 세 가지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이러한 구분은 청소년 관련 후속 연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류재윤과 이유경(2012)연구에서 진로개발역량은 다양한 진로개발 상황에서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관점으로 자신을 이해하는 정도, 직업세계의 이해와 탐색, 의사결정기술이 포함된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한편 광의적인 진로개발역량에 대한 연구는 학교 내에서 교육과정을 통한 제한된 방법과

각종 검사 등을 통해 교실 내 활동으로 운영되는 것에 대한 한계를 보고하면서 가정 및 지역사회에서의 진로교육 지원체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최인재 외, 2009). 이러한 의견은 국가 정책에도 반영되어, 2013년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을 살펴보면 다양한 체험활동의 활성화를 강조하면서, 진로교육이 학교-지역사회 협력 등을 통한 체험활동 및 자기주도적 체험활동 확산을 통한 건전한 여가활동과 연계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여가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하는 지에 대한 역량이 진로를 통해 강조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정의 및 하위영역 연구를 바탕으로 진로개발역량을 청소년시기의 생애 역할, 경험, 관계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개인의 흥미와 적성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과 차별화되는 독특성을 개발하고 인생의 경험의 폭을 넓혀가며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역량(Super, 1957; 김봉환 외, 2010)이라고 정의하며 진로개발역량의 하위개념으로 진로설계, 여가활용, 개척정신으로 구분하였다.

(1) 진로설계

진로설계란 구체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합리적인 목적, 행동, 방법 등을 정하는 준비과정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진로설계를 개인이 진로를 탐색·인식하는 단계에서 얻는 진로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바탕으로 자신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 진로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며 합리적 과정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김정환, 1994).

흔히 진로 설계는 자신을 이해하고 진로에 대한 정보를 탐색하는 개념으로의 진로 성숙도 또는 진로 준비도 라는 용어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특히 Super(1955)는 진로발달이론을 근거로 단계별 진로 성숙을 살펴보았는데, 먼저 진로발달은 개인의 연령단계에서 이뤄야하는 직업적 발달과업에 대한 준비정도로 보았다. 그리고 진로성숙도는 개인의 연령에서 기대되는 행동과 현재 보이는 행동이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보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Gribons & Lohnes(1964)도 진로성숙을 진로 선택이나 계획에서의 준비정도의 개념으로 보고, 진로성숙 수준은 개인의 내적· 외적 여건에 의해 개인차가 존재하며 직업정보, 흥미, 가치 등이 진로성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진로설계를 진로개발역량의 하위 요인으로 보고 자신을 성찰함으로써 자신의 미래 비전에 따른 흥미와 적성에 부합하는 진로를 지속적으로 탐색하고 설계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김봉환, 2010). 따라서 진로설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자기탐색, 진로 및 직업탐색, 직업가치관, 진로태도를 설정하였다.

(2) 여가활용

현재까지 널리 인정되고 있는 여가의 개념은 세 가지 정도로 구분 할 수 있다. 첫째 시간 개념의 여가로 일 또는 일과 관련된 책임, 의무 등이 부여되지 않은 개인적인 시간을 의미한다. 둘째 활동 개념으로의 여가로서 자유로운 시간에 행하는 활동의 총체로 휴식의 개념을 지닌다. 그래서 여가를 “개인, 직장, 가정, 사회에서의 의무를 벗어나 휴식을 위해서 이익과 관계없이 지식과 능력을 키우고, 자발적이며 자유롭게 창조력을 발휘하는 활동의 총체”라 하였다. 셋째 의식 개념의 여가로 여가를 “물질적인 것으로부터 마음을 비운 심리적 상태 또는 경험의 상태”로 규정한다(노용구, 박원임, 2000; 심희영, 2008, p.4 재인용).

아울러 여가의 기능으로는 프랑스의 여가 사회학자인 Dumazedier(1974)가 휴식, 기분전환, 자기개발 등의 세 가지 기능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첫 번째 휴식은 육체적·정신적인 피로를 회복하는 것이다. 두 번째, 기분전환은 일상적인 경험외에 색다른 경험을 통해 일어나는 즐거움·행복감을 말하는 것으로 정신적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된다. 세 번째 자기개발(personal development)은 직무나 일상적인 생활에서의 학습이 아닌, 취미활동, 동아리 활동 등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습득되는 폭넓은 학습을 말한다.

여가와 진로에 대한 다양한 연구 중에서 Munson과 Savickas(1998)는 미국 대학생들이 여가활동을 통해 자신감과 통제감을 느낄수록 직업적 목표와 흥미, 적성 등에 있어 더 명확하게 인식한다고 하였으며 여가활동에 참여도가 높을수록 진로 선택, 진로 결정 능력, 직업에 대한 탐구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하였다. 또한 Kelly와 Kelly(1994)의 연구에서는 여가활동을 통해 새로운 기술, 지식을 습득하게 되고 이를 통해 인지적 측면에서는 자기효능감, 자기만족감을 얻게 되고 정서적 측면에서는 즐거움,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고 하였다. 이처럼 여가활동은 새로운 지식,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경험하고 느끼는 것이 청소년의 진로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다.

아울러 국내연구에서도 청소년의 여가활동이 진로발달에 영향을 준다고 밝힌 연구들이 있는데, 조한범 외(1999)는 청소년이 스스로 선택한 여가 참여 유형이 진로 성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청소년 본인이 원하는 여가활동의 참여를 통해 진로성숙의 태도 영역인 진로의 선택·결정, 정보수집 그리고 능력 영역인 자기이해, 진로 의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다. 노법래(2013)는 여가 시간이 길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질적인 차원 즉 다양한 사회·문화를 경험이 진로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서 여가시간 자체 보다는 다방면적인 여가활동들을 통해 학습하고 경험하는 것이 청소년의 진로발달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위와 같이 진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여가활동은, 현재 국가 정책적으로 다양한 활동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청소년들이 어떻게 여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는 강조되고 있지는 않다. 아울러 청소년의 여가는 학교 일정, 과제 등을 수행하는 것 이외의 시간이므로 청소년 본인의 자유의지대로 여가활동을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여가활용을 진정한 의미의 여가를 즐기고 여가경험을 통해 최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하였다(Witt & Ellis, 1987). 그리고 여가활용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여가태도, 여가유능감, 여가 몰입, 여가만족을 설정하였다.

(3) 개척정신

Miller(1983)는 개척정신을 일상생활에서 혁신을 추구하고 위험을 감수하면서 진취적으로 경쟁자의 기선을 제압하려는 성향이라고 정의하고 이를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의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먼저 혁신성은 지속적인 창의적 생각 및 새로운 성과물을 만들기 위한 연구 활동 및 기술 향상을 추구하는 성향을 의미하고, 진취성은 우월한 성과를 바탕으로 경쟁력 있는 지위로 성장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임하는 자세를 말한다. 마지막으로 위험 감수성은 역량의 발전을 위해서는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건설적인 성향을 의미한다.

이러한 개척정신은 진로개발의 적극적 자세라 할 수 있다. 청소년은 진로에 대한 불안감과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방황하게 되는데 개척정신을 통해 미래의 높은 불확실성과 위험을 유연하게 인식하고 이를 극복할 새로운 재능을 개발하고 유지하는 태도야말로 진로 개발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또한 개척정신은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으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역동하는 시장에서 위기를 기회로 인지하고 새로운 것을 창출해내는 기업가의 의지와 활동이라 할 수 있고(김주미 외, 2013), 이는 실제 직업세계에서 필요한 진로 생애역량이므로 진로 개발 단계에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개척정신을 예측 불가능한 환경 속에서 위기를 기회로 인식하여 새로운 가능성으로 인지하며, 이를 관리, 조직, 개발시키려는 태도와 능력이라고 정의하였다(김경훈 외, 2012). 개척정신을 측정하는 지표로 차별화 태도, 도전정신, 위험감수, 인내심을 설정하였다(Covin & Slevin, 1986; Miller, 1983).

이와 같이 지금까지 기술 한 진로개발역량지수의 각 영역 개념과 이를 측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측정문항을 정리하여 제시하면 <표 II-6>과 같다.

표 II-6 진로개발역량의 하위요소

하위역량	개념 및 세부지표
진로설계	· 개념 : 자신을 성찰함으로써 자신의 미래 비전에 따른 흥미와 적성에 부합하는 진로를 지속적으로 탐색하고 설계할 수 있는 능력 · 세부지표 : 자기탐색, 직업탐색, 직업가치관, 진로태도
여가활용	· 개념 : 진정한 의미의 여가를 즐기고 여가경험을 통해 최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능력 · 세부지표 : 여가태도, 여가유능감, 여가몰입, 여가만족
개척정신	· 개념 : 예측 불가능한 환경 속에서 위기를 기회로 인식하여 새로운 가능성으로 인지하며, 이를 관리, 조직, 개발시키려는 태도와 능력 · 세부지표 : 차별화태도, 도전정신, 위험감수, 인내심

5. 대인관계역량의 개념 및 하위구성요소의 탐색⁵⁾

직업 교육, 기업교육 분야에서 한정적으로 논의되어 온 ‘역량’이라는 개념은 인간의 삶을 보다 윤택하게 하기 위한 개념으로 확장되어 왔으며(성은모 외, 2013: pp.14-15), 현재는 다양한 영역에서 역량의 개념이 도입되어 연구되고 있다. 한편, 국가정책적인 차원에서 인간이 개발 가능한 사회적 자원이라는 관점에서 사회구성원의 역량을 증진시켜는 시도, 예컨대 OECD의 DeSeCo 프로젝트 등이 실시되었다(성은모 외, 2013: p15). 우리나라에서는 성인과 관련해서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에서 OECD와 협력하여 성인들의 평생학습과 직업능력개발정책 수립을 위해 기초 작업으로 총 25개국이 참여하는 OECD의 PIAAC(Programme for the International Assessment of Adult Competencies: 국제성인역량조사)프로젝트가 실시되고 있으며(임언 외, 2011), 청소년과 관련해서는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에서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강화’를 핵심과제로 선정하여 청소년의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관계부처합동, 2012: p40). 이렇듯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인간의 ‘역량’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특히 성장하고 있는 세대인 청소년의

5) 이 부분은 성은모 부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 집필하였음.

미래지향적 잠재력 개발이 강조되고 있다.

청소년역량은 “한 개인의 성공적 삶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기여할 수 있는 능력으로 생애발달단계에서 청소년기에 핵심적으로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를 포함하는 복합적, 종합적 능력으로 정규교육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나 가정에서도 학습될 수 있는 것(김기현 외, 2008: p89)”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청소년역량에 대한 하위요인에 대해 국내외 선행연구들에서는 <표 1>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김기현 외(2008)에서는 DeSeCo의 체계를 근거로 하여 청소년의 생애핵심역량을 ‘지적 도구 활용’, ‘사회적 상호작용’, ‘자율적 행동’ 등 세 가지를 제시하였으며, 한국교육개발원(2013)에서는 학생역량의 핵심요소로 ‘신체역량’, ‘정신역량’, ‘지적역량’, ‘진로역량’, ‘대인관계역량’, ‘시민역량’등을,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09)의 연구에서는 대학생 직업기초능력의 영역으로 인지적 요소(의사소통, 자원·정보·기술의 활용, 종합적 사고력, 글로벌 역량), 비인지적 요소(대인관계 및 협력, 자기관리) 등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국외의 역량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미국의 EFF(The National Institute for Literacy’s Equipped for the Future)프로젝트에서는 역량의 하위요소로 의사소통기술, 의사결정기술, 대인관계기술, 평생학습기술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김기현, 2010), 영국의 FFU(Further Education Unit)에서는 학생들이 성인으로서의 삶을 성공적으로 영위하고 풍부한 직업기회를 가지는데 필수적이라고 여겨지는 핵심역량을 총 10가지, 즉 개인적 능력, 산업·사회·환경에 대한 연구능력, 의사소통능력, 사회적 능력, 수리능력, 과학과 공학능력, 정보공학능력, 창조적 개발능력, 실천능력, 문제해결능력 등으로 제시하였고, 일본에서는 아동역량척도를 인지역량, 신체역량, 사회역량, 생활역량, 종합적 자기평가역량 등 5가지로 제시하였다(김기현, 2010).

위와 같이 국내외 아동 및 청소년 역량 관련 조사 및 연구들에서 분류한 역량의 하위요인들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대인관계 역량 혹은 이와 유사한 개념인 사회적 역량을 중요한 역량으로 지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내외 선행연구에서 대인관계역량의 주요 하위요인들로 김기현 외(2008)의 연구에서는 관계지향성, 사회적 협력, 갈등 관리 등을, 한국교육개발원(2013)에서는 관계형성역량, 협동력, 갈등해결역량을,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09)에서는 정서적 유대, 협력, 중재, 리더십, 조직에 대한 이해를, EFF에서는 협력, 지지와 영향, 갈등해결과 협상을, 영국 EFU에서는 집단내 작업, 분석과 평가, 역할 확인, 집단의 범주를, 일본의 아동역량척도에서는 자기개방성, 우호성, 협조성, 사회적 교류, 친구관계 등이 포함된다고 밝히고 있다(<표 II-7>참고).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본다면, 대인관계역량은 성은모 외(2013)의 연구에서 정의된 바대로 “타인과 관계형성하는 개인 내적인 특성에서 비롯하여 타인과 협동하고 집단의 갈등문제

를 해결하는 과정에 대한 영향력까지 포함하고 있는 사회적 능력”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사회에서 자신의 능력에 기여하며, 다양한 역량을 갖춘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개인이 타인과 공감하며 원활한 상호작용을 하며, 공동체를 위해 협력하고, 혹은 갈등이 생겼을 때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함을 시사한다.

표 II-7 역량 하위요인에 대한 국내외 선행연구에서의 역량 하위요인

역량 관련 연구	하위요인
김기현 외(2008)의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 지적 도구 활용 : 언어·상징문자, 지식·정보, 기술 · 사회적 상호작용 : 관계지향성, 사회적 협력, 갈등 관리 · 자율적 행동 : 거시적 맥락에서 행동하기, 목표 및 과제를 수립하고 실천하기, 권리와 이익의 한계를 알고 요구하기 · 사고력 : 비판적 사고력, 비판적 사고성향
한국교육개발원(2013)의 학생역량	· 신체역량 : 체력, 체격, 영양 · 정신역량 : 정신건강역량, 자율역량, 긍정적 자아역량 · 지적역량 : 창조적 역량, 정보역량, 학습역량 · 진로역량 : 자기이해역량, 진로탐색역량, 진로준비행동역량 · 대인관계역량 : 관계형성역량, 협동력, 갈등해결역량 · 시민역량 :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이해역량, 사회참여역량, 규칙준수역량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09)의 대학생 직업기초능력	· 인지적 요소 - 의사소통 : 듣기, 토론과 조정, 읽기, 쓰기, 말하기 - 자원·정보·기술의 활용 : 자원, 정보, 기술 - 종합적 사고력 : 평가적, 대안적, 추론적, 분석적 사고력 - 글로벌 역량 : 외국어능력, 글로벌 환경에 대한 노출, 다문화 이해 및 수용능력 · 비인지적 요소: - 대인관계 및 협력 : 정서적 유대, 협력, 중재, 리더십, 조직에 대한 이해 - 자기관리 :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목표 지향적 계획수립 및 실행능력
미국의 EFF	· 의사소통기술 :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관찰 · 의사결정기술 : 수리력, 문제해결력, 계획 · 대인관계기술 : 협력, 지지와 영향, 갈등해결과 협상 · 평생학습기술 : 학습책임감, 반영과 평가, 조사를 통한 학습, 정보 및 의사소통기술의 사용
영국의 FFU(Further Education Unit)	· 개인적 능력 : 개인적 발달, 진로발달, 도덕과 윤리 · 산업·사회·환경에 대한 연구능력 : 일의 세계, 정치적, 경제적, 법적, 사회적 고려사항

역량 관련 연구	하위요인
	· 의사소통능력 :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의사소통과 해석 · 사회적 능력 : 집단 내 작업, 분석과 평가, 역할 확인, 집단의 범주 · 수리능력 : 수리개념, 공간개념 · 과학과 공학능력 : 과학과 공학의 이해, 과학과 공학을 문제에 적용, 과학, 공학 · 정보공학능력 : 자료 처리, 정보 공학의 응용 · 창조적 개발능력 : 창조적 과정의 인식, 창조적 과정의 적용, 중요한 설비의 개발 · 실천능력 : 직무에 적절한 능력, 실행능력, 수행평가 · 문제해결능력 : 탐색, 개발
일본 역량척도	· 인지역량 : 감각 및 지각능력, 언어능력, 사고능력, 주의력, 대상인지 능력, 기억력, 학습능력, 계획능력 · 신체역량 : 신체적 형태, 생리적 기능, 운동능력, 신체적 건강, 신체적 행동 · 사회역량 : 자기개발성, 우호성, 협조성, 사회적 교류, 친구관계 · 생활역량 : 의지 및 의욕, 자기관리, 성실성 · 종합적 자기평가역량 : 정서적 안정, 자신감

국내외 선행연구에서 밝힌 대인관계역량에의 하위요소는 앞서 간략히 살펴보았다. 성은모 외 (2013)의 연구에서는 국내외 선행연구의 결과를 종합하여 <표 II-8>와 같이 대인관계역량의 하위요소를 ‘관계형성(Relationship building)’, ‘개인 리더십(Self-Leadership)’, ‘협동(team work)’ 등 세 가지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이 연구는 성은모 외(2013)의 「청소년 역량지수 개발 연구」의 연구를 토대로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도구를 개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바, 이 절에서는 성은모 등(2013)이 밝힌 대인관계역량의 하위요소를 기준으로 하여 관련 선행연구를 고찰하도록 하겠다.

표 II-8 대인관계 역량의 하위요소(성은모 외, 2013)

하위요소	개념 및 세부지표
관계형성	· 개념 : 타인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로 협동하며, 가족, 교우, 사회를 신뢰하여 개방적인 태도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역량 · 세부지표 : 자기개방성, 친화성, 의사소통, 공감 및 배려
리더십	· 개념 : 개인의 삶에 대한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의 맥락적 상황을 파악하여, 효과적, 효율적으로 일이 수행될 수 있도록 가치로운 의사결정을 하여 추진하는 역량 · 세부지표 : 의사결정, 집단활동 관리, 추진력
협동	· 개념 : 공동의 목표를 위해 집단 구성원들과 협력하여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집단 구성원이 원활하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집단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 · 세부지표 : 집단 촉진, 팔로워십, 갈등문제 해결

출처 : 성은모 외(2013). 청소년 역량지수 개발 연구. 서울: 청소년정책연구원. p.59-60.

(1) 관계형성

관계형성역량은 다른 사람과 교류하는 과정에서 친밀한 관계 형성하고 유지하는 기술로(윤명희, 김진화, 2007, 성은모 외, 2013: p91에서 재인용), 대인관계의 기초가 되며,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대체로 관계형성역량은 애착이론에 근거할 때 아동 초기에 부모와의 상호작용으로 그 역량이 형성이 되며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안정적인 속성을 가진다고 알려져 있으나(김미숙, 조준범, 2014), 일부의 연구들에서는 노력이나 충분한 교육, 상담을 통해, 즉 개인적 노력과 환경개선을 통해 관계형성역량 증진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기도 하다(김미숙, 조준범, 2014; 남상인, 김영빈, 황매형, 정성경, 2013; 이해경, 연은경, 김혜원, 2014; 장석진, 연문희, 2009).

타인과의 관계형성을 위해 선행연구들에서는 다음과 같은 능력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전남순과 권일남(2012)은 타인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자신개방을 통해 자신을 인식하고 자신을 타인에게 알리며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듣고 자신의 감정을 적절히 전달하는 의사소통 과정을 통해 공동체 내에서 협력하고 적응할 수 있는 대인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고 보았다. 다시 말해 자기개방성, 타인이해 및 수용, 의사소통능력 등이 타인과의 관계형성에 필요한 요소라고 본 것이다. 또한 Buhrmester, Furman, Wittenberg와 Reis(1988)은 처음관계맺기

(initiation), 권리주장(assertion of personal rights and displeasure with others), 자기노출(disclosure), 정서적 지지(emotional support), 대인갈등 다루기(conflict management)등을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핵심적 다섯 가지 요소라고 보았다. 처음관계맺기는 타인과의 관계 및 상호작용을 시작하는 능력, 권리주장은 자신의 권리나 불쾌감을 타인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능력, 자기노출은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타인에게 개방 및 노출할 수 있는 능력, 정서적 지지는 타인의 감정을 정서적으로 지지하며 공감하는 능력, 대인갈등 다루기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원활히 해결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된다.

한편, 김태준, 윤혜경(2008, pp13-14)의 연구에서는 개인이 가족 구성원, 친구, 이웃과 개인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관리하는 관계지향성 역량의 필수적인 요인으로 감정이입, 즉 타인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생각하는 능력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보았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관계지향성을 측정할 때 개인의 적극적 경청 능력, 공감 능력, 도움에 대한 태도 등이 어떠한 지를 측정하였다. 김창환 외(2013: p55, 59)의 ‘학생역량 지수 개발’ 연구에서는 관계형성역량은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역량으로 간주하고, 여기에 타인을 공감하고 수용하는 능력, 친구, 교사, 부모와 긍정적 관계를 맺고 유지할 수 있는 능력, 다른 사람들과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이야기하고 교류할 수 있는 능력, 즉, ‘공감능력 및 수용성’, ‘관계역량’, ‘의사소통역량’이 포함된다 고 밝혔다.

이상의 맥락에 근거할 때, 청소년들이 가족, 교사, 친구, 이웃 등 타인과의 친화적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알리고 보여줄 수 있는 능력(자기개방성), 타인을 신뢰하고, 긍정적으로 대하며, 적극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능력(친화성), 상대방의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듣고, 민감하게 반응하며, 자신의 생각과 감정, 의견 등을 표현 및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의사소통 능력), 타인의 관점을 수용하고,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능력(공감 및 배려) 등이 필요하다고 요약할 수 있다. 성은모 외(2013: pp91-95)의 연구에서도 관계형성의 하위지표를 이와 동일하게 밝혔는데, 친화성에 대한 개념은 다소 차이가 있다. 성은모 외(2013: p92)에 따르면, “친화성은 대부분 사람들이 자신에게 정당하게 대우해준다고 생각하는 성향”이라고 밝혔으나, 이보다는 앞서 기술한대로 타인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관계형성을 위해 타인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행동 혹은 성향이라고 정의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여겨진다.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근거로 개념화된 관계형성역량의 하위요소에 초점을 두고 관계형성역량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2) 리더십

리더십은 본래 비즈니스 분야에서 주로 사용되는 개념으로 인식되어 왔으나(김언주, 심재영, 2005), 최근 들어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리더십의 개념을 도입하여 사용되고 있으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 분야에서도 청소년의 리더십 발달을 강조하는 연구(김정대, 2001; 엄완용, 2007; 이채식, 2005; 최창욱, 2001; Anderson & Kim, 2009; Seevers & Dormody, 1995)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청소년기의 리더십 발달이 성인기가 되었을 때에 조직에서 요구되는 리더십 발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이채식, 최영창, 2007). 이러한 관점에서는 청소년기의 긍정적 리더십 발달이 상당히 중요함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청소년의 의사결정의 힘과 결과에 대한 책임감을 인정하는 환경 등을 조성할 것을 제안한다(Farzenhkia, 2000, Anderson & Kim, 2009에서 재인용).

그렇다면 리더십이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리더십은 “사람들이 집단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자발적이고 열성적으로 노력하도록 그들에게 주는 영향력, 기술 또는 과정(김정대, 2001, p27)”, “타인과 관계를 잘 형성하고 협동하며 집단 내 갈등을 조정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역량(DeSeCo, 2002, 성은모 외, 2013: p93에서 재인용)”으로 정의된다. 한편, 이채식(2005)은 청소년 리더십기술을 “청소년이 원만하게 다른 사람들과 협동하며, 자기 자신에 대해 이해하며,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학습을 해나가며, 리더로서 역할수행을 해나가는 능력”으로, 성은모 등(2013: p93)은 “집단 내에서 개인이 삶에 대한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의 맥락적 상황을 파악하여, 효과적, 효율적으로 일이 수행될 수 있도록 가치로운 의사결정을 하여 추진하는 역량”으로 정의하고 있다.⁶⁾ 이러한 리더십에 대한 다양한 정의 등을 볼 때, 리더십은 집단 혹은 공동체 내에서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적절한 의사결정을 하고, 집단구성원들 간의 협력을 주도적으로 도모하며, 다양한 전략을 구상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역량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또한 리더십은 집단 내에서 발휘되는 개인의 역량으로 주로 개인 대 개인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관계형성역량과는 차별화되는 대인관계역량이라고 볼 수 있다.

국내의 선행연구에서는 청소년 리더십의 하위요소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김동일 등(2009)

6) 성은모 등(2013)의 연구에서는 리더십이 아닌 개인리더십(self-leadership)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개인리더십의 하위지표인 의사결정, 집단활동 관리, 추진력을 집단 내에서 개인이 발휘하는 역량으로 정의하고 있어, 개인리더십이 아닌 리더십으로 용어를 수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참고로 개인리더십은 “스스로를 리드하는 데 필요한 행동이나 사고와 관련된 일련의 전략, 즉, 스스로에 대한 영향력 행사과정(이정순, 2006)”으로 정의된다.

의 연구에서는 대학생에게 요구되는 핵심역량의 하나로 리더십역량을 지적하며, 이에 의사결정 능력, 추진력, 전체조망능력, 도전정신 등이 포함된다고 보았다. 이정순(2006)은 청소년 리더십 기술의 하위영역으로 의사결정 능력, 커뮤니케이션 기술, 조직관리, 인간관계, 그룹활동, 학습능력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채식과 최영창(2007)은 청소년 리더십 기술이 일상생활 속에서 가정, 학교, 친구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경험을 통해 배울 수 있는 능력이라고 밝히며, 커뮤니케이션, 의사결정, 인간관계, 문제해결, 학습능력, 자기이해, 조직관리/그룹활동 등을 하위요소로 제시하였다. 한편, Seeveers, Dormody와 Clason(1995)는 Youth Leadership Life Skills Development 척도를 제시하면서, 청소년 리더십 기술의 하위요인으로 커뮤니케이션, 의사결정, 인간관계, 학습능력, 조직관리, 자기이해, 그룹활동 기술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국내의 선행연구를 검토해본 결과, 관계형성 역량과 일부 요인들이 유사함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요인을 제외한 리더십의 핵심적 요소를 제시하면 의사결정, 조직관리, 그룹활동 기술, 추진력 등으로 요약된다. 이는 성은모 등(2013)의 연구에서 제시한 리더십의 하위요인인 의사결정, 집단활동 관리, 추진력 등 세 가지 요소와 유사하다.

따라서 상기에서 밝힌 리더십의 하위요인에 중점을 두고 척도를 구성하고자 한다. 또한 리더십이 집단 내에서 발휘되는 역량을 강조하고 있는 바, 청소년이 속한 집단, 예컨대 학급 내의 소그룹, 학급활동, 동아리, 혹은 청소년 단체 등에서 활동할 때의 자신이 속한 집단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의사결정하는 능력, 집단활동을 관리하는 능력,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고 추진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척도를 개발하고자 한다.

(3) 협동

리더십과 마찬가지로 경영학의 조직관리 분야에서 주로 연구되어 오던 협동(team work)의 개념은 조직뿐만 아니라 개인의 성공적인 삶을 이끄는 역량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예컨대, DeSeCo에서는 생애핵심역량 중의 하나로 ‘이질적 집단과 상호작용하기’를 제시하며, 그 하위요소로 타인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맺고 협력하는 능력을 꼽았으며(김기현 외, 2010), 윤명희와 김진화(2007)도 청소년이 자신의 삶을 책임지며 성공적인 생활인으로 성장해나가기 위해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매너를 갖추고 봉사, 참여, 협력하는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고 보았다. 즉, 청소년이 공동체 내에서 타인과 협력하며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개인의 삶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협동(team work)은 “공동의 목표를 위해 집단 구성원들과 협력하여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집단 구성원이 원활하게 역할을 수행할 있도록 집단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성은모 외, 2013: p93)”으로 정의되며, 윤정현(1999)은 “일반적으로 조직구성원이 조직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각각의 역할에 따라 책임을 다하고 협력적으로 행동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협동역량은 앞서 밝힌 리더십 역량과는 다소 차이가 난다. 협동역량이 개인의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내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리더십은 이와는 상반되게 청소년이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주도적으로 조직을 이끌어가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다.

성은모 등(2013)은 협동역량에 ‘집단촉진’, ‘팔로워십’, ‘갈등문제 해결’이 주요 요인으로 포함된다고 밝혔다. 집단촉진은 “구성원을 격려하고 권한을 부여하며 자신감을 불어넣어 줌으로써 자신의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역량(성은모 등, 2013: p94)”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테면 구성원의 장점이나 능력을 적극적으로 알려준다든지(윤명희, 김진화, 2007), 공동체 활동을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해주거나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능력(Avolio & Bass, 1995)등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팔로워십은 “리더와 함께 집단의 비전과 목적을 공유하고, 집단 내에서 실질적 역할을 수행하고, 리더의 파트너로서 집단의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역량(성은모 외, 2013: p94)”을 말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집단 내에서 타인과 의견을 조화롭게 이루며 활동을 하고(이석재, 장유경, 이현남, 박광엽, 2006), 구성원을 도우며 일을 수행하는 능력(전명순, 2012), 개인의 의견이 집단에서 결정된 의견이 다소 다를지라도 그 의견을 수용하고 따르는 능력(윤명희, 김진화, 2007)등이 이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갈등 문제 해결은 “구성원들에게 집단 협동 진행에 관한 최신의 정보를 제공해주고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여 집단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성은모 외, 2013: p94)”으로, 집단 내에서 발생한 문제와 관한 지식 혹은 정보들을 구성원과 공유하고(한국교육개발원, 2006),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및 내용을 구성원과 공유하는 능력(김문주, 2010), 문제점을 함께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하는 것(한국교육개발원, 2006) 등이 갈등 문제 해결 역량을 설명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논의한 바를 기초로 하여 대인관계 영역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구성하고자 한다.

이와 같이 지금까지 기술 한 대인관계역량지표의 각 영역 개념과 이를 측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측정문항을 정리하여 제시하면 <표 II-9>과 같다.

표 II-9 **대인관계역량의 구조 및 지표**

역지표량	세부역량지표
관계형성	자기개방성
	친화성
	의사소통
	공감 및 배려
리더십	의사결정
	집단활동 관리
	추진력
협동	집단 촉진
	팔로워십
	갈등문제 해결

6. 사회참여역량의 개념 및 하위구성요소의 탐색⁷⁾

해당 이론적 배경의 자세한 내용은 협동연구과제 김태준 (2014). 청소년 사회참여역량 지수 측정도구 개발 편에 기술되었습니다.

7) 이 부분은 협동연구과제 연구책임자인 김태준 박사(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가 책임집필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협동연구 보고서 김태준 (2014)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도구개발 및 국제비교연구 I: IEA ICCS 2015-청소년의 사회참여역량’을 참고바람.

표 II-10 사회참여 역량 측정도구의 구성요소 및 문항준거 (김태준, 2014에서 재인용)

범주	구성요소	문항준거
1. 개인 시민성	가. 권리 · 책임의식	1) 정치적 권리
		2) 공공질서 의식
		3) 사회적 도움
		4) 법질서 의식
	나. 민주적 절차 및 의식	1) 민주적 절차
		2) 부패(독점 · 이권 등)
다. 정치 관심 및 정치적 자아 효능감	1) 정치 · 사회적 관심	
	2) 정치적 자아 효능감	
2. 공동체 시민성	가. 상대입장 이해	1) 가치갈등 및 수용
	나. 사회참여	1) 관습적 참여
		2) 사회운동 참여
		3) 합법적 참여
		4) 비합법적 참여
	라. 사회봉사	1) 봉사활동
		2) 환경보호
		3) 입양에 대한 태도
		4) 공동체에 대한 기부
	마. 신뢰 · 호혜성 및 관용	1) 대인 신뢰
		2) 기관 및 제도 신뢰
		3) 교실개방성
3. 세계 시민성	가. 성 인지	1) 가정 내 남녀평등
		2) 직장 내 남녀평등
	나. 이민자에 대한 태도	1) 이민자 권리에 대한 의식
		2) 이민자 허용 및 영향
	다. 국가 및 역사의식	1) 국가의식
		2) 국가 안전의식
		3) 역사의식
	라. 국제관계이해	1) 국제사회에 대한 관심
2) 글로벌 의사소통		

제 III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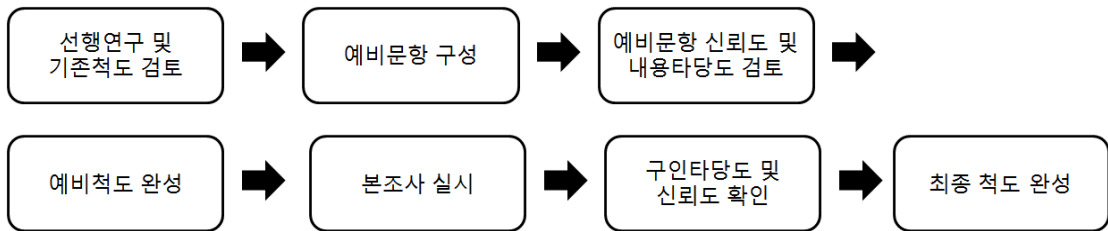
연구방법

1.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도구
개발 개요
2.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도구
예비문항 개발
3.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도구
문항개발 예비 본조사 개요
4. 자료분석

제 III 장 연구방법*

1.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도구 개발 개요

본 연구는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의 핵심과제의 일환으로 2013년도 실시된 「청소년 역량지수 개발 연구(성은모 외, 2013)」에 근거하여 청소년 역량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개발절차는 [그림 III-1]과 같다.



【그림 III -1】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도구의 개발, 조사 및 타당화 절차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도구 개발을 위하여 「청소년 역량지수 개발 연구(성은모 외, 2013)」에서 제시한 청소년 역량 지수와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을 위한 예비문항을 구성하였다. 청소년 역량지수 체계는 생애학습역량, 생활관리역량, 진로개발역량, 대인관계역량, 사회참여역량 등과 같이 5개의 역량군을 중심으로 예비문항이 구성되었다.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도구 개발연구는 협동연구과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한국교육개발원과 협력하여 사회참여 역량 측정도구 개발 및 타당화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청소년 역량지수 구성체계에 있어 사회참여역량 부분은 한국교육개발원의 김태준 (2014)의 연구보고서에 보다 자세하게

* 이 장은 성은모 부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음.

기술되었으며, 본 보고서에서 청소년의 사회참여역량 부분의 내용은 김태준 (2014)의 보고서 일부분은 요약 정리하는 것으로 대체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이 청소년 역량 지수와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구성된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을 위한 예비문항에 대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예비문항에 대한 신뢰도 및 내용타당도 검토를 실시하여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을 위한 예비문항을 도출하였다.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을 위한 예비문항을 기반으로 전국 16개 시도의 초·중·고등학교 6,637명을 대상으로 예비 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여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문항에 대한 신뢰도와 구인타당도 등을 검증하여 최종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도구를 개발하였다.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도구 개발에 따른 보다 자세한 절차는 다음 장에 자세히 기술하였다.

2.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도구 예비 문항 개발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도구 예비 문항 개발의 구체적인 내용은 생애학습역량, 생활관리역량, 진로개발역량, 대인관계역량, 그리고 사회참여역량 순으로 진술하였다.

1) 생애학습역량 측정도구 예비 문항 개발

2013년에 실시된 「청소년 역량지수 개발 연구」에 근거하여 생애학습역량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생애학습역량(Life-long Learning competency)은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자신의 능력을 꾸준히 신장시키기 위해 생애에 걸쳐 지속적으로 학습하는 능력”을 의미한다(성은모 외, 2013). 기술의 발달로 청소년들이 살아가는 사회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 속에서 청소년들은 사회 변화에 적응하며 사회 구성원으로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이러한 능력은 전생애를 통해 학습되며 개발되기 때문에 생애학습역량은 청소년들이 21세기 사회를 살아가기 위한 핵심역량이라고 할 수 있다. 생애학습역량은 다양한 상황에서 사고를 바탕으로 적절한 의사결정을 하는 사고력(Thinking), 세상과 소통하고 사회에서 기능하기 위한 상징, 언어, 정보, 기술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지적도구활용능력(Intellectual tools), 새로운 상황에 호기심을 가지고 변화를 수용하며 그 과정에서 경험을 통해 학습하는 태도인 학습적응성(Learning agility)를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는 성은모 등 (2013)의

연구에 근거하여 생애학습역량의 하위요인으로 사고력, 지적도구활용능력, 학습적응성을 설정하여 측정도구를 개발하였다.

생애학습역량 측정도구 개발은 기존 선행연구들을 기초로 하여 성은모 외(2013)에 제시된 청소년 역량 지수의 구성 체계 내에 포함된 생애학습역량의 각 지표 및 해당 역량의 기존 검사 도구(예: K비판적사고성향검사, Hirayama와 Kusumi의 비판적 사고 척도, 특성정서지능검사지, PISA, 변화수용도검사,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진단지, 자기주도성 검사지 등)에서 사용된 문항을 참고하여 개발하였다. 측정도구는 생애학습역량에 대한 청소년의 지식, 행동, 태도 등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사고력과 학습적응성 역량은 지식이 아닌 행동과 태도를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하여, 사고력 14문항, 학습적응성 12문항을 구성하였고, 지적도구활용능력은 지식, 태도, 행동을 측정하는 문항을 포함하여 23문항으로 총 49문항을 구성하였다. 이 조사항목을 기초로 하여 초·중·고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문항 신뢰도가 낮은 문항을 제거하고 적합한 문항을 추가하였다. 또한 청소년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수정하였고, 연구진의 합의가 이루어질 때 까지 문항을 수정, 보완 하였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사고력 12문항, 학습적응성 12문항, 지적도구활용 22문항으로 총 46문항이 개발되었다.

(1) 사고력(Thinking)

사고력은 의사결정과 추론 과정에서 통합적 사고를 기반으로 비판적, 감성적으로 현상에 대해 판단하는 능력을 의미한다(진미석 외, 2007; 김기현 외, 2008). 성은모 외(2013)의 연구에서도 사고력을 동일한 의미로 정의하고, 그 하위 구성요소로 통합적 사고력, 비판적 사고력, 감성적 사고력을 제시하였다. 사고력은 문항은 행동 및 태도를 측정하는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기존에 개발된 문항을 참고 및 수정하여 개발하였다. 통합적 사고력 문항들은 기존에 개발 임영구(2013)의 시스템사고측정도구, 정민이(2001)의 문제해결능력 검사 도구, 유진희(2010)의 사고양식 검사도구 등을 참고하여 개발하였다. 비판적 사고력의 경우, 최동선, 김나라, 김성남(2009)이 정리한 KCIDI(한국형 비판적사고성향검사도구)와 성은모 등(2013)이 개발한 청소년역량지수 체계에 따른 측정문항(안) 등을 참고하여 개발하였다. 감성적 사고력의 경우, 본 연구에서 정의된 영역으로서 기존에 개발된 문항이 없었기 때문에 문용린(1996)의 정서지능 검사를 참고하여 강민수(2001)가 개발한 문항을 참고하고, 성은모 등(2013)이 청소년 역량지수 개발연구에서 개념화한 내용을 바탕으로 개발하였다. 위 문항들을 통해 구성된 사고력 관련 문항은 통합적 사고력 3문항, 비판적 사고력 4문항, 감성적 사고력 5문항으로, 구체적인 문항 구성은 다음

<표 III-1>과 같다.

표 III -1 사고력 영역 최종 문항 및 출처

지표	문항		출처
통합적 사고력	문1	나는 내가 배우고 있는 과목들 사이에는 매우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임영구(2013)
	문2	나는 어떤 행동이 가져올 전체적인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	Heppner(1988)를 참고로 정민이(2001) 개발
	문3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있을 때 그 일의 부분적인 사항들과 최종 목표와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윤미선(1997)을 참고로 유진희(2010) 개발
비판적 사고력	문4	나는 다른 사람들이 말을 할 때 그 말이 논리적인지 또는 앞뒤가 맞는지를 따져본다.	KCTDT(최동선 외, 2009)
	문5	복잡한 글을 읽고 이해하려는 노력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문6	나는 어떤 사태에 대해 객관적이고 알맞은 근거를 바탕으로 판단하고 평가한다.	성은모 외(2013)
	문7	나는 어떤 주장에 대해서 판단할 때 다양한 방향(관점)에서 생각해 본다.	KCTDT(최동선 외, 2009)
감성적 사고력	문8	나는 어떤 일을 함에 있어 그 일이 가치 있다 해도, 감정과 느낌보다는 논리적으로 판단한다.	연구진 개발
	문9	같은 물건이라면, 나는 브랜드와 상관없이 지적장애우들이 만든 상품으로 사겠다.	
	문10	나는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 그 일이 가치 있는 일이라면, 논리적인 판단보다는 감정과 느낌에 따라 판단한다.	
	문11	나는 다른 사람의 표정이나 말투만으로도 기분이나 감정을 잘 알아차리는 편이다.	문용린(1996)을 참고하여 강민수(2001) 개발
	문12	나는 불우이웃을 보면 불쌍하고 도와주고 싶기보다 지저분하고 무능력하다고 느끼게 된다.	

(2) 지적도구활용능력

지적도구활용능력은 “언어, 상징, 문자, 지식과 정보, 기술을 상호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개인이 세상과 적극적으로 대화하며 개인의 목적에 맞게 변화를 유도하고 기술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도구로서 언어, 상징, 문자, 지식과 정보,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며, 언어능력,

수리과학능력, 정보통신활용능력으로 구성된다(성은모 외, 2013). 언어능력, 수리과학능력, 정보통신활용능력은 지식, 행동, 태도를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존에 개발된 문항들을 참고 및 수정하여 개발하였다. 언어능력, 수리과학능력에서의 측정 문항은 OECD에서 개발한 국제학업성취도 평가문항인 PISA 문항을 참고하였는데, 공개된 문항을 활용해야 하므로 PISA 문항들은 송미영, 임해미, 박혜영, 최혁준, 손수정(2013)이 정리한 자료집을 참고하였다. 언어능력, 수리과학능력 측정 문항 중 지식을 측정하는 문항은 교육과학기술부(2011, 2012)에서 발표한 각 과목의 교육과정해설서, 정민이(2001)의 과학적소양검사 등을 참고하여 구성하였다. 정보통신 활용능력을 측정하는 문항의 경우 OECD가 주관한 ALL(Adult Literacy and Life-skills Survey)를 참고하여 최동선 등(2009)이 개발한 문항 등을 참고하여 개발하였다. 그렇게 구성된 문항은 언어능력 5문항, 수리과학능력 13문항(수학능력 5문항, 과학능력 8문항), 정보통신활용능력 4문항, 총 22문항으로 구성되며, 구체적인 문항은 다음 <표 III-2>와 같다.

표 III-2 지적도구활용능력 영역 최종 문항 및 출처

지표	문항	출처
언어 능력	문1 나는 공식적·비공식적인 상황에서 상대방의 말을 정리하여 듣고, 자신의 의견을 조리 있게 말한다.	교육과학기술부(2012)
	문2 나는 글의 중심내용을 찾아 글쓴이의 의도나 숨겨진 주제를 파악하며 읽는다.	
	문3 나의 의견이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나는 다양한 표현 방법을 활용하여 글을 쓸 수 있다.	
	문4 나는 국어를 좋아하기 때문에 국어 수업시간이 기다려진다.	송미영 외 (2013a)
	문5 나는 국어에서 배우는 것들에 대해 흥미가 있다.	
수리 과학 능력	문6 나는 수학의 기본적인 개념, 원리, 법칙을 활용하여 다양한 계산을 할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2011)
	문7 나는 신문, 잡지, 또는 인터넷 등 우리 주위에서 흔히 관찰할 수 있는 자료를 표나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다.	
	문8 나는 신문, 잡지, 또는 인터넷 등 우리 주위에서 흔히 관찰할 수 있는 표나 그래프를 이해할 수 있다.	
	문9 나는 수학을 좋아하기 때문에 수학 수업 시간이 기다려진다.	송미영 외 (2013)
	문10 나는 수학에서 배우는 것들에 대해 흥미가 있다.	
	문11 나는 자연이나 과학적 현상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을 갖고 관찰, 실험, 조사 등 다양한 탐구활동을 한다.	교육과학기술부(2011)
	문12 나는 일상생활에서 적용되고 있는 과학적 원리를 예를 들어	정민이(200

지표	문항	출처
	설명할 수 있다.	1)
	문13 나는 자연현상에 대해 과학지식을 활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	
	문14 나는 과학을 좋아하기 때문에 과학 수업시간이 기다려진다.	송미영 외 (2013a)
	문15 나는 과학에서 배우는 것들에 대해 흥미가 있다.	
	문16 나는 과학 과목을 배울 때, 그 개념을 아주 잘 이해할 수 있다.	
	문17 나는 과학 과목을 금방 배운다.	
	문18 나는 높은 수준의 과학 과목을 배우는 것이 쉽다.	
정보통신활용 능력	문19 나는 컴퓨터와 인터넷의 활용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최동선 외(2009)
	문20 나는 컴퓨터나 인터넷상의 다양한 학습자료(인터넷 강의, 유튜브·TED 동영상, 웹문서 등)를 활용하여 학습할 수 있다.	
	문21 나는 한글, 워드, 파워포인트, 엑셀, 포토샵, 그림판 등을 이용해 문서, 그림, 동영상 등을 작성 하거나 편집할 수 있다.	
	문22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SNS(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등)를 통해 공유할 수 있다.	연구진 개발

(3) 학습적응성

학습적응성은 “지적호기심을 바탕으로 새롭게 접하는 상황이나 경험을 통해 신속하게 학습하는 능력”을 의미하며, 학습적응성의 하위요소는 변화수용, 지적호기심, 학습주도성으로 구분된다(성은모 외, 2013). 변화수용력, 지적호기심, 학습주도성을 측정하기 위해 행동 및 태도 영역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기존에 개발된 도구를 참고 및 수정하여 구성하였다. 변화수용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Wanberg & Banas(2000)의 변화수용도검사를 김선미(2012)가 번안하여 참고한 검사도구와 Swisher, Hallenbeck, Orr, Eochinger, Lombardo 과 Capretta (2013)의 학습적응성에 대한 요인 중 변화 적응성(Change agility)의 내용 등을 참고하여 구성하였다. 지적호기심의 경우 최동선 외(2009)에서 정리한 Hirayama와 Kusumi의 비판적 척도와 Maw&Maw의 지적호기심검사를 오종석(2014)이 참고하여 개발한 지적호기심 검사도구 등을 참고하여 구성하였다. 학습주도성을 측정하기 위해 Mitchinson 과 Morris(2012)가 도출한 학습적응성의 요인 중 성찰(Reflecting)에 대한 내용과 이석재 외(2003)가 개발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진단지 등을 참고하여 구성하였다. 이로써 변화수용력 4문항, 지적호기심 4문항, 학습주도성 4문항으로 총 12문항을 학습적응성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구성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 III-3>와 같다.

지표	문항	출처
변화 수용력	문1 나는 학습할 때 내 주변에서 발생하는 변화를 주도적으로 받아들인다.	김선미 (2012)
	문2 새로 출시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지 않더라도, 나는 사용한다.	Swisher, et al. (2013)
	문3 나는 생활환경의 변화를 좋아하지 않는다.	연구진 개발
	문4 나는 무언가를 배울 때 내 주변의 변화를 적용하여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김선미 (2012)
지적 호기심	문5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진 이들과 토론하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다.	Hirayama와 Kusumi의 비판적 척도 (최동선 외, 2009)
	문6 나는 무언가를 새롭게 배우거나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을 좋아한다.	Mitchinson 과 Morris (2012)
	문7 나는 다양한 음식을 맛보는 것을 좋아한다.	연구진 개발
	문8 나는 궁금한 것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질문한다.	오종석 (2014)
학습 주도성	문9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이후에도 그 성공요인을 찾아낸다.	Mitchinson 과 Morris (2012)
	문10 어떤 일을 하는데 있어서 실패했다면, 그 실패 원인을 분석한다.	
	문11 나는 내가 한 일에 대해 다른 사람의 피드백을 받는다.	
	문12 한 가지 일을 하다가도 하고 싶은 다른 일이 생기면, 하던 일을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다시 시작한다.	이석재 외 (2003)

2) 생활관리역량 측정도구 예비 문항 개발

생활관리역량(Life management competency)은 “자신이 삶 속에서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여 자신과 자신의 삶을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역량”으로 정의될 수 있다(성은모 외, 2013, p. 78). 청소년들은 유아 및 아동에 비해 사회적 활동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활동 영역 역시 이전보다 다양해지고 넓어질 수밖에 없다. 또한 성인의 온전한

보호와 지도 속에 있는 아동기와는 달리 자율 및 주도성이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할 때 스스로 자신을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더욱 필요로 하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생활관리 역량은 청소년들이 반드시 갖추고 발달시켜야 할 역량 중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연구에서는 성은모 등(2013)의 연구를 기초로 하여 생활관리역량을 크게 네 가지 하위 영역, 즉 건강관리, 과제관리, 상황대처, 정서조절로 구분하고 생활관리 역량의 하위 요인에 대하여 각각 측정도구를 개발하였다. 생활관리역량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은 건강관리 22문항, 과제관리 16문항, 상황대처 20문항, 정서조절 15문항으로 총 73문항이다.

(1) 건강관리

건강관리란 자신의 신체 기능 및 건강 상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신체를 단련하고 건강을 관리하는 능력을 의미한다(성은모 외, 2013). 청소년기는 제 2의 성장기라고 할 만큼 급속한 성장과 더불어 2차 성징이 나타나는 등 급격한 신체의 변화를 겪는 시기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기의 신체 및 건강 상태는 이후 성인기의 신체 및 건강 상태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 시기의 신체 및 건강관리는 중요한 역량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에 건강관리 역량을 생활관리 역량의 하위 요인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청소년들에게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꾸준히 건강관리를 실천하도록 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건강관리를 건강에 대한 기본 지식 및 자신의 신체 상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해 계획적이고 지속적으로 자신을 관리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정의를 바탕으로 건강관리에 대한 지식과 행동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건강에 대한 기본 지식은 건강관리를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요소이다. 건강한 신체의 유지·관리를 위한 올바른 신체활동, 식습관 및 생활태도, 위생 및 청결 습관 등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어야 이를 바탕으로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한 계획과 실천이 가능하다. 건강행동이라 함은 건강에 대한 기본 지식을 바탕으로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해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하는 실제적인 행동을 의미한다. 건강이나 신체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더라도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한 실제적인 행동이 없다면 제대로 된 건강관리가 이루어질 수 없다. 따라서 건강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측정하는 것은 필수불가결한 일이다.

건강관리의 구성 요소로는 우리나라 보건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신체관리, 식습관 관리, 위생관

지표	문항		출처
식습관 관리	문1	5대 영양소의 종류와 각 종류에 해당하는 식품군에 대해 잘 알고 있다.	보건교육과정 참고 자체개발
	문2	건강에 좋은 식품과 그렇지 않은 식품에 대해 잘 알고 있다.	
	문3	아침, 점심, 저녁 식사 때 비교적 충실히 먹는다.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 참고 자체개발
	문4	다양한 채소와 과일을 먹는다.	
	문5	한꺼번에 많은 음식을 먹는다(폭식을 한다).	
	문6	인스턴트나 패스트푸드 음식(컵라면, 라면, 햄버거 등), 탄산음료를 자주 먹는다(일주일에 3회 이상).	
	문7	과자종류(과자, 사탕, 초콜릿 등)나 단 음식을 자주 먹는다(일주일에 3회 이상).	
	문8	건강에 다소 좋지 않더라도 맛이 있다면 크게 상관하지 않고 먹는다.	보건교육과정 참고 자체개발
위생관리	문9	호흡기계 질병(예: 감기)의 예방법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 참고 자체개발
	문10	식사 전이나 외출 후, 화장실에 다녀온 후 비누로 손을 씻는다.	
	문11	속옷을 1~2일에 한 번씩 규칙적으로 갈아입는다.	
	문12	식사 후에는 대부분 양치질을 한다.	
신체관리	문13	몸에 난 상처에 대한 응급치료 방법을 알고 있다.	보건교육과정 참고 자체개발
	문14	병 유형에 따라 가야할 병원의 종류(예: 외과, 내과, 피부과, 이비인후과 등)를 알고 있다.	
	문15	밤에 잠자는 시간이 부족하다.	
	문16	의자에 앉을 때에는 허리를 곧게 펴고 바른 자세로 앉는다.	
	문17	건강을 위해 음식이나 운동, 생활 습관 등을 조절한다.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 참고 자체개발
	문18	땀이 날 정도로 운동을 하거나 걷는다.	
안전관리	문19	화재 발생 시 대처 요령에 대해 잘 알고 있다.	
	문20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수칙이나 규칙을 잘 지킨다.	
스트레스 관리	문21	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일이나 공부를 하는 중간 중간 적당한 휴식을 취한다.	보건교육과정 참고 자체개발
	문22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적절한 여가 생활을 가지고 있다.	

리, 안전관리, 스트레스 관리로 구분하였다. 물론 보건 교육과정에는 이외에도 약물 오·남용 및 음주·흡연 예방, 정신건강, 성교육 등도 포함되어 있으나 약물 오·남용 및 음주·흡연 예방은 상황대처 역량과, 정신건강은 자기조절 역량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 이 영역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상과 같은 측정기준 및 구성요소를 바탕으로 도출된 건강관리 문항은 <표 III-4>와 같다. 각 문항들은 초·중등 보건교육과정(서울특별시학교보건진흥원, 2009; 우옥영 외, 2012)내용과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교육부 외, 2013)에서 사용된 문항들을 바탕으로 일련의 과정을 거쳐 연구진에서 자체개발하였다. 최종적으로 구성된 건강관리 문항들은 식습관관리 8문항, 위생관리 4문항, 신체관리 6문항, 안전관리 2문항, 스트레스관리 2문항으로 총 22문항이다.

(2) 과제관리

과제관리란 일상생활에서 수행하는 학업, 일, 운동, 기타 활동 등과 같이 모든 생활 과제에 대해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계획을 세우며 실행 과정을 점검해 나가면서 실천한 이후 결과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이는 개인 스스로 삶의 목표와 그에 따른 실천과제들을 세우고 이를 스스로 실행하며 그 결과를 점검한 후 자신의 삶에 반영하고자 하는 성향인 자기주도성(김진호, 2013 재인용)과도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자기통제 역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스스로 보상하거나 벌을 줌으로써 자율적으로 자신의 행동을 규제하고자 하는 개념으로 생각해 볼 때 자기관리, 자기주도성과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처럼 자기주도성이나 자기통제, 또는 자기관리로 명명될 수 있는 특성은 청소년이 자신의 생활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핵심적인 역량 중 하나이다. 이 연구에서는 과제관리란 이름으로 자기주도성이나 자기통제 영역 중 특히 인지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측정하고자 하였다.

과제관리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학업이나 일상생활에서 다루는 과제의 종류나 특성에 따라 분류하기보다는 효율적인 과제 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일반적인 절차에 초점을 맞추어 분류하였다. 과제수행의 일반적인 절차는 관련연구들에서 사용한 분류(김기현 외, 2008; 이석재, 2003; Rychen & Salganik, 2003)를 참고하여 크게 네 가지 -목표설정, 계획수립, 수행, 평가-로 나누었고 이 네 가지 절차는 과제관리 측정 문항의 구성요소가 되었다. 첫째, 목표설정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정보 및 주변의 의견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가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둘째, 계획수립과 관련해서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활용 가능한 자원과 능력 내에서

지표	문항		출처
목표 설정	문1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내가 이루어야 할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운다.	청소년 생활역량 진단척도(윤명희, 김진화, 2007)를 참고로 수정
	문2	목표를 세울 때 주변의 어른이나 친구들의 의견을 참고한다.	
	문3	목표를 세우기 위해 주변의 다양한 정보를 참고한다.	
	문4	목표를 세우기 전에 일을 시작하고 본다.	
	문5	이루어야 할 목표가 여러 가지일 때 먼저 이루어야 하는 목표들의 순서를 정한다.	Rychen, & Salganik, (2003)
계획 수립	문6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해야 할 일들에 대한 계획을 스스로 세운다.	청소년생애핵심역량(김기현 외, 2008)을 참고하여 수정
	문7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해야 할 일들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운다.	
	문8	예상치 못한 상황에 부딪히거나 필요가 있다면 그에 따라 계획을 수정한다.	
	문9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환경을 고려하여 계획을 세운다.	DeSeCo의 핵심역량(Rychen, & Salganik, 2003)을 참고하여 수정
수행	문10	나는 일을 하는 중간 중간 목표에 맞게 하고 있는지 진행상황을 점검해 본다.	청소년생애핵심역량(김기현 외, 2008)을 참고하여 수정
	문11	내가 세운 계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다.	
	문12	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중간에 다른 일이 하고 싶더라도 참고 하던 일을 계속한다.	
	문13	계획대로 일을 하는 도중에 힘들거나 싫증이 나면 그만둔다.	
평가	문14	어떤 일을 마치고 난 후 내가 세웠던 목표를 이루었는지 스스로 확인해 본다.	청소년생애핵심역량(김기현 외, 2008)을 참고하여 수정
	문15	어떤 일을 마치고 난 후 내가 세운 계획에 맞게 일을 했는지 스스로 평가해 본다.	
	문16	어떤 일을 마치고 난 후 그 일의 결과에서 부족한 부분을 다음 할 일에 반영한다.	

실천가능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스스로 세울 수 있는가, 그리고 상황에 따라 계획을 수정, 보완을 할 수 있는가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셋째, 수행에서는 진행상황을 점검해 가며 실천하는가와 수행과정에서 직면하는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하는가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가에서는 계획과 결과에 대해 평가하고 그 평가 내용을 차후에 반영하는가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청소년 생활역량 진단척도(윤명희, 김진화, 2007), DeSeCo의 핵심역량(Rychen & Salganik, 2003), 청소년 생애핵심역량(김기현 외, 2008)에서 사용된 문항들 중 일부분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과제관리 문항은 목표설정 5문항, 계획수립 4문항, 수행 4문항, 평가 3문항으로 총 16문항이 구성되었으며 그 내용은 <표 III-5>와 같다.

(3) 상황대처

상황대처란 청소년들이 주로 직면하게 되는 “사회적 문제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할 수 있다(성은모 외, 2013). 현재 우리나라에서 청소년들이 직면하는 사회적 문제 상황으로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과 같은 매체 이용 및 음주·흡연·약물 등과 같은 유해물질에 대한 사용, 가정·학교·사이버 등 다양한 환경에서의 폭력과 같은 유해행위 등에 대한 대처 등이 포함되며 이에 대해 청소년들의 적절하고 합리적인 대처는 이들 대처능력의 정도를 가늠하게 한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 문제 상황을 크게 두 가지, 앞서 언급한 매체 이용 및 유해물질 사용상황과 유해행위 대처상황으로 나누고 그에 대한 대처능력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먼저 매체 이용 및 유해물질 사용에 있어서 가장 문제시되는 상황은 중독이라 볼 수 있다. 국가정보화기본법¹⁾(제3조 20항)에서는 인터넷 중독에 대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지나친 이용으로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는 것”으로 정의한다. 또한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는 인터넷 중독을 “인터넷을 과다 사용하여 인터넷 사용에 대한 금단과 내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용자의 일상생활에 장애가 유발되는 상태”로 정의한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3). 이와 같은 인터넷 중독 현상은 스마트폰 중독에 대해서도 적용 가능하다. 따라서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등의 매체를 종합하여 매체중독이라 할 때에는 매체를 개인의 의도한 것보다 더 많이 사용함으로써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고 더 나아가 금단 및 내성 현상을 보이는 정도까지 이른 상태로 정의할 수 있다. 매체 중독과 관련한 일련의 선행연구들(예: 박효수, 남길우, 엄나래, 2013)은 청소년들, 특히 남자 중학생들의 인터넷 중독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어 이들의 역량측정에 있어 매체 이용에 대한 올바른 대처능력이 주요한 측정 영역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유해물질 중독 역시 사용한 물질에 대해 심리적 또는 신체적 의존을 보이는 증상을 의미하는데

1) http://www.lawnb.com/lawinfo/contents_view.asp?cid=1067968D1E9C432A8EEB0A5810509D81|0IK (검색일: 2014. 6. 1)

담배나 술, 약물 등과 같은 유해물질은 신체에도 치명적인 손상을 가져옴으로써 심각한 수준의 장애나 더 나아가 사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체 중독보다 더욱 위험한 것으로 인식된다. 유해물질 중독도 매체 중독과 마찬가지로 “중독”이라는 개념에서 생각해 볼 때 물질 사용에 있어서 자기조절 능력을 상실하게 됨으로써 물질을 개인이 의도한 것 이상 사용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가져오고, 결국에는 신체적 및 심리적 금단 및 내성 현상을 보이게 된다. 따라서 유해물질 사용에서도 역시 청소년들의 올바른 대처능력이 필요한 영역이다. 청소년들의 음주 및 흡연 등과 같이 유해물질 사용은 지위비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중독이 아닌 사용만으로도 문제행동으로 간주된다. 또한 술이나 담배를 구입하기 위해 신분증을 도용하거나 음주 상태에서 기억상실, 외박, 기물파손, 다툼 등의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어(이종원, 이유진, 김준홍, 2012) 물질 중독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적절한 대처 능력이 청소년들의 역량과도 깊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중독에 대한 정의 및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문제 상황, 특히 매체 이용 및 유해물질 사용에 있어서 청소년들이 적절하게 대처하고 있는지 측정하는 것은 청소년들의 생활관리 역량을 측정하는데 필요한 하위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매체 이용 및 유해물질 사용에 대한 대처능력의 측정기준은 건강관리와 마찬가지로 크게 지식과 행동으로 나누었다. 즉 지식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매체 및 유해물질의 유해성에 대한 지식이 있는지를 측정하였고, 행동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매체 및 유해물질에 대한 중독현상을 보이는지, 즉 중독에 대한 정의를 바탕으로 ①개인의 통제수준을 벗어났는지 ②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지, 더 나아가 ③금단이나 내성 현상을 보이는지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상황대처의 또 다른 측정영역인 유해행위에 대한 대처능력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에게 위험하면서도 이들이 빈번하게 직면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폭력상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폭력상황은 유형에 따라 언어폭력, 신체폭력, 집단 따돌림(정신적 폭력), 성적 폭력, 금품갈취 등이 있으며(오혜영, 전연진, 강석영, 이대형, 한지현, 채중민, 김수희, 2009), 발생 장소에 따라서는

표 III-6 상황대처 문항

지표	문항		출처
매체 및 유해 물질 사용 상황 대처	문1	중독성이 있다.	청소년유해환경접촉 종합실태조사(이종원 외, 2012) 문항을 참고로 자체 개발
	문2	지나친 사용은 신체 및 정신 건강에 해롭다.	
	문3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	
	문4	친구들과 어울리는데 도움이 된다.	
	문5	지나치게 자주 또는 오래한다고 가족이나 친구들로부터 지적을 받은 적이 있다.	인터넷 중독 진단 척도(박효수 외, 2013) 문항을 수정보완
	문6	하지 않을 때는 자꾸 생각이 난다.	
	문7	그만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중에도 어쩔 수 없이 계속 하게 된다.	
	문8	한 번 시작하면 시간가는 줄 모른다.	
	문9	이로 인해 내 생활(일, 공부, 수면 등)이 방해받을 때가 있다.	
	문10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 몰래한다.	
	문11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하게 된다.	
유해 환경 상황 대처	문12	내 힘을 자랑하거나 필요한 돈이나 물건을 갖기 위해 다른 사람을 괴롭힌 적이 있다(인터넷에 악플을 달거나 욕을 한 적이 있다).	청소년유해환경접촉 종합실태조사(이종원 외, 2012) 문항을 참고로 자체 개발
	문13	별다른 이유 없이 단지 재미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다른 사람을 괴롭힌 적이 있다(인터넷에 악플을 달거나 욕을 한 적이 있다).	
	문14	상대방이 먼저 잘못했다면 이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	
	문15	폭력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상대방에게 맞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문16	누군가 나를 괴롭힐 때 이를 피하려고 자리를 옮기거나 하지 말라고 얘기한다.	학부모 개입 지침서: 학교폭력(한국청소년상담원, 2009)의 내용을 참고로 자체 개발
	문17	누군가 나를 괴롭히거나 주변에 괴롭힘 당하는 사람(친구)을 보면 부모, 교사, 경찰이나 상담 기관 등에 알린다.	
	문18	누군가 나를 괴롭힐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다.	
	문19	누군가 나(또는 다른 친구)를 괴롭힐 때 그 사람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이 두려워 참은 적이 있다.	
	문20	내가 피해를 볼까봐 친구가 다른 친구를 괴롭히는 것을 모른 척 한 적이 있다.	

가정폭력, 학교폭력, 사이버 폭력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폭력상황에서 청소년들은 피해자 또는 가해자의 입장에 서게 되는데 폭력상황이 청소년들에게 문제시 되는 주된 이유는 폭력이 피해자는 물론 가해자에게 성장 및 발달의 다양한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폭력에 대한 청소년들의 올바른 인식과 적절한 대처 능력은 이들의 상황대처 역량과도 깊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선행연구의 고찰을 통해 이 연구에서는 상황대처라는 청소년의 역량을 측정할 때 매체 이용 및 유해물질 사용상황과 유해행위 대처상황을 구성요소로 포함하였다. 상황대처 문항은 총 20문항으로 <표 III-6>과 같다.

(4) 정서조절

정서란 특정한 상황이나 경험에 직면하여 개인에게 나타나는 다양한 감정을 의미한다. 청소년기 정서의 특징은 불안정하고 감정의 기복이 크다는데 있으므로 이 때 자신의 감정을 어느 정도 통제하고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은 매우 중요시된다. 여기서 정서 조절이란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외부의 반응에 대해 자신의 감정 에너지를 유용하고 사회적으로 수용되는 방식으로 표현하도록 조절하는 능력”으로 정의될 수 있다(성은모 외, 2013). 정서조절을 실패한 청소년은 부정적 감정을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방식으로 표출하게 됨으로써 대인관계나 사회적응 등과 같은 사회적·심리적 상황 뿐 아니라 학습과 같이 인지적 기능이 원활히 작동할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정서조절이 심리 및 사회적 적응 뿐 아니라 인지발달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선행연구결과들(예: 강다겸, 장재홍, 2013; 양명희, 김은진, 2012; 이정미, 이지연, 장진이, 2012; 조한익, 2013)은 정서조절이 청소년들이 자신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갖추어야 할 역량 중 하나임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정서조절을 생활관리의 하위 역량 중 하나로 포함시켰다. 정서조절의 측정문항은 특성분노척도(STAXI-K)(정경구, 김동연, 이준석, 2000), 한국판 행동활성화 및 행동 억제 척도(김교현, 김원식, 2001),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최인재, 모상현, 강지현, 2011), 정서조절 곤란 척도(K-DERS)(조용래, 2007)의 문항들 중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정서조절 문항은 <표 III-7>과 같다.

표 III-7 정서조절 문항

지표	문항		출처
정서 조절	문1	화가 나거나 기분이 상하면 욕을 하거나 소리를 지른다.	특성분노척도(STAXI-K)(정경구 외, 2000) 문항을 수정
	문2	화가 나거나 기분이 상하면 물건을 집어던진다.	
	문3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분이 몹시 상한다.	
	문4	내가 원하던 것이 이루어지면 매우 흥분되고 기운이 넘친다.	김교현, 김원식(2001) 문항 수정
	문5	감정에 휩쓸려 일이나 공부에 집중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최인재 외, 2011) 중 정서조절문항을 수정하여 사용.
	문6	슬프거나 힘들 때에도 크게 좌절하지 않는다.	
	문7	나는 갑자기 슬프거나 힘든 일을 당해도 침착하게 잘 이겨내는 편이다.	
	문8	화가 나거나 기분이 상할 때에도 지나친 표현이나 행동은 자제한다. ⁴	조용래(2007) 문항 수정
	문9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으면 안절부절 못 하게 된다.	한국판 행동활성화 및 행동억제 척도(김교현, 김원식, 2001) 문항을 수정하여 사용
	문10	작은 일에도 나의 기분은 쉽게 변한다.	
	문11	기분에 따라 행동이 크게 변한다.	
	문12	내 기분에 휩싸여 내 말이나 행동을 통제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	한국판 정서조절곤란 척도(K-DERS)(조용래, 2007) 문항을 수정하여 사용
	문13	한번 기분이 나빠지면 다시 좋아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문14	나는 내 기분이나 감정을 분명히 알고 있다.	
	문15	나는 내 기분이나 감정 상태에 주의를 기울인다.	

3) 진로개발역량 측정도구 예비 문항 개발

진로개발역량(Career development competency)은 “일생에 걸쳐 한 개인의 생애 역할, 경험, 관계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개인의 흥미와 적성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과 차별화되는 독특성을 개발하고 인생의 경험의 폭을 넓혀가며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역량”으로 정의될 수 있다(성은모 외, 2013, p. 54). 사회가 급변화 함에 따라 직업세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함께 진로에 대한 계획적인 준비를 해야 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청소년들이 자신의 흥미와

적성, 능력에 부합하는 진로를 인식 탐색하여 진로의 방향을 설정하고 설정된 방향에 따라 자신의 진로를 선택·준비하는 활동을 체계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진로개발활동은 직업에 대한 정보 탐색 및 진로 의사결정을 하는 실질적 진로설계활동(Career Design)을 포함하여 여가 경험을 통해 주체적으로 인생에 몰입함으로써 삶을 풍요롭게 하는 여가활용(Leisure Use)과 함께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에 도전하며 위험을 기회로 인지하는 적극적 삶의 자세인 개척정신(Pioneer spirit)을 포괄한다.

진로개발역량의 하위요소는 성은모 등(2013)의 연구와 선행연구분석을 기초로 진로설계(자기 탐색, 직업탐색, 직업가치관, 진로태도), 여가활용(여가태도, 여가유능감, 여가몰입, 여가만족), 개척정신(차별화태도, 도전정신) 등 3개 하위요소와 10개 지표를 포함하였다.

진로개발역량 측정도구는 청소년의 행동, 태도 등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각 지표별로 4-7문항 정도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진로설계 20문항, 여가활용 16문항, 개척정신 15문항, 총 41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 조사항목을 기초로 하여 중·고등학생 40명에게 설문을 실시하였다. 조사 후, 문항신뢰도가 낮은 문항은 제거하고 적합한 새로운 문항으로 추가하는 과정을 거쳤다. 또한 청소년이 이해하기 어려움이 있다고 느껴지는 용어를 다소 수정하는 과정을 거쳤고, 전체 연구진이 합의할 때까지 문항에 대한 수정 및 보완이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진로설계 21문항, 여가활용 17문항, 개척정신 9문항, 총 49문항을 측정도구 초안으로 구성하였다. 진로개발역량의 하위 영역별 예비문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진로설계(Career Design)

진로설계란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부합하는 진로를 지속적으로 탐색하고 설계함으로써 진로에 대해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성은모 외 (2013)의 연구에서는 진로설계의 의미를 자신을 성찰함으로써 자신의 미래 비전에 따른 흥미와 적성에 부합하는 진로를 지속적으로 탐색하고 설계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으로 보고 그 하위 구성요소로 자기탐색, 진로 및 직업탐색, 진로결정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그러나 초중등학교 시기를 포함하고 있는 청소년에게는 진로결정보다는 정의적인 측면에서의 직업가치관과 진로준비태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러한 경향성은 워크넷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온라인 진로검사도구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진로설계의 개념에 부합하도록 하위 구성요소로

자기탐색, 직업탐색, 직업가치관, 진로태도로 구분하여 측정문항을 개발하였다.

진로설계의 측정문항은 진로설계에 대한 지식을 묻는 문항은 전혀 없고 청소년들이 자기탐색과 직업탐색을 행동적인 측면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는지에 대해 묻는 문항으로 구성하였고 직업가치관과 진로태도에 대해서는 청소년들의 인식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자기탐색이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직업적 소질, 적성을 파악하고 자신이 처한 사회적 환경적 특징을 이해하는 능력을 의미한다(김봉환 외, 2006). 이러한 개념적 의미에 기반하여 자기탐색문항은 워크넷 한국고용정보원 초등학생용 진로인식검사²⁾를 참고하여 자신의 흥미, 성격, 적성에 대해 얼마나 잘 알기 위해 노력하고 현재 알고 있는지에 대해 묻는 5개의 문항과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이나 성격 검사에 참여해 본 횟수를 묻는 1개의 문항, 총 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직업탐색은 직업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능력으로 이종범(2005)의 연구에서 제안한 초등학생 진로발달 검사도구를 참고하여 청소년들이 관심있는 직업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관련 정보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대해 묻는 4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직업가치관이란 진로 및 직업선택과 관련하여 개인이 선호하는 바 또는 바람직하다고 믿는 기준이며 행동을 이끄는 가치(value)이다(Rokeach, 1973). 직업가치관 측정문항은 양한주(1997)에서 제시한 문항을 참고하여 4개의 문항으로 축약하여 개발하였다. 진로태도는 이기학(1997)의 진로성숙도와 진영선(2014)의 진로준비도를 참고하여 진로설계를 위해 준비하고 노력하려는 성향과 이를 얼마나 자기주도적으로 실천하고 있는지에 대해 묻는 6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진로설계관련 문항은 <표 III-8>과 같다.

2) www.wrok.go.kr

지표	문항	출처
자기탐색	문1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평소에 관심을 갖고 생각하는 편이다.	워크넷 한국고용정보원 초등학생용 진로인식검사 (www.work.go.kr)
	문2 내가 원하는 직업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문3 나는 나에 대하여 좀 더 잘 알기 위해서 노력한다.	
	문4 나의 성격에서 좋은 점이 무엇인지 안다.	
	문5 내가 관심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안다.	
	문6 (경험) 청소년 여러분들은 자신의 적성이나 성격을 알아보기 위해 검사에 참여해 본적이 있습니까?	-
직업탐색	문7 관심있는 직업에서 성공한 사람의 삶을 소개한 책을 읽어보았다.	이종범 (2005)
	문8 관심있는 직업을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인터넷에서 여러 정보를 검색하였다.	
	문9 나의 장래희망과 관련된 직업에는 무엇이 있는지 조사해 보았다.	
	문10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조사해 보았다.	
직업 가치관	문11 돈과 관계없이 일을 하는 것 자체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다.	양한주 (1997)
	문12 자신의 직업에 대하여 자랑스러움을 느끼는 사람이 멋있다.	
	문13 직업은 가치있는(좋은) 직업과 가치없는(좋지않은) 직업이 따로 있다고 생각한다.	
	문14 현실이 어렵더라도 하고 싶은 일을 위해 도전하는 삶이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	
진로태도	문15 나는 미래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상상해 보곤 한다.	이기학 (1997) 진영선 (2014)
	문16 나는 부모님이 내 장래에 대해 무엇을 기대하는지 안다.	
	문17 나는 종종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갖기 위해 필요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생각해본다.	
	문18 내가 원하는 직업인이 되기 위해서 관련된 과목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문19 내가 원하는 직업(전공)을 갖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문20 나는 내가 꿈꾸는 미래의 직업인이 되기까지 어려움이 있다면 극복해 나가겠다.	
	문21 나는 나의 할 일을 스스로 해내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	

(2) 여가활용(Leisure Use)

여가활용은 진정한 의미의 여가를 즐기고 여가경험을 통해 최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Witt & Ellis, 1987). 성은모 외 (2013)의 연구에서는 여가활용을 측정할 수 있는 요소로 여가필요성 인식, 여가조절, 여가몰입을 제안하였는데 이 연구에서는 여가필요성 인식을 포함하는 여가태도로 변경하였고 여가유능감과 여가만족을 추가하는 대신 여가조절을 삭제하였다. 여가활동의 과정을 주체적으로 통제하고 여가경험을 통해 결과에 책임을 지는 여가조절능력 또한 건전한 여가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능력이라고 볼 수 있으나 여가활동이 부족한 한국의 청소년들에게는 여가조절능력보다는 여가태도, 여가유능감, 여가만족이 여가활용을 측정할 수 있는 요소로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가활용은 여가태도, 여가유능감, 여가몰입, 여가만족으로 구분하여 측정문항을 개발하였다.

여가태도는 여가에 대한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요소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인지적 요소는 여가에 대한 일반적 지식, 신념, 특성이며, 정서적 요소는 감성적인 느낌, 선호도 마지막으로 행동적 요소는 여가활동과 과거, 현재의 경험 그리고 의도된 행동을 의미한다 (Ragheb & Beard, 1982). 여가태도 측정문항은 전영숙(2007)의 연구에서 제안한 측정문항 중 여가에 대한 인지적 태도, 정서적 태도, 행동적 태도를 묻는 각 2개씩의 문항을 선별하여 총 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여가유능감은 여가활동에서 발휘할 수 있다고 느끼는 개인의 능력으로 사회적, 인지적, 신체적 유능감을 포함하는 개념이다(서동균, 2007). 따라서 여가유능감의 측정문항은 Witt와 Ellis (1982)가 개발한 여가진단도구(The Leisure Diagnostic Battery) 중 인지-사회 유능감 2문항과 신체적 유능감 2문항을 선별하여 총 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여가몰입은 운동 수행 시 자신의 운동기능과 환경의 요구조건이 조화를 이루어 활동 그 자체에 완벽하게 몰두할 때 느끼는 최적의 심리상태로 일체감, 정신집중, 완전몰입, 인지결여의 하위영역을 포함한 개념을 의미한다(서동균, 2007). 따라서 여가몰입 측정문항은 일체감, 정신집중, 완전몰입, 인지결여 각 1문항씩 총 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여가만족은 여가행동의 선택과 참가의 결과로서 개인이 형성하거나 획득되는 긍정적 인식 또는 감정(Beard & Ragheb, 1980)으로서 이를 위한 측정문항 2개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마지막 문항으로 청소년들이 일주일에 여가스포츠활동에 몇 시간정도 참여하고 있는지에 대해 묻는 문항을 추가하였다. 여가활용관련 문항은 <표 III-9>와 같다.

지표	문항	출처
여가태도	문1 여가(취미)활동은 내가 더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이다.	전영숙 (2007)
	문2 여가(취미)활동은 중요하다.	
	문3 여가(취미)활동은 내게 즐거운 경험들을 제공해준다.	
	문4 여가(취미)활동은 상쾌함을 느끼게 한다.	
	문5 바쁘더라도 여가(취미)활동에 참여한다.	
	문6 나의 여가(취미)활동을 배우고 준비하는데 시간을 보내고 싶다.	
여가 유능감	문7 여가시간에 친구들끼리 모여 스포츠활동을 할 때 나는 그 무리들 중에 가장 대표하는 사람이라 생각한다	서동균 (2007)
	문8 내가 특별히 여가시간에 즐겨 할 만한 운동기술이 있다.	
	문9 나는 내가 하는 거의 모든 여가스포츠활동에 능숙하다.	
	문10 친구들끼리 스포츠경기를 하게 되면 나는 보통 이기는 편이다.	
여가몰입	문11 나는 스포츠활동을 하는 동안 내 생각과 행동이 일치되는 것을 느낀다.	서동균 (2007)
	문12 나는 여가스포츠활동을 할 때 정신집중이 잘 된다.	
	문13 나는 여가스포츠활동을 하는 동안 상당히 몰입하게 된다.	
	문14 나는 여가스포츠활동을 너무 열심히 한 나머지 가끔 시간 감각을 잃어버리기도 한다.	
여가만족	문15 내가 하고 있는 여가활동은 매우 흥미롭다.	김성수 (2009)
	문16 나에게 무엇인가 이루어냈다는 마음을 가지게 한다.	
(경험)	문17 청소년 여러분들은 취미활동(여가스포츠활동)을 일주일에 몇 시간정도 합니까?	-

(3) 개척정신(Pioneer spirit)

개척정신은 예측 불가능한 환경 속에서 위기를 기회로 인식하여 새로운 가능성으로 인지하며 이를 관리, 조직, 개발시키려는 태도와 능력을 의미한다(김경훈 외, 2012). 성은모 외 (2013)의

연구에서는 개척정신을 측정하는 요소로 차별화태도, 도전정신, 위험감수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는데 이 연구에서는 위험감수를 제거하였다. 그 이유는 청소년시기에는 위험을 감수하는 기회가 많지 않아 연구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삭제하였다. 차별화 태도란 주변에서 보던 사물이나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다른 기준 또는 다양한 관점으로 분석을 하며, 이를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보려고 노력하는 태도를 의미한다(Covin & Slevin, 1986). 이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으로는 성은모 (2013)의 연구와 Yhe(2004)의 연구에서 제한한 문항들을 분석하여 이 연구의 목적에 맞도록 선별 또는 수정하여 총 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도전정신은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에 도전하는 태도로 정의 하였다. 이는 본인에게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 했던 상황, 기술, 과제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도전적으로 수행하고 경험하려는 태도를 의미한다(Covin & Slevin, 1986).

이러한 개념적 의미에 기반하여 도전정신을 측정하는 문항은 김주희(2012)의 연구에서 활용한 문항을 활용하여 총 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개척정신관련 문항은 <표 III-10>과 같다.

표 III -10 ‘개척정신’ 영역 문항 및 출처

지표	문항	출처
차별화 태도	문1 내가 문제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내면 다른 사람들이 독특하다는 소릴 자주 듣는다.	성은모(2013)
	문2 같은 사물, 현상을 다른 사람과 동일하게 바라볼 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때가 많다.	
	문3 나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고 말하는 것을 쉽게 따라하지 않는다.	Yeh(2004)
	문4 나는 늘 다른 사람이나 대상에 맞서 대들거나 반대하는 편이다	
	문5 나는 문제를 혼자서 해결할 수 있다.	
도전정신	문6 나는 쉬운 과제나 임무보다 어려운 과제와 임무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김주희(2012)
	문7 나는 전혀 경험이 없는 새로운 과제와 임무에 도전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문8 나는 계속적으로 변하거나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일을 좋아하지 않는다.	
	문9 나는 변화가 별로 없는 안정적인 환경을 좋아한다.	

4) 대인관계 역량 측정도구 예비 문항 개발

대인관계 역량의 하위요소 검토와 이를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을 추출하기 위하여 성은모 등(2013)이 개발한 청소년 역량지표 체계를 기반으로 김기현 등(2010)의 청소년의 생애핵심역량, 한국교육개발원(2013)의 학생역량,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09)의 대학생 직업기초능력, EFF 등에서 제시하는 역량 중 대인관계역량과 관련된 기술 요소들, 윤명희와 김진화(2007)의 청소년의 생활역량 진단척도, 이석재 등(2006)의 생애능력측정도구 등 청소년의 대인관계 역량과 관련된 다수의 연구 및 척도를 검토하였다.

대인관계 역량의 하위요소는 성은모 등(2013)의 연구를 기초로 관계형성(자기개방성, 친화성, 의사소통, 공감 및 배려), 리더십(의사결정, 집단활동 관리, 추진력), 협동(집단추진, 팔로워십, 갈등문제해결)을, 즉 3개 하위요소와 10개 지표를 포함하였다.

대인관계 역량 측정도구 개발을 위해 성은모 등(2013)의 하위요소와 각 지표를 기초로 하여, 관련 선행연구와 척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측정도구는 대인관계 역량에 대한 청소년의 행동, 태도 등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각 지표별로 4-7문항 정도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관계형성 21문항, 리더십 15문항, 협동 14문항, 총 5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 조사항목을 기초로 하여 중·고등학생 40명에게 설문을 실시하였다. 조사 후, 문항신뢰도가 낮은 문항은 제거하고 적합한 새로운 문항으로 추가하는 과정을 거쳤다. 또한 청소년이 이해하기 어려움이 있다고 느껴지는 용어를 다소 수정하는 과정을 거쳤고, 전체 연구진이 합의할 때까지 문항에 대한 수정 및 보완이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관계형성 23문항, 리더십 17문항, 협동 18문항, 총 58문항을 측정도구 초안으로 구성하였다. 대인관계역량의 하위 영역별 예비문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관계형성 영역

관계형성 범주의 각 하위영역, 자기개방성, 친화성, 의사소통, 자기개방성에 대한 측정문항 개발을 위하여 Buhrmester 등(1988)의 ICQ(Interpersonal Competence Questionnaire) 척도, 한국교육개발원(2003)의 생애능력측정도구, 한국교육개발원(2006)의 리더십 검사도구, 김기현 등(2009)의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등에서 밝힌 관계형성 관련 문항을 참고로 하여 수정 및 개발하였다.

하위요소	문항 내용	출처
자기 개방성	문1 나는 친한 친구에게 나의 고민에 대해 의논할 수 있다.	Buhrmester 등(1988)
	문2 나는 친한 친구에게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이야기할 수 있다.	
	문3 나는 친한 친구에게 내 행동을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나로써 행동한다.	
	문4 나는 새로운 친구에게 있는 그대로의 나에 대해 말할 수 있다.	
	문5 나는 가까워지고 싶은 사람과 대화할 때, 나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한다.	
친화성	문5 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서로 알아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	Buhrmester 등(1988)
	문6 나는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대로 "나는 모르겠는데"라고 말한다.	한국교육개발원(2003)
	문7 나는 모르는 사람과도 쉽게 친해질 수 있다.	한국교육개발원(2006)
	문8 나는 친해지고 싶은 사람들에게 나 자신을 직접 소개한다.	Buhrmester 등(1988)
	문9 나는 관심 있는 새로운 사람에게 어떤 일을 함께 하자고 제안하기도 한다.	
	문10 나는 낯선 모임에 자주 참석한다.	
	문11 나는 새로운 사람을 알아 가는 것이 재미있다.	
의사 소통	문12 나는 상대방의 눈을 보며 대화한다.	DeSeCo 논의 내용을 근거로 김기현 등(2009)이 개발한 문항을 수정
	문13 나는 상대방의 말이 이해가 안 되면 정확하게 알기 위해 질문을 한다.	
	문14 나는 상대방의 몸짓이나 표정을 살피며 듣는다.	
	문15 나는 상대방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내용을 요약하여 확인한다.	한국교육개발원(2003)
	문16 나는 다른 사람에게 말할 것이 있을 때, 주저하지 않고 바로 이야기 한다.	
	문17 나는 상대방과 의견차이가 있을 때, 그것에 대해 좀 더 깊이 이야기 나눌 수 있다.	Buhrmester 등(1988)
공감 및 배려	문18 나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쉽게 파악하고 이해한다.	한국교육개발원(2006)
	문19 나는 다른 사람이 문제를 겪고 있을 때,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문20 나는 상대방이 나의 말과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생각하면서 말하고 행동한다.	한국교육개발원(2003)
	문21 나는 바쁜 일이 있어도, 화가 난 친구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준다.	Buhrmester 등(1988)
	문22 나는 나와 생각이 다르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선택을 존중한다.	한국교육개발원(2006)

(2) 리더십 영역

리더십 범주의 각 하위영역, 의사결정, 집단활동 관리, 추진력에 대한 측정문항 개발을 위하여 한국교육개발원(2003)의 생애능력측정도구, 한국교육개발원(2006)의 리더십 검사도구, 김기헌 등(2008)의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윤명희와 김진화(2007)의 청소년의 생활역량 진단척도, 김성숙 등(2009)의 리더십 유형 검사 도구, Seevers 등(1995)의 Youth leadership life skills(YLLS) 척도, Avolio와 Bass(1995)의 Multifactor Leadership Questionnaire(MLQ) 등에서 밝힌 리더십 관련 문항을 참고로 하여 수정 및 개발하였다.

표 III-12 리더십 초안 및 출처

하위요소	문항 내용	출처
의사 결정	문1 나는 내가 속한 그룹의 의사결정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 본다.	Heppner & Peterson(1982) 참고로 김기헌 등(2008) 개발
	문2 나는 내가 속한 그룹의 의사결정을 위한 여러 방법 중 어떤 방법을 선택할지 기준을 정한다.	한국교육개발원(2003)
	문3 나는 내가 속한 그룹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우선순위를 생각하여 의사결정을 한다.	한국교육개발원(2003), Seevers 등(1995)
	문4 나는 내가 속한 그룹의 의사결정을 위해 어떤 방법이 더 옳은 지 비교하여 본다. 할 때, 어떤 방법이 더 좋은 지 비교해 본다.	한국교육개발원(2003)
	문5 나는 내가 속한 그룹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잘 결정하는 편이다.	Seevers 등(1995)
집단활동 관리	문6 나는 여러 사람들을 모아서 모임 또는 활동을 할 때, 주로 이끌어 나가는 편이다.	한국교육개발원(2006)
	문7 나는 그룹활동을 할 때, 각 구성원들의 역할을 골고루 잘 나누는 편이다.	한국교육개발원(2003), Seevers 등(1995)
	문8 나는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효과적으로 조화롭게 조정한다. 할 수 있다.	한국교육개발원(2006)
	문9 나는 그룹활동을 할 때, 활동목표를 제시하고 친구들을 이끌 수 있다.	윤명희, 김진화(2007)
	문10 나는 그룹활동을 할 때, 활동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중간중간 체크한다.	김성숙(2009)
	문11 나는 그룹활동을 할 때, 잘못 진행되고 있는 것을 판단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추진력	문12 나는 내가 속한 그룹의 목표를 완수하는 데 필요한 단계를 정할 수 있다.	한국교육개발원(2006)
	문13 나는 내가 속한 그룹의 계획을 실행할 때 발생할 어려움에 철저히 대비한다.	한국교육개발원(2003)
	문14 나는 내가 속한 그룹의 계획을 실행할 때,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밀고 나간다.	한국교육개발원(2006)

하위요소	문항 내용	출처
문15	나는 그룹활동을 할 때, 정해진 시간을 생각하며 활동을 수행한다.	한국교육개발원(2003)
문16	나는 그룹활동을 할 때, 문제를 해결할 기간을 명확하게 정하고 일을 추진한다.	
문17	나는 그룹활동을 할 때, 친구들의 능력과 의지를 생각하며 일을 추진한다.	Avolio & Bass(1995)
문18	나는 그룹활동을 할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본다.	한국교육개발원(2003)

(3) 협동 영역

협동 범주의 각 하위영역, 집단촉진, 팔로워십, 갈등문제해결에 대한 측정문항 개발을 위하여 한국교육개발원(2006)의 리더십 검사도구, 김기현 등(2008)의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윤명희와 김진화(2007)의 청소년의 생활역량 진단척도, 김문주(2010)가 사용한 팀공유감 척도, OECD의 PIAAC 문항, Kelly(1992) 팔로워십 측정도구, Avolio와 Bass(1995)의 Multifactor Leadership Questionnaire(MLQ) 등에서 밝힌 협동 관련 문항을 참고로 하여 수정 및 개발하였다.

표 Ⅲ-13 협동 초안 및 출처

하위요소	문항 내용	출처
집단 촉진	문1 나는 그룹활동을 할 때, 친구의 장점이거나 능력을 적극적으로 알려 준다.	윤명희, 김진화(2007)
	문2 나는 그룹활동을 할 때, 친구가 어려워하면 기꺼이 돕는다.	연구진 개발
	문3 나는 그룹활동을 할 때, 친구들이 의견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한다.	한국교육개발원(2006)
	문4 나는 그룹활동을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한다.	Avolio & Bass(1995)
	문5 나는 그룹에서 하고 있는 활동이 의미있는 일이라는 것을 친구에게 이야기 한다.	
	문6 나는 그룹활동을 할 때, 친구가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팔로워십	문7 나는 그룹 활동을 할 때, 다른 사람들과 뜻을 잘 맞추면서 활동한다.	한국교육개발원(2006)
	문8 나는 그룹 활동을 할 때, 나의 역할에 최선을 다한다.	
	문9 나는 친구들과 함께하는 과제에서 구성원들을 도와가며 일을 마칠 수 있다.	전명순(2011)
	문10 나는 그룹의 리더가 아니더라도 맡은 일보다 많은 일을 하여 그룹 활동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Kelly(1992)
	문11 나는 내가 속한 그룹에서 가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능	

하위요소	문항 내용	출처
	력을 최대한 발휘한다.	윤명희, 김진화(2007)
	문12 나는 리더의 요구나 목표를 이해하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노력한다.	
	문13 나는 나의 의견과 다를지라도 그룹에서 결정된 일을 잘 따르는 편이다.	
갈등 문제 해결	문14 나는 그룹에서 발생한 문제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한다.	한국교육개발원(2006), OECD PIAAC 문항
	문15 나는 그룹의 문제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내용을 친구들과 공유한다.	김문주(2010)
	문16 나는 그룹에서 발생한 문제를 친구들과 자주 이야기한다.	
	문17 나는 그룹활동을 할 때 중요한 사항이나 문제점이 생기면 친구들과 함께 해결한다.	한국교육개발원(2006)
	문18 나는 그룹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잘못을 따지기 보다는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김문주(2010)

5) 사회참여역량 측정도구 예비 문항 개발³⁾

사회참여 역량은 개인 시민성(권리·책임의식, 민주적 절차 및 의식, 정치 관심 및 정치적 자아 효능감), 공동체 시민성(상대입장이해, 사회참여, 사회봉사, 신뢰·호혜성 및 관용), 세계 시민성(성인지, 이민자에 대한 태도, 국가 및 역사의식, 국제관계 이해) 등 3개 하위영역, 11개 지표를 포함하여 구성하였다.

사회참여 역량지수 측정을 위한 예비문항은 청소년의 행동, 태도 및 가치관 등을 측정하도록 구성하였다. 중·고등학생 40명에게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결과 이후 다른 역량과 요인이 중복된다고 판별된 문항을 제거 및 보완하고 신뢰도가 낮은 문항을 제거하여 예비조사 측정도구의 초안 문항은 개인 시민성 21문항, 공동체 시민성 43문항, 세계 시민성 23문항으로 이루어졌다. 각 하위 영역별 자세한 설명은 김태준 (2014)에 제시되었으며, 본 장에서는 사회참여 역량 하위영역별 최종 예비문항을 제시하였다.

3) 이 부분은 협동연구과제 연구책임자인 000 박사(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가 책임집필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협동연구 보고서 000 (2014)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도구개발 및 국제비교연구 I: IEA ICCS 2015-사회참여역량’을 참고바랍니다.

(1) 개인 시민성

개인 시민성의 하위 구성요소는 '권리·책임 의식', '민주적 절차 및 의식', '정치 관심 및 정치적 자아효능감' 각 구성요소의 문항준거로서 '권리·책임 의식'에서는 '정치적 권리', '공공질서의식', '사회적 도움', '법질서 의식', '민주적 절차 및 의식'에서는 '민주적 절차', '부패(독점·이권 등)', '정치 관심 및 정치적 자아효능감'에서는 '정치·사회적 관심', '정치적 자아효능감'이 존재한다.

표 III-14

사회참여 역량 예비조사 측정도구 '개인 시민성' 영역 최종 문항 및 출처(김태준, 2014에서 재인용)

구성 요소	문항	출처
권리·책임의식	문1 법이 불공정하다면 사람들은 정치적 항의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김태준 2010
	문2 사람들은 언제나 정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할 자유를 가져야 한다.	
	문3 모든 사람들은 항상 그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문4 모든 사람들은 정치지도자를 자유롭게 선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문5 나는 공공시설(예: 공공 화장실, 놀이시설, 수도시설)을 이용할 때 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줄을 차례대로 지키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김태준 2003
	문5 수업시간에 핸드폰을 사용하여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문6 내 사정이 있다면 버스나 전철에서 노약자에게 반드시 자리를 양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문7 당신은 우리 사회에서 다음과 같은 일들이 얼마나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8 거리에서 잃어버린 지갑을 돌려받는 일	
	문9 다음은 우리사회에서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당신의 생각과 느낌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아래 문항에 얼마나 동의하는지 응답하십시오.	
	문10 나는 아무도 보지 않으면 법질서(예: 교통질서)를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문11 우리 사회에서는 질서를 지키는 사람이 손해를 본다.	

구성 요소	문항	출처
민주적 절차 및 의식	문12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는 여러 사람에게 의견을 물어보는 것 보다는 한 두 사람이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좋다.	
	문13 어떻게 해서든 잘 살 수 있도록 해주면 되었지 민주주의를 꼭 해야 한다는 법은 없다.	
	문14 우리 사회에서 권력이 있는 사람은 법을 어기고도 잘 산다.	
정치 관심 및 정치적 자아 효능감	문15 당신은 다음의 사항들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김태준 2010
	문16 우리나라에서의 정치적 이슈	
	문17 우리나라에서의 사회적 이슈	
	문18 환경 관련 이슈	
	문19 나는 또래 친구들에 비해 정치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	
	문20 정치적 이슈 및 문제를 토론할 때, 나는 항상 토론에 참여 한다.	
	문21 나는 남들이 귀기울일만한 정치적 의견을 가지고 있다.	
	문22 성인이 되면, 나는 정치에 참여할 것이다.	
	문23 나는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정치이슈들을 잘 이해하고 있다.	

(2) 공동체 시민성

공동체 시민성의 최종 문항은 크게 ‘상대입장이해’, ‘사회참여’, ‘사회봉사’, ‘신뢰·호혜성 및 관용’으로 나뉘고, 각 범주의 하위영역으로는 ‘상대입장이해’에서는 ‘가치갈등 및 수용’, ‘사회참여’에서는 ‘관습적 참여’, ‘사회운동 참여’, ‘합법적 참여’, ‘비합법적 참여’로, ‘사회봉사’에서는 ‘봉사활동’, ‘환경보호’, ‘입양에 대한 태도’, ‘공동체에 대한 기부’, ‘신뢰·호혜성 및 관용’에서는 ‘대인 신뢰’, ‘기관 및 제도 신뢰’, ‘교실 개방성’으로 구성되었다.

표 III-15 사회참여 역량 예비조사 측정도구 ‘공동체 시민성’ 영역 최종 문항 및 출처(김태준, 2014에서 재인용)

구성 요소	문항	출처
상대 입장 이해	문36 최근에 철수는 감옥에서 석방되었다. 그는 남의 집 물건을 훔쳤기 때문에 3년 동안 감옥에 있었다. 석방된 후 철수는 영희라는 사람의 옆집으로 이사를 했다. 영희는 “철수가 우리집 물건을 훔쳐갈 수	김태준 2009a

구성 요소		문항	출처
		있기 때문에 우리 옆집으로 이사와서는 안된다.” 라고 말한다.	
	문36-1	철수가 영희의 옆집에 사는 것을 허락해야만 하는 가장 알맞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문36-2	철수가 옆집에 사는 것을 허락하기 위해 영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문37	어느 날 한 노인이 교통신호를 지키지 않고 길을 건너고 있었다. 교통경찰이 이를 발견하고 노인에게로 갔다. 그런데 그 노인은 그 경찰의 친한 친구 부모님이었다. 그 경찰은 다음의 두 가지 선택에 대해 갈등하고 있다. 1) 친구 부모님의 교통위반을 적발하여 벌금을 매기는 것 2) 친구 부모님의 교통위반을 모른 척 하는 것	김태준 2009a
	문37-1	‘교통경찰이 친구 부모님의 교통위반을 적발해서 벌금을 매긴다면’ 어떻게 생각하나요?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O표 해 주세요.	
	문37-2	‘교통경찰이 친구 부모님의 교통위반을 모른 척 눈감아 준다면’ 어떻게 생각하나요?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O표 해 주세요.	
	문32	당신이 성인이 되면, 아래에 제시된 정치적 활동에 얼마나 참여할 것인지 말씀해주세요.	김태준 2010
	문32-b	투표참여	
	문32-c	투표하기 전 후보자에 대한 정보 수집	
	문32-d	선거 기간 동안 후보자나 정당을 돕기	
	문32-e	정치단체 가입	
	문32-f	노동조합 가입	
	문32-g	지역 및 시 선출직 후보 출마	
사회 참여	문21	당신은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해 다음의 행동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김태준 2010
	문21-g	불공정한 법에 대항한 평화적 항의	
	문21-h	지역공동체에 유익한 활동	
	문21-i	인권증진운동	
	문21-j	환경보호운동	
	문31	시민들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일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에 제시된 정치적 반대 의견 항목에 대해 당신이 성인이 되었을 때 앞으로 참여하실지 말씀해주세요.	김태준 2010
	문31-b	개인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 리본이나 뱃지 달기	
	문31-d	비폭력 집회 참여	
	문31-e	진정서에 서명하기	
	문31-f	상품 불매 운동하기	

구성 요소		문항	출처
	문31-g	벽에 향의 표어/스프레이/페인팅하기	
사회 봉사	문II-4-17	당신은 학교, 학급봉사 및 자원봉사 활동에 얼마나 자주 참여하십니까?	김태준 2003
	문II-4-13	나는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고 보는 대로 줍는다.	
	문II-4-14	나는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꼭 지킨다.	
	문A-12-12	나에게 자녀가 없을 경우에는 입양할 수 있다.	김태준 2009b
	문A-12-11	나는 자녀가 있어도 입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문A-15	당신이 속한 공동체(지역사회, 동호회 등)에서 하는 활동이 당신에게 직접적인 이익을 가져다주지는 않지만, 당신의 이웃이나 동료에게는 이익을 준다면 그 활동에 시간이나 돈을 투자할 의사가 있습니까?	김태준 2009b
	문A-15-1	내 시간을 투자 할 생각이 있다.	
	문A-15-2	내 돈을 투자 할 생각이 있다.	
신뢰·호혜성 및 관용	문A-14	당신은 다음에 제시되는 집단이나 사람들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각각에 대해 신뢰정도를 말씀해주십시오.	김태준 2009b
	문A-14-1	가족	
	문A-14-2	친구	
	문A-14-3	이웃	
	문A-14-7	낯선 사람(한국인)	
	문27	귀하는 다음의 기관을 어느 정도 신뢰하십니까?	김태준 2010
	문27-a	정부	
	문27-c	법원	
	문27-d	경찰	
	문27-e	정당	
	문27-f	국회	
	문27-g	미디어(TV, 언론사, 라디오)	
	문27-h	군대	
	문27-i	학교	
	문16	수업시간에 정치적·사회적 이슈를 토론할 때, 다음에 제시된 일들이 얼마나 자주 일어납니까?	김태준 2010
	문16-a	학생들은 공개적으로 선생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	
	문16-d	학생들은 현재의 정치적 사건을 학급차원에서 토론한다.	
	문16-e	다른 학생들과 의견이 다를지라도 학급에서 자기의견을 표명한다.	
	문16-f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과 함께 이슈를 토론하도록 권장한다.	
	문16-g	선생님들이 학급에서 이슈를 설명하면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해준다.	

(3) 세계 시민성

세계 시민성의 최종 문항은 크게 ‘성인지’, ‘이민자에 대한 태도’, ‘국가 및 역사의식’, ‘국제관계 이해’로 나뉘고, 각 범주의 하위영역으로는 ‘성인지’에서는 ‘가정 내 남녀평등’, ‘직장 내 남녀평등’으로, ‘이민자에 대한 태도’에서는 ‘이민자 권리에 대한 의식’, ‘이민자 허용 및 영향’으로 구성되었으며, ‘국가 및 역사의식’은 ‘국가 의식’, ‘국가 안전 의식’, ‘역사의식’으로, ‘국제 관계 이해’에서는 ‘국제사회에 대한 관심’, ‘글로벌 의사소통’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표 III-16 사회참여 역량 예비조사 측정도구 ‘세계 시민성’ 영역 최종 문항 및 출처(김태준, 2014에서 재인용)

구성요소		문항	출처
성 인지	문 II-4-1	가족의 생계문제는 남자가 책임져야 한다.	김태준 2003
	문24-g	여성의 우선적 책무는 아이를 보육하는데 있다.	김태준 2010
	문24-e	동일한 일을 할 때, 모든 사람들은 동일한 임금을 받아야 한다.	
	문II-4-3	남녀가 함께 일하는 직장 부서의 책임자는 남자가 맡는 것이 좋다.	김태준 2003
이민자에 대한 태도	문26-b	이민자들의 자녀도 그 나라의 아이들과 동일한 교육 기회를 가져야 한다.	김태준 2010
	문26-c	수년 동안 살고 있는 이민자들에게 선거에 투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문A-19	귀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이민 오는 것을 얼마나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태준 2009b
	문A-19-1	외국에 있는 우리 민족 후손들(예: 고려인, 조선족 등)	
	문A-19-2	우리 민족이 아닌 외국인이나 소수민족	
	문A-19-3	빈곤국가(가난한 나라)의 사람들	
국가 및 역사의식	문II-3-11	만일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당신이 외국에 있다면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김태준 2003
	문II문-3-10	애국가가 들릴 때 당신은 어떤 느낌을 갖습니까?	

구성요소		문항	출처
	문Ⅱ-3-9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른 나라 국민에 비하여 나라를 아끼고 사랑 하는 마음이 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Ⅱ-3-7	나는 다른 나라에 가서 살고 싶다	
	문Ⅱ-3-1	우리는 되도록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생산품을 사야한다.	
	문20-g	안전 요원은 국가 안전을 위협할 용의자(예: 간첩 등)라고 여겨지는 사람의 편지나 전화, 이메일을 체크할 수 있다.	김태준 2010
	문20-1	국가 안전에 엄청난 위협을 느낄 때, 정부는 언론 출판을 통제할 권력을 가져야 한다.	
	문Ⅱ-3-4	우리나라는 우리가 성취한 것들에 대해 다른 나라의 존경을 받을 만하다.	김태준 2003
	문Ⅱ-3-5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자랑스러운 것은 거의 없다.	
국제관계 이해	문22	당신은 다음의 사항들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김태준 2010
	문22-d	다른 나라들의 정치·사회적 문제	
	문30-a	국가 간 갈등에 대한 신문기사 등	
	문62	우리나라가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소수의 필요한 사람만 외국어를 잘하면 된다.	자체개발
	문63	나는 외국인과 잘 지내는데 큰 문제가 없다.	
	문64	나는 외국을 방문할 때 그 나라에 적합한 매너와 문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학습한다.	

3.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도구 문항 개발 예비 본 조사 개요

1) 조사대상 표집설계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도구 문항 개발을 위한 본 조사는 2014년 6월 현재 우리나라 16개 시·도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재학중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조사대상 학생은 6,000명을 목표표본으로 설정한 뒤 2013년 교육통계연부를 표집틀로 하여 단순비례배분에 의한 층화집락표집 방식으로 추출하였다.

표 III-17 모집단 구성 및 목표표본 표집설계

학교급		학년	모집단		목표표본
초등학교		5학년	460,378	985,659 (21.2%)	1270 (21.2%)
		6학년	525,281		
중학교		1학년	596,419	1,791,017 (38.5%)	2307 (38.5%)
		2학년	588,834		
		3학년	605,764		
고등학교	일반고	1학년	449,140	1,348,190 (28.9%)	1737 (28.9%)
		2학년	446,052		
		3학년	452,998		
고등학교	자율고	1학년	50,110	148,636 (3.2%)	197 (3.2%)
		2학년	48,749		
		3학년	49,777		
고등학교	특성화고	1학년	113,015	333,251 (7.2%)	429 (7.2%)
		2학년	109,398		
		3학년	110,838		
고등학교	특수목적고	1학년	17,467	51,360 (1.0%)	66 (1.0%)
		2학년	17,413		
		3학년	16,480		
계			4,658,113		6,006

※ 마이스터고는 특성화고에 포함

모집단에 따른 목표표본 표집설계에 따라 16개 시·도의 표본학급을 추출한 결과, 초등학교 48개 학교, 중학교 81개 학교, 고등학교 96개 학교 등 총 225개 학교가 표집 할당되었다. 지역별 자세한 내용은 <표 III-18>과 같다.

표 III-18 단순비례배분에 의한 표본크기 할당: 학교 수(225개)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자율고	특성화고	특수목적고
서울	8(4)	12(4)	9(3)	6(2)	6(2)	3(1)
경기	12(6)	21(7)	15(5)	3(1)	1	
인천	2(1)	3(1)	3(1)			
강원	2(1)	3(1)	3(1)	3(1)	2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자율고	특성화고	특수목적고
충북	2(1)	3(1)	3(1)			
충남	2(1)	3(1)	3(1)			
대전	2(1)	3(1)	3(1)			
경북	2(1)	3(1)	3(1)	6(2)	4	
경남	2(1)	6(1)	3(1)			
부산	2(1)	6(1)	3(1)			
대구	2(1)	3(1)	3(1)			
울산	2(1)	3(1)	3(1)			
전북	2(1)	3(1)	3(1)	3(1)	1	
전남	2(1)	3(1)	3(1)			
광주	2(1)	3(1)	3(1)			
제주	2(1)	3(1)	3(1)			
합계	48(24)	81(27)	66(22)	6(2)	21(7)	3(1)

* () 안의 수치는 학년별 학교수임. 총계: 225(83)개

목표표본 표집에 따른 학교할당은 층화집락추출법(지역*교급*학교유형)을 적용하였다. 각 층화기준 광역 내 교급별 학급당 평균학생 수를 기준으로 적정 추출학교 수를 결정하였고, 규모기준 정렬 학교리스트에서 학교 계통 추출(systematic sampling)하였으며, 고교의 경우 학교유형구분(일반고, 자율고, 특목고, 특성화고)을 추가 고려하였다. 학급선정에 있어서는 표본 선정 학교에서 1개 학년 1개 학급 추출하며, 학급은 해당 학년에서 무작위 추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2) 조사절차 및 일정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도구 개발을 위한 조사는 2014년 5월~7월까지 세달 간 전문조사업체에 의하여 사전조사와 본조사가 진행되었다.

사전조사는 조사표 초안에 대해 응답자의 응답 편의성과 내용 이해도 등을 파악하여 성공적인 본조사를 준비하기 위해 2014년 5월 10일~11일까지 양일간 실시되었다. 사전조사는 해당 학교급 별로 초등학생 10명, 중학생 20명, 고등학생 19명 등 총 49명(남학생 21명, 여학생 28명)을 대상으로 갱서베이(gang survey) 방식으로 1차 진행하였으며, 갱서베이 후 자세한 의견 파악을

위해 그룹별 2~3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사전 조사 후, 전체적인 설문지 구성에 대한 의견, 주요 문항 결과, 개별 문항을 중심으로 설문 조사지를 수정·보완하였다. 사전조사 응답자의 수를 제시하면 <표 III-18>과 같다.

표 III-19

사전조사 응답자 수

(단위:명)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합계
	5학년	6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남	3	—	—	8	2	2	3	3	21
여	3	4	2	4	4	3	6	2	28
합계	6	4	2	12	6	5	9	5	49

사전조사를 통해 수정·보완된 설문 조사지를 바탕으로 2014년 6월 12일부터 7월 25일까지 두 달간 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절차 및 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표 III-19>에 제시되었다.

표 III-20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도구 개발 본 조사절차 및 일정

단 계		내 용	기 간
조사기획	표본설계	- 교육부 모집단 자료를 제공받은 후 표본설계 실시 - 표본추출 리스트를 연구원에 제출	5월 22일 ~ 6월 6일
	설문 확정	- 조사표 초안 검토 - 사전조사 실시 - 자문진과 연구진 검토를 거쳐 확정	4월 30일 ~ 6월 2일
실사	조사원모집/교육	- 수도권 조사원 및 지방실사 조사원 모집 5개 권역으로 나눠 조사원 집체 교육 실시	집체교육 6월 9~10일
	조사도구 준비	- 설문지 제작 - 조사원지침서/조사안내자료/공문 - 응답자 답례품 준비 등	6월 3일 ~ 6월 8일
	현장 실사	- 학교방문조사 실시 - 특이사항 있을 시 즉각보고 - 연구진의 현장 모니터링 실시	6월 12일 ~ 7월 25일
자료처리/보고	에디팅	조사완료 설문지 에디팅	~ 8월 4일
	코딩	연구원의 지침에 따른 코딩	~ 8월 6일

단 계	내 용	기 간
편칭	• 전용 편칭 프로그램에 설문지 입력 • 연구원의 자료입력 검증 실시	~8월 8일
데이터 클리닝	• 연구원 가이드에 따라 데이터 클리닝 실시	8월 18일 ~ 8월 29일
가중치 작업	• 가중치 산출	~8월 29일
기초테이블	• 기초테이블 산출 및 차이검증 실시	9월 1일~
결과 보고	• 실사 완료 후 중간보고 실시 • 최종 데이터 제출 후 최종 보고 실시	중간보고 8월 12일 최종보고 10월 14일

2) 조사내용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도구 개발을 위한 조사내용은 생애학습역량, 생활관리역량, 진로개발역량, 대인관계역량, 그리고 사회참여역량 등 5개의 역량군과 청소년의 배경변인 특성변인을 중심으로 설문문항이 구성되었다.

생애학습역량은 사고력 12문항(통합적 사고력 3문항, 비판적 사고력 4문항, 감성적 사고력 5문항), 지적도구활용 22문항(언어능력 5문항, 수리과학능력 13문항(수리능력 5문항, 과학능력 8문항), 정보통신활용능력 4문항), 학습 적응성 12문항(변화수용력 4문항, 지적호기심 4문항, 학습주도성 4문항) 등 총 4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생활관리역량은 건강관리 22문항(식습관관리 8문항, 위생관리 4문항, 신체관리 6문항, 안전관리 2문항, 스트레스관리 2문항), 과제관리 16문항 (목표설정 5문항, 계획수립 4문항, 수행 4문항, 평가 3문항), 상황대처 20문항(매체 이용 및 유해물질 사용상황 대처 11문항, 유해환경 상황대처 9문항)문항, 정서조절 20문항 등 총 7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진로개발역량은 여가활용 17문항(자기탐색 6문항, 직업탐색 4문항, 직업가치관 4문항, 진로태도 7문항), 여가활용 17문항(여가태도 6문항, 여가유능감 4문항, 여가몰입 4문항, 여가만족(경험) 3문항), 개척정신 9문항(차별화태도 5문항, 도전정신 4문항) 등 총 4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대인관계역량은 관계형성 22문항(자기 개방성 5문항, 친화성 7문항, 의사소통 6문항, 공감 및 배려 4문항), 리더십 18문항(의사결정 5문항, 집단활동관리 6문항, 추진력 7문항), 협동 18문항(집단축진 6문항, 팔로워십 7문항, 갈등문제 해결 5문항) 등 총 5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사회참여역량은 개인 시민성 23문항(권리·책임의식 11문항, 민주적 절차 및 의식 3문항, 정치관심 및 정치적 자아 효능감 9문항), 공동체 시민성 44문항(상대입장 이해 4문항, 사회참여

15문항, 사회봉사 8문항, 신뢰·호혜성 및 관용 17문항), 세계 시민성 23문항(성 인지 4문항, 이민자에 대한 태도 5문항, 국가 및 역사의식 9문항, 국제관계이해 5문항) 등 총 9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배경정보에 대한 내용은 생년, 지역, 가족구성, 부모(보호자) 학력, 취업여부, 생활만족도, 학업성취도 수준, 경제적수준 등 총 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에 대한 각 역량군별 조사내용의 영역과 항목을 정리하여 제시하면 <표 III-19>와 같다.

표 III - 21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도구 조사내용

역량군	하위역량	조사영역	문항수
생애학습역량	사고력	통합적 사고력	3
		비판적 사고력	4
		감성적 사고력	5
	지적도구활용	언어능력	5
		수리과학 능력	13
		정보통신활용능력	4
	학습 적응성	변화수용력	4
		지적호기심	4
		학습주도성	4
	합계		46
생활관리역량	건강관리	식습관 관리	8
		위생관리	4
		신체관리	6
		안전관리	2
		스트레스 관리	2
	과제관리	목표설정	5
		계획수립	4
		수행	4
		평가	3
	상황대처	매체 및 유해물질 사용 상황 대처	11
		유해환경 상황 대처	9
	정서조절	특성분노, 행동활성화 및 행동 억제, 정신건강, 정서조절곤란	15
	합계		73
진로개발역량	진로설계	자기탐색	6
		직업탐색	4

역량군	하위역량	조사영역	문항수
		직업가치관	4
		진로태도	7
		여가태도	6
	여가활용	여가유능감	4
		여가몰입	4
		여가만족	2
		(경험)	1
		개척정신	차별화태도
	도전정신		4
	합계		47
대인관계역량	관계형성	자기 개방성	5
		친화성	7
		의사소통	6
		공감 및 배려	4
	리더십	의사결정	5
		집단활동관리	6
		추진력	7
	협동	집단촉진	6
		팔로워십	7
		갈등문제 해결	5
	합계		58
사회참여역량	개인 시민성	권리 · 책임의식	11
		민주적 절차 및 의식	3
		정치 관심 및 정치적 자아 효능감	9
	공동체 시민성	상대입장 이해	4
		사회참여	15
		사회봉사	8
		신뢰 · 호혜성 및 관용	17
	세계 시민성	성 인지	4
		이민자에 대한 태도	5
		국가 및 역사인식	9
		국제관계이해	5
	합계		90
배경정보	생년, 지역, 가족구성, 부모(보호자) 학력, 취업여부, 생활만족도, 학업성취도 수준, 경제적수준		8
합계			322

3) 조사결과

표집된 표본샘플을 기반으로 전국 16개 시·도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도구 개발을 위한 조사결과, 학생수 기준으로 초등학교 5, 6학년 1,248명(48학급), 중학생 1, 2, 3학년 2,558명(78학급), 고등학생 1, 2, 3학년 2,952명(96학급) 등 총 6,758명(22학급)의 샘플이 표집되었다. 지역별 학생수와 학급수의 자세한 현황은 <표 III-20>에 제시되었다.

표 III - 22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도구 조사 표집 학생수와 학급수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자율고		특성화고		특수목적	
	학생	학급	학생	학급	학생	학급	학생	학급	학생	학급	학생	학급
서울	203	8	365	12	277	9	34	6	154	6	78	3
경기	338	12	645	18	450	15	41	3	94	1		
인천	48	2	94	3	89	3						
강원	53	2	88	3	101	3	27	3	82	2		
충북	46	2	94	3	109	3						
충남	51	2	95	3	97	3						
대전	44	2	102	3	94	3						
경북	52	2	92	3	91	3	62	6	173	4		
경남	83	2	193	6	94	3						
부산	44	2	175	6	93	3						
대구	39	2	104	3	101	3						
울산	47	2	89	3	95	3	32	3	95	1		
전북	46	2	97	3	89	3						
전남	55	2	134	3	89	3						
광주	52	2	95	3	108	3						
제주	47	2	96	3	103	3						
합계	1,248	48	2,558	78	2,080	66	196	6	598	21	78	3

조사결과 표집된 6,758명의 응답결과를 바탕으로 데이터 검증 및 데이터 클리닝을 실시하였다. 우선, 조사표와 데이터를 대조하여 입력상의 오류, 과도하게 무응답이 많은 경우, 동일한 번호로 대부분 문항에 응답한 데이터를 검증하였다. 1차적으로 검증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논리적

오류사항에 대한 데이터 클리닝을 거쳤다. 이와 같이 데이터 검증과 데이터 클리닝을 통해 121명의 데이터를 제거하였으며, 최종적으로 6637명의 자료가 통계적 검증자료로 활용되었다. 최종 분석 대상으로 선정된 표본의 특성을 제시하면 <표 III-21>과 같다.

표 III-23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도구 조사 표집 학생수와 학급수

구분		사례수	%
전 체		6,637	100.0
교급	초등학교	1,190	17.9
	중학교	2,495	37.6
	고등학교	2,952	44.5
지역	서울	1,057	15.9
	경기	1,505	22.7
	인천	261	3.9
	강원	242	3.6
	충북	249	3.8
	충남	324	4.9
	대전	293	4.4
	경북	325	4.9
	경남	428	6.4
	부산	342	5.2
	대구	273	4.1
	울산	231	3.5
	전북	260	3.9
	전남	279	4.2
	광주	287	4.3
	제주	281	4.2
성별	남자	3,220	48.5
	여자	3,417	51.5
가족구성원	양부모가정	6,071	91.5
	한부모가정	420	6.3
	조손가정	37	0.6
	기타	109	1.6
부모님 학력	부모님 모두 2-3년제 대졸 이상	2,192	33.0

구분		사례수	%
	부모님 한 분만 2~3년제 대졸 이상	1,132	17.1
	부모님 모두 고졸 이하	1,773	26.7
	부모님 학력 잘 모르겠음	1,245	18.8
	부모님 안계심	57	0.9
	무응답	238	3.6
부모님 취업여부	맞벌이가정 (양친있음)	4,461	67.2
	외벌이가정 (양친있음)	1,653	24.9
	외벌이가정 (한부모가정)	314	4.7
	부모님 직업 없음	80	1.2
	부모님 안계심	57	0.9
	무응답	72	1.1
학업성정_중간고사 평균점수	60점 이하	1,557	23.5
	61~65점	553	8.3
	66~70점	659	9.9
	71~75점	557	8.4
	76~80점	723	10.9
	81~85점	663	10.0
	86~90점	707	10.7
	91~95점	605	9.1
	96~100점	430	6.5
	무응답	183	2.8
가정의 경제적 수준	①매우 못 산다	77	1.2
	②	240	3.6
	③	895	13.5
	④보통 수준	2,847	42.9
	⑤	1,543	23.2
	⑥	672	10.1
	⑦매우 잘 산다	286	4.3
	무응답	77	1.2

4. 자료분석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도구 개발을 위한 예비 본 조사 결과, 전국 16개 시도의 초·중·고등학교 6,758명의 자료가 수집되었고, 이 중에서 불성실하게 응답하거나 결측치가 발생한 자료들을 제거한 6,637명의 자료가 자료 분석에 활용되었다.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도구 예비문항을 개발하기 위하여, 수집된 자료의 문항분석 및 정규성 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확증적 요인분석 등이 이루어졌다. 최종 도출된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도구 문항을 바탕으로 청소년의 개인특성, 부모특성, 가구특성에 따라 그 차이가 있는지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우선, 수집된 자료의 문항분석 및 정규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문항의 평균 및 표준편차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이 이루어졌으며, 정규성(normality) 분석을 위하여 왜도(skewness)와 첨도(kurtosis)를 살펴보았다. 일반적으로 정규성에 있어 왜도는 절대값 2 이하 첨도는 절대값 7이하일 경우 정규성에 문제가 없다고 본다(Curran, et al, 1996). 문항과 전체문항 간의 상관관계수(corrected item-total correlation)에서는 절대값 .30 이하의 문항은 제거할 것으로 권데(Field, 2009; 김은주, 2013, 재인용)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도 이를 적용하여 .30 이하는 제거하였다. 마지막으로 문항 제거 시 신뢰도계수(alpha if item deleted)를 검토하여 신뢰도가 떨어지는 문항을 제거하였다.

문항분석 및 정규성 분석을 통해 도출된 예비 문항을 바탕으로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도구 예비 문항의 요인구조를 밝히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위하여 KMO 적합성 측도와 Bartlett 구형성 검정을 통한 요인분석의 타당성 확인하였다. KMO 표본 적합성 측도와 Bartlett 구형성 검정은 요인분석 수행 전 수집된 자료가 최소한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강현철, 2013). Kaiser(1974)에 의하면, KMO 값은 1에 가까울수록 표본의 상관이 요인분석에 적합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90이상이면 매우 좋고, .80 이상이면 양호하며, .70 이상이면 보통, .50이하면 적합하지 않다고 본다. Bartlett 구형성 검정은 ‘상관관계수 행렬이 단위행렬이다.’라는 즉, ‘공통요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는지 검정하는 것으로, p 값이 유의수준(.05)보다 작아 귀무가설을 기각하면 자료가 요인분석을 실시할 가치가 있다고 본다(강현철, 2013).

다음으로 고유치(eigen value), 스크리 검사(scree test), 설명분산 비율 및 누적비율, 해석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요인 수 결정하였다. 첫째, 고유치의 경우, 일반적으로 1 이상인

경우 적합하다고 보는데, 고유치가 1 이상이라는 것은 최소한 하나의 변수가 가진 변량 이상을 설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양병화, 2006: p292). 그러나 요인 수를 결정할 때 고유치가 1을 기준으로 무조건적으로 요인으로 받아들이거나 배제하는 것은 주의해야 하며, 연구자의 판단이 중요하다. 또한 종종 고유치를 기준으로 할 때 고유치 1 이상인 요인이 1개의 요인으로만 묶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할 때는 고유치를 0.7~0.8 이상의 기준으로 보기도 한다. 둘째, 스크리 검사는 잠정적인 요인 수를 알려주는 검사로, 스크리 도표 상 급경사가 있는 지점을 기준으로 요인 수를 확인할 수 있다(양병화, 2006: p298). 셋째, 누적비율이 높다는 것은 요인모델이 좋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양병화, 2006: p268), Hair 등(1995)는 사회과학 분야에서 누적 설명 분산이 50~60% 정도가 되어야 적절하다고 보았다(강현철, 2013, 재인용). 본 연구에서는 누적분산이 6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요인을 추출하였다. 마지막으로, 해석가능성은 이론적 배경 및 관련 선행연구를 근거로 하여 요인의 수를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부적절한 문항을 제거하고자 하였다. 적절한 문항을 제외하기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통성(communality)이 .40 미만인 문항을 제거하였다. 공통성이 높다는 것은 요인모델에 중요한 변수임을 의미하며, 너무 작으면 변수 간 선형조합이 약함을 의미한다(양병화, 2006: p304). 본 연구에서는 공통성이 .40 미만인 문항을 부적절한 문항으로 간주하여 해당 문항을 제거하였다. 둘째, 요인부하량이 절대값 .40 미만인 문항을 제거 하였다. 요인부하량은 추출된 요인과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의미하는데, 보통 .30 정도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며, 국내의 척도개발 연구들의 절반 정도가 .30 보다 높은 기준인 .40 이상이 적절하다고 보았다(강태훈 외, 2013). 셋째, 주요인 부하량과 다른 요인 부하량의 차이가 .10 미만인 문항은 제거하기로 하였다. 한 성분에 요인 부하량이 높게 부여되고 다른 성분에 낮게 부여될 때, 좋은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양병화, 2006: p307), 본 연구에서는 최소한의 .10 이상 요인 부하량 차이가 나는 문항들만 추출하기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구성된 문항들이 다른 요인으로 분류되었을 때, 문항 내용을 검토한 후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제거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기반으로 최종적으로 실시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요인분석은 변수 간에 적어도 하나 이상의 다른 항목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하므로 모든 항목에 대한 상관관계행렬을 검토하는 주성분분석기법(principle components)과 직각회전(varimax) 요인분석법이 실시되었다.

마지막으로 최종 도출된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도구 문항을 바탕으로 청소년의 개인특성,

부모특성, 가구특성에 따라 그 차이가 있는지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청소년의 개인특성은 성별, 학교급, 학업성취도 수준에 따라 검증하였으며, 청소년의 부모특성은 부의 학력, 모의 학력, 부모의 취업상태에 따라 검증하였고, 청소년의 가구특성은 가족구성, 경제적 수준, 지역규모에 따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하여 독립표본 t-검증과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 그리고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통계분석을 위한 도구로는 SPSS 20.0, AMOS 20.0이 활용되었다.

제 IV 장



연구결과 : 청소년 역량 측정 도구 개발

1. 생애학습역량 측정도구 문항 개발
2. 생활관리역량 측정도구 문항 개발
3. 진로개발역량 측정도구 문항 개발
4. 대인관계역량 측정도구 문항 개발
5. 사회참여역량 측정도구 문항 개발

제 IV 장 연구결과 : 청소년 역량 측정 도구 예비 문항 개발*

1. 생애학습역량 측정도구 문항 개발¹⁾

1) 생애학습역량 척도 문항 분석 및 정규성 평가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선행연구 고찰과 예비조사를 통해 구성된 생애학습역량 척도 하위영역인 사고력, 지적도구활용, 그리고 학습적응성의 문항분석과 정규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1) 사고력

사고력 문항양호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총 12개 문항을 대상으로 각 문항의 평균 및 표준편차, 문항-전체 상관관계(item-total correlation), 문항 제거 시 신뢰도계수(alpha if item deleted), 그리고 정규분포(normality)를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 총 9개의 문항이 도출되었다(표 IV-1 참고).

각 문항과 전체문항간의 상관분석(corrected item-total correlation analysis) 결과를 살펴본 결과, 절대값 .30 이하의 문항은 제거할 것으로 권장되는데(Field, 2009; 김은주, 2013, 재인용), 사고력 개별문항과 전체문항 사이의 상관계수가 .364에서 .680 사이에 분포하여 모두 .30 이

* 이 장의 1,4절은 성은모 부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으며, 2절은 백혜정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3절은 진성희 교수(인하대학교), 5절은 협동연구과제 연구책임자 김태준 연구위원(한국교육개발원)이 집필하였으며 해당 내용의 일부를 요약정리하였음.

1) 이 부분은 성은모 부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 집필하였음.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문항 전체의 내적 일치도는 .73이었으며, 문항 제거 시 신뢰도는 .68~.75로 나타났다. 문항 전체 신뢰계수가 .70 이상이면 양호한 것으로 보았을 때 사고력 문항 간 신뢰도는 양호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사고력 문항의 응답이 정규분포(normality)를 이루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Curran 등 (1996)에 의하면 왜도는 절대값 2 이상 첨도는 절대값 7이상일 경우 정규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왜도와 첨도의 값을 확인한 결과 왜도가 절대값 2, 첨도가 절대값 7을 초과하는 문항이 나타나지 않아 자료의 정규성이 확보되었다.

표 IV-1 사고력 문항분석 결과

변인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문항-전체 간 상관관계	문항 제거 시 신뢰도 계수
문항 2	2.94	0.59	-0.25	0.67	.605**	0.70
문항 3	2.91	0.60	-0.19	0.34	.652**	0.69
문항 4	3.01	0.70	-0.30	-0.12	.652**	0.69
문항 5	3.24	0.65	-0.51	0.24	.591**	0.70
문항 6	2.97	0.64	-0.18	0.05	.680**	0.68
문항 7	2.96	0.65	-0.19	-0.01	.650**	0.69
문항 12	2.60	0.79	0.03	-0.49	.415**	0.75
문항 13	3.19	0.69	-0.60	0.40	.524**	0.72
문항 15	2.81	0.69	-0.30	0.13	.364**	0.75

(2) 지적도구활용

지적도구활용 문항양호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총 22개 문항을 대상으로 각 문항의 평균 및 표준편차, 문항-전체 상관관계, 문항 제거 시 신뢰도계수, 그리고 정규분포를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 총 21개의 문항이 도출되었다(표 IV-2 참고).

각 문항과 전체문항간의 상관분석 결과를 살펴본 결과, 지적도구활용 개별문항과 전체문항 사이의 상관계수가 .357에서 .701 사이에 분포하여 모두 .30 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문항 전체의 내적 일치도는 .91이었으며, 문항 제거 시 신뢰도가 모두 .91로 나타나 지적도구활용 문항 간 신뢰도는 높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지적도구활용 문항의 응답이 정규분포를 이루고 있는지 살펴본 결과, 왜도가 절대값 2, 첨도가 절대값 7을 초과하는 문항이 나타나지 않아 자료의 정규성이 확보되었다.

표 IV-2 지적도구 활용 문항분석 결과

변인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문항-전체 간 상관관계	문항 제거 시 신뢰도 계수
문항4-1	2.83	0.70	-0.16	-0.19	.560**	0.91
문항4-2	2.79	0.69	-0.12	-0.21	.568**	0.91
문항4-3	2.77	0.72	-0.08	-0.33	.581**	0.91
문항5-1	2.38	0.82	0.22	-0.44	.477**	0.91
문항5-2	2.57	0.84	-0.09	-0.58	.510**	0.91
문항9-1	2.67	0.82	-0.15	-0.51	.658**	0.91
문항9-2	2.62	0.81	-0.07	-0.49	.690**	0.91
문항9-3	2.82	0.76	-0.47	0.08	.685**	0.91
문항10-1	2.24	0.93	0.32	-0.73	.615**	0.91
문항10-2	2.45	0.97	-0.02	-1.00	.637**	0.91
문항15-1	2.62	0.84	-0.04	-0.61	.635**	0.91
문항15-2	2.56	0.81	0.02	-0.51	.687**	0.91
문항15-3	2.55	0.82	0.02	-0.52	.689**	0.91
문항16-1	2.43	0.89	0.14	-0.73	.653**	0.91
문항16-2	2.64	0.91	-0.22	-0.73	.656**	0.91
문항17-1	2.57	0.80	-0.05	-0.47	.701**	0.91
문항17-2	2.50	0.85	0.12	-0.60	.678**	0.91
문항18-1	3.37	0.62	-0.66	0.51	.479**	0.91
문항18-2	3.30	0.69	-0.69	0.22	.518**	0.91
문항18-3	3.02	0.82	-0.43	-0.52	.522**	0.91
문항18-4	3.25	0.78	-0.90	0.40	.357**	0.91

(3) 학습적응성

학습적응성 문항양호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총 13개 문항을 대상으로 각 문항의 평균 및 표준편차, 문항-전체 상관관계, 문항 제거 시 신뢰도계수, 그리고 정규분포를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 총 7개의 문항이 도출되었다(표 IV-3 참고).

각 문항과 전체문항간의 상관분석 결과를 살펴본 결과, 학습적응성 개별문항과 전체문항 사이의 상관계수가 .571에서 .718 사이에 분포하여 모두 .30 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문항 전체의 내적 일치도는 .78이었으며, 문항 제거 시 신뢰도가 .74~.77로 나타나 학습적응성 문항 간 신뢰도는 양호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한편, 학습적응성 문항의 응답이 정규분포를 이루고 있는지 살펴본 결과, 왜도가 절대값 2, 첨도가 절대값 7을 초과하는 문항이 나타나지 않아 자료의 정규성이 확보되었다.

표 IV-3 학습적응성 문항분석 결과

변인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문항-전체 간 상관관계	문항 제거 시 신뢰도 계수
문항20-1	2.92	0.61	-0.28	0.54	.644**	0.75
문항20-2	2.64	0.75	0.07	-0.45	.571**	0.77
문항20-6	3.16	0.69	-0.49	0.10	.631**	0.75
문항20-8	3.14	0.69	-0.48	0.14	.647**	0.75
문항20-10	2.75	0.79	-0.05	-0.60	.718**	0.74
문항20-11	2.88	0.76	-0.31	-0.24	.709**	0.74
문항20-12	2.76	0.73	-0.12	-0.31	.664**	0.75

2) 생애학습역량 측정도구 문항의 구성타당도

선행연구 고찰과 예비조사를 통해 구성된 생애학습역량 척도의 최종 문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생애학습역량 척도의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 EFA)을 실시하였으며,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추출된 문항과 요인이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ive Factor Analysis: CFA)을 실시하였다.

(1) 탐색적 요인분석

다음에서는 생애학습역량 하위영역별 즉, 사고력, 지적도구활용, 학습적응성 영역의 요인 구조를 밝히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하여 진행하였다. ① KMO 측도와 Bartlett 구형성 검정을 통해 자료가 요인분석을 하기에 타당한지 살펴보았고, ② 고유치, 스크리 도표, 설명분산 비율 및 누적비율, 해석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요인 수를 결정하고, ③ 몇 가지 기준을 근거로 하여 부적절한 문항을 삭제한 후, ④ 최종적으로 실시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① 사고력

탐색적 요인분석에 앞서 수집된 자료가 요인분석을 하기에 적절한 지 파악하기 위하여 KMO(Kaiser-Meyer-Olkin) 표본 적합성 측도와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KMO 표본 적합성 측도와 Bartlett 구형치 검정은 요인분석 수행 전 수집된 자료가 최소한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것(강현철, 2013)”이다. Kaiser(1974)에 의하면, KMO 값은 1에 가까울수록 표본의 상관이 요인분석에 적합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90이상이면 매우 좋고, .80 이상이면 양호하며, .70 이상이면 보통, .50이하이면 적합하지 않다고 본다. “Bartlett 구형성 검정은 ‘상관계수 행렬이 단위행렬이다’라는 즉, 공통요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는지 검정하는 것으로, p 값이 유의수준(.05)보다 작아 귀무가설을 기각하면 자료가 요인분석을 실시할 가치가 있다(강현철, 2013)”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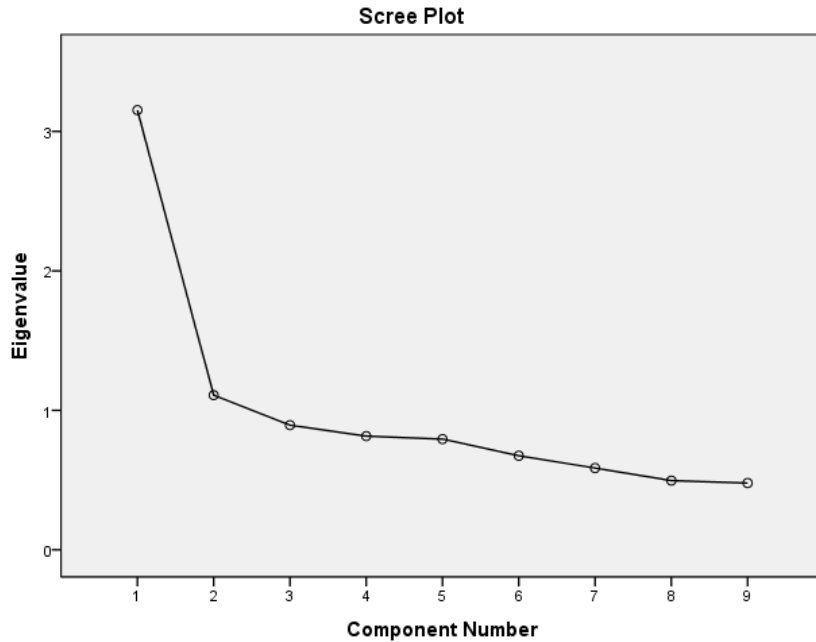
위와 같은 기준에 의거해서 관계형성 자료의 KMO와 Bartlett의 검정 결과를 살펴보면(표 IV-4 참고), KMO 값은 .849로 표본의 상관이 요인분석을 적용하기에 매우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Bartlett 구형성 검정치도 기각되어($p < .001$) 표본이 요인분석에 적절하였다.

표 IV-4 사고력의 KMO 표본 적합성 측도와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결과

구분		측정치
KMO 측도		.849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근사 카이제곱	10741.435
	자유도	36
	유의확률	.000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요인 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고유치(eigen value), 스크리 검사(scree test), 설명분산 비율 및 누적비율, 해석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사고력의 요인 수를 결정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고유치가 1.0 이상인 경우(표 IV-5 참고)와 스크리 도표(그림 IV-1 참고)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지점을 고려하여 2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전체 설명량은 47.35%로 나타났다.



【그림 IV-1】 사고력 스크리 도표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부적절한 문항을 제거하기 위하여 어느 요인에도 명확하게 구성되지 않는 문항, 해당 요인에 있어서도 요인부하량이 떨어지는 문항 ($<.400$), 그리고 요인부하량이 적절하나 다른 요인들과 중첩되는 문항들은 제거되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9개의 문항이 탐색적 요인분석에 활용되었으며, 2개의 요인이 도출되었다.

표 IV-5 사고력 척도의 요인구조

변인		요인1. 비판적사고력	요인2. 감성적사고력
문항1-6	나는 어떤 사태에 대해 객관적이고 알맞은 근거를 바탕으로 판단하고 평가한다.	.751	.072
문항1-4	나는 다른 사람들이 말을 할 때 그 말이 논리적인지 또는 앞뒤가 맞는지를 따져본다.	.722	.038
문항1-3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있을 때 그 일의 부분적인 사항들과 최종 목표와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714	.102
문항1-2	나는 어떤 행동이 가져올 전체적인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	.691	.031

변인		요인1, 비판적사 고력	요인2, 감성적사 고력
문항1-7	나는 어떤 주장에 대해서 판단할 때 다양한 방향(관점)에서 생각해 본다.	.669	.159
문항1-5	복잡한 글을 읽고 이해하려는 노력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563	.211
문항1-15	나는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 그 일이 가치 있는 일이라면, 논리적인 판단보다는 감정과 느낌에 따라 판단한다.	-.019	.775
문항1-12	같은 물건이라면, 나는 브랜드와 상관없이 지적장애우들이 만든 상품으로 사겠다.	.076	.625
문항1-13	나는 다른 사람의 표정이나 말투만으로도 기분이나 감정을 잘 알아차리는 편이다.	.342	.471
고유치		3.153	1.109
설명변량		35.031	12.321
누적변량		35.031	47.352

추출된 9개 문항들의 요인 부하량은 .47~.75의 값을 가져 .4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누적분산은 47.35%로 나타났다. 각 요인별로 살펴보면 ‘요인 1. 비판적 사고력’은 ‘나는 어떤 사태에 대해 객관적이고 알맞은 근거를 바탕으로 판단하고 평가한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말을 할 때 그 말이 논리적인지 또는 앞뒤가 맞는지를 따져본다.’ 등 총 6문항이 수렴되었다. ‘요인 2. 감성적 사고력’은 ‘나는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 그 일이 가치 있는 일이라면, 논리적인 판단보다는 감정과 느낌에 따라 판단한다.’, ‘나는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 그 일이 가치 있는 일이라면, 논리적인 판단보다는 감정과 느낌에 따라 판단한다.’ 등 3개 문항이 수렴되었다.

표 IV-6에서는 사고력 요인 간의 상관행렬을 제시하였다. 사고력 하위 요인인 비판적 사고력과 감성적 사고력 간에서는 .312로 $p<.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6 사고력 척도의 요인 간의 상관

변인	요인1	요인2
요인1	1.000	
요인2	.312**	1.000

② 지적도구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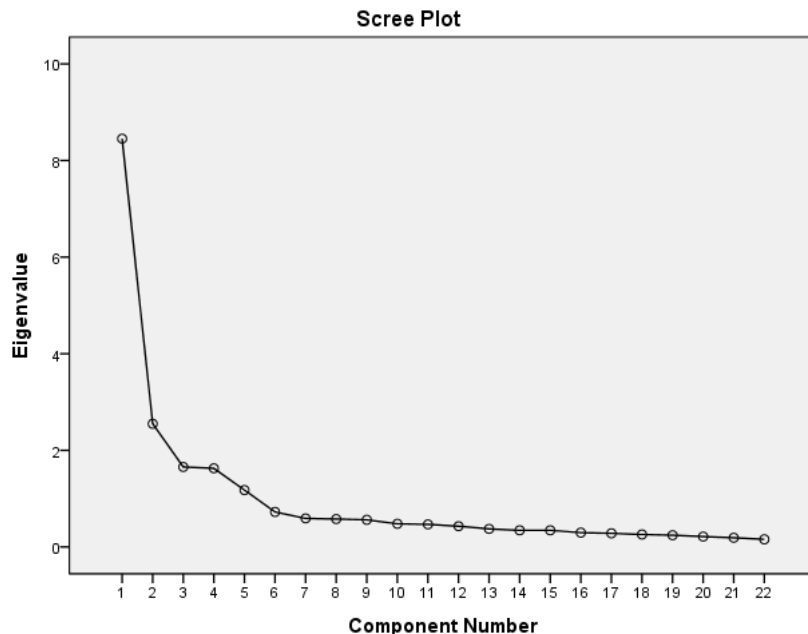
지적도구활용에 대한 문항이 요인분석에 적합한지 살펴보기 위하여 KMO 표본 적합성

측도와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IV-7에서 제시하였다. KMO 측도 값은 .912 이상으로 표본의 상관이 요인분석을 하기에 매우 좋은 것으로 밝혀졌다. 마찬가지로 Bartlett 구형성 검정치가 기각되어($p<.001$) 표본이 요인분석하기에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7 KMO와 Bartlett의 검정 결과

구분		측정치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KMO측도	.912
	근사 카이제곱	87123.074
	자유도	231
	유의확률	.000

탐색적 요인분석에 있어 지적도구활용의 요인 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분석한 결과, 고유치가 1.0 이상인 경우(표 IV-8 참고), 스크리 도표(그림 IV-2 참고)상 급격하게 감소하는 지점을 고려하여 5개의 요인을 추출하였으며, 전체 설명량은 64.928%로 나타났다.



【그림 IV-2】 지적도구활용 스크리 도표

지적도구활용 영역에서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부적절한 문항을 제거하기 위하여 어느 요인에도 명확하게 구성되지 않는 문항, 해당 요인에 있어서도 요인부하량이 떨어지는 문항(<400), 그리고 요인부하량이 적절하나 다른 요인들과 중첩되는 문항들은 제거되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21개의 문항이 탐색적 요인분석에 활용되었으며, 5개의 요인이 도출되었다.

표 IV-8 **지적도구활용능력 척도의 요인구조**

변인	요인1. 과학능력	요인2 수학능력	요인3 언어능력	요인4 정보통신 활용능력
문항16-1 나는 과학을 좋아하기 때문에 과학 수업시간이 기다려진다.	0.82	0.18	0.14	0.02
문항17-2 나는 과학 과목을 금방 배운다.	0.81	0.21	0.13	0.11
문항16-2 나는 과학에서 배우는 것들에 대해 흥미가 있다.	0.80	0.20	0.13	0.06
문항17-1 나는 과학 과목을 배울 때, 그 개념을 아주 잘 이해할 수 있다.	0.80	0.25	0.15	0.12
문항15-3 나는 자연현상에 대해 과학지식을 활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	0.76	0.23	0.19	0.14
문항15-2 나는 일상생활에서 적용되고 있는 과학적 원리를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	0.75	0.24	0.18	0.14
문항15-1 나는 자연이나 과학적 현상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을 갖고 관찰, 실험, 조사 등 다양한 탐구활동을 한다.	0.75	0.19	0.16	0.08
문항9-1 나는 수학의 기본적인 개념, 원리, 법칙을 활용하여 다양한 계산을 할 수 있다.	0.26	0.80	0.12	0.10
문항10-2 나는 수학에서 배우는 것들에 대해 흥미가 있다.	0.31	0.77	0.07	-0.01
문항10-1 나는 수학을 좋아하기 때문에 수학 수업 시간이 기다려진다.	0.29	0.77	0.09	-0.05
문항9-3 나는 신문, 잡지, 또는 인터넷 등 우리 주위에서 흔히 관찰할 수 있는 표나 그래프를 이해할 수 있다.	0.25	0.70	0.21	0.23
문항9-2 나는 신문, 잡지, 또는 인터넷 등 우리 주위에서 흔히 관찰할 수 있는 자료를 표나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다.	0.28	0.70	0.23	0.19
문항5-1 나는 국어를 좋아하기 때문에 국어 수업시간이 기다려진다.	0.14	0.01	0.81	-0.01
문항5-2 나는 국어에서 배우는 것들에 대해 흥미가 있다.	0.16	0.03	0.80	0.03
문항4-2 나는 글의 중심내용을 찾아 글쓴이의 의도나 숨겨진 주제를 파악하며 읽는다.	0.16	0.23	0.63	0.20
문항4-3 나의 의견이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나는 다양한 표현 방법을 활용하여 글을 쓸 수 있다.	0.18	0.22	0.63	0.24
문항4-1 나는 공식적비공식적인 상황에서 상대방의 말을 정리하여 듣고, 자신의 의견을 조리 있게 말한다.	0.16	0.21	0.60	0.24
문항18-2 나는 컴퓨터나 인터넷상의 다양한 학습자료(인터넷 강의, 유튜브·TED 동영상, 웹문서 등)를 활용하여 학습할 수 있다.	0.10	0.10	0.15	0.81

변인	요인1. 과학능력	요인2 수학능력	요인3 언어능력	요인4 정보통신 활용능력
문항18-1 나는 컴퓨터와 인터넷의 활용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0.09	0.08	0.11	0.80
문항18-4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SNS(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등)를 통해 공유할 수 있다.	0.00	-0.03	0.08	0.75
문항18-3 나는 한글, 워드, 파워포인트, 엑셀, 포토샵, 그림판 등을 이용해 문서, 그림, 동영상 등을 작성 하거나 편집할 수 있다.	0.15	0.14	0.12	0.70
고유치	8.45	2.55	1.66	1.63
설명변량	38.42	11.59	7.52	7.40
누적변량	38.42	50.00	57.53	64.93

추출된 21개 문항들의 요인 부하량은 .60~.82의 값을 가져 .4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누적분산은 64.93%로 나타났다. 각 요인별로 살펴보면 '요인 1. 과학능력'은 '나는 과학을 좋아하기 때문에 과학 수업시간이 기다려진다.', '나는 과학에서 배우는 것들에 대해 흥미가 있다.' 등 총 7문항이 수렴되었다. '요인 2 수학능력'은 '나는 수학의 기본적인 개념, 원리, 법칙을 활용하여 다양한 계산을 할 수 있다.', '나는 수학에서 배우는 것들에 대해 흥미가 있다.' 등 5개 문항이 수렴되었다. '요인 3. 언어능력'은 '나는 국어를 좋아하기 때문에 국어 수업시간이 기다려진다.', '나는 국어에서 배우는 것들에 대해 흥미가 있다.' 등 5개 문항이 수렴되었다. 마지막으로 '요인 4. 정보통신활용능력'은 '나는 컴퓨터나 인터넷상의 다양한 학습자료(인터넷 강의, 유튜브·TED 동영상, 웹문서 등)를 활용하여 학습할 수 있다.', '나는 컴퓨터와 인터넷의 활용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등 4개 문항이 수렴되었다.'

<표 IV-9>에서는 지적도구활용 하위 요인 간의 상관행렬을 제시하였다. 하위 요인간 상관계수는 .240~.599로 $p<.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9 지적도구활용능력 척도의 요인 간의 상관

변인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1	1.000			
요인2	.406**	1.000		
요인3	.432**	.599**	1.000	
요인4	.342**	.251**	.24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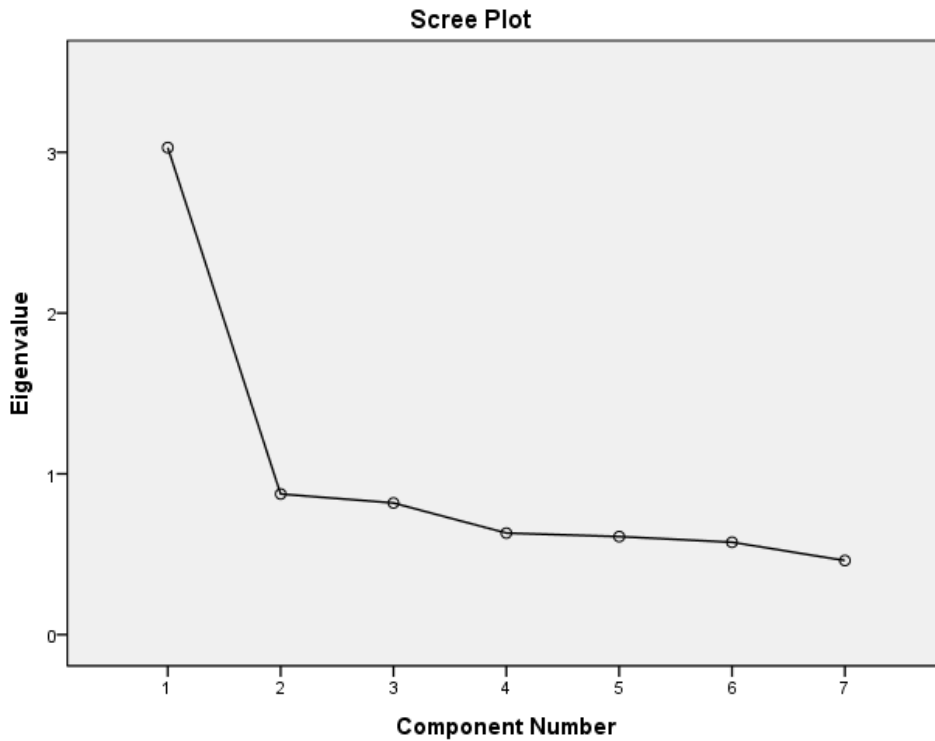
③ 학습적응성

학습적응성에 대한 문항이 요인분석에 적합한지 살펴보기 위하여 KMO 표본 적합성 측도와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IV-8에서 제시하였다. KMO 측도 값은 .840 이상으로 표본의 상관이 요인분석을 하기에 매우 좋은 것으로 밝혀졌다. 마찬가지로 Bartlett 구형성 검정치가 기각되어($p<.001$) 표본이 요인분석하기에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0 KMO와 Bartlett의 검정 결과

구분		측정치
KMO측도		.840
근사 카이제곱		9889.926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자유도	21
	유의확률	.000

탐색적 요인분석에 있어 학습적응성의 요인 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분석한 결과, 고유치가 1.0 이상인 경우(표 IV-11참고), 스크리 도표(그림 IV-3 참고)상 급격하게 감소하는 지점을 고려한다면 1개의 요인이 추출된다. 고유치가 1.0 미만인 경우 무조건적으로 요인에서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종종 요인이 1개가 추출되는 경우 고유치의 값을 0.7~0.8 이상을 기준으로 삼기도 하므로(양병화, 2006), 본 연구에서는 이 기준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해석가능성과 고유치가 0.7 이상이며, 누적분산이 60% 이상이 되는 지점을 고려하여 학습적응성의 요인을 3개로 추출하였으며, 전체 설명량은 67.47%로 나타났다.



【그림 IV-3】 학습적응성 스크리 도표

학습적응성 영역에서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부적절한 문항을 제거하기 위하여 어느 요인에도 명확하게 구성되지 않는 문항, 해당 요인에 있어서도 요인부하량이 떨어지는 문항 ($<.400$), 그리고 요인부하량이 적절하나 다른 요인들과 중첩되는 문항들은 제거되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7개의 문항이 탐색적 요인분석에 활용되었으며, 3개의 요인이 도출되었다.

표 IV-11 학습적응성의 요인구조

변인	요인1. 학습 주도성	요인2. 지적 호기심	요인3. 변화수용
문항20-11 어떤 일을 하는데 있어서 실패했다면, 그 실패 원인을 분석한다.	0.82	0.21	0.06
문항20-10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이후에도 그 성공요인을 찾아낸다.	0.74	0.23	0.17
문항20-12 나는 내가 한 일에 대해 다른 사람의 피드백을 받는다.	0.70	0.11	0.24
문항20-6 나는 무언가를 새롭게 배우거나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을 좋아한다.	0.13	0.82	0.20
문항20-8 나는 궁금한 것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질문한다.	0.29	0.77	0.07
문항20-2 새로 출시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지 않더라도, 나는 사용한다.	0.13	0.05	0.90
문항20-1 나는 학습할 때 내 주변에서 발생하는 변화를 주도적으로 받아들인다.	0.28	0.35	0.61
고유치	3.03	0.88	0.82
설명변량	43.28	12.50	11.70
누적변량	43.28	55.77	67.47

추출된 7개 문항들의 요인 부하량은 .61~.90의 값을 가져 .4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누적분산은 67.47%로 나타났다. 각 요인별로 살펴보면 ‘요인 1. 학습주도성’은 ‘어떤 일을 하는데 있어서 실패했다면, 그 실패 원인을 분석한다.’,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이후에도 그 성공요인을 찾아낸다.’ 등 총 3문항이 수렴되었다. ‘요인 2. 지적호기심’은 ‘나는 무언가를 새롭게 배우거나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궁금한 것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질문한다.’ 등 2개 문항이 수렴되었다. ‘요인 3. 변화수용’은 ‘새로 출시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지 않더라도, 나는 사용한다.’, ‘나는 학습할 때 내 주변에서 발생하는 변화를 주도적으로 받아들인다.’ 등 2개 문항이 수렴되었다.

<표 IV-12>에서는 학습적응성 하위 요인 간의 상관행렬을 제시하였다. 하위 요인간 상관계수는 .426~.768로 $p<.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2 학습적응성 척도의 요인 간의 상관

변인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1	1.000		
요인2	.426**	1.000	
요인3	.451**	.768**	1.000

(3) 확인적 요인분석

탐색적 요인분석에 기초한 대인관계 척도의 적합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Amos 21.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① 사고력

사고력 척도의 3개 요인, 9개 문항을 대상으로 최대우도 추정법을 이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사고력 측정모형을 분석한 결과, <표 IV-13>와 같이 사고력 표준화 계수가 .267~.696으로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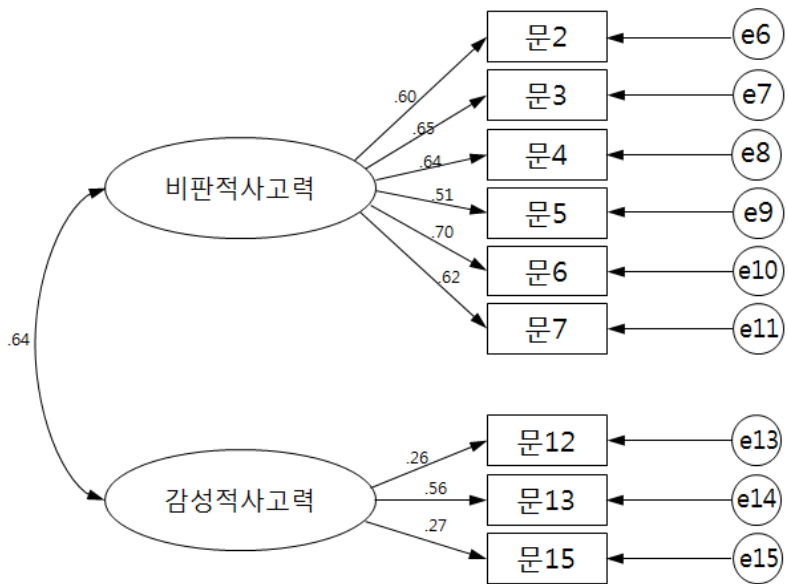
표 IV-13 사고력 타당화 측정모형 분석

변인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비판적 사고력	문항1-2	1.000	.599 ***
	문항1-3	1.112	.646 ***
	문항1-4	1.273	.640 ***
	문항1-5	.953	.511 ***
	문항1-6	1.277	.696 ***
	문항1-7	1.150	.617 ***
감성적 사고력	문항1-12	1.000	.264 ***
	문항1-13	1.862	.562 ***
	문항1-15	.879	.267 ***

이와 같은 사고력 측정모형에 대한 적합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합도 지수 χ^2 , CFI, NFI, TLI, RMSEA 값을 확인하였다. χ^2 는 p 값이 .05 이상이면 양호하다고 보며, CFI, NFI, TLI 등 증분적합지수는 .90 이상이면 양호하고, RMSEA의 경우, .10 이하이면 보통, .08 이하이면 양호하고, .05 이하이면 매우 좋은 수준이라고 판단한다(우종필, 2012: p361). 사고력 척도의 적합도를 살펴보면, χ^2 값은 기각되었으나, 다른 적합도 지수인 CFI, NFI, TLI는 .90 이상, RMSEA는 .08 이하인 것으로 나타나, 사고력 하위 척도의 적합도가 양호하다고 판단된다.

표 IV-14 사고력 타당화 측정모형의 적합도

$\chi^2(df)$	CFI	NFI	TLI	RMSEA
653.502(26)***	0.942	0.940	0.900	0.065



【그림 IV-4】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사고력 요인구조 모형과 표준화된 요인계수

② 지적도구활용

지적도구활용 척도의 4개 요인, 21개 문항을 대상으로 최대우도 추정법을 이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지적도구활용 측정모형을 분석한 결과, <표 IV-15>와 같이 지적도구활용 표준화 계수가 .597~.833으로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5 지적도구활용 타당화 측정모형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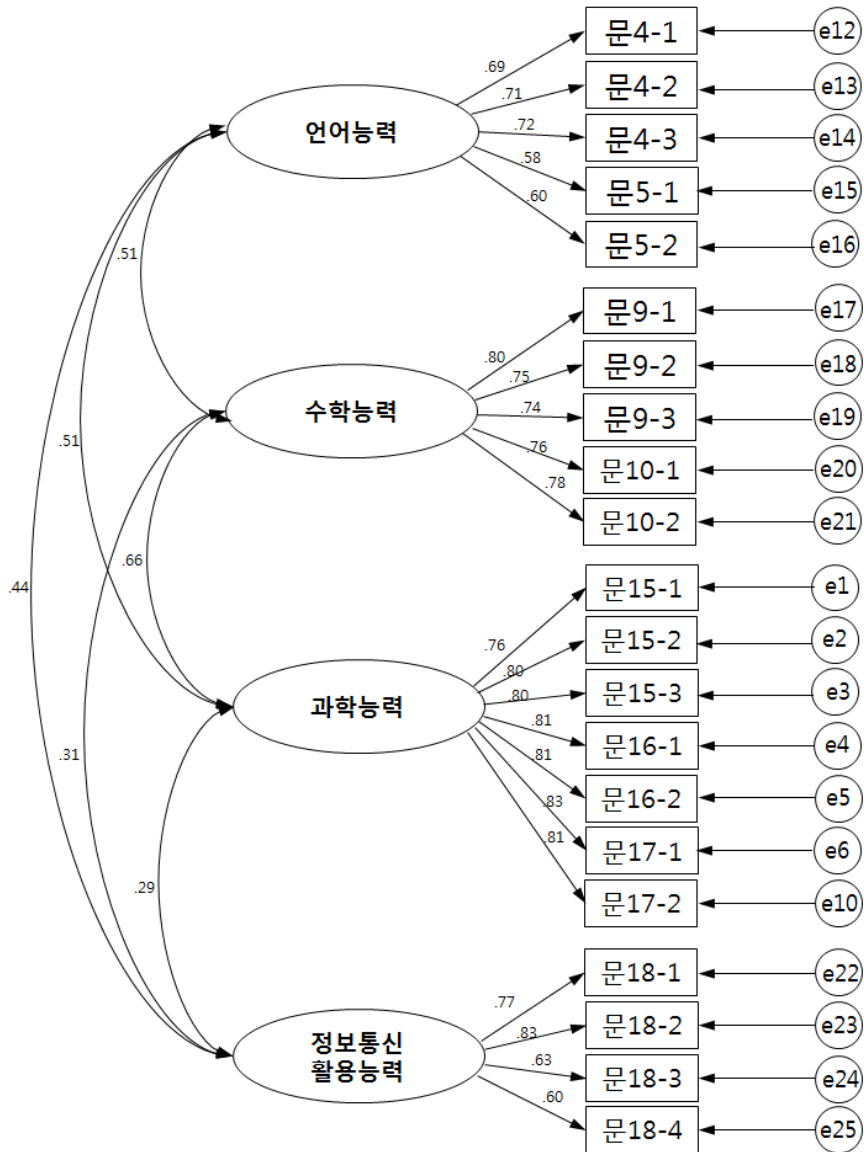
변인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언어능력	문항4-1	1.000	.689 ***
	문항4-2	1.017	.707 ***
	문항4-3	1.076	.720 ***
	문항5-1	.987	.582 ***

변인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수학능력	문항5-2	1.044	.598 ***
	문항9-1	1.000	.802 ***
	문항9-2	.916	.750 ***
	문항9-3	.861	.744 ***
	문항10-1	1.066	.760 ***
	문항10-2	1.145	.775 ***
과학능력	문항15-1	1.000	.758 ***
	문항15-2	1.016	.797 ***
	문항15-3	1.028	.800 ***
	문항16-1	1.147	.814 ***
	문항16-2	1.157	.808 ***
	문항17-1	1.053	.833 ***
	문항17-2	1.085	.814 ***
정보통신활용 능력	문항18-1	1.000	.769 ***
	문항18-2	1.187	.827 ***
	문항18-3	1.088	.632 ***
	문항18-4	.976	.597 ***

이와 같은 지적도구활용 측정모형에 대한 적합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합도 지수 χ^2 , CFI, NFI, TLI, RMSEA 값을 확인하였다. 지적도구활용 척도의 적합도를 살펴보면, χ^2 값은 기각되었고, 다른 적합도 지수인 CFI, NFI, TLI는 .90 이하, RMSEA는 .08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지적도구활용 하위 척도간의 적합도는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적도구활용 척도 하위 각 구성요서들의 설명력이 높고, 신뢰도가 높으며, 생애학습역량 구조 요인간의 적합도 지수(<표 IV-16>참조)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해당 요인을 사고력의 구인으로 적용하고자 하였다.

표 IV-16 지적도구활용능력 타당화 측정모형의 적합도

$\chi^2(df)$	CFI	NFI	TLI	RMSEA
13590.810(183)***	0.837	0.835	0.837	0.105



【그림 IV-5】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지적도구활용 요인구조 모형과 표준화된 요인계수

③ 학습적응성

학습적응성 척도의 3개 요인, 7개 문항을 대상으로 최대우도 추정법을 이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학습적응성 측정모형을 분석한 결과, <표 IV-17>와 같이 학습적응성 표준화 계수가 .510~.720으로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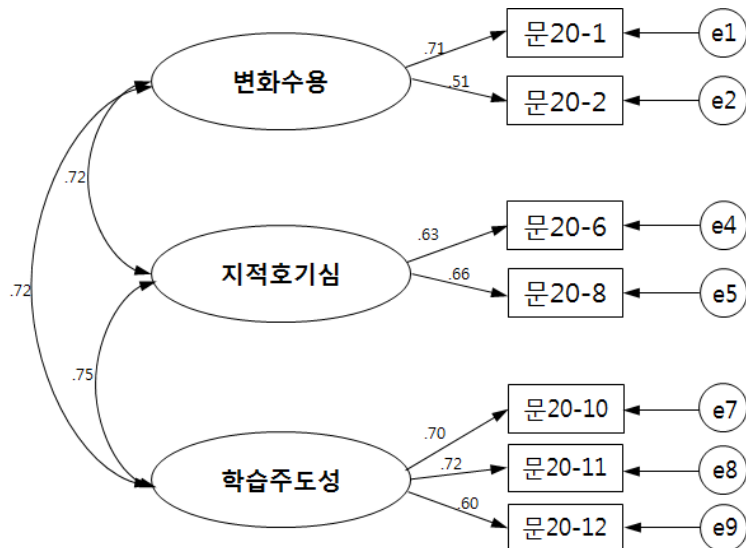
표 IV-17 학습적응성 타당화 측정모형 분석

변인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변화수용력	문항20-1	1.000	.706 ***
	문항20-2	.891	.510 ***
지적호기심	문항20-6	1.000	.630 ***
	문항20-8	1.048	.660 ***
학습주도성	문항20-10	1.000	.702 ***
	문항20-11	.983	.720 ***
	문항20-12	.785	.597 ***

이와 같은 학습적응성 측정모형에 대한 적합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합도 지수 χ^2 , CFI, NFI, TLI, RMSEA 값을 확인하였다. 학습적응성 척도의 적합도를 살펴보면, χ^2 값은 기각되었으나, 다른 적합도 지수인 CFI, NFI, TLI는 .90 이상, RMSEA는 .08 이하인 것으로 나타나, 학습적응성 하위 척도의 적합도가 양호하다고 판단된다.

표 IV-18 학습적응성 타당화 측정모형의 적합도

$\chi^2(df)$	CFI	NFI	TLI	RMSEA
158.771(11)***	0.985	0.984	0.985	0.045



【그림 IV-6】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학습적응성 요인구조 모형과 표준화된 요인계수

(3) 생애학습역량 척도 최종 문항

생애학습역량 척도에 대한 문항분석과 정규성 평가를 통해 사고력 9문항(비판적 사고력 6문항, 감성적 사고력 3문항), 지적도구활용 21문항(언어능력 5문항, 수학능력 5문항, 과학능력 7문항, 정보통신활용능력 4문항), 학습적응성 7문항 등 총 37개의 최종 측정문항이 개발되었다. 이와 같이 생애학습역량 척도문항을 하위 영역별로 정리하여 제시하면 <표 IV-19>와 같다.

표 IV-19 생애학습역량 척도 최종 문항

역량	하위영역	설문번호	최종번호	측정문항
사고력	비판적 사고력	문항1-2	1	나는 어떤 행동이 가져올 전체적인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
		문항1-3	2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있을 때 그 일의 부분적인 사항들과 최종 목표와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문항1-4	3	나는 다른 사람들이 말을 할 때 그 말이 논리적인지 또는 앞뒤가 맞는지를 따져본다.
		문항1-5	4	복잡한 글을 읽고 이해하려는 노력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문항1-6	5	나는 어떤 사태에 대해 객관적이고 알맞은 근거를 바탕으로 판단하고 평가한다.
		문항1-7	6	나는 어떤 주장에 대해서 판단할 때 다양한 방향(관점)에서 생각해 본다.
	감성적 사고력	문항1-12	7	같은 물건이라면, 나는 브랜드와 상관없이 지적장애우들이 만든 상품으로 사겠다.
		문항1-13	8	나는 다른 사람의 표정이나 말투만으로도 기분이나 감정을 잘 알아차리는 편이다.
		문항1-15	9	나는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 그 일이 가치 있는 일이라면, 논리적인 판단보다는 감정과 느낌에 따라 판단한다.
지적도구 활용	언어 능력	문항4-1	1	나는 공식적·비공식적인 상황에서 상대방의 말을 정리하여 듣고, 자신의 의견을 조리 있게 말한다.
		문항4-2	2	나는 글의 중심내용을 찾아 글쓴이의 의도나 숨겨진 주제를 파악하며 읽는다.
		문항4-3	3	나의 의견이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나는 다양한 표현 방법을 활용하여 글을 쓸 수 있다.
		문항5-1	4	나는 국어를 좋아하기 때문에 국어 수업시간이 기다려진다.
		문항5-2	5	나는 국어에서 배우는 것들에 대해 흥미가 있다.
	수학 능력	문항9-1	6	나는 수학의 기본적인 개념, 원리, 법칙을 활용하여 다양한 계산을 할 수 있다.
		문항9-2	7	나는 신문, 잡지, 또는 인터넷 등 우리 주위에서 흔히 관찰할 수 있는 자료를 표나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다.

역량	하위영역	설문번호	최종번호	측정문항
		문항9-3	8	나는 신문, 잡지, 또는 인터넷 등 우리 주위에서 흔히 관찰할 수 있는 표나 그래프를 이해할 수 있다.
		문항10-1	9	나는 수학을 좋아하기 때문에 수학 수업 시간이 기다려진다.
		문항10-2	10	나는 수학에서 배우는 것들에 대해 흥미가 있다.
	과학 능력	문항15-1	11	나는 자연이나 과학적 현상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을 갖고 관찰, 실험, 조사 등 다양한 탐구활동을 한다.
		문항15-2	12	나는 일상생활에서 적용되고 있는 과학적 원리를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
		문항15-3	13	나는 자연현상에 대해 과학지식을 활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
		문항16-1	14	나는 과학을 좋아하기 때문에 과학 수업시간이 기다려진다.
		문항16-2	15	나는 과학에서 배우는 것들에 대해 흥미가 있다.
		문항17-1	16	나는 과학 과목을 배울 때, 그 개념을 아주 잘 이해할 수 있다.
		문항17-2	17	나는 과학 과목을 금방 배운다.
	정보 통신 활용 능력	문항18-1	18	나는 컴퓨터와 인터넷의 활용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문항18-2	19	나는 컴퓨터나 인터넷상의 다양한 학습자료(인터넷 강의, 유튜브·TED 동영상, 웹문서 등)를 활용하여 학습할 수 있다.
		문항18-3	20	나는 한글, 워드, 파워포인트, 엑셀, 포토샵, 그림판 등을 이용해 문서, 그림, 동영상 등을 작성 하거나 편집할 수 있다.
		문항18-4	21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SNS(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등)를 통해 공유할 수 있다.
학습 적응성	변화 수용력	문항20-1	1	나는 학습할 때 내 주변에서 발생하는 변화를 주도적으로 받아들인다.
		문항20-2	2	새로 출시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지 않더라도, 나는 사용한다.
	지적 호기심	문항20-6	3	나는 무언가를 새롭게 배우거나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을 좋아한다.
		문항20-8	4	나는 궁금한 것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질문한다.
	학습 주도성	문항20-10	5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이후에도 그 성공요인을 찾아낸다.
		문항20-11	6	어떤 일을 하는데 있어서 실패했다면, 그 실패 원인을 분석한다.
		문항20-12	7	나는 내가 한 일에 대해 다른 사람의 피드백을 받는다.

2. 생활관리역량 측정도구 문항 개발²⁾

선행연구 고찰과 예비조사를 통해 구성된 생활관리 역량 척도에 대한 최종 문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생활관계 역량의 하위영역별 문항분석과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후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추출된 문항과 요인이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다시 한 번 실시하였다.

1) 생활관리역량 척도 문항 분석 및 정규성 평가

(1) 건강관리

건강관리 문항의 양호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총 22개 문항의 평균 및 표준편차, 문항-전체 상관관계(item-total correlation), 문항 제거 시 신뢰도계수(alpha if item deleted)를 확인하였다(<표 IV-20>). 그 결과 편포의 기준치라고 할 수 있는 평균이 3.2 이상이거나 0.8 이하인 문항은 하나도 없었으며 표준편차는 0.63에서 .094 사이에 분포되어 있어 문항별 반응이 지나치게 극단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건강관리 문항에서는 각 문항과 전체문항 간 상관계수의 절대값이 .30 이하로 나타나 제거 고려대상에 속하는 경우는 모두 4개 문항(문30-3, 문30-4, 문30-5, 문30-6)으로 나타났다. 문항 전체의 내적 일치도(Cronbach α)는 .834로 양호한 수준을 보였다. 문항 제거 시 신뢰도가 .834보다 높은 경우는 모두 4개 문항(문30-3, 문30-4, 문30-5, 문30-6)이었다. 이 문항은 앞서 살펴 본 문항과 전체문항 간의 상관계수가 .03 이하인 문항들로 이 문항들을 제거하였다.

관계형성 문항의 응답이 정규분포(normality)를 이루고 있는지도 살펴보았다. Curran 등(1996)은 왜도는 절대값 2 이상 첨도는 절대값 7이상일 경우 정규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았는데, 건강관리 문항의 경우 왜도가 절대값 2 첨도가 절대값 7을 초과하는 문항이 나타나지 않아 자료의 정규성이 확보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이 부분은 백혜정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 집필하였음.

표 IV-20 건강관리 문항분석 결과

변인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문항-전체 간 상관관계	문항 제거 시 신뢰도 계수
문30-1	3.14	.827	-.638	-.336	.432**	.830
문30-2	3.13	.750	-.489	-.273	.504**	.826
문30-3	2.35	.831	.251	-.456	.241**	.839
문30-4	2.44	.905	.030	-.793	.232**	.841
문30-5	2.56	.882	-.120	-.695	.275**	.839
문30-6	2.76	.788	-.354	-.190	.254**	.838
문30-7	2.76	.824	-.136	-.611	.547**	.824
문30-8	3.18	.658	-.496	.468	.607**	.822
문30-9	3.11	.736	-.450	-.232	.534**	.825
문30-10	3.45	.638	-.949	.754	.493**	.827
문30-11	3.20	.701	-.487	-.213	.505**	.826
문30-12	3.11	.733	-.449	-.215	.617**	.821
문30-13	2.78	.936	-.361	-.735	.198**	.844
문30-14	2.56	.791	.150	-.503	.506**	.826
문30-15	2.85	.771	-.185	-.460	.591**	.822
문30-16	2.79	.889	-.215	-.766	.531**	.825
문30-17	2.94	.745	-.328	-.193	.626**	.820
문30-18	3.11	.708	-.442	-.029	.629**	.820
문30-19	3.16	.646	-.440	.472	.627**	.821
문30-20	3.17	.637	-.421	.466	.637**	.821
문30-21	3.12	.677	-.562	.685	.572**	.823
문30-22	3.11	.752	-.622	.194	.565**	.823

(2) 과제관리

총 16개의 과제관리 문항의 양호도 역시 문항의 평균 및 표준편차, 문항-전체 상관관계, 문항 제거 시 신뢰도계수를 통하여 확인하였다(<표 IV-21>). 편포 판단 기준치인 문항별 평균이 3.2 이상이거나 0.8 이하인 경우가 있는지 살펴 본 결과, 문항 평균은 모두 2.62~3.06에 분포되어 있어 편포된 문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편차 역시 0.64에서 0.77 사이에 분포하여 극단적으로 편포된 문항이 없음을 보여 주었다.

각 문항과 전체문항 간 상관분석에서는 각 문항과 전체문항 간의 상관관계수에서 제거를 고려해

야 할 기준인 절대값 .30 이하인 문항은 한 문항(문31-2)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 전체의 내적 일치도(Cronbach α)는 .903으로 비교적 높은 수치를 보여주었다. 문항 제거 시 신뢰도가 .903보다 높은 경우는 모두 3개 문항(문31-5, 문31-10, 문31-13)으로 이들을 제거하였다.

왜도 및 첨도의 절대값에 대한 관찰을 통해 관계형성 문항의 응답이 정규분포를 이루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왜도의 경우 절대값 2, 첨도의 경우 절대값 7을 초과하는 문항이 나타나지 않아 자료의 정규성이 확보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표 IV-21 과제관리 문항분석 결과

변인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문항-전체 간 상관계수	문항 제거 시 신뢰도 계수
문31-1	2.99	.716	-.329	-.117	.566**	.894
문31-2	2.98	.698	-.379	.167	.264**	.896
문31-3	3.06	.670	-.433	.430	.656**	.894
문31-4	3.06	.679	-.468	.456	.641**	.894
문31-5	2.74	.776	-.093	-.476	.736**	.907
문31-6	2.99	.684	-.421	.382	.765**	.894
문31-7	2.91	.725	-.237	-.238	.775**	.893
문31-8	3.04	.651	-.500	.882	.753**	.895
문31-9	3.05	.646	-.456	.784	.728**	.895
문31-10	3.06	.640	-.549	1.167	.696**	.906
문31-11	2.89	.703	-.326	.095	.761**	.894
문31-12	2.79	.730	-.149	-.278	.550**	.898
문31-13	2.62	.786	-.164	-.373	.560**	.916
문31-14	2.97	.652	-.431	.685	.474**	.894
문31-15	2.92	.681	-.380	.336	.565**	.894
문31-16	2.90	.688	-.345	.218	.386**	.895

(3) 상황대처

상황대처 문항의 양호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총 20개 문항의 평균 및 표준편차, 문항-전체 상관계수, 문항 제거 시 신뢰도계수를 분석하였다(<표 IV-22>). 편포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 가능한 기준인 문항별 평균 3.2 이상 또는 0.8 이하인 문항은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표준편차 값도 지나치게 크지 않아 극단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각 문항과 전체문항 간의 상관계수가 절대값 .30 이하로 제거를 고려해야 할 문항은 모두

표 IV-22 상황대처 문항분석 결과

변인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문항-전체 간 상관관계	문항 제거 시 신뢰도 계수
문32-1	2.89	.960	-.670	-.432	.566**	.898
문32-2	3.31	.802	-1.205	1.217	.264**	.905
문32-3	2.69	.933	-.432	-.648	.656**	.896
문32-4	2.55	.964	-.236	-.922	.641**	.896
문32-5	2.41	1.002	-.079	-1.124	.736**	.893
문32-6	2.18	.939	.307	-.855	.765**	.892
문32-7	2.30	.966	.085	-1.042	.775**	.892
문32-8	2.46	.980	-.153	-1.037	.753**	.892
문32-9	2.42	.986	-.097	-1.078	.728**	.893
문32-10	2.03	.919	.498	-.672	.696**	.894
문32-11	2.32	.972	.012	-1.091	.761**	.892
문32-1	1.71	.820	.952	.162	.550**	.899
문33-2	1.70	.816	.944	.114	.560**	.898
문33-3	2.62	.931	-.305	-.757	.474**	.901
문33-4	1.94	.862	.607	-.357	.565**	.898
문33-5	2.55	.891	-.278	-.685	.386**	.903
문33-6	2.77	.869	-.435	-.405	.239**	.907
문33-7	2.13	.849	.211	-.768	.544**	.899
문33-8	2.20	.897	.148	-.903	.536**	.899
문33-9	2.02	.873	.422	-.664	.516**	.900

두 문항(문32-2, 문33-6)으로 나타났으며 문항 전체의 내적 일치도(Cronbach α)는 .902로 높게 나타났다. 문항 제거 시 신뢰도가 .902보다 높은 경우는 모두 세 문항(문32-2, 문33-5, 문33-6)이었다. 그 중 문32-2와 문33-6 앞서 각 문항과 전체문항 간의 상관관계수에서 절대값 .30 이하로 나타난 문항이다.

관계형성 문항의 응답이 정규분포를 이루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왜도 및 첨도를 보았는데, 왜도가 절대값 2, 첨도가 절대값 7을 초과하는 문항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로써 자료의 정규성이 확보되었음을 확인하였다.

(4) 정서조절

정서조절 문항(총 15)의 양호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살펴 본 문항의 평균 및 표준편차, 문항-전체 상관관계, 문항 제거 시 신뢰도계수는 <표 IV-23>와 같다. 문항별 평균이 3.2 이상이거나 0.8 이하로 나타난 문항이 하나도 없었으며 표준편차의 분포 역시 .732~.889로 나타나 문항별 반응이 극단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경우가 없음을 보여주었다.

한편 각 문항과 전체문항 간 상관분석에서도 각 문항과 전체문항 간의 상관계수가 절대값 .30 이하로 제거해야 할 문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 전체의 내적 일치도(Cronbach α)는 .847로 나타났다. 문항 제거 시 신뢰도가 .847보다 높은 경우는 모두 두 문항(문 34-7, 34-8)으로 이 문항들은 요인분석에 앞서 제거하였다.

한편, 정서조절 문항에 대한 응답들이 정규성을 알아보기 위해 왜도 및 첨도를 살펴보았다.

표 IV-23 정서조절 문항분석 결과

변인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문항-전체 간 상관관계	문항 제거 시 신뢰도 계수
문항 34-1	2.47	.853	-.131	-.647	.591**	.836
문항 34-2	2.05	.853	.496	-.375	.504**	.842
문항 34-3	2.70	.836	-.383	-.349	.664**	.831
문항 34-4	2.96	.810	-.603	.060	.625**	.834
문항 34-5	2.67	.862	-.277	-.540	.646**	.833
문항 34-6	2.55	.841	-.094	-.576	.339**	.852
문항 34-7	2.79	.798	-.375	-.206	.377**	.849
문항 34-8	2.72	.788	-.324	-.229	.369**	.849
문항 34-9	2.62	.847	-.183	-.556	.629**	.834
문항 34-10	2.67	.842	-.284	-.465	.673**	.831
문항 34-11	2.70	.850	-.249	-.526	.704**	.829
문항 34-12	2.49	.889	-.071	-.743	.671**	.831
문항 34-13	2.21	.884	.352	-.569	.544**	.840
문항 34-14	3.05	.732	-.717	.793	.558**	.838
문항 34-15	2.98	.745	-.630	.505	.552**	.838

이 역시 왜도가 절대값 2, 첨도가 절대값 7을 초과하는 문항이 나타나지 않아 자료의 정규성이 확보되었음을 보여주었다.

2) 탐색적 요인분석

이 절에서는 생활관리영역의 하위영역인, 건강관리, 과제관리, 상황대처, 정서조절 영역의 요인 구조를 밝히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에 대한 진행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KMO 측도와 Bartlett 구형성 검정을 통해 자료가 요인분석을 하기에 타당한지 살펴보고 ② 고유치, 스크리 도표, 설명분산 비율 및 누적비율, 해석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요인 수를 결정하였으며 ③ 몇 가지 기준을 근거로 하여 부적절한 문항을 삭제한 후 ④ 최종적으로 실시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1) 건강관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KMO(Kaiser-Meyer-Olkin) 표본 적합성 측도와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을 실시함으로써 자료가 요인분석을 하기에 적합한지 파악하였다.

표 IV-24 건강관리의 KMO 표본 적합성 측도와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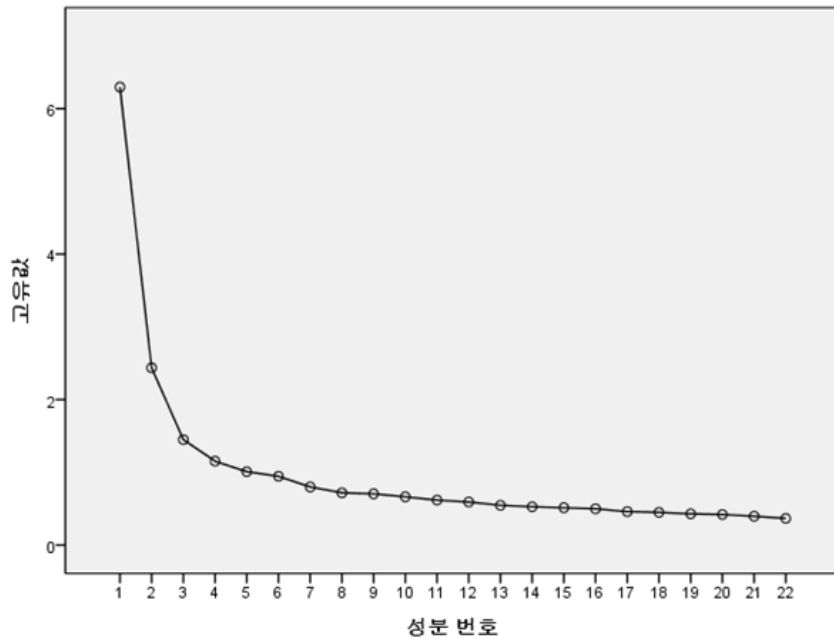
구분		측정치
KMO 측도		.909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근사 카이제곱	44445.844
	자유도	231
	유의확률	.000

건강관리 영역에 대한 응답 자료의 KMO와 Bartlett의 검정 결과는 <표 IV-24>에 제시되었다. KMO 값은 .909로 표본의 상관이 요인분석을 적용하기에 매우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Bartlett 구형성 검정치도 기각되어($p < 0.1$) 자료가 요인분석에 적절함을 보여주었다.

건강관리 영역의 경우 앞에 제시한 <표 IV-22>에 나와 있는 대로 문항들의 왜도 및 첨도의 절대값이 각각 2와 7을 넘지 않아 자료의 정규성이 확보되었으므로 요인추출방법으로 최대우도법 실시가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다음 단계로 요인 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고유치(eigen value), 스크리 도표(scree plot), 설명분산 비율 및 누적비율, 해석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초기 고유치가 1.0을 기준으로 이보다 큰 값을 보인 요인은 모두 5개로 나타났다. 한편 각 성분의 고유값들의 차이를 볼 때

5요인 이하의 고유값 간의 차이가 그리 크지 않고, 스크리 도표([그림 IV-8])의 꺾이는 지점을 살펴보면 네 번째 이하의 요인들은 비슷한 크기를 보였다. 연구자는 총 22개 문항에 대하여 모두 5개의 하위 요인을 고려하여 척도를 구성하였으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3~5가지의 주요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여기서는 해석가능성을 고려하여 주요인의 수를 3개로 가정하였다.



【그림 IV-8】 건강관리 스크리 도표

요인 수를 고정하여 분석하기에 앞서 ① 공통성이 .40 미만인 문항, ② 요인부하량이 .40 미만인 문항, ③ 주요인 부하량과 다른 요인 부하량의 차이가 .10 미만인 문항, ④ 이론적 배경을 통해 문항구성 시 지정한 요인과 다른 요인으로 분류된 문항을 제거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IV-25>과 같다. 각 요인들의 내용을 보면 요인 1에는 총 6개의 문항(문30-17, 문30-18, 문30-19, 문30-20, 문30-21, 문30-22)이 속하였는데 그 내용은 주로 안전 및 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것이다. 요인 2에는 총 2문항(문30-15, 문30-16)이

표 IV-25 건강관리 척도의 요인구조

문항 번호 및 내용(요약)	요인1. 안전 및 스트레스관리	요인2. 신체관리	요인3. 위생관리
문30-9 비누로 손씻기	.082	-.095	.488
문30-10 속옷을 규칙적으로 갈아입기	.059	.083	.669
문30-11 식사 후 양치질	-.080	-.022	.759
문30-15 음식, 운동, 생활 습관 조절	.096	-.623	.076
문30-16 땀이 날 정도로 운동	-.037	-.822	-.013
문30-17 상처에 대한 응급치료 방법	.540	-.206	-.029
문30-18 유형에 따라 가야할 병원의 종류	.700	.021	.025
문30-19 안전수칙이나 규칙	.771	.071	.036
문30-20 화재 발생 시 대처 요령	.838	.062	-.016
문30-21 적당한 휴식을 취하기	.475	-.124	.093
문30-22 적절한 여가 생활	.359	-.297	.066
고유치	4.118	.736	.525
설명변량	31.957	6.691	4.772
누적변량	37.433	44.125	48.897
cronbach' α	.685	.709	.813

표 IV-26 건강관리 척도의 요인 간의 상관

변인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1	1.000		
요인2	-.566	1.000	
요인3	.629	-.370	1.000

포함되었는데 그 내용은 신체관리에 관한 것들이다. 총 3문항(문30-9, 문30-10, 문30-11)이 속한 요인 3은 주로 위생관리와 관련된 행동들이 범주화되었다. 따라서 요인 1은 안전 및 스트레스관리, 요인 2는 신체관리, 요인 3은 위생관리로 명명하였다. 앞서 이론을 바탕으로 한 구성요소에는 포함되어 있던 식습관관리는 요인분석 결과 제외되었고 별도의 척도로 구성되었던 안전관리와 스트레스관리는 요인분석 결과 하나의 척도로 묶이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요인 간 상관관계수는 <표 IV-26>에 제시하였다.

(2) 과제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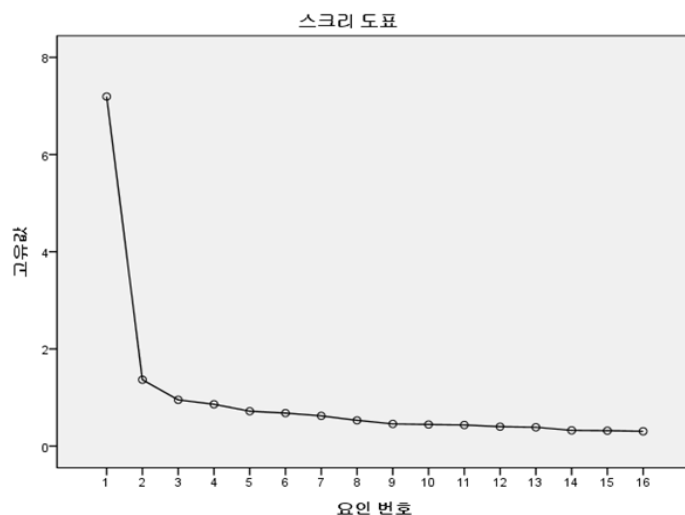
요인분석에 대한 자료의 적합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KMO(Kaiser-Meyer-Olkin) 표본 적합성 측도와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을 실시한 결과(<표 IV-27>), KMO 값은 .909로 표본의 상관이 요인분석을 적용하기에 매우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Bartlett 구형성 검정치도 기각되어 ($p < 0.1$) 자료가 요인분석에 적절함을 보여주었다.

과제관리 영역의 경우 역시 앞에 제시한 <표 IV-21>에 나와 있는 대로 문항들의 왜도 및 첨도의 절대값이 각각 2와 7을 넘지 않았다. 이는 자료의 정규성이 확보되어 사각회전을 적용한 최대우도법을 사용하는 요인분석의 실시가 가능함을 의미한다.

요인 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고유치(eigen value), 스크리 도표(scree plot), 설명분산 비율 및 누적비율, 해석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하였다. 초기 고유치가 1.0을 기준으로

표 IV-27 과제관리의 KMO 표본 적합성 측도와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결과

구분		측정치
KMO 측도		.946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근사 카이제곱	48221.699
	자유도	120
	유의확률	.000



【그림 IV-9】 과제관리 스크리 도표

표 IV-28 과제관리 척도의 요인구조

문항 번호 및 내용(요약)	요인1. 목표 및 계획수립	요인2. 수행 및 평가
문31-1 구체적 목표 세우기	.754	-.003
문31-2 목표 수립시 주변 의견 참고	.783	.103
문31-3 목표 수립시 주변 정보 참고	.828	.077
문31-4 목표 순서 정하기	.748	-.009
문31-6 목표달성을 위한 계획 스스로 세우기	.609	-.163
문31-7 목표달성을 위한 계획 구체적으로 세우기	.646	-.138
문31-8 필요에 따라 계획 수정하기	.498	-.200
문31-9 시간과 환경을 고려한 계획 세우기	.540	-.188
문31-11 수행 도중 진행상황 점검	.331	-.402
문31-14 일을 마친 후 목표달성 점검	.036	-.769
문31-15 일을 마친 후 계획 달성 평가	-.041	-.864
문31-16 일을 마친 후 다음 할 일에 결과 반영	.134	-.616
고유치	6.190	.449
설명변량	51.583	3.737
누적변량	51.583	55.320
cronbach' α	.900	.841

이보다 큰 값을 보인 요인은 모두 2개로 나타났다. 한편 각 성분의 고유값들의 차이를 볼 때에는 3요인 이하의 고유값들 간의 차이가 그다지 크지 않았다. 스크리 도표([그림 IV-9])의 꺾이는 지점을 고려하여 볼 때도 세 번째 이하의 요인들은 비슷한 크기를 보였다. 연구자는 이론적

표 IV-29 과제관리 척도의 요인 간의 상관

변인	요인1	요인2
요인1	1.000	
요인2	-.799	1.000

연구를 바탕으로 과제 관리에 대해 모두 4개의 하위 요인을 고려하여 척도를 구성하였으나 이 같은 결과는 주요인이 1~2개 정도만 존재함을 보여주었다. 이에 따라 주요인을 2개로 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요인 간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에 앞서 ① 공통성이 .40 미만인 문항, ② 요인부하량이 .40 미만인 문항, ③ 주요인 부하량과 다른 요인 부하량의 차이가 .10 미만인 문항, ④ 이론적 배경을 통해 문항구성 시 지정한 요인과 다른 요인으로 분류된 문항은 제거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IV-28>와 같다. 각 요인들의 내용을 보면 요인 1에는 총 8개의 문항(문31-1, 문31-2, 문31-3, 문31-4, 문31-6, 문31-7, 문31-8, 문31-9)이 속하였는데 그 내용은 목표 설정 및 계획 수립에 대한 것이다. 요인 2의 내용은 과제 수행 및 평가에 관한 것들로 총 4문항(문31-11, 문31-14, 문31-15, 문31-16)이 포함되었다. 따라서 요인 1은 목표 및 계획수립, 요인 2는 수행 및 평가로 명명하였다. 앞서 이론을 바탕으로 한 구성요소에서는 총 4개의 요인, 즉 목표 설정, 계획 수립, 수행, 평가로 각각 나누었으나 요인 분석 결과 목표 설정과 계획 수립이 하나의 요인으로 묶이고 수행, 평가가 하나의 요인으로 묶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요인 간 상관계수는 <표 IV-29>에 제시하였다.

(3) 상황대처

상황대처 영역에 대한 응답 자료의 KMO와 Bartlett의 검정 결과는 <표 IV-30>에 제시되었다. KMO 값은 .917로 표본의 상관이 요인분석을 적용하기에 매우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Bartlett 구형성 검정치도 기각되어($p < 0.1$) 자료가 요인분석을 실시하기에 적절함을 보여주었다. 상황대처 영역 역시 앞에서 제시(<표 IV-24>)한 대로 문항들의 왜도 및 첨도의 절대값을 바탕으로 자료의 정규성을 확보하였으므로 사각회전을 적용한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을 사용하였다.

고유치(eigen value), 스크리 도표(scree plot), 설명분산 비율 및 누적비율, 해석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초기 고유치가 1.0을 기준으로 이보다 큰 값을 보인 요인은 모두

표 IV-30 상황대처의 KMO 표본 적합성 측도와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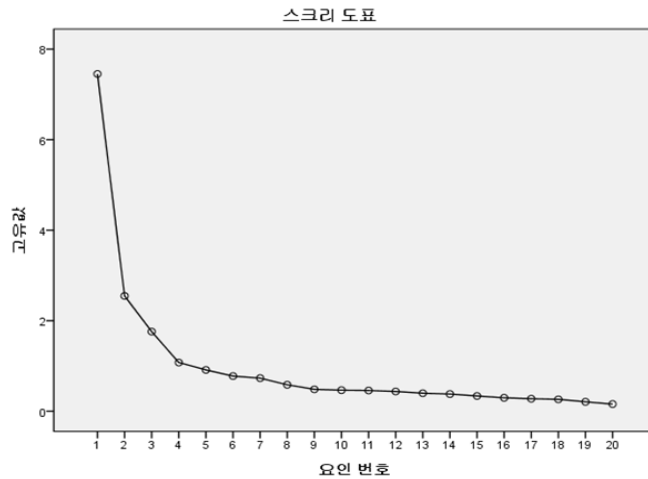
구분		측정치
KMO 측도		.917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근사 카이제곱	70287.864
	자유도	190
	유의확률	.000

4개로 나타났다. 한편 각 성분의 고유값들의 차이를 볼 때 6요인 이하의 고유값 간의 차이는 그다지 크지 않고, 스크리 도표의 꺾이는 지점을 고려하여 볼 때 네 번째 이하의 요인들은 비슷한 크기를 보였다. 연구자는 총 20문항에 대하여 모두 2개 하위 요인을 고려하여 척도를 구성하였으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4~5가지의 주요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여기서는 누적비율 및 해석가능성을 고려하여 주요인의 수를 4개로 가정하였다.

요인 수를 4개로 고정하여 분석하기에 앞서 문항제거 작업을 실시하였다. 앞에서 서술한 바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① 공통성이 .40 미만인 문항, ② 요인부하량이 .40 미만인 문항, ③ 주요인 부하량과 다른 요인 부하량의 차이가 .10 미만인 문항, ④ 이론적 배경을 통해 문항구성 시 지정한 요인과 다른 요인으로 분류된 문항을 제거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IV-31>와 같다. 각 요인들의 내용을 보면 요인 1에는 총 7개의 문항(문32-5, 문32-6, 문32-7, 문32-8, 문32-9, 문32-10, 문32-11)이



【그림 IV-10】 상황대처 스크리 도표

표 IV-31 상황대처 척도의 요인구조

문항 번호 및 내용(요약)	요인1. 중독행동	요인2. 폭력행동	요인3. 중독인식	요인4. 폭력회피
문32-1 중독성 있음	.202	.065	-.418	.061
문32-3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 됨	-.088	-.048	-.968	-.016
문32-4 친구들과 어울리는데 도움 됨	.101	-.037	-.675	.010
문32-5 지나친 사용으로 지적받음	.609	-.025	-.217	-.010
문32-6 하지 않으면 생각남	.787	-.091	-.033	-.025
문32-7 그만해야 된다는 생각 중에도 계속함	.918	.004	.035	-.015
문32-8 한번 시작하면 시간가는 줄 모름	.806	.081	-.077	.022

문항 번호 및 내용(요약)	요인1. 중독행동	요인2. 폭력행동	요인3. 중독인식	요인4. 폭력회피
문32-9 내 생활에 방해가 됨	.803	.057	-.002	.041
문32-10 다른 사람 몰래 함	.703	-.139	.055	.017
문32-11 습관적으로 함	.846	.000	.011	.011
문33-1 힘자랑이나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남을 괴롭힘	.021	-.903	.021	-.002
문33-2 재미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남을 괴롭힘	-.014	-.934	-.015	-.009
문33-4 폭력을 이기는 방법은 폭력을 행사하는 것임	.069	-.472	-.078	.141
문33-7 남이 괴롭힘 당하는 것을 모른 척 함	-.015	-.078	-.027	.676
문33-8 관계가 멀어지는 것이 두려워 괴롭힘을 참음	-.049	.058	-.023	.867
문33-9 괴롭힘에 대한 대처법 모름	.068	-.034	.056	.679
고유치	6.788	1.971	.636	.853
설명변량	42.426	12.319	3.978	5.332
누적변량	42.426	54.744	58.722	64.054
cronbach' α	.733	.931	.841	.793

속하였는데 그 내용은 주로 물질 및 매체에 대한 중독행동과 관련된 내용들이다. 요인 2에는 총 3문항(문33-1, 문33-2, 문33-4)이 포함되었으며, 폭력행동과 관련된 내용들로 묶여 있다. 총 3개의 문항(문32-1, 문32-3, 문32-4)이 속한 요인 3은 주로 중독에 대한 인식 관련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요인 4는 총 3문항(문33-7, 문33-8, 문33-9)이 범주화되었는데, 이 문항들은 폭력을 회피하고자 하는 행동과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요인 1은 중독행동, 요인 2는 중독인식, 요인 3은 폭력행동, 요인 4는 폭력회피로 명명하였다. 앞서 이론을 바탕으로 한 구성요소에서는 중독의 경우는 인식과 행동으로, 폭력행동의 경우는 가해 및 피해 행동으로 나뉘었으나 요인분석 결과 중독은 이론적 배경에서와 마찬가지로 인식과 행동으로 나뉘는 반면 폭력행동은 적극적인 폭력 행동과 폭력에 대한 회피행동으로 나뉘었다. 마지막으로 요인 간 상관계수는 <표 IV-32>에 제시하였다.

표 IV-32 상황대처 척도의 요인 간의 상관

변인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1	1.000			
요인2	-.398	1.000		
요인3	-.693	.210	1.000	
요인4	.427	-.572	-.277	1.000

(4) 정서조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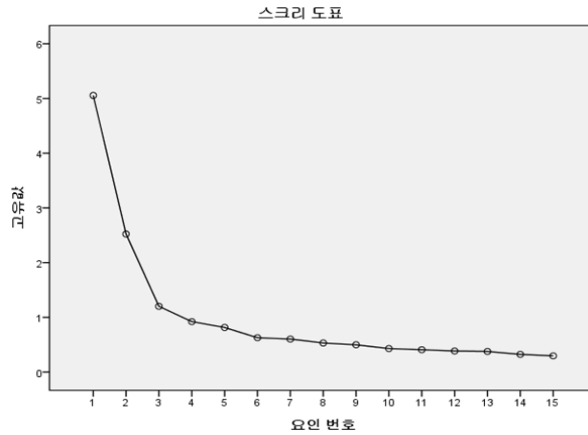
탐색적 요인분석에 앞서 자료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KMO(Kaiser-Meyer-Olkin) 표본 적합성 측도와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IV-33>에 제시하였다. KMO 값은 .869로 표본의 상관이 요인분석을 적용하기에 적합할 뿐 아니라, Bartlett 구형성 검정치도 기각됨으로써($p < 0.1$) 자료가 요인분석에 적합함을 보여주었다. 요인분석은 앞서 <표 IV-25>에 제시한 대로 문항들의 왜도 및 첨도의 절대값이 각각 2와 7을 넘지 않아 자료의 정규성이 확보되었으므로 사각회전을 적용한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였다.

요인 수를 결정하기 위해 고유치(eigen value), 스크리 도표(scree plot), 설명분산 비율 및 누적비율, 해석가능성 등을 고려하였다. 초기 고유치가 10을 기준으로 이보다 큰 값을 보인요인은 모두 3개로 나타났으며, 각 성분의 고유값들은 6번째 요인 이하부터 그 값의 차이가 그다지 크지 않았다. 스크리 도표의 꺾이는 지점을 고려하여 볼 때 역시 6번째 이하의 요인들은 비슷한 크기를 보였다. 연구자는 총 15개 문항에 대하여 단일 요인으로 척도를 구성하였으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3~5가지의 주요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서는 누적비율 및 해석가능성을 고려하여 주요인의 수를 4개로 가정하였다.

요인 수를 4개로 고정하여 분석하기에 앞서 ① 공통성이 .40 미만인 문항, ② 요인부하량이

표 IV-33 정서조절의 KMO 표본 적합성 측도와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결과

구분		측정치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KMO 측도	.869
	근사 카이제곱	37726.539
	자유도	105
	유의확률	.000



【그림 IV-11】 정서조절 스크리 도표

.40 미만인 문항, ③ 주요인 부하량과 다른 요인 부하량의 차이가 .10 미만인 문항, ④ 이론적 배경을 통해 문항구성 시 지정한 요인과 다른 요인으로 분류된 문항들은 제거하였다. 다음 단계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IV-34>와 같다. 각 요인들의 내용을 보면 요인 1에는 총 2문항(문34-14, 문34-15)이 포함되었는데 그 내용은 자신의 감정에 대한 주의깊은 관찰과 명확한 인식에 관한 것들이다. 요인 2에는 분노 행동 활성화와 관련이 있는 총 2개의

표 IV-34 정서조절 척도의 요인구조

문항 번호 및 내용(요약)	요인1. 감정인식	요인2. 분노행동	요인3. 감정절제	요인 4 조절실패
문34-1 화나거나 기분 상하면 욕 하거나 소리 지름	.094	.763	-.045	-.023
문34-2 화나거나 기분 상하면 물건 집어던짐	-.075	.755	.035	-.001
문34-7 화나거나 기분 상해도 지나친 표현과 행동 자제함	-.064	-.025	.899	-.040
문34-8 갑자기 슬프거나 힘든 일을 당해도 잘 이겨냄	.091	.028	.637	.042
문34-10 작은 일에도 기분이 쉽게 변함	.024	-.021	.013	-.750
문34-11 기분에 따라 행동이 크게 변함	.000	-.046	-.004	-.901
문34-12 내 기분에 휩싸여 말이나 행동 통제 어려움	.019	.274	-.017	-.516
문34-14 내 기분이나 감정을 분명히 알고 있음	.941	.006	-.037	.027
문34-15 내 기분이나 감정 상태에 주의 기울임	.703	-.012	.084	-.063
고유치	2.705	1.851	.615	.515
설명변량	30.058	20.570	6.836	5.717
누적변량	30.058	50.627	57.464	63.181
cronbach' α	.821	.736	.738	.804

표 IV-35 정서조절 척도의 요인 간의 상관

변인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1	1.000			
요인2	.116	1.000		
요인3	.482	-.081	1.000	
요인4	-.391	-.567	-.072	1.000

문항(문34-1, 문34-2)이 범주화되었다. 총 3문항(문34-10, 문 34-11, 문34-12)이 속한 요인 3은 상황에 따라 쉽게 변하는 감정에 대한 내용으로 감정 조절의 실패와 연관되어 있다. 요인 4는 총 2문항(문34-7, 문34-8)으로 감정에 대한 성공적인 절제로 감정조절 성공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요인 1은 감정인식, 요인 2는 분노행동, 요인 3은 감정절제, 요인 4는 조절실패로 명명하였다. 앞서 이론을 바탕으로는 정서조절을 단일요소로 구성하고자 하였으나 요인분석 결과 4가지 요인으로 나뉘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요인 간 상관계수는 <표 IV-35>에 제시하였다.

3) 확인적 요인분석

(1) 건강관리

앞서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나타난 건강관리 영역에 대한 3요인 구조가 지지될 수 있는지 검토하기 위해 AMOS를 이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각 문항의 비표준화 및 표준화 계수는 <표 IV-36>과 같다. 건강관리의 경우 각 문항의 표준화 계수, 즉 요인부하량은 .05~.095 사이에 있으므로 각 요인별 집중타당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IV-36 건강관리 타당화 측정모형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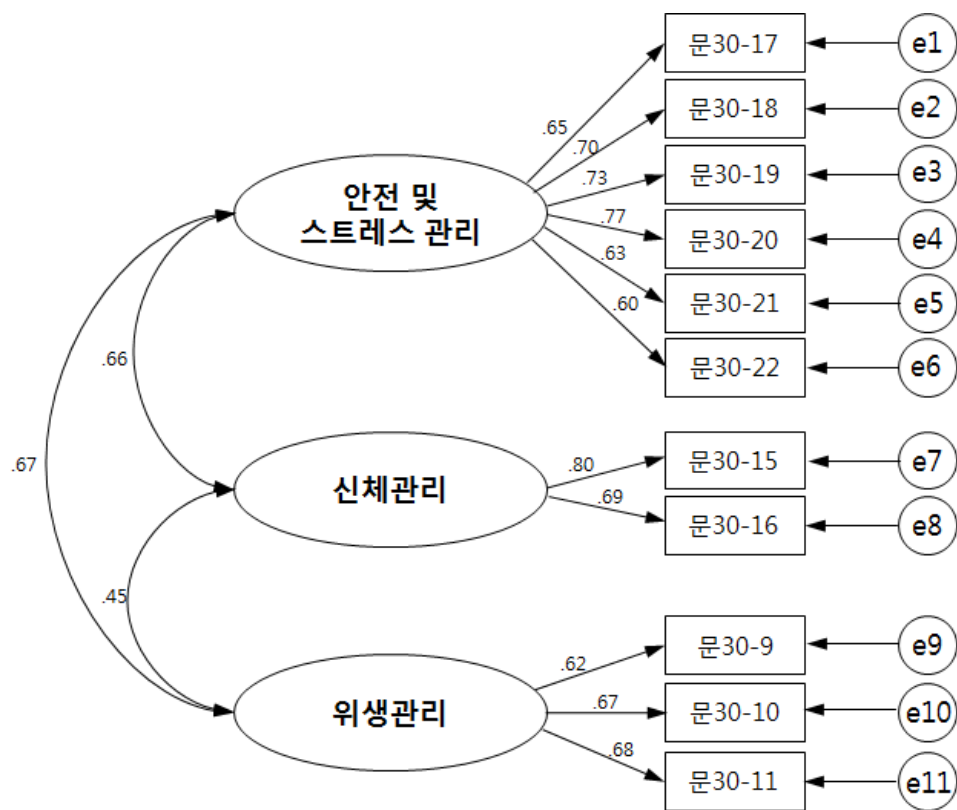
변인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안전 및 스트레스 관리	문30-17 1.000	.650 ***
	문30-18 1.018	.697 ***
	문30-19 .980	.734 ***
	문30-20 1.010	.768 ***

변인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문30-21	.877	.628 ***
	문30-22	.939	.605 ***
신체관리	문30-15	1.000	.804 ***
	문30-16	.989	.690 ***
위생관리	문30-9	1.000	.615 ***
	문30-10	.940	.668 ***
	문30-11	1.047	.677 ***

이 경우 적합도 지수를 보면(<표 IV-37>) CFI와 NFI는 각각 .937과 .936으로 적합도 지수의 해석 기준치인 .90보다 높게 나타났고 TLI는 .899로 .90보다는 작으나 그 차이가 매우 미미하였다. RMSEA의 경우는 .074로 .06~.08사이에 있으므로 좋은 적합도라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적합도 지수를 바탕으로 판단해 볼 때 건강관리 모형은 비교적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확인적 요인분석 최종 모형의 표준화 경로계수 결과는 [그림 IV-12]와 같다.

표 IV-37 건강관리 타당화 측정모형의 적합도

$\chi^2(df)$	CFI	NFI	TLI	RMSEA
1547.705(41)***	0.937	0.936	0.899	0.074



【그림 IV-12】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건강관리 요인구조 모형과 표준화된 요인계수

(2) 과제관리

앞서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나타난 과제관리 영역에 대한 2요인 구조가 지지될 수 있는지 검토하기 위해 AMOS를 이용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각 문항의 비표준화 및 표준화 계수를 구성하여 <표 IV-38>에 제시하였다. 먼저 각 문항의 표준화 계수, 즉 요인부하량은 .05~.095 사이에 있으므로 집중타당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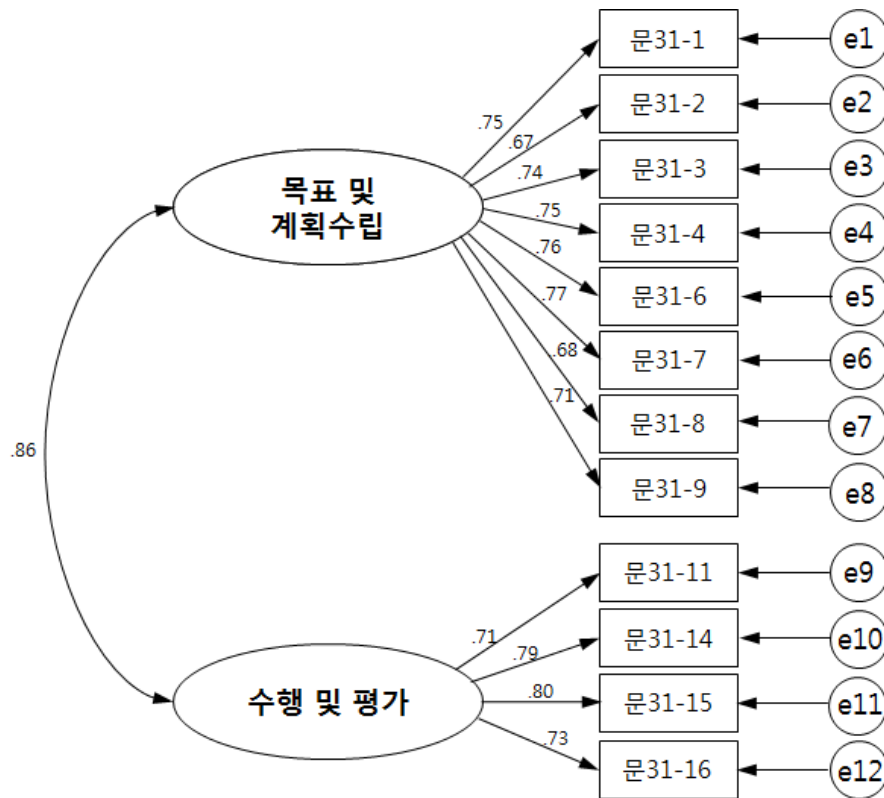
표 IV-38 과제관리 타당화 측정모형 분석

변인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목표 및 계획수립	문31-1	1.000	.750 ***
	문31-2	.877	.674 ***
	문31-3	.926	.742 ***
	문31-4	.949	.750 ***
	문31-6	.964	.757 ***
	문31-7	1.038	.769 ***
	문31-8	.819	.675 ***
	문31-9	.850	.706 ***
수행 및 평가	문31-11	1.000	.706 ***
	문31-14	1.036	.789 ***
	문31-15	1.104	.804 ***
	문31-16	1.016	.733 ***

적합도 지수를 보면(<표 IV-39>) CFI와 NFI, TLI의 지수가 각각 .937, .948, .925로 모든 지수에서 적합도 지수의 해석 기준치인 0.9 이상으로 나타났다. 또한 RMSEA는 .079로 .06~.08사이에 있으므로 비교적 좋은 적합도라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적합도 지수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과제관리 모형은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확인적 요인분석 최종 모형의 표준화 경로계수 결과는 [그림 IV-13]과 같다.

표 IV-39 과제관리 타당화 측정모형의 적합도

$\chi^2(df)$	CFI	NFI	TLI	RMSEA
2234.047(53)***	0.949	0.948	0.925	0.079



【그림 N-13】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과제관리 요인구조 모형과 표준화된 요인계수

(3) 상황대처

앞서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나타난 상황대처 영역에 대한 4요인 구조가 지지될 수 있는지 검토하기 위해 AMOS를 이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각 문항의 비표준화 및 표준화 계수는 <표 IV-40>과 같다. 각 문항의 표준화 계수, 즉 요인부하량은 .05~.095 사이에 있어서 집중타당도가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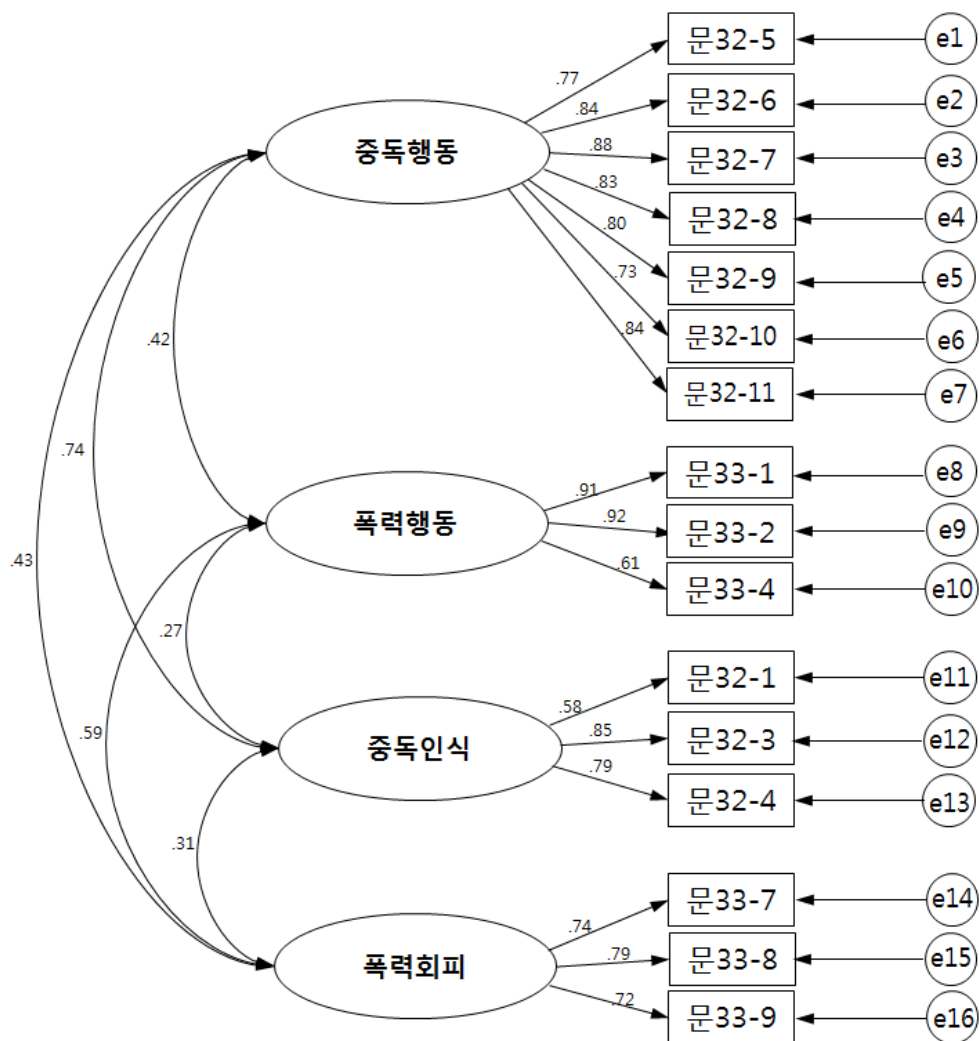
표 IV-40 상황대처 타당화 측정모형 분석

변인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중독행동	문32-5)	1.000	.774 ***
	문32-6)	1.014	.837 ***
	문32-7)	1.095	.879 ***
	문32-8)	1.053	.833 ***
	문32-9)	1.012	.796 ***
	문32-10)	.861	.727 ***
	문32-11)	1.054	.841 ***
폭력행동	문33-1)	1.000	.907 ***
	문33-2)	1.012	.922 ***
	문33-4)	.702	.606 ***
중독인식	문32-1)	1.000	.581 ***
	문32-3)	1.421	.851 ***
	문32-4)	1.368	.792 ***
폭력회피	문33-7)	1.000	.739 ***
	문33-8)	1.123	.786 ***
	문33-9)	1.008	.724 ***

적합도 지수를 살펴보면(<표 IV-41>), CFI와 NFI, TLI의 지수가 각각 .965, .963, .951로 모든 지수에서 적합도 지수의 해석 기준치인 0.9 이상으로 나타났다. 또한 RMSEA는 .059로 매우 좋은 적합도 지수의 해석 기준치인 .06이하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적합도 지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건데 상황대처 모형의 적합도는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확인적 요인분석 최종 모형의 표준화 경로계수 결과는 [그림 IV-14]과 같다.

표 IV-41 상황대처 타당화 측정모형의 적합도

$\chi^2(df)$	CFI	NFI	TLI	RMSEA
2371.028(98)***	0.965	0.963	0.951	0.059



【그림 IV-14】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상황대처 요인구조 모형과 표준화된 요인계수

(4) 정서조절

앞서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나타난 정서관리 영역에 대한 4요인 구조를 지지할 수 있는지 검토하기 위해 AMOS를 이용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문항의 비표준화 및 표준화

표 IV-42 정서조절 타당화 측정모형 분석

변인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분노행동	문34-1)	1.000	.834 ***
	문34-2)	.837	.698 ***
감정절제	문34-7)	1.000	.778 ***
	문34-8)	.956	.752 ***
조절실패	문34-10)	1.132	.750 ***
	문34-11)	1.000	.840 ***
	문34-12)	.993	.704 ***
감정인식	문34-14)	1.000	.829 ***
	문34-15)	1.033	.84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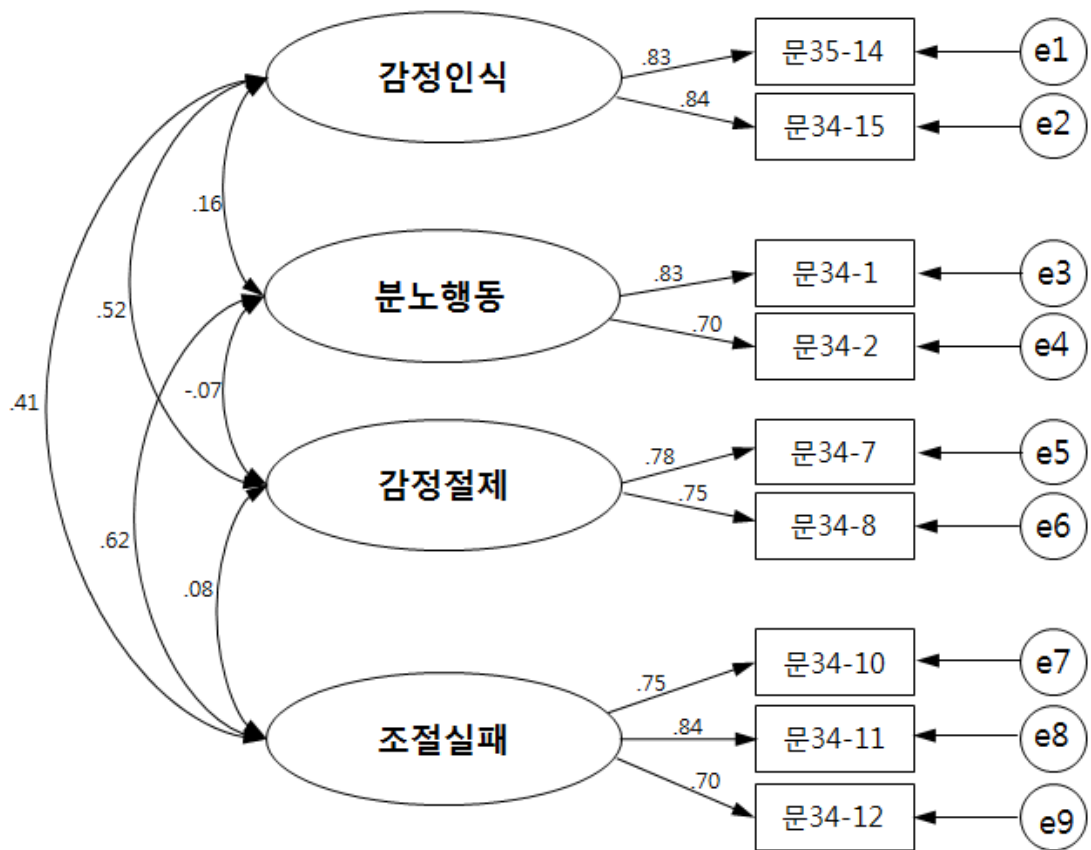
계수는 <표 IV-42>과 같다. 결과에서 보듯이 문항의 표준화 계수, 즉 요인부하량은 모두 .05~.095 사이에 있으므로 집중타당도가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적합도 지수를 살펴보면(<표 IV-43>), CFI와 NFI, TLI의 지수가 각각 .974, .973, .944로 모든 지수에서 적합도 지수의 해석 기준치인 0.9 이상으로 나타나 모형의 적합성을 보여주었다. 또한 RMSEA는 .062로 .06~.08사이에 위치하여 좋은 적합도 지수를 보여주었다. 이상과 같은 적합도 지수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정서조절 모형은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확인적 요인분석 최종 모형의 표준화 경로계수 결과는 [그림 IV-15]과 같다.

표 IV-43 정서조절 타당화 측정모형의 적합도

$\chi^2(df)$	CFI	NFI	TLI	RMSEA
555.571(21)***	0.974	0.973	0.944	0.062

이상과 같이 네 가지 하위 영역에 대한 확인적 요인 분석 결과들은 각 영역에서 추출된 요인구조들이 모두 적합함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다음 절에서는 각 하위영역 별 요인들에 있어서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았다.



【그림 IV-15】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정서조절 요인구조 모형과 표준화된 요인계수

(3) 생활관리역량 척도 최종 문항

생활관리역량 척도에 대한 문항분석과 정규성 평가를 통해 건강관리 11문항(안전 및 스트레스 6문항, 신체관리 2문항, 위생관리 3문항), 과제관리 12문항(목표 및 계획수립 8문항, 수행 및 평가 4문항), 상황대처 16문항(중독행동 7문항, 폭력행동 3문항, 중독인식 3문항, 폭력회피 3문항), 정서조절 9문항(감정인식 2문항, 분노행동 2문항, 감정절제 2문항, 조절실패 3문항) 등 총 48개의 최종 측정문항이 개발되었다. 이와 같이 생활관리역량 척도문항을 하위 영역별로 정리하여 제시하면 <표 IV-44>와 같다.

표 IV-44 생활관리역량 척도 최종 문항

역량	하위영역	설문번호	최종번호	측정문항
건강관리	위생관리	문30-9	1	식사 전이나 외출 후, 화장실에 다녀온 후 비누로 손을 씻는다.
		문30-10	2	속옷을 1~2일에 한 번씩 규칙적으로 갈아입는다.
		문30-11	3	식사 후에는 대부분 양치질을 한다.
	신체관리	문30-15	4	건강을 위해 음식이나 운동, 생활 습관 등을 조절한다.
		문30-16	5	땀이 날 정도로 운동을 하거나 걷는다.
	안전 및 스트레스관리	문30-17	6	몸에 난 상처에 대한 응급치료 방법을 알고 있다.
		문30-18	7	병 유형에 따라 가야할 병원의 종류(예: 외과, 내과, 피부과, 이비인후과 등)를 알고 있다.
		문30-19	8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수칙이나 규칙을 잘 지킨다.
		문30-20	9	화재 발생 시 대처 요령에 대해 잘 알고 있다.
		문30-21	10	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일이나 공부를 하는 중간 중간 적당한 휴식을 취한다.
		문30-22	11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적절한 여가 생활을 가지고 있다.
과제관리	목표 및 계획수립	문31-1	12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내가 이루어야 할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운다.
		문31-2	13	목표를 세울 때 주변의 어른이나 친구들의 의견을 참고한다.
		문31-3	14	목표를 세우기 위해 주변의 다양한 정보를 참고한다.
		문31-4	15	이루어야 할 목표가 여러 가지일 때 먼저 이루어야 하는 목표들의 순서를 정한다.
		문31-6	16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해야 할 일들에 대한 계획을 스스로 세운다.
		문31-7	17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해야 할 일들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운다.
		문31-8	18	예상치 못한 상황에 부딪히거나 필요가 있다면 그에 따라 계획을 수정한다.
		문31-9	19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환경을 고려하여 계획을 세운다.
	수행 및 평가	문31-11	20	나는 일을 하는 중간 중간 목표에 맞게 하고 있는지 진행상황을 점검해 본다.
		문31-14	21	어떤 일을 마치고 난 후 내가 세웠던 목표를 이루었는지 스스로 확인해 본다.
		문31-15	22	어떤 일을 마치고 난 후 내가 세운 계획에 맞게 일을 했는지 스스로 평가해 본다.

역량	하위영역	설문번호	최종번호	측정문항
		문31-16	23	어떤 일을 마치고 난 후 그 일의 결과에서 부족한 부분을 다음 할 일에 반영한다.
상황대처	중독인식	문32-1	24	중독성이 있다.
		문32-3	25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
		문32-4	26	친구들과 어울리는데 도움이 된다.
	중독행동	문32-5	27	지나치게 자주 또는 오래한다고 가족이나 친구들로부터 지적을 받은 적이 있다.
		문32-6	28	하지 않을 때는 자꾸 생각이 난다.
		문32-7	29	그만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중에도 어쩔 수 없이 계속 하게 된다.
		문32-8	30	한 번 시작하면 시간가는 줄 모른다.
		문32-9	31	이로 인해 내 생활(일, 공부, 수면 등)이 방해받을 때가 있다.
		문32-10	32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 몰래한다.
		문32-11	33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하게 된다.
	폭력행동	문33-1	34	내 힘을 자랑하거나 필요한 돈이나 물건을 갖기 위해 다른 사람을 괴롭힌 적이 있다(인터넷에 악플을 달거나 욕을 한 적이 있다).
		문33-2	35	별다른 이유 없이 단지 재미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다른 사람을 괴롭힌 적이 있다(인터넷에 악플을 달거나 욕을 한 적이 있다).
		문33-4	36	폭력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상대방에게 맞서 폭력을 행사 하는 것이다.
	폭력회피	문33-7	37	내가 피해를 볼까봐 친구가 다른 친구를 괴롭히는 것을 모른 척 한 적이 있다.
		문33-8	38	누군가 나(또는 다른 친구)를 괴롭힐 때 그 사람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이 두려워 참은 적이 있다.
		문33-9	39	누군가 나를 괴롭힐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다.
정서조절	분노행동	문34-1	40	화가 나거나 기분이 상하면 욕을 하거나 소리를 지른다.
		문34-2	41	화가 나거나 기분이 상하면 물건을 집어던진다.
	감정절제	문34-7	42	화가 나거나 기분이 상할 때에도 지나친 표현이나 행동은 자제한다.
		문34-8	43	나는 갑자기 슬프거나 힘든 일을 당해도 침착하게 잘 이겨내는 편이다.
	조절실패	문34-10	44	작은 일에도 나의 기분은 쉽게 변한다.
		문34-11	45	기분에 따라 행동이 크게 변한다.
		문34-12	46	내 기분에 휩싸여 내 말이나 행동을 통제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
	감정인식	문34-14	47	나는 내 기분이나 감정을 분명히 알고 있다.
		문34-15	48	나는 내 기분이나 감정 상태에 주의를 기울인다.

3. 진로개발역량 측정도구 문항 개발³⁾

1) 진로개발역량 척도 문항 분석 및 정규성 평가

선행연구 고찰과 예비조사를 통해 구성된 진로개발 역량 척도의 최종 문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진로개발 역량의 하위역역별로 문항분석과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추출된 문항과 요인이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1) 진로설계

진로설계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총 20개 문항의 평균 및 표준편차, 문항-전체 상관관계(item-total correlation), 문항 제거 시 신뢰도계수(alpha if item deleted)를 확인하였다(표 IV-45 참고). 문항 6의 경우에는 청소년들의 진로설계 행동에 대해 묻는 문항으로 타당도 검토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문항별 평균은 2.59에서 3.34이고 표준편차는 0.65에서 1.08사이로 나타났다. 각 문항과 전체문항간의 상관분석(corrected item-total correlation analysis) 결과를 살펴본 결과, 문항 2와 13이 절대값 .30 이하이면서 표준편차도 상대적으로 커서 제거하기로 결정하였다. 문항 전체의 내적 일치도는 .903이었으며, 문항 제거 시 신뢰도는 모두 .903보다 낮게 나와 문항 신뢰도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진로설계 문항의 응답이 정규분포(normality)를 이루고 있는지 확인한 결과, 왜도가 절대값 2, 첨도가 절대값 7을 초과하는 문항이 나타나지 않아 자료의 정규성은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진로설계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총 20개의 문항 중 문항 2와 13을 제거하여 최종 18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문항2와 13의 경우에는 부정적으로 묻는 문항이 개발되었었는데, 문항이해도의 측면에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해석된다.

3) 이 부분은 진성희 교수(인하대학교)가 집필 집필하였음.

표 IV-45 진로설계 문항분석 결과

변인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문항-전체 간 상관관계	문항 제거 시 신뢰도 계수
문항1	3.14	0.70	-0.51	0.19	0.585	0.88
문항2	3.07	1.00	-0.69	-0.74	0.157	0.90
문항3	3.15	0.66	-0.43	0.26	0.616	0.88
문항4	3.10	0.72	-0.49	0.10	0.538	0.88
문항5	3.22	0.72	-0.63	0.07	0.616	0.88
문항7	2.88	0.84	-0.30	-0.59	0.519	0.88
문항8	3.12	0.76	-0.57	-0.05	0.653	0.88
문항9	3.16	0.75	-0.63	0.11	0.692	0.88
문항10	2.86	0.82	-0.24	-0.58	0.538	0.88
문항11	2.79	0.85	-0.20	-0.65	0.446	0.89
문항12	3.34	0.68	-0.84	0.66	0.609	0.88
문항13	2.59	0.95	-0.05	-0.94	0.004	0.90
문항14	3.18	0.70	-0.59	0.31	0.570	0.88
문항15	3.30	0.72	-0.83	0.53	0.673	0.88
문항16	3.13	0.75	-0.60	0.06	0.456	0.89
문항17	3.22	0.66	-0.54	0.44	0.700	0.88
문항18	2.91	0.80	-0.19	-0.68	0.598	0.88
문항19	2.96	0.81	-0.28	-0.69	0.630	0.88
문항20	3.22	0.65	-0.51	0.44	0.671	0.88
문항21	2.89	0.76	-0.18	-0.48	0.507	0.88

(2) 여가활용

여가활용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총 17문항 중 여가활동행동에 대해 묻는 17번 문항을 제외한 16개의 문항을 대상으로 각 문항의 평균 및 표준편차, 문항-전체 상관관계, 문항 제거 시 신뢰도 계수를 확인하였다(표 IV-46 참고). 그 결과, 각 문항의 평균은 2.52에서 3.43 이하이고 표준편차는 0.61에서 0.90까지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전체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모두 적정 판단 기준인 절대값 .3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 전체의 내적 일치도는 .921이었는데 개별 문항 제거 시 .921보다 높아지는 항목이 없어 각 문항의 신뢰도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여가활용 문항의 응답이 정규분포를 이루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왜도 및 첨도의 값을 확인한 결과, 왜도는 절대값 2를, 첨도는 절대값 7을 초과하는 문항이 없어, 자료의 정규성이 확보되었다.

표 IV-46 여가활용 문항분석 결과

변인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문항-전체 간 상관관계	문항 제거 시 신뢰도 계수
문항1	3.33	0.62	-0.59	0.58	0.595	0.918
문항2	3.40	0.61	-0.63	0.33	0.591	0.918
문항3	3.43	0.61	-0.77	0.64	0.586	0.918
문항4	3.41	0.62	-0.76	0.57	0.590	0.918
문항5	3.00	0.81	-0.32	-0.70	0.612	0.917
문항6	3.27	0.69	-0.68	0.24	0.586	0.917
문항7	2.52	0.86	0.21	-0.66	0.578	0.918
문항8	2.79	0.87	-0.15	-0.79	0.706	0.914
문항9	2.65	0.88	0.02	-0.79	0.688	0.915
문항10	2.67	0.84	-0.05	-0.67	0.631	0.916
문항11	3.17	0.71	-0.57	0.21	0.690	0.915
문항12	3.15	0.70	-0.55	0.23	0.679	0.915
문항13	2.90	0.82	-0.32	-0.49	0.726	0.914
문항14	3.06	0.79	-0.61	0.05	0.704	0.914
문항15	3.11	0.78	-0.63	0.06	0.735	0.913
문항16	2.79	0.90	-0.25	-0.77	0.553	0.919

(3) 개척정신

개척정신은 총 9문항을 대상으로 각 문항의 평균 및 표준편차, 문항-전체 상관관계, 문항 제거 시 신뢰도 계수를 확인하였다(표 IV-47 참고). 그 결과, 각 문항의 평균은 2.45에서 2.85로 진로개발역량 관련 진로설계 또는 여가활용에 비해 평균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준편차는 0.72에서 0.81사이로 극단적인 편차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문항-전체 상관관계는 문항 9를 제외하고는 적정 판단 기준인 절대값 .3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 전체의 내적 일치도는 .729이었는데 개별 문항 제거 시 .729보다 높아지는 항목이 없고 신뢰도 계수가 .7 내외로 문항 간 신뢰도는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개척정신 문항의 응답이 정규분포를 이루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왜도 및 첨도의 값을 확인한 결과, 왜도는 절대값 2를, 첨도는 절대값 7을 초과하는 문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자료의 정규성이 확보되었다. 다만 문항 9의 경우 문항-전체간 상관관계가 절대값 .30이하이나 그 차이가 미미하고 다른 척도가 문제로 보이지 않아 요인분석을 통해 제거 유무를 결정하고자 한다.

표 IV-47 개척정신 문항분석 결과

변인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문항-전체 간 상관관계	문항 제거 시 신뢰도 계수
문항1	2.77	0.75	-0.03	-0.52	0.449	0.698
문항2	2.85	0.72	-0.12	-0.36	0.465	0.696
문항3	2.75	0.73	0.04	-0.50	0.470	0.694
문항4	2.45	0.79	0.30	-0.37	0.461	0.695
문항5	2.84	0.71	-0.22	-0.12	0.413	0.704
문항6	2.53	0.81	0.19	-0.53	0.441	0.699
문항7	2.54	0.80	-0.05	-0.47	0.317	0.721
문항8	2.58	0.79	-0.04	-0.45	0.372	0.711
문항9	2.80	0.79	-0.31	-0.28	0.268	0.729

2) 진로개발역량 척도의 구성타당도

선행연구 고찰과 예비조사를 통해 구성한 진로개발역량 척도의 최종 문항을 결정을 위해 진로개발역량 척도의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 EFA)을 실시하였으며,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추출된 문항과 요인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ive Factor Analysis: CFA)을 실시하였다.

(1) 탐색적 요인분석

다음에서는 진로개발 하위영역별 즉, 진로설계, 여가활용, 개척정신 영역의 요인 구조를 밝히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하여 진행하였다.

① KMO 측도와 Bartlett 구형성 검정을 통한 요인분석의 타당성 확인 ② 고유치, 스크리 도표, 설명분산 비율 및 누적비율, 해석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요인 수 결정 ③ 부적절한 문항 삭제 ④ 최종적으로 실시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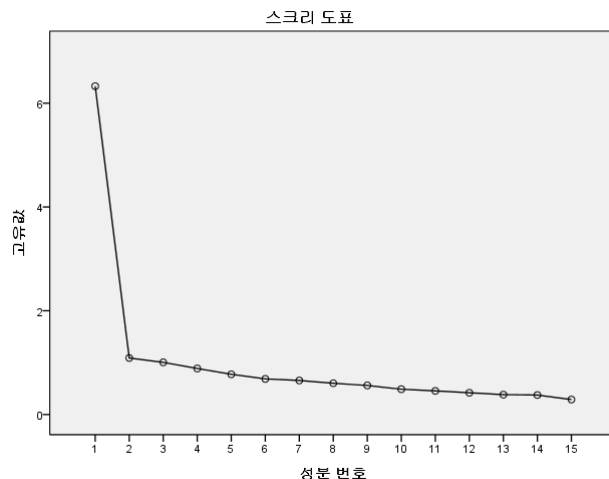
① 진로설계

탐색적 요인분석에 앞서 수집된 자료가 요인분석을 하기에 적절한 지 파악하기 위하여 KMO(Kaiser-Meyer-Olkin) 표본 적합성 측도와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진로설계 자료의 KMO와 Bartlett의 검정 결과를 살펴보면(표 IV-48 참고), KMO 값은 .929로 표본의 상관이 요인분석을 적용하기에 매우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Bartlett 구형성 검정치도 기각되어($p < .05$) 표본이 요인분석에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48 진로설계의 KMO 표본 적합성 측도와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결과

구분		측정치
KMO 측도		.929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근사 카이제곱	38408.294
	자유도	105
	유의확률	.000

요인추출방법으로는 주성분분석을 실시하였고 요인 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고유치(eigen value), 스크리 도표(scree plot), 설명분산 비율 및 누적비율, 해석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고유치는 1.0 이상인 경우와 스크리 도표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지점을 고려한다면 3개의 요인으로 설정하는 것이 적합하지만, 누적비율 및 해석가능성을 고려하여 4개의 요인을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림 IV-17】 진로설계 스크리 도표

요인분석을 실시하기 앞서 공통성, 요인부하량, 이론적 배경을 통해 문항구성 시 지정한 요인과 다른 요인으로 분류된 문항 2개를 제거하였다. 진로설계자료의 요인분석 결과는 <표 IV-49>와 같다. 요인 3의 경우 본래는 진로준비와 자기주도성을 포함하고 있는 진로태도였으나 척도 타당도 검사 후 자기주도성 관련 문항이 삭제되어 요인명을 진로준비로 변경하였다.

표 IV-49 진로설계 척도의 요인구조

변인	요인1. 직업탐색	요인2. 자기탐색	요인3. 진로준비	요인4. 직업 가치관
문8 관심있는 직업을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인터넷에서 여러 정보를 검색하였다.	0.785	0.232	0.153	0.206
문9 나의 장래희망과 관련된 직업에는 무엇이 있는지 조사해 보았다.	0.765	0.253	0.198	0.216
문10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조사해 보았다.	0.653	0.155	0.282	0.153
문7 관심있는 직업에서 성공한 사람의 삶을 소개한 책을 읽어보았다.	0.627	0.12	0.326	0.112
문3 나는 나에 대하여 좀 더 잘 알기 위해서 노력한다.	0.243	0.752	0.213	0.155
문4 나의 성격에서 좋은 점이 무엇인지 안다.	0.090	0.728	0.298	0.115
문1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평소에 관심을 갖고 생각하는 편이다.	0.307	0.701	0.169	0.093
문5 내가 관심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안다.	0.157	0.582	0.356	0.278

변인	요인1. 직업탐색	요인2. 자기탐색	요인3. 진로준비	요인4. 직업 가치관
문18 내가 원하는 직업인이 되기 위해서 관련된 과목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0.254	0.184	0.763	0.114
문19 내가 원하는 직업(전공)을 갖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0.310	0.227	0.700	0.129
문21 나는 나의 할 일을 스스로 해내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	0.159	0.247	0.649	0.138
문16 나는 부모님이 내 장래에 대해 무엇을 기대하는지 안다.	0.165	0.254	0.463	0.149
문11 돈과 관계없이 일을 하는 것 자체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다.	0.13	-0.025	0.355	0.744
문14 현실이 어렵더라도 하고 싶은 일을 위해 도전하는 삶이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	0.212	0.296	0.125	0.732
문12 자신의 직업에 대하여 자랑스러움을 느끼는 사람이 멋있다.	0.369	0.37	0	0.615
고유치	6.328	1.089	1.005	.887
설명변량	42.189	7.261	6.702	50915
누적변량	42.189	49.450	56.152	62.067
cronbach' α	.804	.800	.746	.682

추출된 15개 문항들의 요인 부하량은 .61~.79의 값을 가져 .4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누적분산은 32.067%로 나타났다. 각 요인별로 살펴보면 '요인 1. 직업탐색'은 '관심있는 직업을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인터넷에서 여러 정보를 검색하였다,' '나의 장래희망과 관련된 직업에는 무엇이 있는지 조사해 보았다,' 등 총 4문항이 수렴되었다. '요인 2. 자기탐색'은 '나는 나에 대하여 좀 더 잘 알기 위해서 노력한다,' '나의 성격에서 좋은 점이 무엇인지 안다,' 등 4개 문항이 수렴되었다. '요인 3. 진로준비'는 '내가 원하는 직업인이 되기 위해서 관련된 과목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내가 원하는 직업(전공)을 갖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등 4개 문항이 수렴되었다. 마지막으로 '요인 4. 직업가치관'은 '돈과 관계없이 일을 하는 것 자체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다,' '현실이 어렵더라도 하고 싶은 일을 위해 도전하는 삶이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 등 3개 문항이 수렴되었다.

진로설계척도의 요인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표 IV-5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요인간 정적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IV-50 진로설계 척도의 요인 간의 상관

변인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1	1.000			
요인2	.583**	1.000		
요인3	.608**	.619**	1.000	
요인4	.573**	.544**	.509**	1.000

진로설계 요인과 자기탐색검사참여빈도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IV-51>와 같다. 상관관계 정도는 높지는 않았으나 유의수준 .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51 진로설계 요인과 자기탐색검사참여빈도 간의 상관

변인	요인1 직업탐색	요인2 자기탐색	요인3 진로준비	요인4 직업가치관
자기탐색검사참여빈도	.199**	.152**	.123**	.127**

② 여가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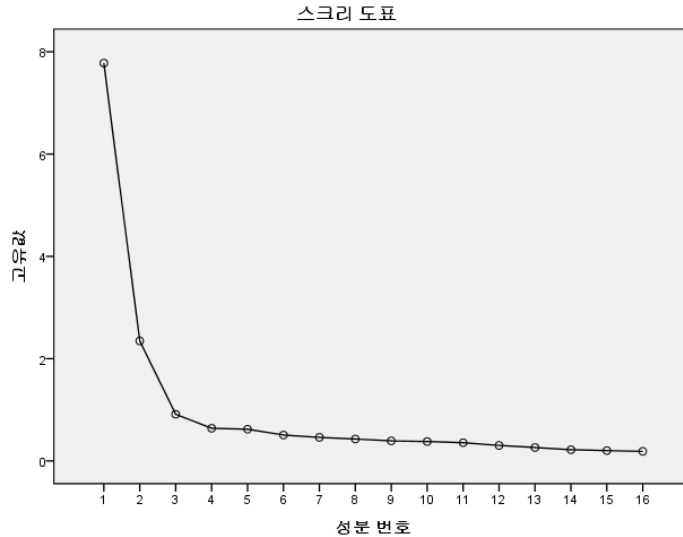
여가활용 자료의 KMO와 Bartlett의 검정 결과를 살펴보면(표 IV-52 참고), KMO 값은 .940으로 표본의 상관이 요인분석을 적용하기에 매우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Bartlett 구형성 검정치도 기각되어($p < .05$) 표본이 요인분석에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52 KMO와 Bartlett의 검정 결과

구분	측정치
KMO측도	.940
근사 카이제곱	69476.372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자유도 120
유의확률	.000

요인추출방법으로는 주성분분석을 실시하였고 요인 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고유치(eigen value), 스크리 도표(scree plot), 설명분산 비율 및 누적비율, 해석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고유치는 1.0 이상인 경우와 스크리 도표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지점을 고려한다면 요인 2개로 분석해야 하나 누적비율 및 해석가능성을 고려하여 4개의 요인을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고 판단하였다.



【그림 IV-18】 여가활용 스크리 도표

요인분석을 실시하기 앞서 공통성과 요인부하량을 살펴본 결과 제거할 문항은 발견하지 못했다. 총 16개의 여가활용 척도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는 <표 IV-53>과 같다.

표 IV-53 여가활용 척도의 요인구조

변인	요인1. 여가태도	요인2. 여가 유능감	요인3. 여가몰입	요인4. 여가만족
문2 여가(취미)활동은 중요하다.	0.872	0.069	0.155	0.131
문3 여가(취미)활동은 내게 즐거운 경험들을 제공해준다.	0.863	0.037	0.168	0.173
문4 여가(취미)활동은 상쾌함을 느끼게 한다.	0.844	0.066	0.174	0.166
문1 여가(취미)활동은 내가 더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이다.	0.793	0.145	0.149	0.153
문6 나의 여가(취미)활동을 배우고 준비하는데 시간을 보내고 싶다.	0.695	0.242	0.104	0.176
문5 바쁘더라도 여가(취미)활동에 참여한다.	0.592	0.487	0.039	0.068
문7 여가시간에 친구들과끼리 모여 스포츠활동을 할 때 나는 그 무리들 중에 가장 대표하는 사람이라 생각한다	0.134	0.814	0.176	0.011
문9 나는 내가 하는 거의 모든 여가스포츠활동에 능숙하다.	0.119	0.800	0.261	0.218
문10 친구들과끼리 스포츠경기를 하게 되면 나는 보통 이기는	0.079	0.753	0.271	0.216

변인	요인1. 여가태도	요인2. 여가 유능감	요인3. 여가몰입	요인4. 여가만족
문8 내가 특별히 여가시간에 즐겨 할 만한 운동기술이 있다.	0.194	0.709	0.289	0.259
문16 나는 여가스포츠활동을 너무 열심히 한 나머지 가끔 시간 감각을 잃어버리기도 한다.	0.176	0.325	0.778	-0.105
문15 나는 여가스포츠활동을 하는 동안 상당히 몰입하게 된다.	0.257	0.305	0.742	0.330
문14 나는 여가스포츠활동을 할 때 정신집중이 잘 된다.	0.211	0.287	0.707	0.402
문13 나는 스포츠활동을 하는 동안 내 생각과 행동이 일치되는 것을 느낀다.	0.175	0.477	0.505	0.451
문12 나에게 무엇인가 이루어냈다는 마음을 가지게 한다.	0.421	0.256	0.206	0.691
문11 내가 하고 있는 여가활동은 매우 흥미롭다.	0.463	0.307	0.154	0.619
고유치	7.780	2.346	.913	.640
설명변량	48.623	14.665	5.705	3.999
누적변량	46.623	63.289	68.994	72.993
cronbach' α	.895	.871	.860	.778

추출된 16개 문항들의 요인 부하량은 .61~.88의 값을 가져 .4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누적분산은 72.993%로 나타났다. 각 요인별로 살펴보면 '요인 1. 여가태도'은 '여가(취미)활동은 중요하다,' '여가(취미)활동은 내게 즐거운 경험들을 제공해준다,' 등 총 5문항이 수렴되었다. '요인 2. 여가유능감'은 '여가시간에 친구들과끼리 모여 스포츠활동을 할 때 나는 그 무리들 중에 가장 대표하는 사람이라 생각한다,' '나는 내가 하는 거의 모든 여가스포츠활동에 능숙하다,' 등 4개 문항이 수렴되었다. '요인 3. 여가몰입'은 '나는 여가스포츠활동을 너무 열심히 한 나머지 가끔 시간 감각을 잃어버리기도 한다,' '나는 여가스포츠활동을 하는 동안 상당히 몰입하게 된다,' 등 4개 문항이 수렴되었다. '요인 3. 여가만족'은 '나에게 무엇인가 이루어냈다는 마음을 가지게 한다,' '내가 하고 있는 여가활동은 매우 흥미롭다,' 등 2개의 문항이 수렴되었다.

<표 IV>에서는 학습적응성 하위 요인 간의 상관행렬을 제시하였다. 하위 요인간 상관계수는 .426~.768로 $p<.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활용 척도의 요인 간 상관관계는 다음 <표 IV-54>와 같이 유의수준 .01수준에서 정적으로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IV-54 여가활동 척도의 요인 간의 상관

변인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 4
요인1	1.000			
요인2	.429**	1.000		
요인3	.509**	.700**	1.000	
요인4	.675**	.548**	.625**	1.000

여가활동요인과 여가활동소요시간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IV-55>와 같다. 여가활동시간과 여가활동관련 네 개의 요인 간에는 중간정도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55 여가활동 척도의 요인 간의 상관

변인	요인1 여가태도	요인2 여가유능감	요인3 여가몰입	요인 4 여가만족
여가활동시간	.263**	.411**	.401**	.3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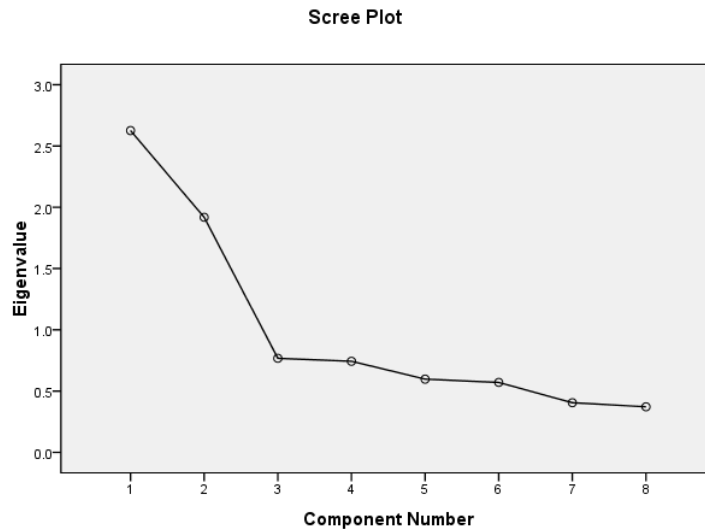
③ 개척정신

개척정신 자료의 KMO와 Bartlett의 검정 결과를 살펴보면(표 IV-56 참고), KMO 값은 .738로 표본의 상관이 요인분석을 적용하기에 매우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Bartlett 구형성 검정치도 기각되어($p < .05$) 표본이 요인분석에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56 KMO와 Bartlett의 검정 결과

구분	측정치
KMO측도	.738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근사 카이제곱 12526.525
	자유도 28
	유의확률 .000

요인추출방법으로는 주성분분석을 실시하였고 요인 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고유치(eigen value), 스크리 도표(scree plot), 설명분산 비율 및 누적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개의 요인을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림 IV-19】 개척정신 스크리 도표

요인분석을 실시하기 앞서 공통성, 요인부하량, 이론적 배경을 통해 문항구성 시 지정한 요인과 다른 요인으로 분류된 문항 1개를 제거하였다. 개척정신 자료의 요인분석 결과는 <표 IV-57>과 같다.

표 IV-57 개척정신 척도의 요인구조

변인	요인1. 차별화 태도	요인2. 도전 정신
문2 같은 사물, 현상을 다른 사람과 동일하게 바라볼 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때가 많다.	0.792	-0.036
문1 내가 문제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내면 다른 사람들이 독특하다는 소릴 자주 듣는다.	0.784	-0.05
문3 나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고 말하는 것을 쉽게 따라하지 않는다.	0.732	0.059
문5 나는 문제를 혼자서 해결할 수 있다.	0.610	0.054
문4 나는 늘 다른 사람이나 대상에 맞서 대들거나 반대하는 편이다	0.576	0.249
문8 나는 계속적으로 변화하거나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일을 좋아하지 않는다.	0.07	0.867
문7 나는 전혀 경험이 없는 새로운 과제와 임무에 도전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0.063	0.816
문9 나는 변화가 별로 없는 안정적인 환경을 좋아한다.	0.019	0.751

변인	요인1. 차별화 태도	요인2. 도전 정신
고유치	2.626	1.918
설명변량	32.823	23.978
누적변량	32.823	56.801
cronbach' α	.742	.753

추출된 9개 문항들의 요인 부하량은 .57~.87의 값을 가져 .4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누적분산은 56.801%로 나타났다. 각 요인별로 살펴보면 '요인 1. 차별화 태도'는 '같은 사물, 현상을 다른 사람과 동일하게 바라볼 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때가 많다,' '내가 문제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내면 다른 사람들이 독특하다는 소릴 자주 듣는다,' 등 총 5문항이 수렴되었다. '요인 2. 도전 정신'은 '나는 계속적으로 변하거나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일을 좋아하지 않는다,' '나는 전혀 경험이 없는 새로운 과제와 임무에 도전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등 3개 문항이 수렴되었다.

개척정신 척도의 두 요인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나 그 정도는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IV-58 개척정신 척도의 요인 간의 상관

변인	요인1	요인2
요인1	1.000	
요인2	.135**	1.000

(3) 확인적 요인분석

탐색적 요인분석에 기초한 대인관계 척도의 적합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Amos 21.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① 진로설계

진로설계 척도의 4개 요인, 15개 문항을 대상으로 최대우도 추정법을 이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진로설계 측정모형을 분석한 결과, <표 IV-59>와 같이 진로설계 표준화 계수가 .496~.827으로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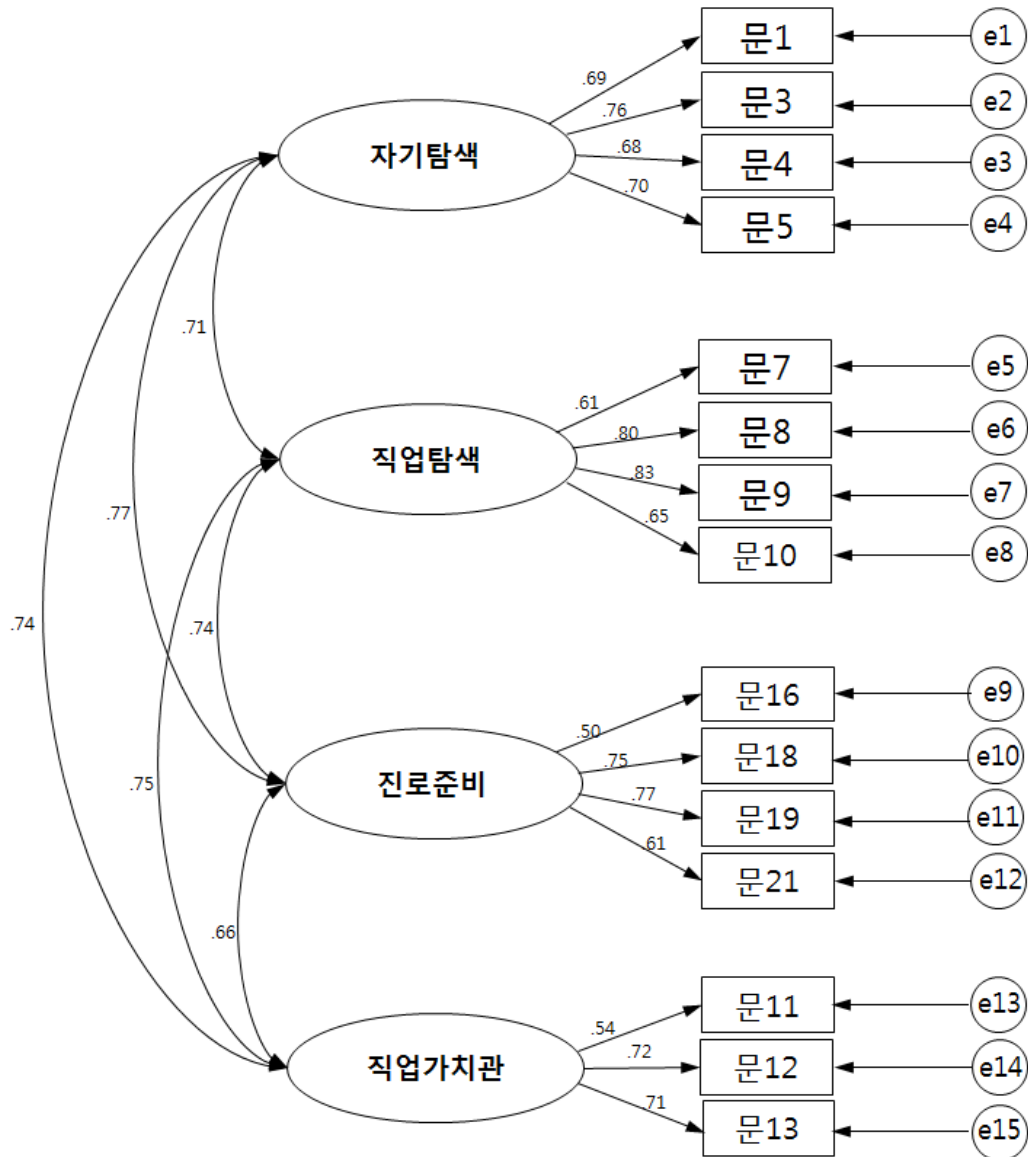
표 IV-59 진로설계 타당화 측정모형 분석

변인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자기탐색	문1	1.000	0.691	***
	문3	1.044	0.761	***
	문4	1.014	0.683	***
	문5	1.049	0.701	***
직업탐색	문7	1.000	0.605	***
	문8	1.189	0.798	***
	문9	1.213	0.827	***
	문10	1.040	0.648	***
진로준비	문16	1.000	0.496	***
	문18	1.597	0.749	***
	문19	1.675	0.769	***
	문21	1.237	0.612	***
직업가치관	문11	1.000	0.544	***
	문12	1.070	0.723	***
	문13	1.080	0.709	***

이와 같은 진로설계 측정모형에 대한 적합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합도 지수 χ^2 , CFI, NFI, TLI, RMSEA 값을 확인하였다. 진로설계 척도의 적합도를 살펴보면, χ^2 값은 기각되었으나, 다른 적합도 지수인 CFI, NFI, TLI는 .90 이상, RMSEA는 .08 이하인 것으로 나타나, 진로설계 하위 척도의 적합도가 양호하다고 판단된다.

표 IV-60 타당화 측정모형의 적합도

$\chi^2(df)$	CFI	NFI	TLI	RMSEA
1965.5(84)***	0.951	0.949	0.930	0.058



【그림 IV-20】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진로설계 요인구조 모형과 표준화된 요인계수

② 여가활용

여가활용 척도의 4개 요인, 16개 문항을 대상으로 최대우도 추정법을 이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여가활용 측정모형을 분석한 결과, <표 IV-61>와 같이 여가활용 표준화 계수가 .585~.885으로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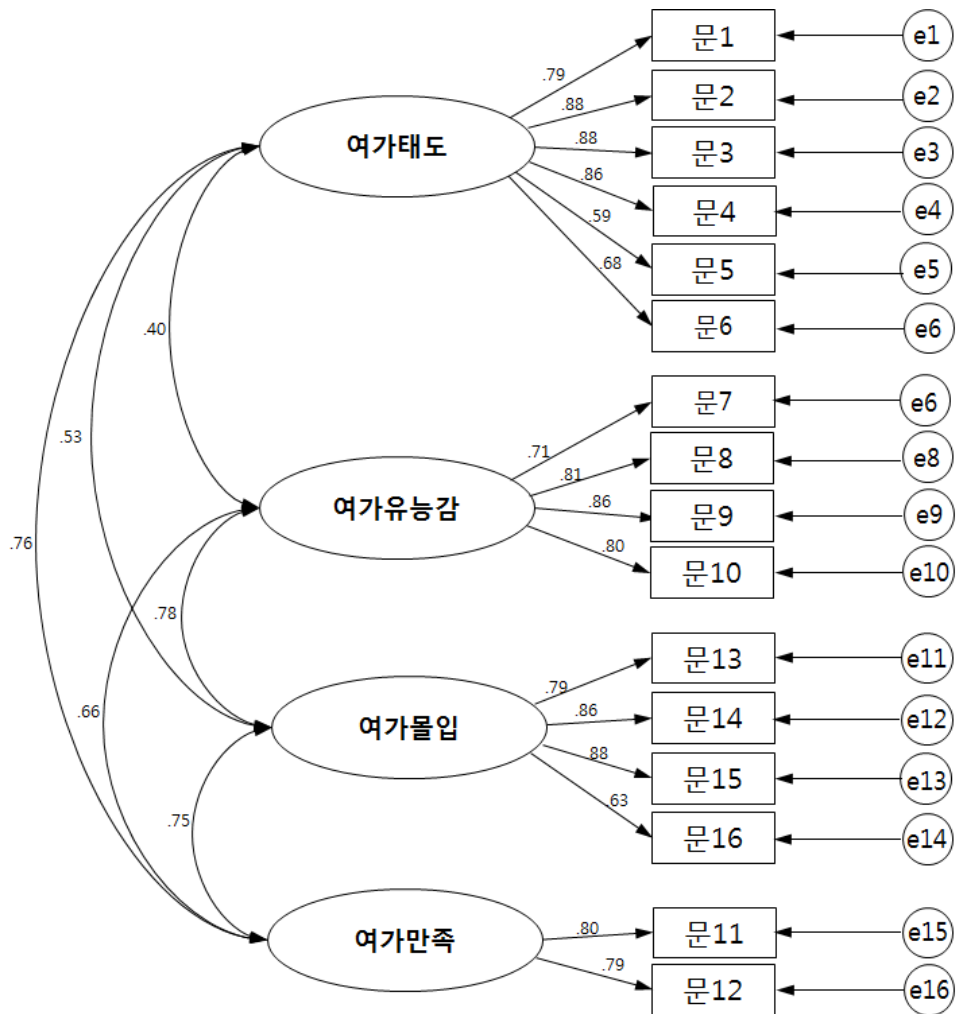
표 IV-61 여가활용 타당화 측정모형 분석

변인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여가태도	문1	1.000	0.795***
	문2	1.080	0.878***
	문3	1.096	0.885***
	문4	1.087	0.858***
	문5	0.964	0.585***
	문6	0.964	0.683***
여가 유능감	문7	1.000	0.705***
	문8	1.161	0.806***
	문9	1.251	0.865***
	문10	1.112	0.796***
여가몰입	문13	1.000	0.792***
	문14	1.047	0.86***
	문15	1.053	0.877***
	문16	0.876	0.628***
여가만족	문11	1.000	0.801***
	문12	0.985	0.794***

이와 같은 여가활용 측정모형에 대한 적합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합도 지수 χ^2 , CFI, NFI, TLI, RMSEA 값을 확인하였다. 여가활용 척도의 적합도를 살펴보면, χ^2 값은 기각되었으나, 다른 적합도 지수인 CFI, NFI, TLI는 .90 이상, RMSEA는 .08 이하인 것으로 나타나, 여가활용 하위 척도의 적합도가 양호하다고 판단된다.

표 IV-62 타당화 측정모형의 적합도

$\chi^2(df)$	CFI	NFI	TLI	RMSEA
3778.731(98)***	0.947	0.946	0.927	0.075



【그림 IV-21】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여가활동 요인구조 모형과 표준화된 요인계수

③ 개척정신

개척정신 척도의 3개 요인, 7개 문항을 대상으로 최대우도 추정법을 이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개척정신 측정모형을 분석한 결과, <표 IV-63>와 같이 개척정신 표준화 계수가 .510~.720으로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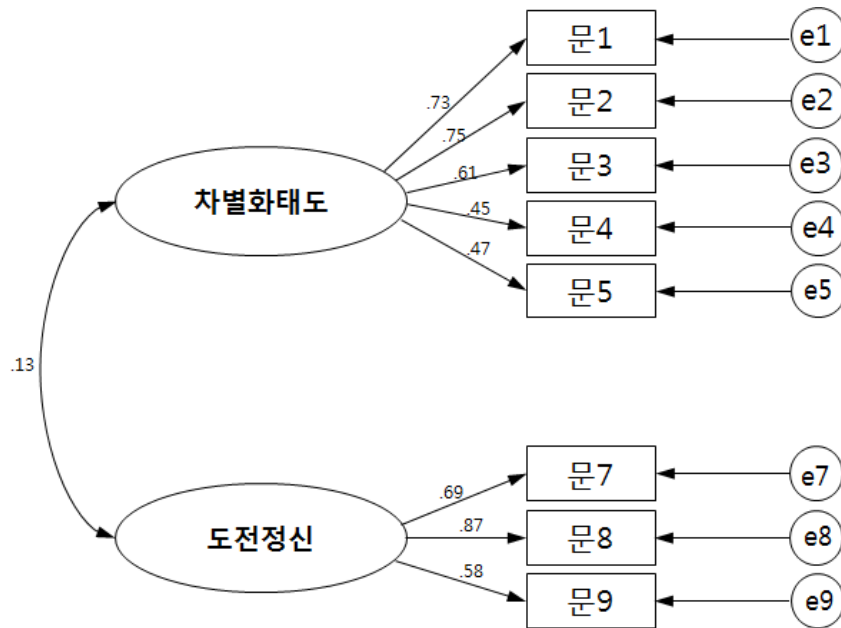
표 IV-63 개척정신 타당화 측정모형 분석

변인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차별화 태도	문1	1.000	0.733 ***
	문2	0.979	0.752 ***
	문3	0.811	0.613 ***
	문4	0.653	0.454 ***
	문5	0.611	0.473 ***
도전정신	문7	1.000	0.691 ***
	문8	1.252	0.875 ***
	문9	0.827	0.579 ***

이와 같은 개척정신 측정모형에 대한 적합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합도 지수 χ^2 , CFI, NFI, TLI, RMSEA 값을 확인하였다. 개척정신 척도의 적합도를 살펴보면, χ^2 값은 기각되었으나, 다른 적합도 지수인 CFI, NFI, TLI는 .90 이상, RMSEA는 .08 이하인 것으로 나타나, 개척정신 하위 척도의 적합도가 양호하다고 판단된다.

표 IV-64 타당화 측정모형의 적합도

$\chi^2(df)$	CFI	NFI	TLI	RMSEA
611.390(19)***	0.953	0.951	0.910	0.069



【그림 IV-22】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개척정신 요인구조 모형과 표준화된 요인계수

(3) 진로개발역량 척도 최종 문항

진로개발역량 척도에 대한 문항분석과 정규성 평가를 통해 진로설계 15문항(자기탐색 4문항, 직업탐색 4문항, 진로가치관 3문항, 진로준비 4문항), 여가활용 16문항(여가태도 6문항, 여가 유능감 4문항, 여가만족 2문항, 여가몰입 4문항), 개척정신 8문항(차별화태도 5문항, 도전정신 3문항) 등 총 39개의 최종 측정문항이 개발되었다. 이와 같이 진로개발역량 척도문항을 하위 영역별로 정리하여 제시하면 <표 IV-65>와 같다.

표 IV-65 진로개발역량 척도 최종 문항

역량	하위영역	설문번호	최종번호	측정문항
진로설계	자기탐색	문1	1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평소에 관심을 갖고 생각하는 편이다.
		문3	2	나는 나에 대하여 좀 더 잘 알기 위해서 노력한다.
		문4	3	나의 성격에서 좋은 점이 무엇인지 안다.
		문5	4	내가 관심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안다.
	직업탐색	문7	5	관심있는 직업에서 성공한 사람의 삶을 소개한 책을 읽어보았다.
		문8	6	관심있는 직업을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인터넷에서 여러 정보를 검색하였다.
		문9	7	나의 장래희망과 관련된 직업에는 무엇이 있는지 조사해 보았다.
		문10	8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조사해 보았다.
	직업가치관	문11	9	돈과 관계없이 일을 하는 것 자체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다.
		문12	10	자신의 직업에 대하여 자랑스러움을 느끼는 사람이 멋있다.
		문13	11	현실이 어렵더라도 하고 싶은 일을 위해 도전하는 삶이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
	진로준비	문16	12	나는 부모님이 내 장래에 대해 무엇을 기대하는지 안다.
		문18	13	내가 원하는 직업인이 되기 위해서 관련된 과목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문19	14	내가 원하는 직업(전공)을 갖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문21	15	나는 나의 할 일을 스스로 해내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
여가활용	여가태도	문1	16	여가(취미)활동은 내가 더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이다.
		문2	17	여가(취미)활동은 중요하다.
		문3	18	여가(취미)활동은 내게 즐거운 경험들을 제공해준다.
		문4	19	여가(취미)활동은 상쾌함을 느끼게 한다.
		문5	20	바쁘더라도 여가(취미)활동에 참여한다.
		문6	21	나의 여가(취미)활동을 배우고 준비하는데 시간을 보내고 싶다.
	여가유능감	문7	22	여가시간에 친구들과끼리 모여 스포츠활동을 할 때 나는 그 무리들 중에 가장 대표하는 사람이라 생각한다.
		문8	23	내가 특별히 여가시간에 즐겨 할 만한 운동기술이 있다.
		문9	24	나는 내가 하는 거의 모든 여가스포츠활동에 능숙하다.
		문10	25	친구들끼리 스포츠경기를 하게 되면 나는 보통 이기는 편이다.
	여가만족	문11	26	내가 하고 있는 여가활동은 매우 흥미롭다.
		문12	27	나에게 무엇인가 이루어냈다는 마음을 가지게 한다.
	여가몰입	문13	28	나는 스포츠활동을 하는 동안 내 생각과 행동이 일치되는 것을 느낀다.

역량	하위영역	설문번호	최종번호	측정문항
		문14	29	나는 여가스포츠활동을 할 때 정신집중이 잘 된다.
		문15	30	나는 여가스포츠활동을 하는 동안 상당히 몰입하게 된다.
		문16	31	나는 여가스포츠활동을 너무 열심히 한 나머지 가끔 시간 감각을 잃어버리기도 한다.
개척정신	차별화태도	문1	32	내가 문제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내면 다른 사람들이 독특하다는 소릴 자주 듣는다.
		문2	33	같은 사물, 현상을 다른 사람과 동일하게 바라볼 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때가 많다.
		문3	34	나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고 말하는 것을 쉽게 따라하지 않는다.
		문4	35	나는 늘 다른 사람이나 대상에 맞서 대들거나 반대하는 편이다.
		문5	36	나는 문제를 혼자서 해결할 수 있다.
	도전정신	문7	37	나는 전혀 경험이 없는 새로운 과제와 임무에 도전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문8	38	나는 계속적으로 변하거나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일을 좋아하지 않는다.
		문9	39	나는 변화가 별로 없는 안정적인 환경을 좋아한다.

4. 대인관계역량 측정도구 문항 개발

1) 대인관계역량 척도 문항 분석 및 정규성 평가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선행연구 고찰과 예비조사를 통해 구성된 대인관계 역량 척도 하위영역인 관계형성, 리더십, 그리고 협동 영역에 대해 문항분석과 정규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1) 관계형성

관계형성 문항양호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총 23개 문항을 대상으로 각 문항의 평균 및 표준편차, 문항-전체 상관관계(item-total correlation), 문항 제거 시 신뢰도계수(alpha if item deleted)를 확인하였다(표 IV-66 참고).

문항과 전체문항간의 상관분석(corrected item-total correlation analysis) 결과를 살펴보았다. 각 문항과 전체문항 간의 상관계수(corrected item-total correlation)가 절대값 .30 이하의 문항은 제거할 것으로 권장되는데(Field, 2009; 김은주, 2013, 재인용), 관계형성 개별문항과 전체문항 사이의 상관계수가 .373에서 .663 사이에 분포하여 모두 .30 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문항 전체의 내적 일치도는 .933이었으며, 문항 제거 시 신뢰도는 모두 .933보다 낮았는데, 이는 개별 항목을 제거했을 때 전체 신뢰도 계수가 낮아진다는 것은 개별 항목 모두 매우 중요한 속성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를 보았을 때, 관계형성 문항 간 신뢰도는 양호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한편, 관계형성 문항의 응답이 정규분포(normality)를 이루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Curran 등(1996)에 의하면 왜도는 절대값 2 이상 첨도는 절대값 7이상일 경우 정규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왜도와 첨도의 값을 확인한 결과 왜도가 절대값 2, 첨도가 절대값 7을 초과하는 문항이 나타나지 않아 자료의 정규성이 확보되었다.

표 IV-66 관계형성 문항분석 결과

구분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문항-전체 간 상관계	문항 제거 시 신뢰도 계수
문항1	3.21	0.72	-.75	.62	.604	.930
문항2	3.02	0.79	-.48	-.21	.588	.930
문항3	3.16	0.72	-.60	.21	.629	.929
문항4	2.97	0.81	-.43	-.33	.630	.929
문항5	2.88	0.79	-.28	-.43	.547	.931
문항6	3.06	0.70	-.46	.23	.659	.929
문항7	3.20	0.68	-.59	.51	.494	.931
문항8	2.82	0.84	-.27	-.55	.601	.930
문항9	2.79	0.83	-.17	-.63	.642	.929
문항10	2.93	0.77	-.41	-.16	.658	.929
문항11	2.17	0.82	.52	-.08	.373	.934
문항12	2.89	0.80	-.40	-.22	.607	.930
문항13	3.02	0.75	-.47	.00	.602	.930
문항14	3.10	0.68	-.51	.49	.637	.929
문항15	3.14	0.67	-.53	.56	.640	.929
문항16	2.96	0.72	-.33	-.08	.631	.929
문항17	2.81	0.79	-.15	-.55	.593	.930
문항18	2.99	0.70	-.44	.32	.663	.929

구분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문항-전체 간 상관관계	문항 제거 시 신뢰도 계수
문항19	3.12	0.69	-.54	.48	.629	.929
문항20	3.18	0.62	-.46	.88	.600	.930
문항21	3.11	0.66	-.41	.32	.552	.931
문항22	3.08	0.69	-.42	.18	.551	.931
문항23	3.13	0.64	-.46	.79	.543	.931

(2) 리더십

리더십 총 17문항을 대상으로 각 문항의 평균 및 표준편차, 문항-전체 상관관계, 문항 제거 시 신뢰도 계수를 확인하였다(표 IV-67 참고). 그 결과, 각 문항의 평균은 3.2 이상이거나 0.8 이하인 문항이 없었으며, 표준편차도 0.63에서 0.81까지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각 문항에 대한 응답 분포가 극단적이지 않고 적절히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문항-전체 상관관계 즉 한 문항과 그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문항 총점과의 상관을 살펴보았는데, 모두 적정 판단 기준인 절대값 .3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 전체의 내적 일치도는 .951이었는데 개별 문항 제거 시 .951보다 높아지는 항목이 없고 신뢰도 계수의 범위가 .948에서 .950까지로 문항 간 신뢰도는 양호한 수준이었다.

한편, 리더십 문항의 응답이 정규분포를 이루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왜도 및 첨도의 값을 확인한 결과, 왜도는 절대값 2를, 첨도는 절대값 7을 초과하는 문항이 없어, 자료의 정규성이 확보되었다.

표 IV-67 리더십 문항분석 결과

구분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문항-전체 간 상관관계	문항 제거 시 신뢰도 계수
문항1	3.05	0.63	-.40	.72	.727	.948
문항2	2.99	0.65	-.32	.31	.745	.948
문항3	3.02	0.67	-.37	.33	.698	.949
문항4	3.08	0.64	-.47	.82	.689	.949
문항5	2.95	0.71	-.26	-.16	.725	.948
문항6	2.72	0.81	-.09	-.57	.683	.949
문항7	2.92	0.71	-.32	-.01	.739	.948

구분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문항-전체 간 상관관계	문항 제거 시 신뢰도 계수
문항8	2.95	0.69	-.35	.18	.751	.948
문항9	2.85	0.76	-.22	-.36	.744	.948
문항10	2.84	0.74	-.24	-.20	.684	.949
문항11	2.91	0.70	-.33	.13	.732	.948
문항12	2.88	0.71	-.25	-.09	.739	.948
문항13	2.80	0.73	-.13	-.33	.692	.949
문항14	2.79	0.74	-.15	-.33	.639	.950
문항15	2.85	0.72	-.23	-.15	.711	.948
문항16	2.98	0.67	-.44	.53	.715	.948
문항17	3.01	0.68	-.44	.43	.733	.948

(3) 협동

협동 총 18문항을 대상으로 각 문항의 평균 및 표준편차, 문항-전체 상관관계, 문항 제거 시 신뢰도 계수를 확인하였다(표 IV-68 참고). 그 결과, 각 문항의 평균은 3.2 이상이거나 0.8 이하인 문항이 없었으며, 표준편차도 0.61에서 0.71까지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각 문항에 대한 응답 분포가 적절히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문항-전체 상관관계는 모두 적정 판단 기준인 절대값 .3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 전체의 내적 일치도는 .950이었는데 개별 문항 제거 시 .950보다 높아지는 항목이 없고 신뢰도 계수의 범위가 .947-.949로 문항 간 신뢰도는 양호한 수준이었다.

한편, 협동 문항의 응답이 정규분포를 이루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왜도 및 첨도의 값을 확인한 결과, 왜도는 절대값 2를, 첨도는 절대값 7을 초과하는 문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자료의 정규성이 확보되었다.

표 IV-68 협동 문항분석 결과

구분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문항-전체 간 상관관계	문항 제거 시 신뢰도 계수
문항1	3.04	0.68	-.33	.09	.668	.948
문항2	3.13	0.61	-.37	.83	.691	.947
문항3	3.06	0.67	-.38	.28	.719	.947
문항4	2.98	0.69	-.35	.17	.713	.947

구분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문항-전체 간 상관관계	문항 제거 시 신뢰도 계수
문항5	2.96	0.71	-.31	-.06	.702	.947
문항6	2.96	0.69	-.32	.08	.713	.947
문항7	3.08	0.63	-.43	.83	.716	.947
문항8	3.19	0.63	-.47	.72	.690	.947
문항9	3.11	0.63	-.43	.81	.740	.947
문항10	3.06	0.70	-.44	.17	.673	.948
문항11	3.11	0.67	-.42	.25	.715	.947
문항12	3.09	0.66	-.46	.54	.713	.947
문항13	3.08	0.65	-.41	.57	.584	.949
문항14	3.07	0.64	-.44	.82	.722	.947
문항15	3.05	0.65	-.42	.55	.740	.947
문항16	3.01	0.69	-.43	.32	.683	.948
문항17	3.06	0.65	-.46	.72	.728	.947
문항18	3.01	0.67	-.40	.42	.664	.948

2) 대인관계 역량 척도의 구성타당도

선행연구 고찰과 예비조사를 통해 구성된 대인관계 역량 척도의 최종 문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대인관계 역량 척도의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추출된 문항과 요인이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1) 탐색적 요인분석

다음에서는 대인관계 하위영역별 즉, 관계형성, 리더십, 협동 영역의 요인 구조를 밝히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하여 진행하였다.

① KMO 측도와 Bartlett 구형성 검정을 통해 자료가 요인분석을 하기에 타당한지 살펴보았고, ② 고유치, 스크리 도표, 설명분산 비율 및 누적비율, 해석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요인 수를 결정하고, ③ 몇 가지 기준을 근거로 하여 부적절한 문항을 삭제한 후, ④ 최종적으로 실시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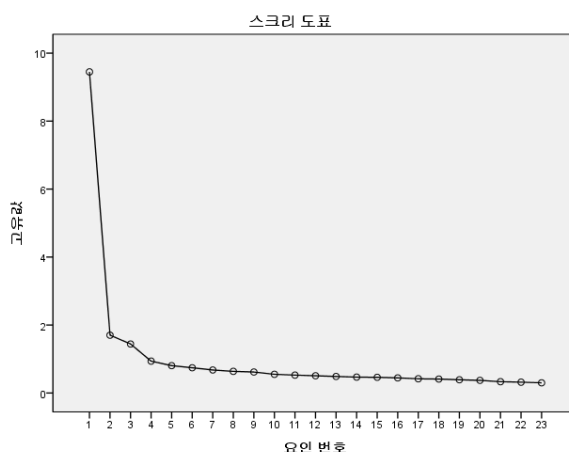
(1) 관계형성

탐색적 요인분석에 앞서 수집된 자료가 요인분석을 하기에 적절한 지 파악하기 위하여 KMO(Kaiser-Meyer-Olkin) 표본 적합성 측도와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관계형성 자료의 KMO와 Bartlett의 검정 결과를 살펴보면(표 IV-69 참고), KMO 값은 .957로 표본의 상관이 요인분석을 적용하기에 매우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Bartlett 구형성 검정치도 기각되어($p<.001$) 표본이 요인분석에 적절하였다.

표 IV-69 관계형성의 KMO 표본 적합성 측도와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결과

구분		측정치
KMO 측도		.957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근사 카이제곱	70215.174
	자유도	253
	유의확률	.000

다음으로 요인 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고유치(eigen value), 스크리 검사(scree test), 설명분산 비율 및 누적비율, 해석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그 결과, 고유치가 1.0 이상인 경우(표 IV-70 참고)와 스크리 도표(그림 IV-24 참고)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지점만 고려한다면 3개의 요인이 추출되어야 하지만 해석가능성을 고려하였을 때 4개의 요인을 설정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림 IV-24】 관계형성 스크리 도표

요인 수를 4개로 고정된 후, 합리적 요인모델을 결정하기 위한 부적절한 문항을 제외하고 최적의 모델을 찾기 위해 여러 번의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부적절한 문항을 제거하기 위하여 공통성(communality)이 .40 미만인 문항, 요인부하량이 절대값 .40 미만인 문항, 주요인 부하량과 다른 요인 부하량의 차이가 .10 미만인 문항,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구성한 문항들이 다른 요인으로 분류되었을 때, 문항 내용을 검토한 후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제거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은 네 가지 기준을 근거로 하여 부적절한 문항을 제거하며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관계형성 총 5문항이 제외되었으며, 총 4개 요인의 18개 문항을 <표 IV-70>과 같이 최종적으로 추출하였다.

표 IV-70 **관계형성 척도의 요인구조(패턴행렬)**

변인	요인1. 의사 소통	요인2. 자기 개방성	요인3. 공감 및 배려	요인4. 친화성
문1 나는 친한 친구에게 나의 고민에 대해 의논할 수 있다	.00	-.77	.08	.04
문2 나는 친한 친구에게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이야기할 수 있다	-.07	-.88	-.02	-.01
문3 나는 친한 친구에게 내 행동을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나로써 행동한다	.09	-.75	.02	.05
문4 나는 새로운 친구에게 있는 그대로의 나에 대해 말할 수 있다	.08	-.50	-.02	-.22
문8 나는 모르는 사람과도 쉽게 친해질 수 있다	-.05	-.01	.03	-.78
문9 나는 친해지고 싶은 사람들에게 나 자신을 직접 소개한다	-.03	-.01	.04	-.81
문10 나는 관심 있는 새로운 사람에게 어떤 일을 함께 하자고 제안 하기도 한다	.14	-.02	.04	-.62
문12 나는 새로운 사람을 알아 가는 것이 재미있다	.15	-.03	.04	-.52
문13 나는 상대방의 눈을 보며 대화한다	.47	-.06	.04	-.14
문14 나는 상대방의 말이 이해가 안 되면 정확하게 알기 위해 질문 을 한다	.75	-.02	-.01	.03
문15 나는 상대방의 몸짓이나 표정을 살피며 듣는다	.69	-.02	.12	.08
문16 나는 상대방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내용을 요약하여 확인한다	.66	.03	.10	.01
문17 나는 다른 사람에게 말할 것이 있을 때, 주저하지 않고 바로 이야기 한다	.57	-.07	-.12	-.15
문18 나는 상대방과 의견차이가 있을 때, 그것에 대해 좀 더 깊이 이야기 나눌 수 있다	.64	-.01	.06	-.06
문20 나는 다른 사람이 문제를 겪고 있을 때,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08	.00	.70	.00
문21 나는 상대방이 나의 말과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생각하 면서 말하고 행동한다	.01	.01	.73	-.01
문22 나는 바쁜 일이 있어도, 화가 난 친구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준다	.01	-.08	.60	-.03
문23 나는 나와 생각이 다르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선택을 존중한다	-.02	-.01	.68	-.05

변인	요인1. 의사 소통	요인2. 자기 개방성	요인3. 공감 및 배려	요인4. 친화성
고유치	9.448	1.701	1.442	.939
설명변량	41.080	7.397	6.271	4.081
누적변량	41.080	48.477	54.748	58.829

추출된 18개 문항들의 요인 부하량과 공통성은 각각 절대값 .47~.88, .41~.69의 값을 가져 .4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누적분산은 64.94%로 초기 요인분석 58.83%에 비해 요인모델의 설명력이 증가하였다. 각 요인별로 살펴보면 ‘요인 1. 의사소통’은 ‘나는 상대방의 눈을 보며 대화한다’, ‘나는 상대방의 말이 이해가 안 되면 정확하게 알기 위해 질문을 한다’ 등 총 6문항으로 예비문항에서 구성한 문항 모두가 수렴되었다. ‘요인 2. 자기개방성’으로 수렴된 문항은 ‘나는 친한 친구에게 나의 고민에 대해 의논할 수 있다’, ‘나는 친한 친구에게 내 행동을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나로써 행동한다’ 등의 4개 항목이다. ‘요인 3. 공감 및 배려’로 수렴된 문항은 ‘나는 다른 사람이 문제를 겪고 있을 때,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나는 상대방이 나의 말과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생각하면서 말하고 행동한다’ 등 4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요인 4. 친화성’은 ‘나는 모르는 사람과도 쉽게 친해질 수 있다’, ‘나는 관심 있는 새로운 사람에게 어떤 일을 함께 하자고 제안하기도 한다’ 등의 4개 항목이다.

<표 IV-71>에서는 관계형성 요인 간의 상관행렬을 제시하였다. 관계형성 하위 요인 간에서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상관계수 범위는 .48에서 .65까지로 나타나 각 하위 요인 간의 상관 수준은 보통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71 관계형성 요인 간의 상관

변인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1. 의사소통	1.00			
요인2. 자기개방성	.58***	1.00		
요인3. 공감 및 배려	.63***	.52***	1.00	
요인4. 친화성	.65***	.54***	.48***	1.00

(2) 리더십

리더십 자료가 요인분석을 하기에 적합한지 살펴보기 위하여 KMO 표본 적합성 측도와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IV-72에서 제시하였다. KMO 측도 값은 .90 이상으로 표본의 상관이 요인분석을 하기에 매우 좋은 것으로 밝혀졌다. 마찬가지로 Bartlett 구형성 검정치가 기각되어($p < .001$) 표본이 요인분석하기에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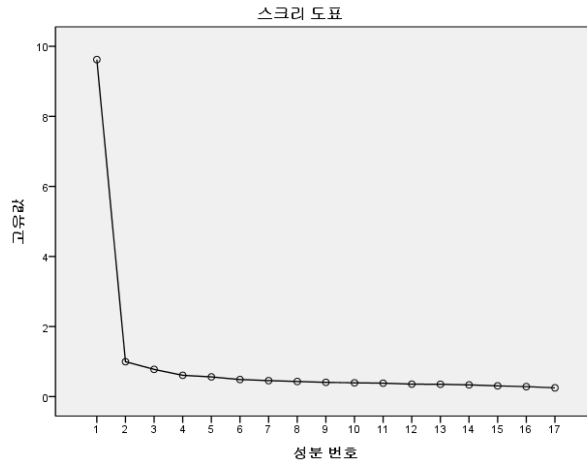
표 IV-72 리더십의 KMO 표본 적합성 측도와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결과

구분		측정치
KMO측도		.971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근사 카이제곱	72768.581
	자유도	136
	유의확률	.000

요인 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고유치가 1.0 이상인 경우(표 IV-73 참고), 스크리 도표(그림 IV-25 참고)상 급격하게 감소하는 지점을 본다면 1개의 요인이 추출된다. 고유치가 1.0 미만인 경우 무조건적으로 요인에서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종종 요인이 1개가 추출되는 경우 고유치의 값을 0.7~0.8 이상을 기준으로 삼기도 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 기준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해석가능성과 고유치가 0.7 이상이며, 누적분산이 60% 이상이 되는 지점을 고려하여 리더십의 요인을 3개로 추출하였다.

표 IV-73 리더십의 총분산

요인	초기고유값			추출제곱합적재값		
	합계	% 분산	% 누적	합계	% 분산	% 누적
1	9.621	56.595	56.595	9.163	53.901	53.901
2	.995	5.854	62.450			
3	.777	4.571	67.021			
4	.607	3.571	70.592			



【그림 IV-25】 리더십 스크리 도표

요인 수를 3개로 고정한 후, 합리적 요인모형을 결정하기 위한 부적절한 문항을 제외하고 최적의 모형을 찾기 위해 여러 번의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5번 문항은 요인 부하량이 .40 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나 삭제하였으며, 10번, 11번 문항은 사전에 지정된 요인에 포함되지 않고 다른 요인에 포함되었는데 내용타당도가 약하다고 판단하여 제외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총 17문항 중 3문항을 삭제하고 3개 요인의 14개 문항을 최종적으로 추출하였다(<표 IV-74> 참고).

표 IV-74 리더십 척도의 요인구조(패턴행렬)

변인	요인1. 추진력	요인2. 의사 결정	요인3. 집단활동 관리	공통성
문1 나는 내가 속한 그룹의 의사결정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 본다.	-.02	-.76	-.11	.68
문2 나는 내가 속한 그룹의 의사결정을 위한 여러 방법 중 어떤 방법을 선택할지 기준을 정한다.	-.02	-.79	-.11	.72
문3 나는 내가 속한 그룹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우선순위를 생각하여 의사결정을 한다.	.03	-.77	-.02	.64
문4 나는 내가 속한 그룹의 의사결정을 할 때, 어떤 방법이 더 좋은 지 비교해 본다.	.12	-.71	.05	.60
문6 나는 여러 사람들을 모아서 모임 또는 활동을 할 때, 주로 이끌어 나가는 편이다.	.03	.00	-.72	.56
문7 나는 그룹활동을 할 때, 각 구성원들의 역할을 골고루 잘 나누는 편이다.	-.04	-.05	-.81	.67

변인	요인1. 추진력	요인2. 의사 결정	요인3. 집단활동 관리	공통성
문8 나는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효과적으로 조화롭게 조정한다.	.02	-.11	-.71	.66
문9 나는 그룹활동을 할 때, 활동목표를 제시하고 친구들을 이끌 수 있다	.16	.02	-.67	.63
문12 나는 내가 속한 그룹의 목표를 완수하는 데 필요한 단계를 정할 수 있다	.54	-.05	-.20	.57
문13 나는 내가 속한 그룹의 계획을 실행할 때 발생할 어려움에 철저히 대비한다.	.66	.01	-.10	.55
문14 나는 내가 속한 그룹의 계획을 실행할 때,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밀고 나간다.	.69	.07	-.08	.49
문15 나는 그룹활동을 할 때, 문제를 해결할 기간을 명확하게 정하고 일을 추진한다.	.81	.03	.01	.61
문16 나는 그룹활동을 할 때, 친구들의 능력과 의지를 생각하며 일을 추진한다	.68	-.17	.07	.59
문17 나는 그룹활동을 할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본다.	.61	-.23	.03	.60

추출된 14개 문항들의 요인 부하량과 공통성은 각각 절대값 .54~.81, .49~.72의 값을 가져 .4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누적분산은 69.52%로 초기 요인분석 누적분산 67.02%에 비해 요인모델의 설명력이 증가했다. 리더십의 각 하위 요인별로 살펴보면 ‘요인 1. 추진력’은 ‘나는 내가 속한 그룹의 계획을 실행할 때,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밀고 나간다.’, ‘나는 그룹활동을 할 때, 친구들의 능력과 의지를 생각하며 일을 추진한다’ 등 총 6문항으로 예비문항에서 구성된 문항 모두가 수렴된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 2. 의사결정’은 수렴된 문항은 ‘나는 내가 속한 그룹의 의사결정을 위한 여러 방법 중 어떤 방법을 선택할지 기준을 정한다’, ‘나는 내가 속한 그룹의 의사결정을 할 때, 어떤 방법이 더 좋은 지 비교해 본다’ 등의 4개 항목이다. ‘요인 3. 집단활동 관리’는 ‘나는 여러 사람들을 모아서 모임 또는 활동을 할 때, 주로 이끌어 나가는 편이다’, ‘나는 내가 속한 그룹의 의사결정을 위한 여러 방법 중 어떤 방법을 선택할지 기준을 정한다’ 등 4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표 IV-75>에서는 리더십 요인 간의 상관행렬을 제시하였다. 리더십 하위 요인 간에서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상관계수 범위는 .71에서 .77까지로 나타나 각 하위 요인 간에는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75 리더십 척도의 요인 간의 상관

변인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1. 추진력	1.00		
요인2. 의사결정	.73**	1.00	
요인3. 집단활동 관리	.77**	.71**	1.00

*** $p < .001$

(3) 협동

협동 문항을 탐색적 요인분석을 하기에 앞서, 자료가 탐색적 요인분석을 하기에 적합한지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 IV-76>에서 제시하였다. KMO 측도 값은 .90 이상으로 표본의 상관이 요인분석을 하기에 매우 적합하며, Bartlett 구형성 검정치도 기각되어($p < .001$) 표본이 요인분석하기에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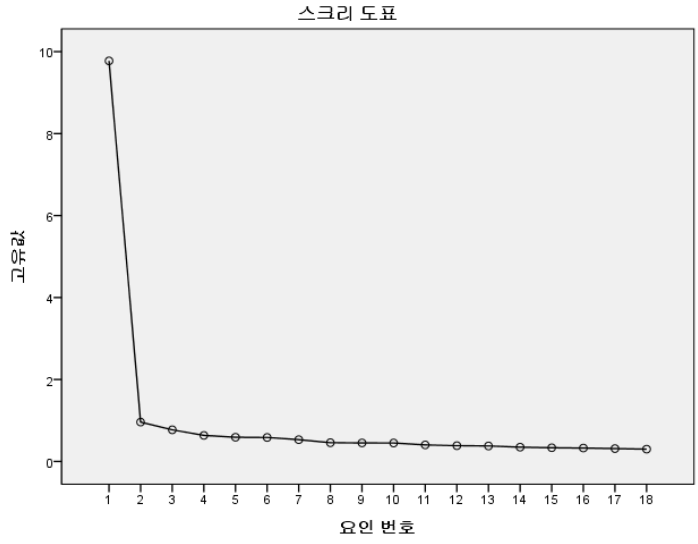
표 IV-76 협동의 KMO 표본 적합성 측도와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결과

구분	측정치
KMO측도	.972
근사 카이제곱	71263.618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자유도	171
유의확률	.000

요인 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리더십과 동일하게 고유치가 1.0 이상인 경우(<표 IV-77> 참고), 스크리 도표(그림 IV-26 참고)상 급격하게 감소하는 점을 본다면 1개의 요인이 추출된다. 따라서 고유치의 기준을 다소 완화하여 0.7 이상이 되는 지점을 기준으로 삼기로 하였다. 해석가능성과 고유치가 0.7 이상이며, 누적분산이 60%이상이 되는 지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협동의 요인을 3개로 추출하였다.

표 IV-77 협동의 총분산

요인	초기 고유값			추출제곱합적재값		
	합계	% 분산	% 누적	합계	% 분산	% 누적
1	9.774	54.300	54.300	9.295	51.639	51.639
2	.960	5.335	59.635			
3	.772	4.289	63.924			
4	.635	3.530	67.455			



【그림 IV-26】 협동 스크리 도표

요인 수를 3개로 고정한 후, 리더십 척도의 합리적 요인모형을 결정하기 위해 여러 번의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과정에서 앞서 설정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총 4문항을 삭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9번, 12번 문항은 요인 부하량이 .40 미만이었던 9번, 12번 문항, 공통성이 .40 미만이었던 13번 문항, 사전에 지정된 요인에 포함되지 않고 다른 요인으로 묶여 내용타당도가 낮다고 판단된 7번 문항을 삭제하였다. 따라서 총 18문항 중 4문항을 삭제하고 3개 요인의 14개 문항을 최종적으로 추출하였다(표 IV-78 참고).

표 IV-78 협동 척도의 요인구조(패턴행렬)

변인	요인1. 갈등 문제 해결	요인2. 집단 촉진	요인3. 팔로워십
문1 나는 그룹활동을 할 때, 친구의 장점이나 능력을 적극적으로 알려 준다	-.01	.73	.01
문2 나는 그룹활동을 할 때, 친구가 어려워하면 기꺼이 돕는다	-.04	.56	.24
문3 나는 그룹활동을 할 때, 친구들이 의견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한다	-.05	.76	.09
문4 나는 그룹활동을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한다	.01	.73	.05

	변인	요인1. 갈등 문제 해결	요인2. 집단 촉진	요인3. 팔로워십
문5	나는 그룹에서 하고 있는 활동이 의미있는 일이라는 것을 친구에게 이야기 한다	.08	.80	-.11
문6	나는 그룹활동을 할 때, 친구가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08	.74	-.05
문8	나는 그룹 활동을 할 때, 나의 역할에 최선을 다한다	.18	.10	.48
문10	나는 그룹의 리더가 아니더라도 맡은 일보다 많은 일을 하여 그룹 활동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01	.06	.71
문11	나는 내가 속한 그룹에서 가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한다	.16	.02	.64
문14	나는 그룹에서 발생한 문제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한다	.69	.00	.10
문15	나는 그룹의 문제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내용을 친구들과 공유한다	.75	.01	.06
문16	나는 그룹에서 발생한 문제를 친구들과 자주 이야기한다	.81	.00	-.06
문17	나는 그룹활동을 할 때 중요한 사항이나 문제점이 생기면 친구들과 함께 해결한다	.78	.01	.01
문18	나는 그룹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잘잘못을 따지기 보다는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55	.09	.07

추출된 14개 문항들의 요인 부하량과 공통성은 각각 .48~.81, .48~.64의 값을 가져 .4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누적분산은 66.80%로 초기 요인분석 누적분산 63.92%에 비해 요인모델의 설명력이 증가했다. 협동의 각 하위 요인별로 살펴보면 ‘요인 1. 갈등문제해결’은 ‘나는 그룹에서 발생한 문제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한다’, ‘나는 그룹에서 발생한 문제를 친구들과 자주 이야기한다’ 등 총 5문항으로 예비문항에서 구성한 문항 모두가 수렴되었다. ‘요인 2. 집단촉진’도 ‘나는 그룹활동을 할 때, 친구의 장점이나 능력을 적극적으로 알려 준다’ 등 총 6문항으로, 예비문항과 동일한 문항이 수렴된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 3. 팔로워십’은 ‘나는 그룹 활동을 할 때, 나의 역할에 최선을 다한다’ 등의 3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협동 척도의 하위 요인 간 상관관계는 <표 IV-79>에서 제시한 바와 같다. 리더십 하위 요인 간에서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며, 상관계수 범위는 .71에서 .76까지로 나타나 각 하위 요인 간에는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79 협동 척도의 요인 간의 상관

변인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1. 갈등문제해결	1.00		
요인2. 집단촉진	.76***	1.00	
요인3. 팔로워십	.68***	.71***	1.00

2) 확인적 요인분석

탐색적 요인분석에 기초한 대인관계 척도의 적합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1) 관계형성

관계형성 척도의 3개 요인, 18개 문항을 대상으로 최대우도 추정법을 이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IV-80>와 같이 사고력 표준화 계수가 .63~.81로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80 관계형성 타당화 측정모형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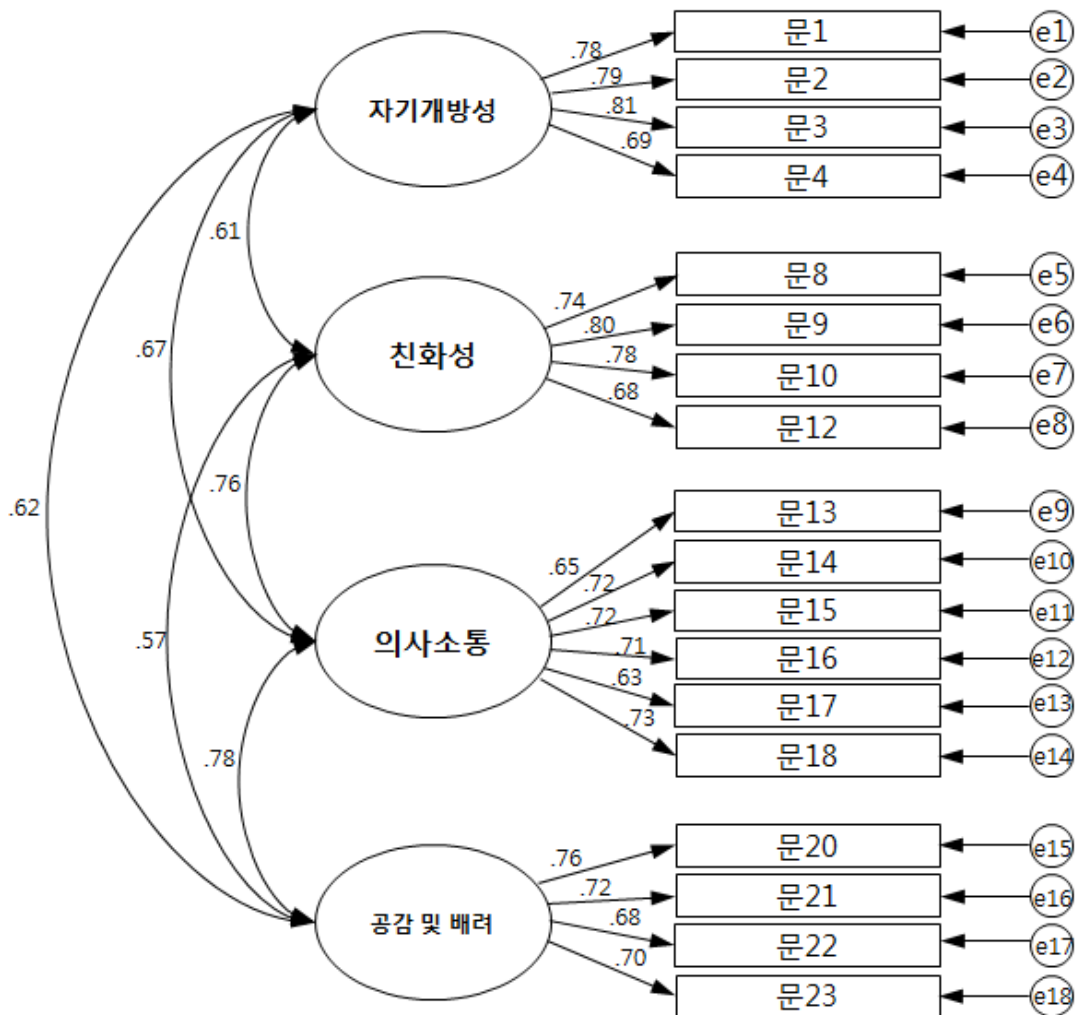
구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자기 개방성	자기개방성 → 문1	1.00	0.78 ***
	자기개방성 → 문2	1.12	0.79 ***
	자기개방성 → 문3	1.04	0.81 ***
	자기개방성 → 문4	1.00	0.69 ***
친화성	친화성 → 문8	1.00	0.74 ***
	친화성 → 문9	1.07	0.80 ***
	친화성 → 문10	0.97	0.78 ***
	친화성 → 문12	0.87	0.68 ***

구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의사소통	의사소통 → 문13	1.00	0.65 ***
	의사소통 → 문14	1.01	0.72 ***
	의사소통 → 문15	1.00	0.72 ***
	의사소통 → 문16	1.05	0.71 ***
	의사소통 → 문17	1.04	0.63 ***
	의사소통 → 문18	1.04	0.73 ***
공감 및 배려	공감 및 배려 → 문20	1.00	0.76 ***
	공감 및 배려 → 문21	1.01	0.72 ***
	공감 및 배려 → 문22	0.99	0.68 ***
	공감 및 배려 → 문23	0.94	0.70 ***

적합도 지수는 <표 IV-81>에서 제시된 바와 같다. 적합도 지수로는 χ^2 , CFI, NFI, TLI, RMSEA 값을 제시하였는데, 각 적합도 지수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다. χ^2 는 p 값이 .05 이상이면 양호하다고 보며, CFI, NFI, TLI 등 증분적합지수는 .90 이상이면 양호하고, RMSEA의 경우, .10 이하이면 보통, .08 이하이면 양호하고, .05 이하이면 매우 좋은 수준이라고 판단한다(우종필, 2012: p361). 관계형성 척도의 적합도를 살펴보면, χ^2 값은 기각되었으나, 다른 적합도 지수인 CFI, NFI, TLI는 .90 이상, RMSEA는 .08 이하인 것으로 나타나, 관계형성 척도의 적합도가 양호하다고 판단된다.

표 IV-81 관계형성 척도의 적합도 지수

$\chi^2(df)$	CFI	NFI	TLI	RMSEA
2572.586(129)***	0.956	0.954	0.942	0.053



【그림 IV-27】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관계형성의 요인구조 모형과 표준화된 요인계수

(2) 리더십

리더십 척도 3개 요인, 14개 문항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IV-82>와 같이 지적도구활용 표준화 계수가 .68~.85로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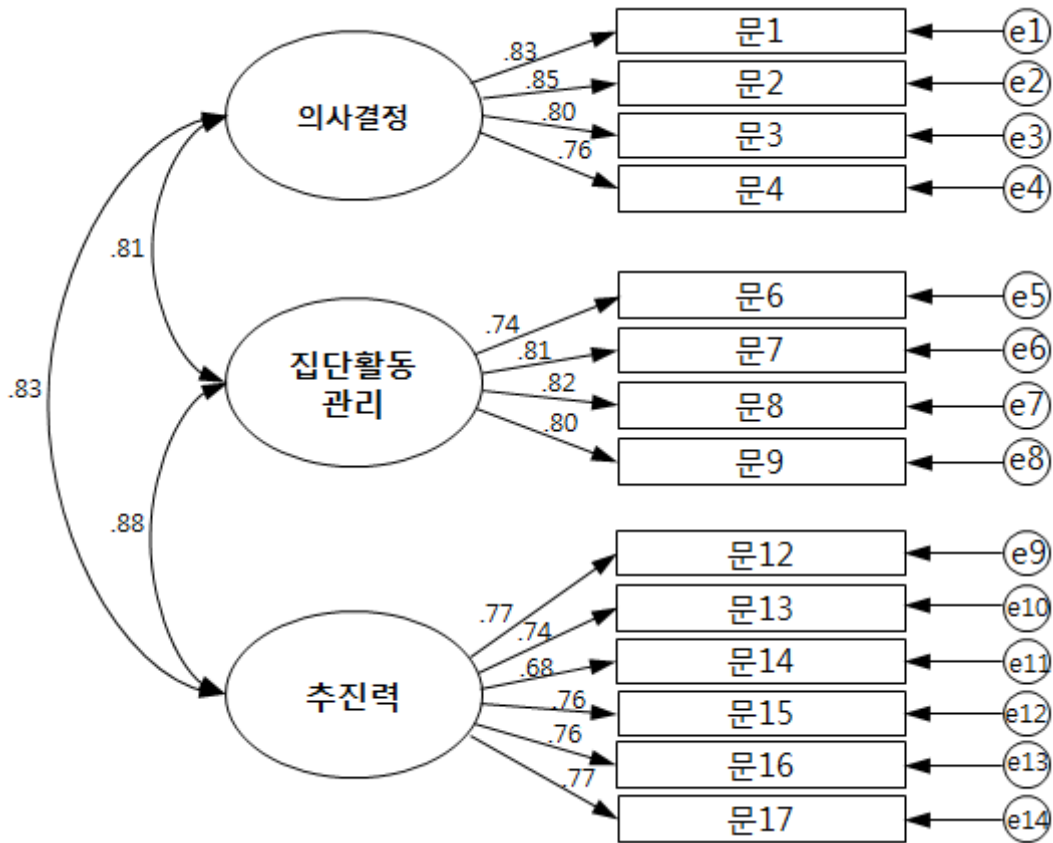
표 IV-82 리더십 타당화 측정모형 분석

구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의사 결정	의사결정 → 문1	1.00	0.83 ***
	의사결정 → 문2	1.06	0.85 ***
	의사결정 → 문3	1.01	0.80 ***
	의사결정 → 문4	0.94	0.76 ***
집단활동 관리	집단활동 관리 → 문6	1.00	0.74 ***
	집단활동 관리 → 문7	0.96	0.81 ***
	집단활동 관리 → 문8	0.94	0.82 ***
	집단활동 관리 → 문9	1.01	0.80 ***
추진력	추진력 → 문12	1.00	0.77 ***
	추진력 → 문13	0.99	0.74 ***
	추진력 → 문14	0.94	0.68 ***
	추진력 → 문15	1.01	0.76 ***
	추진력 → 문16	0.94	0.76 ***
	추진력 → 문17	0.97	0.77 ***

모델의 적합도 지수는 <표 IV-83>에서 제시한 바와 같다. 구체적으로, χ^2 값은 기각되었으나 이는 표본 수에 민감하므로 다른 적합도 지수를 살펴보면, CFI, NFI, TLI는 .90 이상, RMSEA는 .08 이하인 것으로 밝혀져, 리더십 척도의 적합도는 양호하다고 볼 수 있다.

표 IV-83 리더십 척도의 적합도 지수

$\chi^2(df)$	CFI	NFI	TLI	RMSEA
1627.696(74)***	0.973	0.972	0.962	0.056



【그림 IV-28】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리더십의 요인구조 모형과 표준화된 요인계수

(3) 협동

협동 척도 3개 요인, 14개 문항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협동 측정모형을 분석한 결과, <표 IV-84>와 같이 협동 표준화 계수가 .69~.80으로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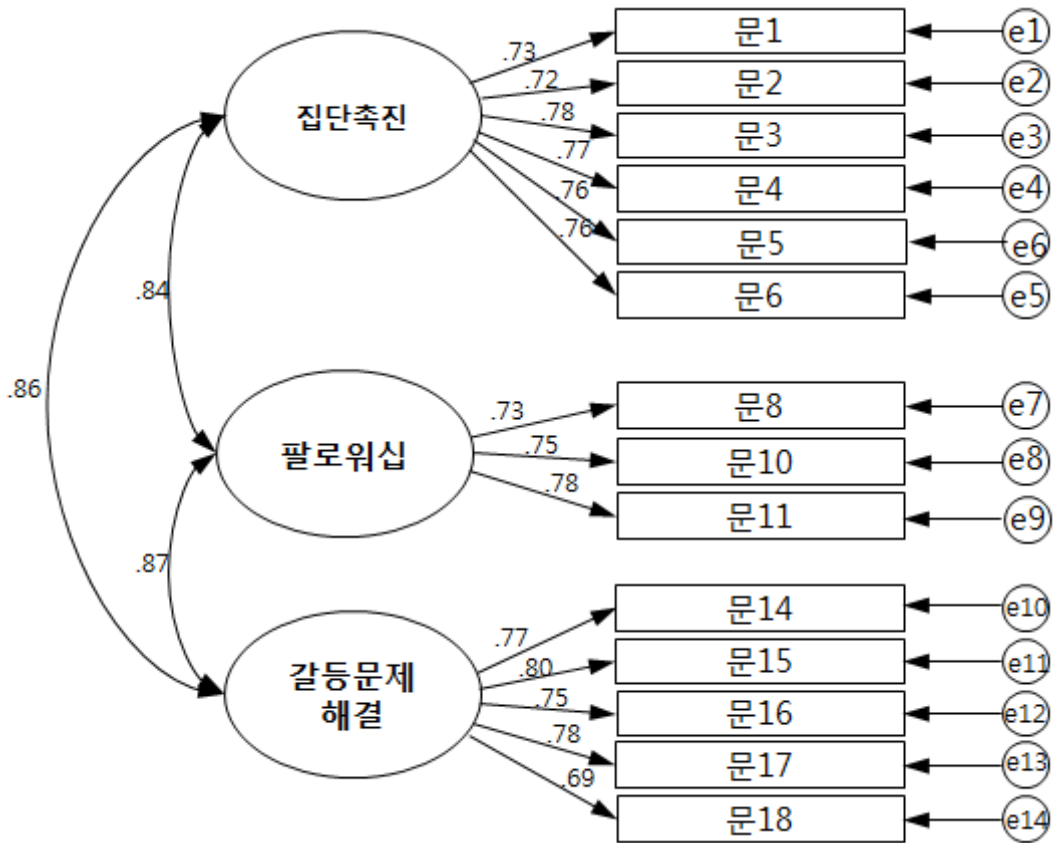
표 IV-84 협동 타당화 측정모형 분석

구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집단 촉진	집단촉진 → 문1	1.00	0.73 ***
	집단촉진 → 문2	0.89	0.72 ***
	집단촉진 → 문3	1.06	0.78 ***
	집단촉진 → 문4	1.08	0.78 ***
	집단촉진 → 문5	1.10	0.76 ***
	집단촉진 → 문6	1.07	0.76 ***
팔로워십	팔로워십 → 문8	1.00	0.73 ***
	팔로워십 → 문10	1.14	0.75 ***
	팔로워십 → 문11	1.15	0.78 ***
갈등 문제 해결	갈등문제해결 → 문14	1.00	0.77 ***
	갈등문제해결 → 문15	1.06	0.80 ***
	갈등문제해결 → 문16	1.05	0.75 ***
	갈등문제해결 → 문17	1.04	0.78 ***
	갈등문제해결 → 문18	0.94	0.69 ***

모델의 적합도 지수는 표 IV-91과 같다. χ^2 값은 기각되었으나, 다른 적합도 지수인 CFI, NFI, TLI는 .90 이상, RMSEA는 .08 이하로 양호한 수준이었다. 따라서 여러 적합도 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리더십 척도의 모델 적합도는 양호하다고 판단된다.

표 IV-85 협동 척도의 적합도 지수

$\chi^2(df)$	CFI	NFI	TLI	RMSEA
1492.625(74)***	0.973	0.972	0.962	0.054



【그림 IV-29】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협동의 요인구조 모형과 표준화된 요인계수

(3) 대인관계역량 척도 최종 문항

대인관계역량 척도에 대한 문항분석과 정규성 평가를 통해 관계형성 18문항(자기개방성 4문항, 친화성 4문항, 의사소통 6문항, 공감 및 배려 4문항), 리더십 14문항(의사결정 4문항, 집단활동관련 4문항, 추진력 6문항), 협동 14문항(집단축진 6문항, 팔로워십 3문항, 갈등문제해결 5문항) 등 총 46개의 최종 측정문항이 개발되었다. 이와 같이 대인관계 척도문항을 하위 영역별로 정리하여 제시하면 <표 IV-86>와 같다.

표 IV-86 생활관리역량 척도 최종 문항

역량	하위영역	설문번호	최종번호	측정문항
관계형성	자기개방성	문1	1	나는 친한 친구에게 나의 고민에 대해 의논할 수 있다
		문2	2	나는 친한 친구에게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이야기할 수 있다
		문3	3	나는 친한 친구에게 내 행동을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나로써 행동한다
		문4	4	나는 새로운 친구에게 있는 그대로의 나에 대해 말할 수 있다
	친화성	문8	5	나는 모르는 사람과도 쉽게 친해질 수 있다
		문9	6	나는 친해지고 싶은 사람들에게 나 자신을 직접 소개한다
		문10	7	나는 관심 있는 새로운 사람에게 어떤 일을 함께 하자고 제안하기도 한다
		문12	8	나는 새로운 사람을 알아 가는 것이 재미있다
	의사소통	문13	9	나는 상대방의 눈을 보며 대화한다
		문14	10	나는 상대방의 말이 이해가 안 되면 정확하게 알기 위해 질문을 한다
		문15	11	나는 상대방의 몸짓이나 표정을 살피며 듣는다
		문16	12	나는 상대방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내용을 요약하여 확인한다
		문17	13	나는 다른 사람에게 말할 것이 있을 때, 주저하지 않고 바로 이야기 한다
		문18	14	나는 상대방과 의견차이가 있을 때, 그것에 대해 좀 더 깊이 이야기 나눌 수 있다
	공감 및 배려	문20	15	나는 다른 사람이 문제를 겪고 있을 때,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문21	16	나는 상대방이 나의 말과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생각하면서 말하고 행동한다
		문22	17	나는 바쁜 일이 있어도, 화가 난 친구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준다
		문23	18	나는 나와 생각이 다르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선택을 존중한다
리더십	의사결정	문1	19	나는 내가 속한 그룹의 의사결정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 본다.
		문2	20	나는 내가 속한 그룹의 의사결정을 위한 여러 방법 중 어떤 방법을 선택할지 기준을 정한다.
		문3	21	나는 내가 속한 그룹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우선순위를 생각하여 의사결정을 한다.
		문4	22	나는 내가 속한 그룹의 의사결정을 할 때, 어떤 방법이 더 좋은지 비교해 본다.
	집단활동 관리	문6	23	나는 여러 사람들을 모아서 모임 또는 활동을 할 때, 주로 이끌어 나가는 편이다.
		문7	24	나는 그룹활동을 할 때, 각 구성원들의 역할을 골고루 잘 나누는 편이다.
		문8	25	나는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효과적으로 조화롭게 조정한다.
		문9	26	나는 그룹활동을 할 때, 활동목표를 제시하고 친구들을 이끌 수

역량	하위영역	설문번호	최종번호	측정문항
협동	추진력			있다
		문12	27	나는 내가 속한 그룹의 목표를 완수하는 데 필요한 단계를 정할 수 있다
		문13	28	나는 내가 속한 그룹의 계획을 실행할 때 발생할 어려움에 철저히 대비한다.
		문14	29	나는 내가 속한 그룹의 계획을 실행할 때,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밀고 나간다.
		문15	30	나는 그룹활동을 할 때, 문제를 해결할 기간을 명확하게 정하고 일을 추진한다.
		문16	31	나는 그룹활동을 할 때, 친구들의 능력과 의지를 생각하며 일을 추진한다
		문17	32	나는 그룹활동을 할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본다.
	집단촉진	문1	33	나는 그룹활동을 할 때, 친구의 장점이나 능력을 적극적으로 알려준다
		문2	34	나는 그룹활동을 할 때, 친구가 어려워하면 기꺼이 돕는다
		문3	35	나는 그룹활동을 할 때, 친구들이 의견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한다
		문4	36	나는 그룹활동을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한다
		문5	37	나는 그룹에서 하고 있는 활동이 의미있는 일이라는 것을 친구에게 이야기 한다
		문6	38	나는 그룹활동을 할 때, 친구가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팔로워십	문8	39	나는 그룹 활동을 할 때, 나의 역할에 최선을 다한다
		문10	40	나는 그룹의 리더가 아니더라도 맡은 일보다 많은 일을 하여 그룹 활동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문11	41	나는 내가 속한 그룹에서 가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한다
	갈등문제해결	문14	42	나는 그룹에서 발생한 문제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한다
		문15	43	나는 그룹의 문제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내용을 친구들과 공유한다
		문16	44	나는 그룹에서 발생한 문제를 친구들과 자주 이야기한다
		문17	45	나는 그룹활동을 할 때 중요한 사항이나 문제점이 생기면 친구들과 함께 해결한다
		문18	46	나는 그룹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잘못을 따지기 보다는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5. 사회참여역량 측정도구 문항 개발⁴⁾

사회참여 역량은 개인 시민성(권리·책임의식, 민주적 절차 및 의식, 정치 관심 및 정치적 자아 효능감), 공동체 시민성(상대입장이해, 사회참여, 사회봉사, 신뢰·호혜성 및 관용), 세계 시민성(성인지, 이민자에 대한 태도, 국가 및 역사의식, 국제관계 이해) 등 3개 하위영역, 11개 지표를 포함하여 구성하였다.

1) 사회참여역량 척도 문항 분석 및 정규성 평가

(1) 개인 시민성

청소년의 개인 시민성 역량을 측정하는 문항 중 부정형 문항으로 제작된 8개의 문항을 역채점하여 총 21개의 개인 시민성 역량 측정 문항의 신뢰도를 살펴본 결과 전체 문항의 내적 일치도는 0.752였다. 개인 시민성 21개의 문항에 대한 신뢰도 분석 결과 문항5, 문항8, 문항10, 문항13이 신뢰도를 저하하는 문항으로 판별되어 삭제되었고 17개의 문항의 내적 일치도는 0.794로 상승하였다. 개별 문항의 분포와 문항-전체 간 상관관계 및 문항 제거 시 신뢰도 계수는 <표 IV-87>과 같았다.

표 IV-87 개인 시민성 문항 신뢰도 검증 결과

변인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문항-전체 간 상관관계	문항 제거 시 신뢰도 계수
문항1	3.40	0.66	-0.93	0.99	0.377	0.741
문항2	3.36	0.68	-0.83	0.53	0.344	0.743
문항3	3.42	0.65	-0.94	0.91	0.425	0.740
문항4	3.40	0.68	-0.99	0.98	0.389	0.741
문항5	2.51	0.92	0.07	-0.83	0.232	0.757
문항6	2.75	0.96	-0.26	-0.91	0.353	0.750
문항7	2.75	0.98	-0.16	-1.07	0.359	0.752

4) 이 부분은 협동연구과제 연구책임자인 김태준 박사(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가 책임집필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협동연구 보고서 김태준 (2014)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도구개발 및 국제비교연구 I: 사회참여역량' 을 참고바람. 본 장은 김태준 (2014)의 내용 중 결과부분을 요약하여 정리하였음.

변인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문항-전체 간 상관계	문항 제거 시 신뢰도 계수
문항8	2.47	0.81	0.06	-0.48	0.034	0.756
문항9	2.93	0.82	-0.44	-0.32	0.423	0.743
문항10	2.57	0.91	0.01	-0.83	0.176	0.758
문항11	2.45	0.84	0.06	-0.58	0.378	0.753
문항12	2.80	0.87	-0.30	-0.59	0.403	0.745
문항13	2.00	0.94	0.65	-0.50	0.109	0.769
문항14	2.70	0.82	-0.18	-0.50	0.878	0.725
문항15	2.87	0.80	-0.43	-0.19	0.886	0.727
문항16	2.68	0.81	-0.19	-0.44	0.898	0.733
문항17	2.45	0.79	0.28	-0.36	0.875	0.733
문항18	2.35	0.80	0.39	-0.27	0.879	0.734
문항19	2.39	0.80	0.30	-0.34	0.875	0.733
문항20	2.47	0.86	0.11	-0.63	0.893	0.739
문항21	2.51	0.81	0.03	-0.50	0.874	0.728

(2) 공동체 시민성

공동체 시민성을 측정하는 39개의 문항에 대하여 신뢰도 검증을 실시한 결과, 문항16과 문항23을 삭제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최종 선정된 37개의 문항의 내적 일치도는 0.908로 상승하였다. 개별 문항의 분포와 문항-전체 간 상관계 및 문항 제거 시 신뢰도 계수는 <표 IV-8>와 같다.

표 IV-88 공동체 시민성 문항 신뢰도 검증 결과

변인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문항-전체 간 상관계	문항 제거 시 신뢰도 계수
문항1	3.52	0.68	-1.446	2.100	0.342	0.905
문항2	3.13	0.84	-0.675	-0.241	0.441	0.904
문항3	2.37	0.96	0.285	-0.869	0.529	0.903
문항4	2.19	0.93	0.477	-0.578	0.532	0.903
문항5	2.23	0.92	0.402	-0.634	0.510	0.903
문항6	2.08	0.96	0.566	-0.632	0.462	0.904
문항7	3.28	0.68	-0.787	0.875	0.378	0.905
문항8	3.19	0.69	-0.674	0.725	0.428	0.904
문항9	3.23	0.70	-0.735	0.636	0.412	0.904
문항10	3.25	0.70	-0.809	0.840	0.400	0.905

변인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문항-전체 상관관계	문항 제거 시 신뢰도 계수
문항11	2.98	0.79	-0.477	-0.166	0.474	0.904
문항12	2.77	0.83	-0.148	-0.628	0.543	0.903
문항13	2.97	0.81	-0.436	-0.305	0.464	0.904
문항14	2.74	0.83	-0.148	-0.607	0.483	0.903
문항15	2.35	0.92	0.210	-0.768	0.420	0.904
문항16	2.51	0.90	0.321	-0.772	0.171	0.908
문항17	2.54	0.73	0.189	-0.343	0.413	0.904
문항18	3.03	0.72	-0.414	0.003	0.372	0.905
문항19	2.84	0.86	-0.407	-0.435	0.312	0.906
문항20	2.77	0.89	-0.354	-0.586	0.307	0.906
문항21	1.75	0.43	-1.141	-0.699	0.327	0.906
문항22	1.58	0.49	-0.307	-1.906	0.323	0.905
문항23	3.60	0.63	-1.622	2.811	0.233	0.906
문항24	3.18	0.66	-0.638	0.958	0.340	0.905
문항25	2.47	0.83	0.011	-0.572	0.467	0.904
문항26	1.87	0.83	0.670	-0.202	0.356	0.905
문항27	2.23	0.93	0.226	-0.858	0.514	0.903
문항28	2.47	0.91	-0.090	-0.820	0.521	0.903
문항29	2.62	0.91	-0.253	-0.706	0.488	0.903
문항30	2.22	0.89	0.272	-0.688	0.536	0.903
문항31	2.20	0.91	0.305	-0.747	0.524	0.903
문항32	2.28	0.86	0.163	-0.663	0.451	0.904
문항33	2.48	0.88	-0.091	-0.712	0.439	0.904
문항34	2.68	0.86	-0.398	-0.423	0.448	0.904
문항35	2.74	0.83	-0.368	-0.318	0.298	0.906
문항36	2.31	0.94	0.044	-0.995	0.427	0.904
문항37	2.67	0.85	-0.280	-0.507	0.466	0.904
문항38	2.42	0.94	-0.081	-0.942	0.471	0.904
문항39	2.54	0.92	-0.217	-0.804	0.481	0.903

(3) 세계 시민성

세계 시민성을 측정하는 23개의 문항 중 부정형으로 제작된 6개의 문항에 대하여 역채점을 적용하여 신뢰도 검증을 실시한 결과, 신뢰도 저하 문항 5개를 삭제한 후 18개 문항의 내적 일치도는 0.759로 상승하였다. 개별 문항의 분포와 문항-전체 간 상관관계 및 문항 제거 시 신뢰도 계수는 <표 IV-89>과 같다.

표 IV-89 세계 시민성 문항 신뢰도 검증 결과

변인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문항-전체 간 상관관계	문항 제거 시 신뢰도 계수
문항1	2.84	0.81	-0.368	-0.282	0.129	0.740
문항2	2.70	0.82	-0.105	-0.579	0.112	0.742
문항3	2.93	0.86	-0.461	-0.422	0.219	0.734
문항4	2.85	0.85	-0.362	-0.489	0.145	0.740
문항5	3.12	0.74	-0.684	0.475	0.437	0.719
문항6	3.08	0.77	-0.658	0.304	0.426	0.720
문항7	3.10	0.74	-0.643	0.365	0.455	0.718
문항8	2.92	0.71	-0.409	0.257	0.419	0.721
문항9	2.82	0.77	-0.362	-0.135	0.395	0.722
문항10	2.33	0.88	0.529	-0.411	0.241	0.733
문항11	3.11	0.98	-0.941	-0.115	0.388	0.721
문항12	2.76	0.84	-0.311	-0.458	0.284	0.729
문항13	2.24	0.87	0.251	-0.642	-0.003	0.751
문항14	2.87	0.77	-0.326	-0.199	0.330	0.726
문항15	2.89	0.73	-0.373	0.060	0.376	0.724
문항16	2.79	0.85	-0.461	-0.286	0.248	0.732
문항17	3.05	0.72	-0.608	0.581	0.433	0.720
문항18	3.09	0.90	-0.657	-0.456	0.228	0.734
문항19	2.53	0.81	0.084	-0.517	0.317	0.727
문항20	2.63	0.80	-0.051	-0.501	0.372	0.723
문항21	2.60	0.82	-0.153	-0.478	0.041	0.747
문항22	2.74	0.78	-0.209	-0.340	0.265	0.731
문항23	2.97	0.70	-0.475	0.435	0.429	0.720

2) 사회참여역량 척도의 구성타당도

(1) 탐색적 요인분석

① 개인 시민성

개인 시민성을 측정하는 17개 문항에 대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권리·책임의식의 4문항, 민주적 절차 및 의식의 2문항, 정치적 관심 및 정치적 자아효능감의 8문항이 도출되었으며, 분석결과는 <표 IV-90>와 같다.

표 IV-90 개인 시민성 척도의 요인 구조

변인	요인1. 정치적 관심 및 정치적 자아효능감	요인2. 권리·책임의 식	요인3. 민주적 절차 및 의식
문항1 법이 불공정하다면 사람들은 정치적 항의를 할 수 있어야 한다.		0.875	
문항2 사람들은 언제나 정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할 자유를 가져야 한다.		0.891	
문항3 모든 사람들은 항상 그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0.917	
문항4 모든 사람들은 정치지도자를 자유롭게 선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0.870	
문항11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는 여러 사람에게 의견을 물어보는 것보다는 한 두 사람이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좋다.			0.923
문항12 어떻게 해서든 잘 살 수 있도록 해주면 되었지 민주주의를 꼭 해야 한다는 법은 없다.			0.766
문항14 우리나라에서의 정치적 이슈에 대한 관심 정도	0.769		
문항15 우리나라에서의 사회적 이슈에 대한 관심 정도	0.669		
문항16 환경 관련 이슈에 대한 관심 정도	0.572		
문항17 나는 또래 친구들에 비해 정치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	0.841		
문항18 정치적 이슈 및 문제를 토론할 때, 나는 항상 토론에 참여한다.	0.822		
문항19 나는 남들이 귀기울일만한 정치적 의견을 가지고 있다.	0.848		
문항20 성인이 되면, 나는 정치에 참여할 것이다.	0.690		
문항21 나는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정치이슈들을 잘 이해하고 있다.	0.843		

② 공동체 시민성

공동체 시민성을 측정하는 17개 문항에 대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공적 실천 14문항, 사회적 신뢰 9문항, 적극적 정치 참여 5문항, 그리고 교실개방성 5문항이 도출되었으며, 분석결과는 <표 IV-91>과 같다..

표 IV-91 공동체 시민성 척도의 요인 구조

변인		요인1. 공적 실천	요인2. 사회적 신뢰	요인3. 적극적 정치참여	요인4. 교실 개방성
문항1	성인이 된 이후 투표 참여 정도	0.573			
문항2	성인이 된 이후 투표하기 전 후보자에 대한 정보 수집 참여 정도	0.487			
문항7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하여 불공정한 법에 대항한 평화적 항의의 중요성 정도	0.818			
문항8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하여 지역공동체에 유익한 활동의 중요성 정도	0.825			
문항9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하여 인권증진운동의 중요성 정도	0.839			
문항10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하여 환경보호운동의 중요성 정도	0.796			
문항11	정치적 반대 의견 항목에 대해 성인이 된 이후 '개인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 리본이나 뱃지 달기'에 대한 참여 정도	0.602			
문항12	정치적 반대 의견 항목에 대해 성인이 된 이후 '비폭력 집회 참여'에 대한 참여 정도	0.510			
문항13	정치적 반대 의견 항목에 대해 성인이 된 이후 '진정서에 서명하기'에 대한 참여 정도	0.639			
문항14	정치적 반대 의견 항목에 대해 성인이 된 이후 '상품 불매 운동하기'에 대한 참여 정도	0.503			
문항18	나는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꼭 지킨다.	0.441			
문항19	나에게 자녀가 없을 경우에는 입양할 수 있다.	0.373			
문항20	나는 자녀가 있어도 입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0.354			
문항21	나는 이웃이나 동료에게 이익을 준다면 그 활동에 내 시간을 투자할 생각이 있다.	0.325			
문항25	이웃에 대한 신뢰 정도		0.376		
문항27	정부에 대한 신뢰 정도		0.857		
문항28	법원에 대한 신뢰 정도		0.867		
문항29	경찰에 대한 신뢰 정도		0.829		
문항30	정당에 대한 신뢰 정도		0.863		
문항31	국회에 대한 신뢰 정도		0.866		
문항32	미디어(TV, 언론사, 라디오)에 대한 신뢰 정도		0.688		
문항33	군대에 대한 신뢰 정도		0.687		
문항34	학교에 대한 신뢰 정도		0.603		
문항3	성인이 된 이후 선거 기간 동안 후보자나 정당 돕기 참여 정도			0.764	
문항4	성인이 된 이후 정치단체 가입 참여 정도			0.916	
문항5	성인이 된 이후 노동조합 가입 참여 정도			0.857	
문항6	성인이 된 이후 지역 및 시 선출직 후보 출마 참여 정도			0.815	
문항15	정치적 반대 의견 항목에 대해 성인이 된 이후 '벽에 항의 표어/스프레이/페인팅하기'에 대한 참여 정도			0.496	
문항35	수업시간에 정치적·사회적 이슈를 토론할 때 학생들이 공개적으로 선생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의 발생 정도				0.577
문항36	수업시간에 정치적·사회적 이슈를 토론할 때 학생들이 현재의 정치적 사건을 학급차원에서 토론하는 정도				0.766

변인		요인1. 공적 실천	요인2. 사회적 신뢰	요인3. 적극적 정치참여	요인4. 교실 개방성
문항37	수업시간에 정치적·사회적 이슈를 토론할 때 다른 학생들과 의견이 다를지라도 학급에서 자기 의견을 표명하는 정도				0.753
문항38	수업시간에 정치적·사회적 이슈를 토론할 때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과 함께 이슈를 토론하도록 권장하는 정도				0.846
문항39	수업시간에 정치적·사회적 이슈를 토론할 때 선생님들이 학급에서 이슈를 설명하면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는 정도				0.804

③ 세계 시민성

세계 시민성을 측정하는 23개 문항에 대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이민자에 대한 태도 5문항, 국가 및 역사 의식 4문항, 국제 관계 이해 4문항, 그리고 성 인지 3문항이 도출되었으며, 분석결과는 <표 IV-92>과 같다.

표 IV-92 세계 시민성 척도의 요인 구조

변인		요인1. 이민자에 대한 태도	요인2. 국가 및 역사 의식	요인3. 국제 관계 이해	요인4. 성 인지
문항1	가족의 생계문제는 남자가 책임져야 한다.				0.788
문항2	여성의 우선적 책무는 아이를 보육하는데 있다.				0.797
문항4	남녀가 함께 일하는 직장 부서의 책임자는 남자가 맡는 것이 좋다.				0.732
문항5	이민자들의 자녀도 그나라의 아이들과 동일한 교육 기회를 가져야 한다.	0.341			
문항6	수년 동안 살고 있는 이민자들에게 선거에 투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0.402			
문항7	외국에 있는 우리 민족 후손들(예: 고려인, 조선족 등)이 우리나라로 이민 오는 것에 대한 허용 정도	0.735			
문항8	우리 민족이 아닌 외국인이나 소수민족이 우리나라로 이민 오는 것에 대한 허용 정도	0.854			
문항9	빈곤국가(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이 우리 나라로 이민 오는 것에 대한 허용 정도	0.778			
문항14	우리는 되도록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생산품을 사야한다.		0.572		
문항15	안전 요원은 국가 안전을 위협할 용의자(예: 간첩 등)라고 여겨지는 사람의 편지나 전화, 이메일을 체크할 수 있다.		0.661		
문항16	국가 안전에 엄청난 위협을 느낄 때, 정부는 언론 출판을 통제할 권력을 가져야 한다.		0.589		

변인		요인1. 이민자에 대한 태도	요인2. 국가 및 역사 의식	요인3. 국제 관계 이해	요인4. 성 인지
문항17	우리나라는 우리가 성취한 것들에 대해 다른 나라의 존경을 받을만하다.		0.653		
문항19	다른 나라들의 정치·사회적 문제에 대한 관심 정도			0.861	
문항20	국가 간 갈등에 대한 신문기사 등에 대한 관심 정도			0.868	
문항22	나는 외국인과 잘 지내는데 큰 문제가 없다.			0.397	
문항23	나는 외국을 방문할 때 그 나라에 적합한 매너와 문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학습한다.			0.409	

(2) 확인적 요인분석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가 이론적으로 타당한 구인을 갖추고 있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적절한 신뢰도와 양호한 타당도를 갖추고 있다고 판별된 문항들을 대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① 개인 시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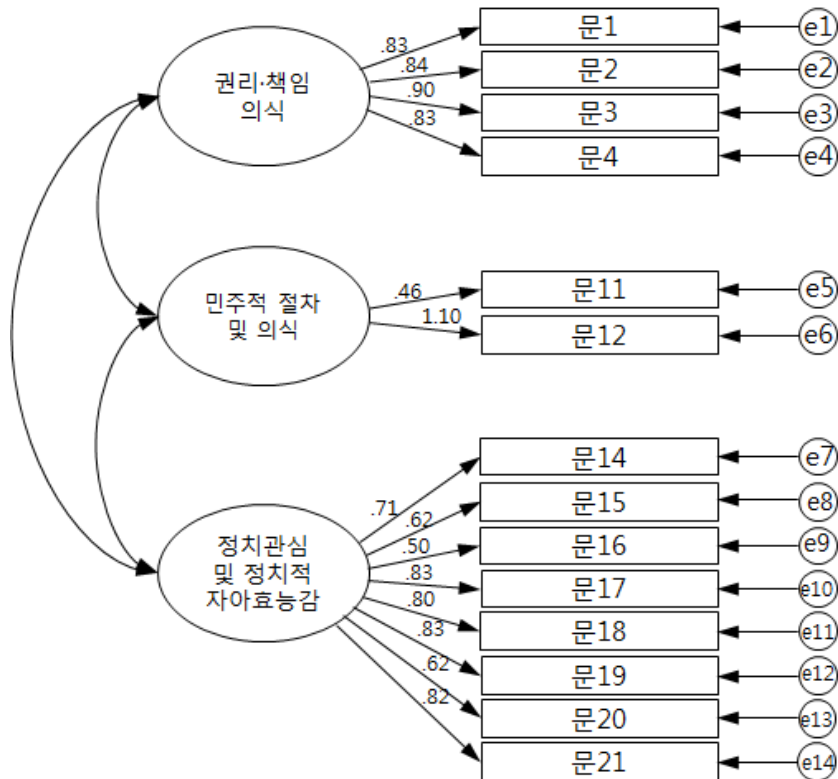
개인 시민성 문항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의 결과 요인 내 모든 경로계수가 유의미함을 나타내며 각 요인에 대한 단일 차원성이 확인되었으며, 측정모형분석은 <표 IV-93>에, 적합도는 <표 IV-94>에, 그리고 요인구조모형은 [그림 IV-31]에 제시되었다.

표 IV-93 개인 시민성 타당화 측정모형 분석

변인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권리·책임의식	문항1	1.000	0.829 ***
	문항2	1.046	0.841 ***
	문항3	1.064	0.895 ***
	문항4	1.035	0.830 ***
민주적 절차 및 의식	문항11	1.000	0.456 ***
	문항'2	2.508	1.103 ***
정치적 관심 및 정치적 자아효능감	문항14	1.000	0.710 ***
	문항15	.860	0.623 ***
	문항16	.694	0.500 ***
	문항17	1.119	0.830 ***
	문항18	1.102	0.798 ***
	문항19	1.140	0.832 ***
	문항20	.918	0.623 ***
	문항21	1.139	0.821 ***

표 IV-94 개인시민성 타당화 측정모형의 적합도

$\chi^2(df)$	CFI	NFI	TLI	RMSEA
5583.089(74)***	0.892	0.891	0.847	0.106



【그림 IV-31】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개인 시민성의 요인구조 모형과 표준화된 요인계수

② 공동체 시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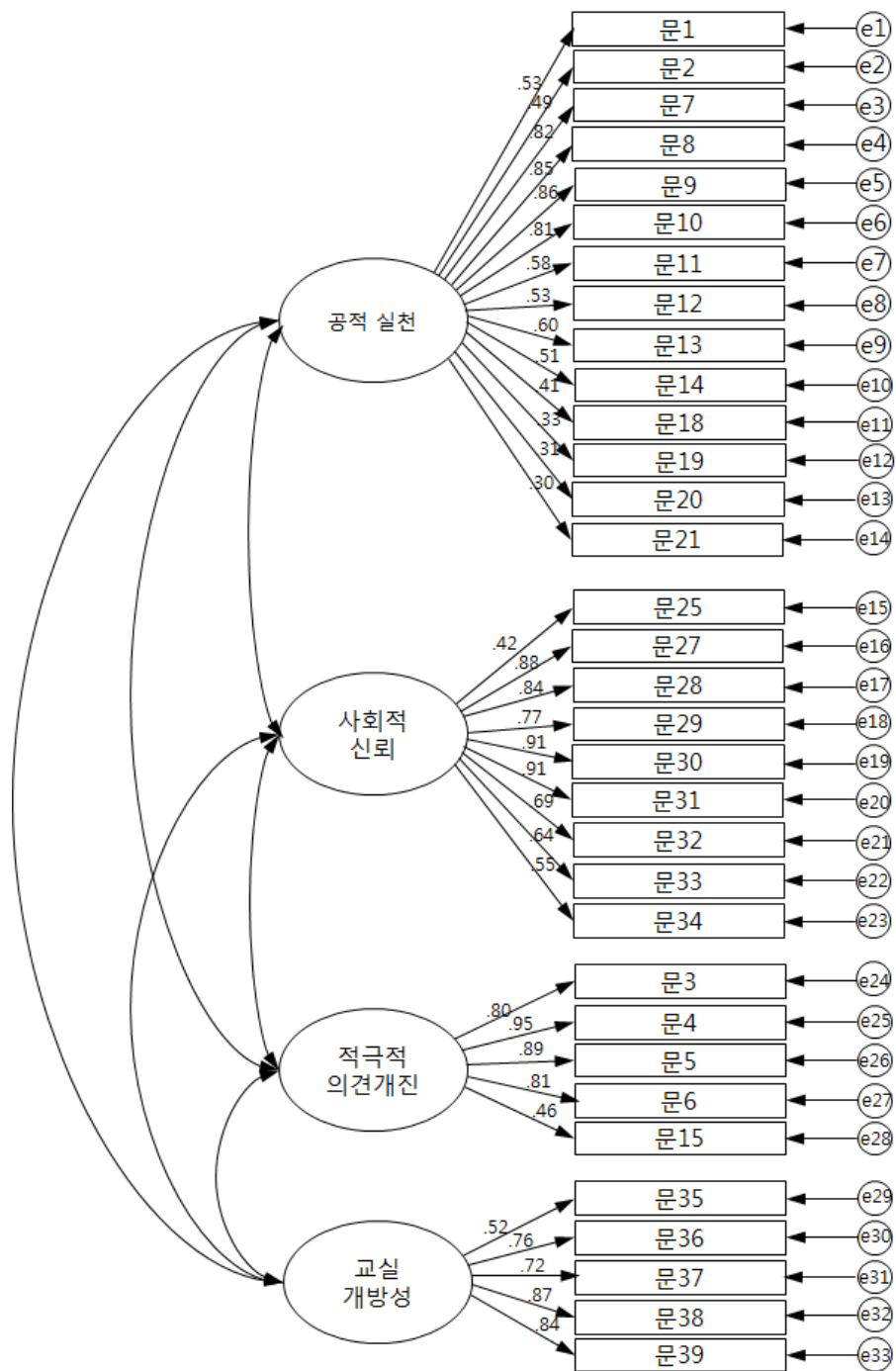
공동체 시민성 문항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의 결과 요인 내 모든 경로계수가 유의미함을 나타내며 각 요인에 대한 단일 차원성이 확인되었으며, 측정모형분석은 <표 IV-95>에, 적합도는 <표 IV-96>에, 그리고 요인구조모형은 [그림 IV-32]에 제시되었다.

표 IV-95 공동체 시민성 타당화 측정모형 분석

변인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공적 실천	문항1	1.000	0.527 ***
	문항2	1.148	0.487 ***
	문항7	1.560	0.819 ***
	문항8	1.647	0.851 ***
	문항9	1.691	0.859 ***
	문항10	1.590	0.808 ***
	문항11	1.283	0.576 ***
	문항12	1.244	0.534 ***
	문항13	1.365	0.604 ***
	문항14	1.202	0.513 ***
	문항18	0.828	0.408 ***
	문항19	0.798	0.330 ***
사회적 신뢰	문항20	0.785	0.314 ***
	문항21	0.367	0.301 ***
	문항25	1.000	0.420 ***
	문항27	2.331	0.883 ***
	문항28	2.175	0.836 ***
	문항29	2.001	0.774 ***
	문항30	2.311	0.911 ***
	문항31	2.375	0.912 ***
적극적 의견개진	문항32	1.692	0.687 ***
	문항33	1.598	0.638 ***
	문항34	1.355	0.553 ***
	문항3	1	0.798 ***
	문항4	1.151	0.954 ***
교실 개방성	문항5	1.06	0.885 ***
	문항6	1.019	0.814 ***
	문항15	0.545	0.457 ***
	문항35	1	0.521 ***
	문항36	1.662	0.756 ***
	문항37	1.434	0.723 ***
	문항38	1.898	0.868 ***
	문항39	1.793	0.837 ***

표 IV-96 공동체 시민성 타당화 측정모형의 적합도

$\chi^2(df)$	CFI	NFI	TLI	RMSEA
25139.424(489)***	0.812	0.809	0.784	0.087



【그림 IV-32】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공동체 시민성의 요인구조 모형과 표준화된 요인계수

③ 세계 시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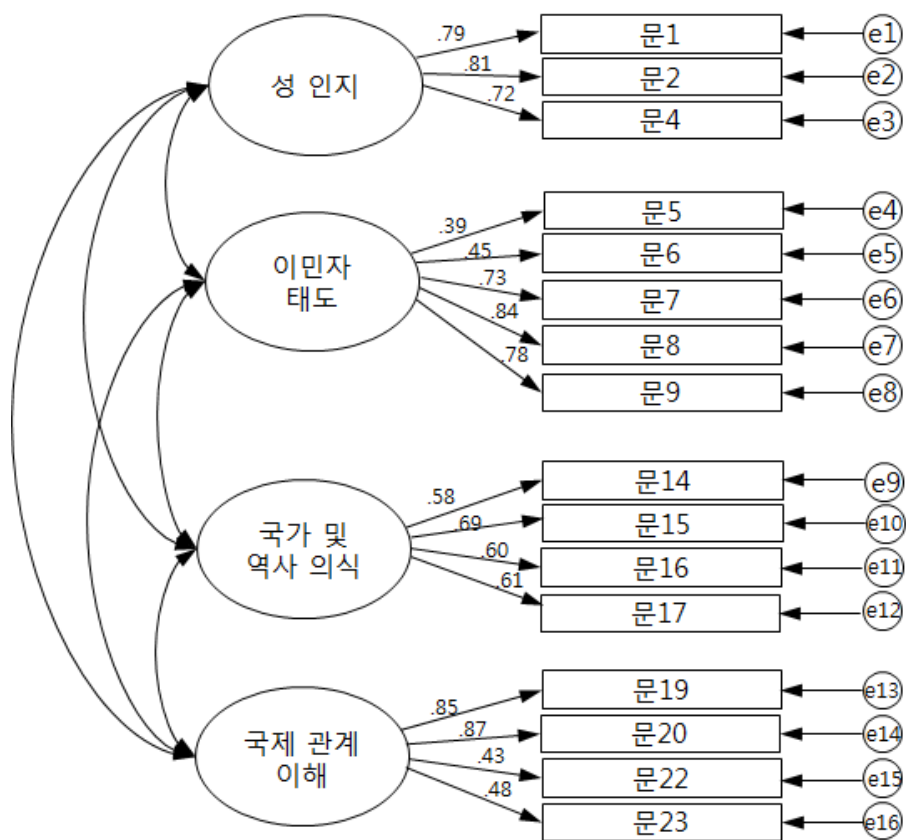
세계 시민성 문항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의 결과 요인 내 모든 경로계수가 유의미함을 나타내며 각 요인에 대한 단일 차원성이 확인되었으며, 측정모형분석은 <표 IV-97>에, 적합도는 <표 IV-98>에, 그리고 요인구조모형은 [그림 IV-33]에 제시되었다.

표 IV-97 세계 시민성 타당화 측정모형 분석

변인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성 인지	문항1	1	0.792 ***
	문항2	1.046	0.812 ***
	문항4	0.957	0.718 ***
이민자에 대한 태도	문항5	1	0.393 ***
	문항6	1.184	0.450 ***
	문항7	1.87	0.733 ***
	문항8	2.029	0.837 ***
	문항9	2.057	0.775 ***
국가 및 역사 의식	문항14	1	0.576 ***
	문항15	1.146	0.693 ***
	문항16	1.154	0.601 ***
	문항17	0.993	0.610 ***
국제 관계 이해	문항19	1	0.845 ***
	문항20	1.017	0.866 ***
	문항22	0.484	0.425 ***
	문항23	0.485	0.476 ***

표 IV-98 세계 시민성 타당화 측정모형의 적합도

$\chi^2(df)$	CFI	NFI	TLI	RMSEA
6189.709(98)***	0.826	0.824	0.759	0.097



【그림 IV-33】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세계 시민성의 요인구조 모형과 표준화된 요인계수

6.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도구 최종 영역 및 문항 구성⁵⁾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도구 개발에 있어 생애학습역량, 생활관리역량, 진로개발역량, 대인관계 역량, 사회참여역량 등 5개 역량군을 중심으로 하위역량을 구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의 신뢰도와 타당도, 그리고 이러한 구조체계에 대한 적합도등을 체계적인 통계검증 절차를 통해 다음과 같이 최종적으로 구성되었다.

생애학습역량의 하위구성요소로는 사고력, 지적도구활용, 학습적응성이 포함되었으며, 사고력(9문항)은 비판적 사고력(6문항)과 감성적 사고력(3문항)의 두 가지 요인으로, 지적도구활용(21문항)은 언어능력(5문항), 수학능력(5문항), 과학능력(7문항), 정보통신활용능력(4문항)의 네 가지 요인으로, 학습적응성(7문항)은 변화수용력(2문항), 지적호기심(2문항), 학습주도성(3문항)의 세 가지 요인으로 도출되었으며, 총 37문항으로 최종 구성되었다.

생활관리역량의 하위구성요소로는 건강관리, 과제관리, 상황대처, 정서조절이 포함되었으며, 건강관리(11문항)는 위생관리(3문항), 신체관리(2문항), 안전 및 스트레스관리(6문항)의 세 가지 요인으로, 과제관리(12문항)는 목표 및 계획수립(9문항)과 수행 및 평가(4문항)의 두 가지 요인으로, 상황대처(16문항)는 중독인식(3문항), 중독행동(7문항), 폭력행동(3문항), 폭력회피(3문항)의 네 가지 요인으로, 마지막으로 정서조절(9문항)은 분노행동(2문항), 감정절제(2문항), 조절실패(3문항), 감정인식(2문항)의 네 가지 요인으로 도출되었으며, 총 48문항으로 최종 구성되었다.

진로개발역량의 하위구성요소로는 진로설계, 여가활용, 개척정신이 포함되었으며, 진로설계(15문항)는 자기탐색(4문항), 직업탐색(4문항), 직업가치관(3문항), 진로준비(4문항)의 네 가지 요인으로, 여가활용(17문항)은 여가태도(6문항), 여가유능감(4문항), 여가만족(3문항), 여가몰입(4문항)의 네 가지 요인으로, 개척정신(8문항)은 차별화태도(5문항)와 도전정신(3문항)의 두 가지 요인으로 도출되었으며, 총 40문항으로 최종 구성되었다.

대인관계역량의 하위구성요소로는 관계형성, 리더십, 협동이 포함되었으며, 관계형성(18문항)은 자기개방성(4문항), 친화성(4문항), 의사소통(6문항), 공감 및 배려(4문항)의 네 가지 요인으로, 리더십(14문항)은 의사결정(4문항), 집단활동관리(4문항), 추진력(6문항)의 세 가지 요인으로, 협동(14문항)은 집단촉진(6문항), 팔로워십(3문항), 갈등문제해결(5문항)의 세 가지 요인으로 도출되었으며, 총 46문항으로 최종 구성되었다.

5) 이 부분은 성은모 부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 집필하였음.

사회참여역량의 하위구성요소로는 개인 시민성, 공동체 시민성, 세계 시민성이 포함되었으며, 개인 시민성(14문항)은 권리·책임의식(4문항), 민주적 절차 및 의식(2문항), 정치적 관심 및 정치적 자아효능감(8문항)의 세 가지 요인으로, 공동체 시민성(33문항)은 공적실천(14문항), 사회적 신뢰(9문항), 적극적 의견개진(5문항), 교실개방성(5문항)의 네 가지 요인으로, 세계 시민성(16문항)은 성 인지(3문항), 이민자에 대한 태도(5문항), 국가 및 역사 의식(4문항), 국제 관계 이해(4문항)의 네 가지 요인으로 도출되었으며, 총 63문항으로 최종 구성되었다.

이와 같이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도구 문항은 최종 232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영역별 요인과 문항수를 정리하여 제시하면 <표 IV-99>와 같다.

표 IV-99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도구 최종 영역 및 문항 구성

역량군	하위역량	조사영역	문항수
생애학습역량	사고력	비판적 사고력	6
		감성적 사고력	3
	지적도구활용	언어능력	5
		수학 능력	5
		과학능력	7
		정보통신활용능력	4
		변화수용력	2
	학습 적응성	지적호기심	2
		학습주도성	3
		합계	37
생활관리역량	건강관리	안전 및 스트레스 관리	6
		신체관리	2
		위생관리	3
	과제관리	목표 및 계획수립	8
		수행 및 평가	4
	상황대처	중독행동	7
		폭력행동	3
		중독인식	3
		폭력회피	3
	정서조절	감정인식	2
		분노행동	2
		감정절제	2
		조절실패	3
		합계	48

역량군	하위역량	조사영역	문항수
진로개발역량	진로설계	자기탐색	4
		직업탐색	4
		직로준비	4
		진업가치관	3
	여가활용	여가태도	6
		여가유능감	4
		여가몰입	4
		여가만족	2
		(경험)	1
	개척정신	차별화태도	5
도전정신		3	
합계			40
대인관계역량	관계형성	자기 개방성	4
		친화성	4
		의사소통	6
		공감 및 배려	4
	리더십	의사결정	4
		집단활동관리	4
		추진력	6
	협동	집단촉진	6
		팔로워십	3
		갈등문제 해결	5
합계			46
사회참여역량	개인 시민성	권리·책임의식	4
		민주적 절차 및 의식	2
		정치 관심 및 정치적 자아 효능감	8
	공동체 시민성	공적실천	14
		사회적 신뢰	9
		적극적 의견개진	5
		교실 개방성	5
	세계 시민성	성 인지	3
		이민자에 대한 태도	5
		국가 및 역사인식	4
		국제관계이해	4
	합계		
합계			234

7. 청소년 역량지수 구성 체계에 다른 개념적 특징⁶⁾

지금까지 도출된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도구 문항의 구성요인의 주요특성을 기반으로 5개의 역량군(생애학습역량, 생활관리역량, 진로개발역량, 대인관계역량, 사회참여역량)과 16개의 하위역량의 개념적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⁷⁾.

생애학습역량(Life-long learning competency)은 사회의 변화에 맞추어 자신의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생애에 걸쳐 지속적으로 학습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① 사고력(Thinking)

비판적 사고를 바탕으로 현상을 객관적 또는 감성적으로 판단하여 의사결정 및 추론하는 능력

- 비판적 사고력: 사물과 현상을 바라볼 때 그것과 다른 부분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하면서 사태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그 타당성, 정확성, 신뢰성, 가치성을 평가하여 합리적인 결론을 추론하는 사고 능력
- 감성적 사고력: 실리를 취하기보다는 가치있는 일을 선택하기 위해 감성에 기반하여 사고하는 능력

② 지적도구활용(Intellectual tools)

언어, 상징, 문자, 지식과 정보, 기술을 상호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개인이 세상과 적극적으로 대화하며 개인의 목적에 맞게 변화를 유도하고 기술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도구로서 언어, 상징, 문자, 지식과 정보,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

- 언어능력(읽기, 쓰기, 말하기): 글과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능력
- 수학능력: 개인 및 사회생활에서 수를 사용하여 정량적인 사고를 하는 능력
- 과학능력: 개인 및 사회생활에서 자연의 법칙을 이해하여 과학적 사고를 하는 능력

6) 이 부분은 성은모 부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 집필하였음.

7) 청소년 역량지수의 개념은 성은모 외(2013)에서 제시된 5가지 역량군과 16개의 하위역량군의 기본틀이 유지되었으며, 문항구성에서 하위역량군의 세부내용이 부분적으로 변경된 내역을 바탕으로 수정·보완하였음

- 정보통신활용능력: 정보를 수집, 분석, 처리, 표현하기 위해 컴퓨터를 포함한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하는 능력

③ 학습적응성(Learning agility)

- 지적호기심을 바탕으로 새롭게 접하는 상황이나 경험을 통해 신속하게 학습하는 능력
- 변화수용력: 외부의 자극이나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활용하는 능력
- 지적호기심: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을 좋아하는 성향
- 학습주도성: 자신의 학습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고 계획, 실행, 성찰하는 능력

생활관리역량(Life management competency)은 자신이 삶속에서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여 자신과 자신의 삶을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한다.

① 건강관리(Health)

자신의 건강 및 신체에 대한 기능을 정확하게 인식하여 신체를 단련하고 관리하는 능력

- 안전 및 스트레스 관리 능력: 안전수칙이나 규칙을 숙지하고 안전사고 발생시 상황에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각종 스트레스를 관리하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능력
- 신체관리능력: 운동을 통해 자신의 신체를 단련하고 음식 및 생활습관을 조절함으로써 자신의 신체를 관리하는 능력
- 위생관리: 개인위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식사후 양치질이나 비누로 손씻기 등을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능력

② 과제관리(Task management)

삶을 위해 행하여하는 모든 삶의 과제(학업, 일, 운동, 시간, 경제, 신체 등)에 대한 목표 설정, 실행계획, 실행 및 자기점검, 그리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

- 목표 및 계획 수립: 삶의 과제 단위별(학업, 일, 운동, 시간, 경제, 신체 등)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일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계획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
- 수행 및 평가: 목표달성을 위해 과제 수행 과정을 지속적으로 자기점검하고 평가하는 능력

③ 상황대처(Situation handle & management)

개인 또는 사회적 문제상황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

- 중독인식: 휴대폰, 인터넷 또는 컴퓨터 매체를 사용하는 과정속에서 자신이 중독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제어하는 능력
- 중독행동: 휴대폰, 인터넷 또는 컴퓨터 매체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하여 자신이 중독되었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함으로써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도록 하는 행동
- 폭력행동: 힘자랑이나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하여 남을 괴롭히며, 재미나 스트레스 해소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행동
- 폭력회피: 자신이나 타인의 신체 및 정신적 위협에 대해 대처방법을 모르고 이를 두려워하여 회피하려는 행동

④ 정서조절(Affective control and management)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외부의 반응에 대해 자신의 감정 에너지를 유용하고 사회적으로 수용되는 방식으로 표현하도록 조절하는 능력

- 감정인식: 자신의 기분이나 감정상태에 주의를 기울여 자신의 기분이나 감정상태를 인식하는 능력
- 분노행동: 기분이 상하거나 화가나면 욕하거나 소리를 지르고 물건등을 집어던지는 등 화나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표현하는 행동
- 감정절제: 슬프거나 힘들일을 당해도 잘이겨내며, 화나거나 기분이 상해도 지나친 표현이나 행동을 자제하는 능력
- 조절실패: 주변의 상황에 따라 쉽게 기분이 변하며, 자신의 변화된 기분에 따라 언어나 행동 통제가 어려운 상태

진로개발역량(Career development competency)은 일생에 걸쳐 한 개인의 생애 역할, 경험, 관계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개인의 흥미와 적성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과 차별화되는 독특성을 개발하고 인생의 경험의 폭을 넓혀가며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역량을 의미한다.

① 진로설계(Career design)

자신을 성찰함으로써 자신의 미래 비전에 따른 흥미와 적성에 부합하는 진로를 지속적으로

탐색하고 설계할 수 있는 능력

- 자기탐색: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직업적 소질, 적성을 파악하고 자신이 처한 사회적 환경적 특징을 이해하는 능력
- 직업 탐색: 직업 정보를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집하여 자신이 원하는 직업에 대한 특징을 조사하고 정리하는 능력
- 진로준비: 자신이 희망하는 진로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공부를 스스로 찾아서 준비하는 능력
- 직업가치관: 직업의 보수나 물질적인 중요도 보다 자신이 하고싶은 일을 위해 도전함으로써 얻는 행복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능력

② 여가활용(Leisure use)

진정한 의미의 여가를 즐기고 여가경험을 통해 최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능력

- 여가태도: 자신의 요구와 필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여가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능력
- 여가유능감: 여가활동에 있어 능숙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 여가활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행동하는 능력
- 여가 몰입: 여가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흥미를 느끼고 몰입하는 능력
- 여가 만족: 여가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활동에 대한 반성과 성찰활동을 통해 만족을 느끼는 능력

③ 개척정신(Pioneer spirit)

예측 불가능한 환경 속에서 위기를 기회로 인식하여 새로운 가능성으로 인지하며, 이를 관리, 조직, 개발시키려는 태도와 능력(김경훈 외, 2012; 영국 EFU)

- 차별화 태도: 사물이나 현상을 다르게 분석하고 이해함으로써 독창적이고 차별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해내려는 사고방식
- 도전정신: 불확실성을 새로운 해결책을 만들 수 있는 기회로 인식하고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에 도전하는 실천적 능력

대인관계역량(Interpersonal relationship competency)은 개인 또는 집단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타인들과 개방적으로 관계를 형성하고,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주도적으로 협력하여 의사소통하는 역량을 의미한다.

① 관계형성(Relationship building)

타인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로 협동하며, 가족, 교우, 사회를 신뢰하여 개방적인 태도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역량

- 자기개방성: 주변 사람들이나 가족에게 자신의 비밀문제를 이야기하며 상의하는 성향
- 친화성: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에게 정당하게 대우해준다고 생각하는 성향
- 의사소통: 타인의 감정이나 의도를 정확하게 경청하고, 자신의 감정이나 의사를 타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하는 역량
- 공감 및 배려: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자신의 행동을 포함한 세계를 바라보며, 다른 사람의 관점과 역할을 수용하는 능력

② 리더십(Leadership)

개인인 삶에 대한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의 맥락적 상황을 파악하여, 효과적, 효율적으로 일이 수행될 수 있도록 가치로운 의사결정을 하여 추진하는 역량

- 의사결정: 근본적인 가치 및 그와 관련된 요소들을 이해함으로써 집단에서 적절한 의사결정 내리는 역량
- 집단활동 관리: 집단 관련 업무 전반을 파악하여 구성원들간 협력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율하는 역량
- 추진력: 공동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다양한 전략을 구상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역량

③ 협동(team work)

공동의 목표를 위해 집단 구성원들과 협력하여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집단 구성원이 원활하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집단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

- 집단 촉진: 구성원을 격려하고 권한을 부여해주며 자신감을 불어넣어 줌으로써 자신의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량
- 팔로워십: 리더와 함께 집단의 비전과 목적을 공유하는 사람으로서 집단 내에서 실질적인

역할 수행하고 리더와 집단의 성공을 좌우하는 리더의 파트너이자 집단의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능력

- 갈등 문제 해결: 구성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집단 협동 진행에 관한 최신의 정보를 제공해주고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여 집단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

사회참여역량(Social participation competency)은 청소년이 민주시민으로서 사회적 선을 위하여 타인과 협력하고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역량을 의미한다.

① 개인 시민성(Personal citizenship)

시민의 일원으로서 사회참여의 기초가 되는 민주적 가치, 신념을 갖추기 위한 역량

- 권리·책임 의식: 권리 및 책임의 개념을 이해하고 그 범주를 설정하고 사회적 규범과 도덕적 책임을 지키려는 능력
- 민주적 절차 및 의식: 사회적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는데 있어 여러 사람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사결정을 하려는 능력
- 정치적 관심 및 정치적 자아효능감: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정치적 이슈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표현 또는 설명할 수 있는 능력

② 공동체 시민성(Community citizenship)

사회통합을 지향하며 민주적 원리를 존중하며 가정, 학교,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참여하고 봉사하는데 갖추어야 할 역량

- 공적실천: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하여 인권보호 및 증진, 환경보호 운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역공동체발전을 실천하려는 태도
- 사회적 신뢰: 지역사회를 구성하고는 있는 공적기관(정부, 국회, 정당, 법원, 경찰, 군대, 학교, 미디어) 등에 대한 신뢰의 정도
- 적극적 정치참여: 현재 또는 성인이 된 후에 사회적 변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투표 등 정치 참여 행동을 통해 개인의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 또는 정치에 대한 관심을 갖는 태도
- 교실 개방성: 수업시간에 정치적·사회적 이슈를 선생님과 학생들이 자유롭게 토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해하려는 태도와 능력

③ 세계 시민성(Global citizenship)

인류 번영을 위해 세계시민으로서 협력하고 국제사회를 이해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역량

- 이민자에 대한 태도: 우리 민족이 아닌 외국인(빈곤국가)이나 소수민족(고려인, 조선족 등)이 우리나라로 이민해 오는 것에 대한 허용 태도와 국내에서 제공하는 교육 및 투표권 등에 사회참여에 대한 허용 태도
- 국가 및 역사의식: 국가의 역사와 정치, 경제 등의 사회제도에 대해 일체감을 가지고 집단 가치에 대해 받아 드릴 수 있는 의식 및 태도
- 국제관계 이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자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정치적 사회적 문제를 인식하고 자국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협력하는 능력
- 성인지: 국제사회에 있어 남녀의 특성을 인지하고 성역할을 구분하는 능력

역량군	하위역량	세부내용
생애학습역량 (Life-long learning competency) 사회의 변화에 맞추어 자신의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생애에 걸쳐 지속적으로 학습하는 능력	• 사고력(Thinking) :비판적 사고를 바탕으로 현상을 객관적 또는 감성적으로 판단하여 의사결정 및 추론하는 능력	• 비판적 사고력 사물과 현상을 바라볼 때 그것과 다른 부분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하면서 사태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그 타당성, 정확성, 신뢰성, 가치성을 평가하여 합리적인 결론을 추론하는 사고 능력 • 감성적 사고력 실리를 취하기보다는 가치있는 일을 선택하기 위해 감성에 기반하여 사고하는 능력 • 언어능력(읽기, 쓰기, 말하기) 글과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능력 • 수확능력 개인 및 사회생활에서 수를 사용하여 정량적인 사고를 하는 능력 • 과학능력 개인 및 사회생활에서 자연의 법칙을 이해하여 과학적 사고를 하는 능력 • 정보통신활용능력 정보를 수집, 분석, 처리, 표현하기 위해 컴퓨터를 포함한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하는 능력 • 변화수용력 외부의 자극이나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며 활용하는 능력 • 지적 호기심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을 좋아하는 성향 • 학습주도성 자신의 학습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고 계획, 실행, 성찰하는 능력
	• 지적도구활용(Intellectual tools) 언어, 상징, 문자, 지식과 정보, 기술을 상호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개인이 세상과 적극적으로 대화하며 개인의 목적에 맞게 변화를 유도하고 기술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도구로서 언어, 상징, 문자, 지식과 정보,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	
	• 학습적응성(Learning agility) 지적호기심을 바탕으로 새롭게 접하는 상황이나 경험을 통해 신속하게 학습하는 능력	

표 IV-100

청소년 역량지수 구성체계에 따른 개념적 특징

역량군	하위역량	세부내용
생애학습역량 (Life-long learning competency) 사회의 변화에 맞추어 자신의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생애에 걸쳐 지속적으로 학습하는 능력	• 사고력(Thinking) :비판적 사고를 바탕으로 현상을 객관적 또는 감성적으로 판단하여 의사결정 및 추론하는 능력	• 비판적 사고력 사물과 현상을 바라볼 때 그것과 다른 부분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하면서 사태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그 타당성, 정확성, 신뢰성, 가치성을 평가하여 합리적인 결론을 추론하는 사고 능력 • 감성적 사고력 실리를 취하기보다는 가치있는 일을 선택하기 위해 감성에 기반하여 사고하는 능력 • 언어능력(읽기, 쓰기, 말하기) 글과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능력 • 수확능력 개인 및 사회생활에서 수를 사용하여 정량적인 사고를 하는 능력 • 과학능력 개인 및 사회생활에서 자연의 법칙을 이해하여 과학적 사고를 하는 능력 • 정보통신활용능력 정보를 수집, 분석, 처리, 표현하기 위해 컴퓨터를 포함한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하는 능력 • 변화수용력 외부의 자극이나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며 활용하는 능력 • 지적 호기심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을 좋아하는 성향 • 학습주도성 자신의 학습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고 계획, 실행, 성찰하는 능력
	• 지적도구활용(Intellectual tools) 언어, 상징, 문자, 지식과 정보, 기술을 상호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개인이 세상과 적극적으로 대화하며 개인의 목적에 맞게 변화를 유도하고 기술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도구로서 언어, 상징, 문자, 지식과 정보,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	
	• 학습적응성(Learning agility) 지적호기심을 바탕으로 새롭게 접하는 상황이나 경험을 통해 신속하게 학습하는 능력	

역량군	하위역량	세부내용
생애학습역량 (Life-long learning competency) 사회의 변화에 맞추어 자신의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생애에 걸쳐 지속적으로 학습하는 능력	• 사고력(Thinking) :비판적 사고를 바탕으로 현상을 객관적 또는 감성적으로 판단하여 의사결정 및 추론하는 능력	• 비판적 사고력 사물과 현상을 바라볼 때 그것과 다른 부분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하면서 사태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그 타당성, 정확성, 신뢰성, 가치성을 평가하여 합리적인 결론을 추론하는 사고 능력 • 감성적 사고력 실리를 취하기보다는 가치있는 일을 선택하기 위해 감성에 기반하여 사고하는 능력 • 언어능력(읽기, 쓰기, 말하기) 글과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능력 • 수학능력 개인 및 사회생활에서 수를 사용하여 정량적인 사고를 하는 능력 • 과학능력 개인 및 사회생활에서 자연의 법칙을 이해하여 과학적 사고를 하는 능력 • 정보통신활용능력 정보를 수집, 분석, 처리, 표현하기 위해 컴퓨터를 포함한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하는 능력 • 변화수용력 외부의 자극이나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며 활용하는 능력 • 지적 호기심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을 좋아하는 성향 • 학습주도성 자신의 학습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고 계획, 실행, 성찰하는 능력
	• 지적도구활용(Intellectual tools) 언어, 상징, 문자, 지식과 정보, 기술을 상호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개인이 세상과 적극적으로 대화하며 개인의 목적에 맞게 변화를 유도하고 기술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도구로서 언어, 상징, 문자, 지식과 정보,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	
	• 학습적응성(Learning agility) 지적호기심을 바탕으로 새롭게 접하는 상황이나 경험을 통해 신속하게 학습하는 능력	

표 IV-100

청소년 역량지수 구성체계에 따른 개념적 특징

역량군	하위역량	세부내용
생애학습역량 (Life-long learning competency) 사회의 변화에 맞추어 자신의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생애에 걸쳐 지속적으로 학습하는 능력	• 사고력(Thinking) :비판적 사고를 바탕으로 현상을 객관적 또는 감성적으로 판단하여 의사결정 및 추론하는 능력	• 비판적 사고력 사물과 현상을 바라볼 때 그것과 다른 부분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하면서 사태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그 타당성, 정확성, 신뢰성, 가치성을 평가하여 합리적인 결론을 추론하는 사고 능력 • 감성적 사고력 실리를 취하기보다는 가치있는 일을 선택하기 위해 감성에 기반하여 사고하는 능력 • 언어능력(읽기, 쓰기, 말하기) 글과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능력 • 수화능력 개인 및 사회생활에서 수를 사용하여 정량적인 사고를 하는 능력 • 과학능력 개인 및 사회생활에서 자연의 법칙을 이해하여 과학적 사고를 하는 능력 • 정보통신활용능력 정보를 수집, 분석, 처리, 표현하기 위해 컴퓨터를 포함한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하는 능력 • 변화수용력 외부의 자극이나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며 활용하는 능력 • 지적 호기심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을 좋아하는 성향 • 학습주도성 자신의 학습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고 계획, 실행, 성찰하는 능력
	• 지적도구활용(Intellectual tools) 언어, 상징, 문자, 지식과 정보, 기술을 상호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개인이 세상과 적극적으로 대화하며 개인의 목적에 맞게 변화를 유도하고 기술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도구로서 언어, 상징, 문자, 지식과 정보,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	
	• 학습적응성(Learning agility) 지적호기심을 바탕으로 새롭게 접하는 상황이나 경험을 통해 신속하게 학습하는 능력	

역량군	하위역량	세부내용
생애학습역량 (Life-long learning competency) 사회의 변화에 맞추어 자신의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생애에 걸쳐 지속적으로 학습하는 능력	• 사고력(Thinking) :비판적 사고를 바탕으로 현상을 객관적 또는 감성적으로 판단하여 의사결정 및 추론하는 능력	• 비판적 사고력 사물과 현상을 바라볼 때 그것과 다른 부분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하면서 사태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그 타당성, 정확성, 신뢰성, 가치성을 평가하여 합리적인 결론을 추론하는 사고 능력 • 감성적 사고력 실리를 취하기보다는 가치있는 일을 선택하기 위해 감성에 기반하여 사고하는 능력 • 언어능력(읽기, 쓰기, 말하기) 글과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능력 • 수학능력 개인 및 사회생활에서 수를 사용하여 정량적인 사고를 하는 능력 • 과학능력 개인 및 사회생활에서 자연의 법칙을 이해하여 과학적 사고를 하는 능력 • 정보통신활용능력 정보를 수집, 분석, 처리, 표현하기 위해 컴퓨터를 포함한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하는 능력 • 변화수용력 외부의 자극이나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며 활용하는 능력 • 지적 호기심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을 좋아하는 성향 • 학습주도성 자신의 학습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고 계획, 실행, 성찰하는 능력
	• 지적도구활용(Intellectual tools) 언어, 상징, 문자, 지식과 정보, 기술을 상호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개인이 세상과 적극적으로 대화하며 개인의 목적에 맞게 변화를 유도하고 기술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도구로서 언어, 상징, 문자, 지식과 정보,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	
	• 학습적응성(Learning agility) 지적호기심을 바탕으로 새롭게 접하는 상황이나 경험을 통해 신속하게 학습하는 능력	

표 IV-100

청소년 역량지수 구성체계에 따른 개념적 특징

역량군	하위역량	세부내용
생애학습역량 (Life-long learning competency) 사회의 변화에 맞추어 자신의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생애에 걸쳐 지속적으로 학습하는 능력	• 사고력(Thinking) :비판적 사고를 바탕으로 현상을 객관적 또는 감성적으로 판단하여 의사결정 및 추론하는 능력	• 비판적 사고력 사물과 현상을 바라볼 때 그것과 다른 부분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하면서 사태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그 타당성, 정확성, 신뢰성, 가치성을 평가하여 합리적인 결론을 추론하는 사고 능력 • 감성적 사고력 실리를 취하기보다는 가치있는 일을 선택하기 위해 감성에 기반하여 사고하는 능력 • 언어능력(읽기, 쓰기, 말하기) 글과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능력 • 수화능력 개인 및 사회생활에서 수를 사용하여 정량적인 사고를 하는 능력 • 과학능력 개인 및 사회생활에서 자연의 법칙을 이해하여 과학적 사고를 하는 능력 • 정보통신활용능력 정보를 수집, 분석, 처리, 표현하기 위해 컴퓨터를 포함한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하는 능력 • 변화수용력 외부의 자극이나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며 활용하는 능력 • 지적 호기심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을 좋아하는 성향 • 학습주도성 자신의 학습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고 계획, 실행, 성찰하는 능력
	• 지적도구활용(Intellectual tools) 언어, 상징, 문자, 지식과 정보, 기술을 상호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개인이 세상과 적극적으로 대화하며 개인의 목적에 맞게 변화를 유도하고 기술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도구로서 언어, 상징, 문자, 지식과 정보,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	
	• 학습적응성(Learning agility) 지적호기심을 바탕으로 새롭게 접하는 상황이나 경험을 통해 신속하게 학습하는 능력	

역량군	하위역량	세부내용
생애학습역량 (Life-long learning competency) 사회의 변화에 맞추어 자신의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생애에 걸쳐 지속적으로 학습하는 능력	• 사고력(Thinking) :비판적 사고를 바탕으로 현상을 객관적 또는 감성적으로 판단하여 의사결정 및 추론하는 능력	• 비판적 사고력 사물과 현상을 바라볼 때 그것과 다른 부분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하면서 사태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그 타당성, 정확성, 신뢰성, 가치성을 평가하여 합리적인 결론을 추론하는 사고 능력 • 감성적 사고력 실리를 취하기보다는 가치있는 일을 선택하기 위해 감성에 기반하여 사고하는 능력 • 언어능력(읽기, 쓰기, 말하기) 글과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능력 • 수확능력 개인 및 사회생활에서 수를 사용하여 정량적인 사고를 하는 능력 • 과학능력 개인 및 사회생활에서 자연의 법칙을 이해하여 과학적 사고를 하는 능력 • 정보통신활용능력 정보를 수집, 분석, 처리, 표현하기 위해 컴퓨터를 포함한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하는 능력 • 변화수용력 외부의 자극이나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며 활용하는 능력 • 지적 호기심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을 좋아하는 성향 • 학습주도성 자신의 학습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고 계획, 실행, 성찰하는 능력
	• 지적도구활용(Intellectual tools) 언어, 상징, 문자, 지식과 정보, 기술을 상호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개인이 세상과 적극적으로 대화하며 개인의 목적에 맞게 변화를 유도하고 기술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도구로서 언어, 상징, 문자, 지식과 정보,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	
	• 학습적응성(Learning agility) 지적호기심을 바탕으로 새롭게 접하는 상황이나 경험을 통해 신속하게 학습하는 능력	

제 V 장

논의 및 정책제언

1. 논의
2. 정책제언

제 V 장 논의 및 정책제언*

1. 논의

이 연구는 제 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의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의 일환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5년에 걸친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연구: IEA ICCS 2016’ 연구추진계획 수립에 의거하여 실시된 1차년도 과제로서 국제비교를 위한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도구를 개발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또한 이 연구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 2013년도 시행되었던 「청소년 역량지수 개발 연구」(성은모 외, 2013)의 후속연구의 성격을 가짐과 동시에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연구: IEA ICCS 2016’의 1차년도 연구과제로써 청소년 역량을 경험·과학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도구를 개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다.

이를 위해 2013년도 실시된 「청소년 역량지수 개발 연구」에서 도출된 청소년 역량지수 체계 즉, 5가지 영역(생애학습역량, 생활관리역량, 진로개발역량, 대인관계역량, 사회참여역량) 16개 하위역량을 기반으로 하여 청소년 역량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도구를 개발하고 신뢰도와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청소년 역량군의 하위역량 구성체계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애학습역량 37문항, 생활관리역량 48문항, 진로개발역량 40문항, 대인관계역량 46문항, 사회참여역량 63문항 등 총 234문항이 최종적으로 개발되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각 역량별 측정도구 개발 관련 논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생애학습역량은 ‘사회의 변화에 맞추어 자신의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생애에 걸쳐 지속적으로 학습하는 능력’이라는 정의와 함께 사고력, 지적도구활용, 그리고 학습적응성의

* 이 장의 성은모 부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백혜정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진성희 교수(인하대학교)가 공동으로 집필하였으며, 사회참여역량 관련 내용의 부분은 협동연구과제 연구책임자 김태준 연구위원(한국교육개발원)이 집필한 보고서 ‘김태준 (2014).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도구개발 및 국제비교연구 I: 사회참여역량’의 일부를 요약정리하였음.

하위역량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이는 기존 생애역량과 구별되는 주요한 특성으로써 급격히 변화하는 미래사회의 특성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학습(learning)’을 통해 변화하여야 한다는 관점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보다 확보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사고력은 비판적사고력과 더불어 감성적 사고력을 청소년이 갖추어야 할 역량의 주요특성으로 부각시킨 점은 공감, 배려, 그리고 소통을 강조하는 시대적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써 보다 지성과 감성이 균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역량을 구성하였다는 점이 기존 역량과의 차별성이라 할 수 있겠다. 지적도구활용은 OECD의 DeSeCo 연구나, 미국의 EFF 프로젝트 등 국제적으로 중요하게 강조하는 역량일뿐만 아니라 21세기 미래에 갖추어야 할 역량(Bellanca, & Brandt, 2010)으로써 언어능력, 수학능력, 과학능력, 정보통신활용능력을 균등히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적으로 청소년 역량을 비교분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학습적응성이 기존 청소년 역량과 비교하였을 때 가장 차별성을 둔 역량이라 할 수 있다. 학습적응성이야 말로 미래지향적 청소년이 갖추어야 할 핵심역량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미래사회는 보다 급격하게 변화하고 그 변화에 적응 또는 변화를 주도하는 역량을 갖춘 인재가 핵심인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맞춰 청소년은 미래사회에서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초역량(최동선 외, 2010)으로써 학습적응성을 신장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생활관리역량은 ‘자신이 삶속에서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여 자신과 자신의 삶을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라는 정의와 함께 건강관리, 과제관리, 상황대처, 그리고 정서조절 등의 하위역량으로 구성되었다. 생활관리역량은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과의 상호작용속에서 형성되며, 상호작용의 질이 이들의 역량의 수준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청소년 시기는 주변환경의 변화에 민감하게 상호작용함으로써 인지적, 정신적 발달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생태학적 관점으로 접근하여 청소년들이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자신이 주체가 되어 자신의 생활을 주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는 역량에 초점을 두어 생활관리역량을 제안하였다. 건강관리는 청소년 시기에 가장 핵심적으로 신장시켜야 할 역량이라 할 수 있다. 초기 건강관리에 대한 습관이 이후 청소년 시기나 성인 이후의 시기까지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기존 개인의 운동이나 위생을 통한 신체관리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사회적 안전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역량이 매우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안전 및 스트레스 관리 능력’은 기존의 역량들과 차별을 두면서도 시대적으로 요구하는 핵심역량의 주요특성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과제관리는 개인의 생활이나 업무(공부나 일)를 수행하는데 있어 일관성 있고 계획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편적인 역량이라 할 수 있다. 상황대처와 정서조절 능력도 청소년 시기에 신장시켜야 할 역량중의 하나이다. 청소년 시기를 질풍노도의 시기라 하듯이 인지적, 정신적, 신체적 발달이 미성숙에서 성숙의 단계로 진행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유해 물질이나 유해 환경에 있어 스스로는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스스로의 삶을 건전하게 지키고 건강한 발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황대처 및 정서조절 역량을 증진시킬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진로개발역량은 ‘일생에 걸쳐 한 개인의 생애 역할, 경험, 관계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개인의 흥미와 적성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과 차별화되는 독특성을 개발하고 인생의 경험의 폭을 넓혀가며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역량’이라는 정의와 함께, 진로설계, 여가활용, 그리고 개척정신 등의 하위역량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최근 장기간의 경제침체로 인한 청년실업률이 증가함에 따라 자기의 적성과 일치하지 않는 학습과 업무를 수행하고, 학교나 사회에서 부적응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면서(진성희, 성은모, 2012). 청소년기의 진로개발에 대한 역량 증진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그동안 청소년 진로개발역량 관련 선행연구에서는 진로개발을 진로설계에 초점을 둔 협의적 관점에서 보았으나 (류재운, 이유경, 201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2),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역할, 경험, 사회적 관계의 측면에서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과 차별화되는 독특성을 개발하고 인생의 경험의 폭을 넓혀가며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역량으로 접근하였다는 독특성이 있다. 또한 진로개발역량을 진로 그 자체에 초점을 두지 않고 보다 생애의 넓은 관점에서 자신의 삶의 조망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여가활용 역량과, 기존에 제시된 진로와 직업의 관점을 벗어나 자신의 적성에 부합하는 진로와 직업을 찾아 도전할 수 있는 개척정신역량을 강조한 진로개발역량은 개념적인 수준이 아니라 실제적인 현실수준과 미래사회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대인관계역량은 ‘개인 또는 집단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타인들과 개방적으로 관계를 형성하고,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주도적으로 협력하여 의사소통하는 역량’이라는 정의와 함께 관계형성, 리더십, 그리고 협동 등의 하위역량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대인관계역량은 기존의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을 타인과 관계를 형성하고 스스로 리더십을 발휘하여 협동을 통해 집단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역량으로 재개념화하였다(성은모 외, 2013, p.125).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공동체 내에서 의사결정할 힘을 갖고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질 줄 아는 자세 및 공동의 목표를 위해 집단 구성원들과 협력하여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집단 구성원이 원활하게 역할을 수행할

있도록 집단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대인관계 역량 척도를 개발하였다. 이렇게 개발된 대인관계 역량 척도가 타당하며 적합하다고 밝혀졌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는 것이라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사회참여역량은 ‘청소년이 민주시민으로서 사회적 선을 위하여 타인과 협력하고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역량’이라는 정의와 함께 개인 시민성, 공동체 시민성, 그리고 세계 시민성 등의 하위역량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사회참여역량에서는 청소년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하여 사회참여의 대상을 개인적, 공동체적, 세계시민적으로 구분하여 구성하였다. 개념과 지표는 ICCS의 민주시민역량의 개념 및 기타 청소년 역량 연구의 시민참여 역량의 개념을 바탕으로 개발되었지만 ICCS가 민주시민역량을 인지영역과 행동영역으로 나눈 것과 다르게 실천대상을 개인과 공동체, 세계 등 확장적 개념으로 나누어 청소년의 성장과 함께 그 대상의 폭이 확대 될 수 있음을 고려하였다. 또한 기존 역량은 국가정체성, 규칙준수, 참여의식, 공동체의식, 국제사회문화이해, 시민의식과 정직/정의, 책임, 윤리(어른공경) 등 역량의 범위와 대상에 대한 개념보다는 요소적인 개념으로 나열식으로 제시되어 있는 반면, 본 연구에서는 이를 개인시민성, 공동체 시민성, 세계 시민성으로 조직 규모에 따라 개인으로서 가져야 하는 시민성을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제시하였다(성은모 외 2013, p126에서 재인용).

이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도구 개발 연구가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제시된 청소년 역량지수의 구성체계와 개념적 정의는 기존의 역량관련 연구와 달리 보편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역량으로 구성되어 그 차별성을 확보하였다는 점이다. 기존 개발된 다양한 청소년 역량지수의 경우 학계나 현장의 보편적 인정을 끌어내지 못하였으며, 정책적으로도 일부 부서의 새로운 정책을 위한 논리적 뒷받침 정도로만 사용되어 왔다는 제한점이 있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제시된 청소년 역량지수의 구성체계와 개념적 정의의 구성은 청소년 학계전문가, 청소년 현장전문가, 그리고 청소년 정책관련 정부 공무원 및 전문가들의 합의를 통해 도출되었으며,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역량지수체계를 포함시킴으로써 청소년 현장과 국가정책의 실행을 위한 척도로 개발되었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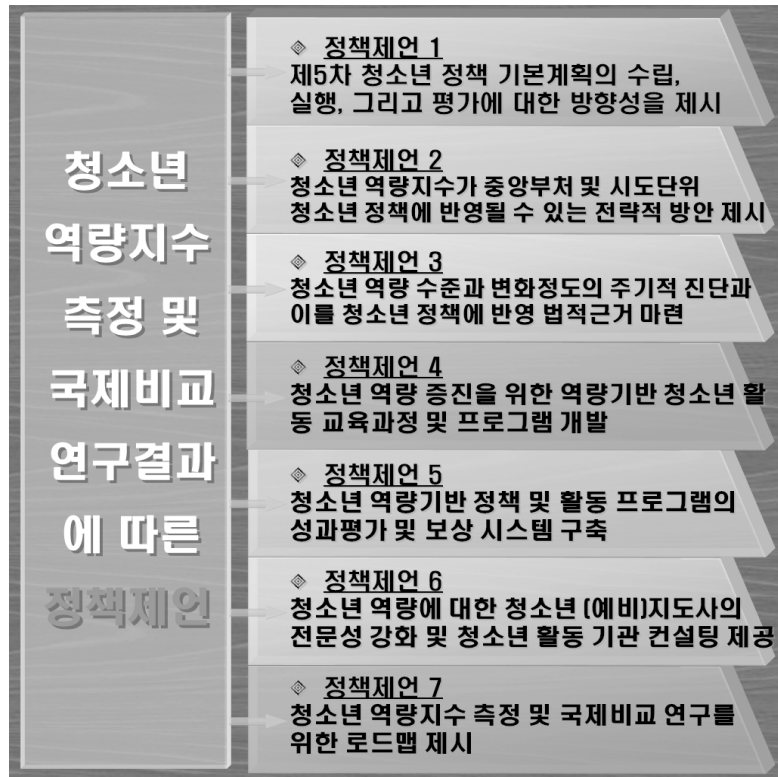
둘째, 청소년 정책의 중장기적인 변화를 역량중심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였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청소년 역량지수 구성체계와 측정도구 개발연구는 미래지향적 관점을 바탕으로 청소년들이 전 생애에 걸쳐 학교나 직업생활 뿐만 아니라 모든 생활 영역에서 성공적이고 효과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청소년의 역량을 규명하고 이를 측정하고자하는

지수를 개발하는 노력 속에서 이루어졌다. 이는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서부터 청소년 역량을 중요한 정책적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우 의미 있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국내외의 역량과 관련한 문헌의 검토 및 현재적 관점에서의 청소년 역량에 대한 논의과정을 거쳐 역량의 하위영역을 생애학습역량, 생활관리역량, 진로개발역량, 대인관계역량, 사회참여역량의 5개 군으로 구분하였으며, 이를 측정하기 위한 측정도구를 개발하였다는 것은 청소년 생활 영역 전반에 걸쳐 중요한 역량을 체계화시키는 물론 역량지수에 따른 정책 및 제도적인 부분에서 중요한 기초자료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겠다. 아울러 이러한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도구 개발은 학교교육과 청소년정책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청소년정책 개편과 정책과제의 변화가 동반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역량지수 구성체계와 측정도구 개발은 현재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역량을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어떠한 역량을 보다 구체적으로 신장시켜야 할지에 대한 거시적 관점에서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 역량지수의 구성체계에 따른 개념적 정의는 청소년 역량이 지향하는 목적이 될 수 있으며,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도구는 이러한 목적의 달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존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효과성 측정과 미래지향적 청소년 활동 역량증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청소년 역량의 증진이라는 목적과 이러한 목적을 구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측정도구, 그리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개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2. 정책적 제언¹⁾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도구 개발에 따른 논의와 시사점을 바탕으로 이러한 연구결과에 대한 실천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에 대한 제언을 제시해보면 [그림 V-1]과 같다.



[그림 V-1]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결과에 따른 7대 정책제언

1) 이 부분은 성은모 부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 집필하였음.

제5차 청소년 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실행, 그리고 평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

제5차 청소년 정책 기본계획(안)에서 청소년 역량 개념은 청소년 정책목표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청소년 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하고 건강하며 핵심역량을 갖춘 청소년”으로 풀이되는 비전에도 반영되어 있으며, 이를 위해 제5차 기본계획에는 청소년의 사회적 역량 및 인성강화를 위한 15개 정책, 청소년들의 참여·권리 및 자율적 역량강화를 위한 10개 정책,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을 위한 9개 정책, 청소년들의 기초 소양 및 지적 역량 강화를 위한 5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 정책의 성과를 확인하기 위한 도구로서 11개의 지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3개는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 자율적 행동 역량, 진로직업역량으로 구성되어 있다(성은모 외, 2013).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 강화	1. 청소년 역량증진 활동 활성화 2. 글로벌·다문화 역량 강화 3. 청소년의 인성 및 민주시민 교육 강화
청소년 참여 및 권리 증진	4. 청소년의 참여 활성화 5. 청소년의 건강권 보호 6. 청소년의 권리증진 기반 조성
청소년 복지 및 자립 지원	7. 대상별 맞춤형 서비스 강화 8. 위기청소년 보호·지원 강화 9. 청소년(청년) 진로체험 및 자립 지원
청소년 친화적 환경 조성	10. 건강한 가정 및 지역사회 조성 11.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12. 건전한 매체환경 조성 및 의식제고
청소년정책 추진 체계 강화	13. 범부처 정책 총괄·조정 기능 강화 14. 청소년 지원 인프라 보강 15. 청소년정책 추진기반 강화

[그림 V-2] 제5차 청소년 정책기본계획 체계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안)에 제시된 역량과 관련한 내용은 기본적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생애학습역량, 생활관리역량, 진로개발역량, 대인관계역량, 그리고 사회참여역량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더욱이 청소년 역량지수의 국제비교 가능성을 감안한다면,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역량의 개념이 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청소년 정책의 기본계획에 있어 청소년 정책을 다시 한 번 청소년 역량지수 구성체계에 맞춰 재구성해봄으로써 현장에서의 실제적인 활용계획의 수립과 실행정책의 적용가능성, 그리고 이를 평가할 수 있는 방향성에 대한 조정(alignment)을 할 필요성이 있다. 실제 청소년 정책의 하위과제를 보면 ‘청소년 참여 및 권리증진’의 경우 ‘4. 청소년 참여의 활성화’, ‘5. 청소년 건강권 보호, 그리고 ‘6. 청소년의 권리증진 기반 조성’ 등의 과제, ‘청소년 복지 및 자립지원’의 ‘9. 청소년(청년) 진로체험 및 자립지원’ 과제 ‘청소년 친화적 환경조성’의 경우, ‘10. 건강한 가정 및 지역사회 조성’, ‘11.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12. 건전한 매체환경 조성 및 의식제고’ 등의 과제들 역시 청소년 역량지수 체계에서 제시하는 내용과 유사한 정책이 많다. 보다 역량중심으로 접근을 한다면, 이러한 정책과제들이 실제 청소년들의 역량증진과 어떠한 관계 속에서 정책이 수립, 실행, 평가되고 있는지를 체계화 할 필요가 있다. 즉, 세부과제들을 역량목표에 따라 재분류 및 재정의하고 이들의 실천과제 목표를 명확하게 재설정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실제로 청소년 정책이 실제로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을 도모한다면, 청소년이 갖추어야 할 역량체계를 제시한 본 연구의 개념적 특성과 청소년의 역량을 구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측정도구를 기반으로 그 평가의 방향성을 다시 한 번 재조정한다면 청소년 역량 중심의 보다 일관성 있는 청소년 정책이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제언을 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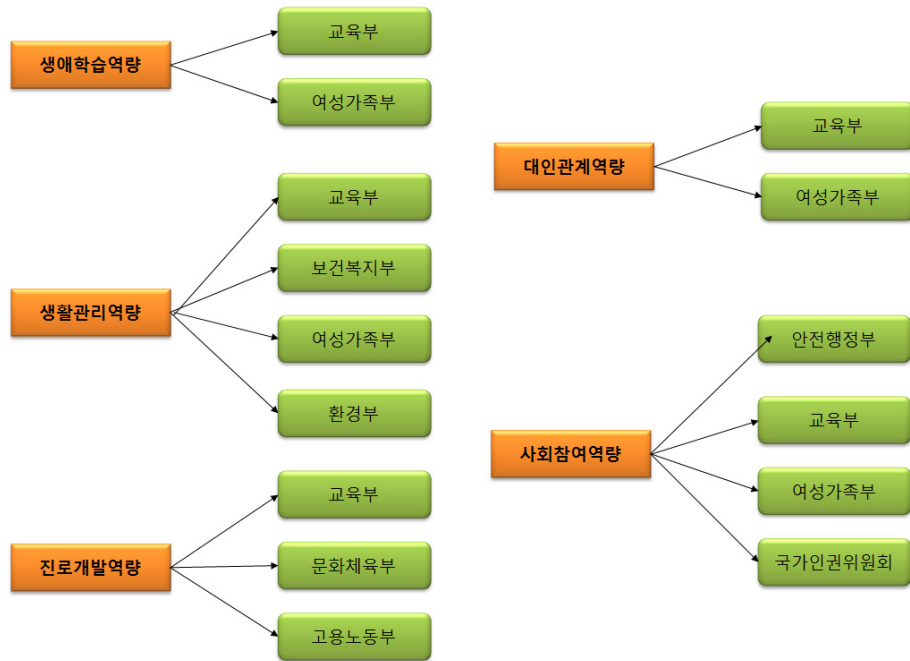
정책제언 2

청소년 역량지수 구성체계 및 측정도구 개발에 따라 중앙부처 및 시도단위 청소년 정책에도 적극 반영될 수 있는 전략적 방안을 제시

앞서 제시한 청소년 정책이 제 5차 청소년 정책 기본계획과 맞물려 적용된다면, 청소년 정책이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시도단위 청소년 정책에서 적극 반영될 수 있는 전략적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특히, 청소년 역량지수 개발이 보편적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인 연구라고 한다면, 이를 중앙부처에서 정책적으로 활용할 가능성과 그 범위는 매우 광범위 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생애학습’, ‘생활관리’, ‘진로개발’, ‘대인관계’, ‘사회참여’ 역량을 볼 때, 정부 어느 하나의 부처가 아니라 청소년과 관련된 정부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정책제언시도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중앙부처의 청소년 관련 정책사업을 청소년 역량기반으로 재분류 및

재배치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생애학습역량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에서, 생활관리역량은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환경부 등에서, 진로개발역량은 교육부, 문화체육부, 고용노동부 등에서 대인관계역량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에서, 그리고 사회참여역량은 : 안전행정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해당 정책을 시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V-3] 청소년 역33의 유관 중앙부처 관계도

이와 관련하여 시도 단위의 청소년 정책에 따른 청소년 역량지수 체계의 반영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시도 광역시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정책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각 시도에 부합하는 청소년 정책의 계획 수립, 실행, 평가를 하고 있다. 하지만 청소년 역량과 관련하여 목표를 설정하고나 청소년 역량을 정책과제 및 사업내용에 연결시키려는 노력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시도 단위의 청소년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각각이 사업과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에 나타난 청소년 역량과의 관계를 설정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청소년 정책 기본계획과 지자체의 청소년 활동과 관련한 사업 계획이 일관성을 갖추도록 하고, 역량 개념에 기초하여 각 사업의 목적을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실제 달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실제 성과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그렇지 않은 사업은 과감하게 조정함으로써 청소년 정책이 보다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성은모 외, 2013).

정책제언 3

청소년 역량 수준과 변화정도를 주기적으로 진단하고 이를 청소년 정책에 반영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

청소년 역량을 정책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현재 청소년의 역량 수준을 정확하게 진단하여야 하고, 이를 청소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2014년 중앙행정기관 시행계획」에 따르면, 2014년 ‘청소년 역량지수 개발’ 사업 중 하나로, 청소년역량지수(Youth Competencies Index) 법적 근거 마련’이 제시되어 있다. 향후 법적 근거를 기초로 매년 혹은 2~3년마다 정기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청소년 역량의 변화에 대하여 시계열 분석이 가능하도록 한다면,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도구의 활용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본 연구에서 제시한 청소년 역량지수는 국제 학력성취도 평가기구(IEA: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valuation of Educational Achievement)와 협력하여 청소년 역량을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자료를 산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활용도는 더욱 높아질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이러한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에 있어 다년연구의 특성을 발휘하여 청소년 역량 패널연구방식으로 진행될 수도 있을 것이다. 패널방식의 연구를 추진하면 앞서 언급한 청소년 역량 변화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 시기뿐만 아니라 청소년 시기의 역량이 이후 성인기에 어떻게 발현되어 나타나는지 등을 분석한다면 보다 의미있는 청소년 또는 청년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청소년의 역량함양과 역량의 발현이라는 관점에서 성장모형(growth model) 또는 경로모형(path model)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정선영(2014)에 의하면 ‘청소년활동의 종류와 참여 정도가 진로결정태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고교생 시기에 청소년활동(진로상담, 취업프로그램, 취미/특기 프로그램, 수련활동, 문화체험, 체력단련, 자원봉사, 교류활동 등)에 많이 참여할수록 어른에게 기대지 않고 자기 주도로 진로를 결정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확인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청소년 역량에 대한 시계열적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기의 체험의 범위와 경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 청소년들의 현재 전 영역에 걸친 생활을 효과적으로

영위하는 데 필요한 역량과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 효과적인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역량을 함양해 가는 데 효과적인 경로가 무엇인지 구체화해 갈 수 있다면, 이는 주요 정책의 수립이나 정책사업의 운영을 개선하는 데 구체적인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정책제언 4

청소년 역량 증진을 위한 역량기반 청소년 활동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

청소년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앞서 진행된 평가결과를 기반으로 어떠한 역량을 보다 더 신장시켜야 할 것인가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청소년과 함께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과 사회시대적인 요구를 반영하여 합의된 청소년 역량 개발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유럽연합은 청소년 역량 지수개발 이후에 각국에서 역량에 기반 교육과정을 새롭게 개발하고 이를 운영하는 형태로 국가의 교육과정의 틀을 역량기반의 학습체계로 전환하고 있다(김기현, 2009). 아울러 이를 생애 설계과정과 연계되어 개발될 수 있도록 하여 각 발달단계별 또는 학제별로의 연계적 설계를 갖추고 상호 연계적인 역량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최근 역량담론이 교육계에서도 활발히 논의되는 과정에서 학교교육이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역량중심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교육과정 개혁을 위한 중요한 의제로 부각되고 있다(소경희, 2010).

이를 위해 미래형 교육과정이 실행되고 있는 더욱 포괄적인 관점에서 청소년의 전 생활영역을 망라하는 청소년 역량지수 체계가 어떻게 학교 교육과정과 청소년 활동 교육과정의 연결고리를 역량기반으로 구체화하면서 저변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이러한 논의에 부합하는 미래형 청소년 역량기반 교육과정이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역량기반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개발에 있어서는 역량기반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역량지수 체계에 따른 활동 프로그램 개발될 필요가 있다. 청소년 역량기반 활동 프로그램 개발은 기존의 프로그램을 역량기반으로 수정보완하는 접근과 미래형교육과정을 기반으로 역량기반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새롭게 개발하는 접근이다.

기존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역량기반에 맞추어 수정보완하는 접근은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의 경제적 비용의 효과성과 개발된 프로그램의 활용적 측면에서 현장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새롭게 역량기반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기존의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청소년 역량에 맞추어 개편하도록 지원하고 이 속에서 프로그램의 재구조화와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아이디어가 도출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성공적인 프로그램 사례들을 발굴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활동현장성에 근거한 프로그램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과정 속에서 청소년지도사들의 전문성을 장기적 관점에서 강화시켜줄 수 있으며, 현재의 청소년활동 체계가 단기적 체험중심에서 중장기적 역량개발 중심으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새롭게 역량기반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개발을 위해서는 앞서 제시한 미래형 역량기반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균형적인 청소년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생애학습능력의 경우 사고력 신장을 위해서는 비판적 사고력과 더불어 감성적 사고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의 삶속에 경험할 수 있는 또는 할 법한 구체적인 맥락을 통하여 사고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이때, 지적도구활용 관련 역량들의 개념과 맥락을 활용하면 결국, 그 지적도구활용을 하는 과정자체가 사고력의 신장이 되기 때문에 결국, 지적도구활용을 위한 맥락구성은 사고력 신장을 위한 맥락적 환경을 제공한다 할 수 있겠다.

생활관리역량의 경우 건강관리 증진을 위하여 교사 및 부모 등을 대상으로 청소년기 신체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청소년에게는 다양한 교내외 체육대회 뿐 아니라 육상이나 등반, 구기 종목의 경기 등 청소년들이 재미있고 쉽게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체육행사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청소년들의 안전문제는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대두되었다. 청소년들에게 학교나 청소년 시설 및 단체 등을 통해 평상시에 정기적인 실습 및 훈련을 통해 안전사고에 대한 대처방안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정 인원 이상이 모이거나 이동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행사나 활동 시작 전 비상구 확인 및 대피 요령, 사고 발생 시 신고 요령 등 안전 관련 내용을 미리 공지하고 훈련하는 작업이 의무화될 필요가 있다.

과제관리역량과 관련해서는 대상별 접근이 필요하다. 가정환경 여건이 불리할수록 과제관리에 대한 청소년 역량이 낮기 때문에 소외 및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과제관리 역량 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할 필요가 있다.

상황대처능력 신장을 위해서는 정서조절능력과 더불어 병행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폭력 및 유해매체에 대한 대처능력이나 이에 따른 자신의 감정인식 및 조절능력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이때 청소년의 수준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개발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진로개발역량관련 연구결과에 기반하여 볼 때, 청소년들의 진로개발역량이 학교교육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에 대한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개발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청소년 시기에는 그 나머지 삶에 영향을 주는 중대한 결정이 일어나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이 시기에 진로개발은 상당히 중요하다. 아동과 청소년은 자신의 삶에 대한 충분한 계획과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안내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학령과 개인의 수준과 적성에 맞춘 개인 맞춤형 정보제공과 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구체적으로 저학년일 때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자신의 진로적성을 탐색하게 하고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개인의 적성과 관심, 능력에 맞는 다양한 체험활동과 진로적성 개발활동을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진로와 직업’이라는 교과목과 자신의 적성과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된 자유학기제는 그동안 등한시 해 왔던 진로개발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정책으로 실행되고 있는 좋은 사례라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수요자 요구에 부응하는 청소년들의 꿈과 끼를 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진로개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되어야 한다. 현재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개발 프로그램에는 적성검사, 직업에 대한 정보제공, 직업체험 프로그램에 한정되어 왔다. 일본의 경우 1998년 종합적 학습시간을 신설하여 진로직업체험활동에 참여하는 중고등학생이 70~80%에 이르렀고 진로교육이 학교중심에서 지역사회중심으로 전환되면서 청소년들이 자기이해에 기초한 적극적인 꿈을 설계하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강영배, 2013). 물론 우리나라에도 참여 중심형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나 선진국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향후 더욱더 확대되어야 한다. 청소년들이 일 또는 직업과 관련된 진로를 설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와 함께 청소년들의 차별화된 ‘끼’를 개발하여 개인적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본 연구에서 확인했듯이, 부모의 학력이 낮거나 경제적 지위가 낮은 청소년 또는 시골 또는 산간지역에 사는 청소년들에게 기회를 보다 많이 제공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산업체, 청소년단체, 지자체, 학교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다차원적인 진로개발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청소년의 진로지도는 정보 제공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데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임지연, 김정주, 2008). 청소년의 진로교육은 현장실습 또는 현장

경험이 기반이 되어야 하므로 학교 또는 청소년 단체가 독립적으로 교육을 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다양한 측면에서 학생들의 적성에 부합된 진로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산업체, 청소년단체, 지자체, 학교가 협력하여 새로운 교육모델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대인관계 역량을 증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청소년의 관계형성 능력뿐만 아니라 리더십 및 협동 능력을 강조한 것에 주안점을 두어, 기존과는 다른 차별화된 대인관계 역량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지역 사회 내에서 청소년들이 구체적인 목표를 갖고 프로젝트 형태로 진행되는 프로그램들을 통해 청소년들이 다양한 시각을 가진 구성원들을 이해하고, 공동체 내에서의 적극적 참여와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결국, 역량기반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개발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초기에는 기존의 프로그램을 청소년 역량에 맞추어 수정 및 보완하는 방식으로 저변을 확대하고, 더 나아가 보다 새로운 역량기반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청소년 활동 현장의 적응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높이는 전략이라 할 수 있겠다.

정책제언 5

청소년 역량기반 정책 및 활동 프로그램의 성과평가 및 보상 시스템 구축

청소년 역량기반 정책과제에 따른 청소년 단체나 기관, 시설 등에 지원되는 지원사업들의 기준을 재설정하고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역량에 기반한 성과달성 여부를 평가하고 이에 따른 실제적인 지원책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청소년 정책 영향 평가를 역량중심의 성과평가체계로 방향전환을 이끌어내는 노력 또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현재적 관점에서 연령별 역량지수를 평가하고, 부족한 역량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관점에서의 성과평가 및 보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그러나 전언한 바와 같이 프로그램의 실효성과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프로그램 개발이 설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적어도 중장기로 프로그램 실시가 가능한 기관과 정책연구원의 공동기획과 운영을 통한 프로그램 개발과 더불어 실효성에 따른 평가를 통한 현장성을 근거한 프로그램의 수정, 보완 작업을 통해 타 기관에서의 적용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서 정책과제와 현장과의 긴밀한 연결성을 높이고, 청소년 삶의 영역에서 역량을 지속적으로 개발시키고 이를 성과평가와 연결시키고 어떻게 지원하여 청소년 역량을 신장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시스템 구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정책제언 6

청소년 역량에 대한 청소년 (예비)지도사의 전문성 강화 및 청소년 활동 기관 컨설팅 제공

청소년 역량증진에 따른 청소년 활동과 청소년 정책이 효과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가장 일선에서 청소년들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 (예비)지도사에 대한 전문성 강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실제 청소년 활동 현장에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실행하는 주체가 청소년지도사라는 점을 감안할 때, 청소년 지도사들이 청소년 역량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은 역량에 기반한 청소년 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청소년 활동이 역량 개발 수단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역량의 개념을 바로 이해하고,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어떠한 수준의 역량인지를 파악하여 이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실행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예비 청소년 지도사들에 대해서는 각 대학에서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와 관련한 교과목의 내용을 강화하여 목표와 성과와의 관계에 대한 이해, 성과 측정 방법, 이에 기초한 프로그램 평가 등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직 청소년지도사에 대해서는 직무연수를 통하여 현행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및 소속 시도의 청소년 사업 계획 등의 내용을 숙지하도록 하고,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서 청소년 역량의 개념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청소년 역량 측정 도구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어떻게 사용하고 해석하는지 등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성은모 외, 2013).

아울러 청소년 지도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원하는 해당 청소년 기관에 대한 역량관련 컨설팅이 동시에 제공되어야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다. 청소년 지도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현장에서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를 기관의 지원 이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역량적 관점에서 청소년 기관의 전문성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프로그램의 질적 개선과 청소년 지도사에 대한 역량중심의 청소년 활동지원체계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를 위한 로드맵 제시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로드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5개년 추진되는 연구로서 1차년도(2014년)에는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도구 개발이 이루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2~3차년도(2015~2016)에는 IEA와 국제협력을 통해 ICCS 2016 국제비교연구를 실시하여 전국단위 청소년 역량에 대한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청소년에게 제공할 역량 증진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청소년 정책의 목적지향적 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4~5차년도(2017~2018)에는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을 주기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시계열적 분석이 이루어지고 한다. 또한 개발 및 보급된 청소년 역량 증진 프로그램의 효과성과 청소년 정책에 대한 성과평가를 진행함으로써 향후 6차 청소년 정책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정책적 결과물을 제언하고자 한다. 이러한 일련의 연구추진과정에 대한 로드맵을 도식화하여 제시하면 [그림 V-3]와 같다.



[그림 V-4]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추진 로드맵

.....

참 고 문 헌

[참고 문 헌]

- 강다겸, 장재홍 (2013). 여중생의 시샘, 질투 및 분노가 또래관계에서의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정서조절능력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9(3), 449-470.
- 강민수 (2001). **어머니와 자녀의 정서지능 관계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영배 (2013). 일본의 청소년 진로교육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에 관한 고찰. **일본문화연구**, 46, 5-31.
- 강태훈, 조혜영, 오민아 (2013). 교육 연구에서의 탐색적 요인분석 사용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교육방법연구**, 25(3), 521-541.
- 강현철 (2013). 구성타당도 평가에 있어서 요인분석의 활용. **대한간호학회지**, 43(5), 587-594.
- 관계부처합동 (2012).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서울: 여성가족부.
- 교육과학기술부 (2011a). **과학과 교육과정**(고시 제 2011-361호 [별책9]).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과학기술부 (2011a). **수학과 교육과정**(고시 제 2011-361호 [별책8]).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과학기술부 (2011b). **과학과 교육과정**(고시 제 2011-361호 [별책9]).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과학기술부 (2011b). **수학과 교육과정**(고시 제 2011-361호 [별책8]).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과학기술부 (2012). **국어과 교육과정**(고시 제 2012-14호 [별책5]).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김경훈 (2012). **미래 한국인의 핵심역량 증진을 위한 창의적 문제해결력 기반의 정보교육 정책 방향 탐색**.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서 RRC 2012-7.
- 김교현, 김원식 (2001). 한국판 행동활성화 및 행동억제 체계(BAS/BIS) 척도. **한국심리학회지:건강**, 6(2), 19-37
- 김기현 (2008). **청소년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 I**(연구보고 08-R15).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기현, 김지연, 장근영 (2008).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 I: 자율적**

- 행동에 관한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측정도구 개발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기현, 맹영임, 장근영, 구정화, 강영배 (2009).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Ⅱ: 총괄보고서.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기현, 맹영임, 장근영, 구정화, 강영배, 조문흠(2009).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Ⅱ: 총괄보고서(연구보고 10-R17).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기현, 장근영, 조광수, 박현주(2010). 청소년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Ⅲ:
 총괄보고서.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명숙 (2006). 비판적 사고성향 측정도구의 양호도 검증 연구, *교육과정평가연구*,
 9(1), 88-116.
 김문주 (2010). 팀 다양성과 팀 공유감이 팀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팀
 학습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미숙, 조춘범 (2014). 시설아동의 대인관계형성을 위한 나눔교육 프로그램 효과성
 검증. *한국아동복지학*, 45, 39-67.
 김봉환 · 정철영 · 김병석 (2006). *학교진로상담*. 서울: 학지사.
 김서현, 정은숙, 명소연, Batzoolboo, 정익중(2013). 청소년의 직업경험이 구직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자기주도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5(3),
 217-246.
 김선미. (2012). 대기업 구성원이 인식한 조직학습과 변화수용도의 관계에서 변혁적
 리더십의 조절효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성수 (2009). 여가만족과 여가몰입이 심리적 안녕감 및 자아실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안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성숙 (2009). 유아 리더십 유형 검사 도구 개발 및 타당화.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김언주, 심재영(2005). 청소년 리더십 프로그램의 모델에 관한 연구. *교육연구논총*,
 2(2), 129-154.
 김언주, 심재영 (2005). 청소년 리더십 프로그램의 모델에 관한 연구. *교육연구논총*,
 2(2), 129-154.
 김은주 (2013). 노인의 성공적 노화 측정도구에 대한 요인 구성타당도 평가. *대한간호학
 회지*, 43(4), 568-578.

- 김정대 (2001). **청소년참여를 통한 리더십 생활기술 프로그램 개발**.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중순 (1998). **초등학교 아동의 사고력 개발에 관한 실험연구**. 강남대학교 교육학연구 논문.
- 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09). **구조방정식모형으로 논문쓰기**.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주희 (2012). **한국 서비스업 직장인의 긍정심리자본과 도전정신이 창업자신감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진호 (2013).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활동경험이 청소년의 자기주도성에 미치는 영향. **미래청소년학회**, 10(1), 1-18.
- 김태준, 김안나 (2003). **사회적 자본 형성의 관점에서 본 시민의식 측정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김태준 (2009a).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Ⅱ: 사회적 상호작용 영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태준, 최상덕, 장근영, 이기홍, 전주혜 (2009b). **한국의 사회적 자본 실태 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김태준, 전인식, 변종임, 장혜승, 반재천, 조영하, 장근영, 이덕현, 한미진 (2010). **한국 청소년의 시민역량 국제비교 연구: 국제시민교육연구(ICCS) 참여**. 한국교육개발원.
- 김태준, 윤혜경(2008).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Ⅰ: 사회적 상호작용에 관한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측정도구 개발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남상인, 김영빈, 황매향, 정성경(2013). 영재 중학생의 대인관계능력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검증. **중등교육연구**, 61(4), 1087-1109.
- 문수백(2009). **구조방정식모델링의 이해와 적용**. 서울: 학지사.
- 문용린. (1996). **한국에서의 정서지능 측정연구**. 서울: 세종문화사.
- 박선영 (2011). 영국의 청소년 진로지도 정책 분석. **글로벌청소년학연구**, 1(2), 29-45.
- 박효수, 남길우, 엄나래 (2013). **2013년 인터넷중독 실태조사**. 서울: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정보화진흥원.
- 방미란 (2009). **학습자의 자기주도성 수준에 따른 JigsawⅡ와 GI 협동학습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순근, 김동일, 김미량, 김혜숙, 유예림, 박소, 김세원, 김미림 (2009). **중·고등학생용**

- ICT 리터러시 검사도구 개발 연구. **아시아교육연구**, 10(1), 175-198.
- 서동균 (2007). **대학생의 여가스포츠에 대한 의사결정균형과 여가기능, 여가몰입, 여가 유능감 관계의 구조모형분석**.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대학원.
- 서울특별시학교보건진흥원 (2009). **보건교사를 위한 보건 교육과정 운영 길라잡이**.
- 성은모, 오현석, 김윤영 (2013). 대학교육에서 산업형 융합인재 육성을 위한 융합프로젝트 교수학습모형 탐구. **교육방법연구**, 25(3), 543-580.
- 성은모, 최창욱, 김혜경, 오석영, 진성희 (2014). **청소년 역량지수 개발연구**. (연구보고 11-R50).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성희자, 권현수 (2010). 사회복지사의 직무긴장 척도의 타당성 연구. **직업능력개발연구**, 13(3), 147-171.
- 손태원 (1995). 학습조직과 시스템 사고의 이론적 배경. **경제연구**, 16(2), 109-131.
- 송미영, 임해미, 최혁준, 박혜영, 손수경 (2013). **OECD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 연구: PISA 2012 결과 보고서**(연구보고 RRE-2013-6-1).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양명희, 김은진 (2010). 정서조절이 학습전략에 미치는 영향: 정서를 매개로 하는 관계 검증. **교육심리연구**, 24(2), 449-467.
- 양병화 (2006). **다변량 데이터분석법의 이해**.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양한주 (1997). **중학생의 직업가치관과 직업 선호도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엄완용(2007). **청소년 리더십 생활기술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여성가족부(2014). **2014년 중앙행정기관 시행계획**. http://www.mogef.go.kr/korea/view/policy/policy02_02a.jsp?func=view¤tPage=0&key_type=&key=&search_start_date=&search_end_date=&class_id=0&idx=694620 에서 2014년 11월 2일 인출.
- 오종석 (2014). **초등과학영재아동과 일반아동 부모의 학습관여와 지적호기심 및 과학창의성의 관계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현석, 성은모 (2013). 융합재역량 분석. **아시아교육연구**, 14(4), 201-228.
- 오혜영, 전연진, 강석영, 이대형, 한지현, 채중민, 김수희 (2009). **학부모개입 지침서: 학교폭력**. 한국청소년상담원.
- 우옥영, 김대유, 김미경, 김향자, 유남숙 외 (2012). **초등학교 보건교육과정 연구**. 교육부.

- 우종필 (2012). **구조방정식 모델 개념과 이해**. 서울: 한나래출판사.
- 유진희(2010). **중·고등학생의 사고양식과 비판적 사고성향과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현숙·김태준·이석재·송선영 (2004). **국가 수준의 생애능력 표준설정 및 학습체제 질 관리 연구(III)(RR 2004-11)**.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윤명희, 김진화 (2007). **청소년의 생활역량 진단척도 개발과 프로그램 사례를 통한 효과분석**. 서울: 한국학술진흥재단.
- 윤정현 (1999). **호텔기업 종업원의 팀웍이 서비스 품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윤현석 (1997). **감성지능과 창의성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미선, 강영택, 김현진, 안수경, 유재연, 이영숙, 이준석 (2010). **특수교육 대상자 교육성과 실태조사 도구 개발 연구**. 충남: 국립특수교육원.
- 이석재, 장유경, 이현남, 박광엽. (2003). **생애능력 측정도구 개발 연구: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중심으로**(연구보고 RR 2003-15-3).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이정미, 이지연, 장진이(2012). **초등학생의 일상적인 스트레스와 공격성의 관계에서 정서조절 능력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19(5), 93-113.
- 이정순(2006). **청소년 리더십 기술관련 변인 탐색**. **교육연구**, 20, 151-174.
- 이정순(2006). **청소년 리더십 기술관련 변인 탐색**. **교육연구**, 20, 151-174.
- 이종범 (2005). **초등학생 진로발달 검사도구의 개발 및 타당화**.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종범(2008). **직업기초능력 수준별 성취기준 개발**.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이채식(2005). **청소년 리더십기술 영향요인에 관한 구조 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채식, 최영창(2007). **청소년리더십기술 결정요인분석**. **청소년행동연구**, 12, 1-14.
- 이해경, 연은경, 김혜원(2014). **낙관성향상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자기표현능력, 대인관계능력, 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 **청소년복지연구**, 16(1), 379-400.
- 이효녕, 권혁수, 박경숙, 이현동 (2013). **고등학생들의 시스템 사고 측정을 위한 측정 도구 개발과 타당화**. **한국과학교육학회지**, 33(5), 995-1006.
- 임언, 황규희, 오석영, 최수정, 박현정, 이수영, 정혜령, 강은진, 김세미(2011). **2011년**

- 국제성인역량조사 프로젝트(PIAAC) 사업.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교육과학기술부.
- 임영구. (2013). **시스템 사고력 향상을 위한 글쓰기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분석**.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임지연, 김정주 (2008). 국가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청소년직업체험활동의 현황과 과제. **청소년학연구**, 15(1), 143-170.
- 장석진, 연문희(2009). 애착이론에 근거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대인관계 문제 및 능력에 미치는 효과. **상담학연구**, 10(4), 2031-2054.
- 전겸구, 김동연, 이준석(2000). 한국판 상태-특성 분노 표현 척도(STAXI-K) 개발 연구: IV. **미술치료학회지**, 7(1), 33-50.
- 전명순(2012). **청소년 대인관계역량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성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전명순, 권일남(2012). 청소년의 대인관계역량 프로그램 개발 연구. **청소년학연구**, 19(6), 149-177.
- 전영숙 (2007). **노인 여가교육 프로그램이 노인의 여가인식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연구**. 서울여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전종수, 권미수, 양희인(2012). **2012년 정보문화실태조사**.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정보화진흥원.
- 정덕훈, 서진주 (2005). 공기업의 지식경영수준 진단평가를 통한 지식경영성공도와 변화수용도의 상관관계분석. **e-비즈니스연구**, 6(3), 421-437.
- 정민이. (2001). **비판적 사고를 강조한 과학 글쓰기 REDFREC 모형의 개발과 적용**.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용래 (2007). 정서조절곤란의 평가: 한국판 척도의 심리측정적 속성.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6(4), 1015-1038.
- 조지민, 동효관, 옥현진, 임해미, 정혜경, 손수경, 외. (2012). **OECD 국제학업성취도비교 연구: PISA 2012 본검사시행보고서**(연구보고RRE 2012-3-1).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조한익 (2013). 정서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정서조절과 학습전략의 매개효과 검증. **아동교육**, 22(1), 313-324.

- 진미석, 손유미 (2000). **중고등학생을 위한 진로지도체제 구축 방안 연구**.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진미석, 이수영, 채창균, 유한구, 박천수, 이성, 최동선, 옥준필 (2007). **대학생 직업기초능력 선정 및 문항 개발 연구**.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 최동선, 김나라, 김성남 (2009). **청소년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 II** (연구보고 09-R19-4).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최동선, 최수정, 이견남 (2010). **청소년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 III : 지적도구 활용 영역**(연구보고 10-R17-1).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최인재, 모상현, 강지현 (2011).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I**.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최창욱 (2001). **청소년의 리더십 생활기술과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하창순, 김지현, 최희철, 유현실 (2006). 청소년의 자기통제력, 학교수업 참여도, 개인 학습시간과 학업성적 간의 관계. **한국청소년연구**, 17(1), 181-200.
- 한국교육개발원(2006). **영재의 리더십 육성을 위한 기초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II): 리더십 검사도구의 타당성 및 신뢰성 분석**.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한국일보(2013.6.26.). **청소년 고민 1위, 대인관계서 스트레스로**. <http://www.hankookilbo.com/v/974c70973711415b92f22a3c7848aec3> 에서 2014년 11월 2일 인출.
- 한국정보화진흥원(2013). **2013 국가정보화백서**.
- 한상철, 김혜원, 설인자, 임영식, 조아미 (2014). **청소년 심리학**. 서울: 교육과학사.
- 황혜리, 김지윤 (2013). 놀이중심의 자기주도 학습능력 향상 프로그램이 저소득 청소년의 자기주도 학습능력, 정서지능 및 진로발달에 미치는 효과, **한국놀이치료학회지**, 16(4), 379-419.
- Anderson, J. C., & Kim, E. Y. (2009). Youth leadership development: Perceptions and preferences of urban students enrolled in a comprehensive agriculture program. *Journal of Agricultural Education*, 50(1), 8-20.
- Assaraf, O. B. Z., & Orion, N. (2005). Development of system thinking skills in the context of earth system education. *Journal of Research in Science Teaching*, 42(5), 518-560.

- Avolio, B. J., & Bass, B. M. (1995). *Multifactor leadership questionnaire*.
<https://www.google.co.kr/#newwindow=1&q=bass%20avolio%20multifactor%20leadership%20questionnaire>에서 2014년 4월 28일 인출.
- Avolio, B. J., & Bass, B. M. (1995). Multifactor leadership questionnaire.
<https://www.google.co.kr/#newwindow=1&q=bass%20avolio%20multifactor%20leadership%20questionnaire>에서 2014년 4월 28일 인출.
- Bagozzi, R. P., & Yi, Y.(1988). On the evaluation of structural equation models. *Journal of the Academy of Marketing Science*, 16(1), 74–94.
- Beard, J. & Ragheb, M. (1980). Measuring leisure satisfaction. *Journal of Leisure Research*, 12(1), 20–30.
- Beyer, B. K. (1985). Critical thinking: What is it?. *Social Education*, April, 270–276.
- Buhrmester, Furman, Wittenberg, & Reis(1988). Five domains of interpersonal competence in peer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5(6), 991–1008.
- Covin, J. G., & Slevin, D. P. (1986). The development and testing of an organizational–level entrepreneurship scale. *Frontiers of entrepreneurship research*, 1(1986), 626–639.
- Curran, P. J., West, S. G. & Finch, J. (1996). The robustness of test statistics to non-normality and specification error i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sychological methods*, 1(1), 16~29.
- Facionc, PA., & Facione, N.. (1992). *The California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s Inventory* (CC7D1). Millbrae, CA.: The California Academic Press.
- Facione, P. A. (1990). *The Delphi report. Critical thinking: A statement of expert consensus for purposes of educational assessment and instruction*. Millbrae, Calif: Californica Academia Press. ERIC Doc. No. 315 423.
- Gibbons, M.(2002). *The self-directed learning handbook*. San Francisco, CA: Jossey–Bass.
- Goleman, D. P. (1995). *Emotional intelligence: Why it can matter more than IQ for character, health and lifelong achievement*. New York: Bantam Books
- Greenhill, V. (2009). P21 Framework Definitions. Retrieved June 10, 2014, from

- http://www.p21.org/storage/documents/P21_Framework
- Hirayama, R., & Kusumi, T. (2004). Effect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on interpretation of controversial issues: evaluating evidences and drawing conclusions. *Japanese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52(2), 186–198.
- Kaiser, H. F. (1974). An index of factorial simplicity. *Psychometrika*, 39(1), 31–36.
- Lombardo, M. M., & Eichinger, R. W. (2000). High potentials as high learners. *Human Resource Management*, 39, 321–329.
- Maw, W. H. & Maw, E. W. (1964). *An Exploratory Invertigation into the Measurement of Curiosition Elementary Children*. Cooperative Research Project No, 801. University of Dalaware.
- Merrifield, J.(2000). *Equipped for the Future, Research Report*. Washington DC: NIFL.
- Mitchinson, A., & Morris, R (2012). Learning about learning agility. *Academy of Management Proceedings*, 2012(1), 1–18.
- OECD (2002). *DeSeCo Symposium: Discussion Paper*. OECD.
- OECD DeSeCo Project. (2006). *The Definition and Selection of Key Competencies: executive summary* [Electronic version]. Retrieved June 10, 2014, from <http://www.oecd.org/dataoecd/47/61/35070367.pdf>.
- Partnership for 21st century skills. (2009). *P21 Framework Definitions*. Retrieved June 10, 2014, from [http://www.p21.org/storage/documents/P21_Framework Definitions.pdf](http://www.p21.org/storage/documents/P21_Framework_Definitions.pdf).
- Rokeach, M. (1973). *The nature of human values*. New York: Free Press Lexington Books.
- Rychen, D. S. & Salganik, L. H. (2003). *Highlights from the OECD Project Definition and Selection Competencies: Theoretical and Conceptual Foundations (DeSeCo)*.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Educational search Association in Chicago.
- Schulz, W., & Sibberns, H.(2004). *IEA civic education study technical report, Amsterdam*, The Netherlands: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valuation of Educational Achievement.

- Schulz, W., Ainley, J., & Frailon, J. (2011). *ICCS 2009 Technical Report*. Amsterdam, The Netherlands: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valuation of Educational Achievement.
- Seever, B. S., & Dormody, T. J. (1995). Leadership life skills development: Perceptions of senior 4-h youth. *Journal of Extension*, 33(4). <http://www.joe.org/joe/1995august/rb1.php>에서 2014년 6월 13일 인출.
- Swisher, V. V., Hallenbeck, G. S., Orr, J. E., Eochinger, R. W, Lombardo, M. M. & Capretta, C. C.(2013). *FYI for learning agility* (2nd ed.). Lominger International: A Korn/Ferry Company.
- Tangney, J. P., Baumeister, R. F., & Boone, A. L. (2004). High self-control predicts good adjustment, better grades, and interpersonal success. *Journal of personality*, 72(2), 271-324. http://www.lawnb.com/lawinfo/contents_view.asp?cid=1067968D1E9C432A8EEB0A5810509D81|0|K(검색일: 2014. 6. 1)
- Voogt, J., & Roblin, N. P. (2010). 21st century skills. Discussienota. Zoetermeer: The Netherlands: Kennisnet.
- Wanberg, C. R., & Banas, J. T. (2000). Predictors and outcomes of openness to changes in a reorganizing workplace.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5(1), 132.
- Witt, P. A., & Ellis, G. D.(1982). *The leisure diagnostic battery remendiation guide*. North texas State University, Leisure Diagnostic Battery Project
- Yeh, Y. (2004). The Interactive Influences of Three Ecological Systems on R & D Employees' Technological Creativity. *Creativity Research Journal*, 16(1), 11-25.

.....

부록

부 록

ID	과제	교급	-	학교				-	학급	-	설문지연번	

청소년 역량 측정 조사

이 설문에서 얻어진 모든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비밀이 보호되도록 통계법(제3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
록

안녕하세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청소년의 인성 함양과 잠재력 계발, 디지털·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본 연구원에서는 ‘청소년 역량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의 일환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응답해 주신 조사내용은 여러분을 포함한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아동·청소년 정책 수립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모든 질문에는 맞고 틀린 것이 없습니다. 아울러 본 설문조사를 통해 얻은 정보는 본 조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응답에 대한 내용은 비밀이 보장됨을 약속드립니다.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4년 6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37-715)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http://www.nypi.re.kr>

주관기관		담당자	
수행기관		담당자	

※ 지금부터 설문지를 받은 학생이 각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내용을 선택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응답 시간	시작시간 : ____시 ____분 / 끝난시간 : ____시 ____분
응답자 성별	학생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자 ② 여자

설문지 작성 요령

설문지에는 여러분 자신에 관한 질문들이 들어 있습니다. 사실대로 대답해야 하는 질문도 있고, 여러분의 생각을 밝혀야 하는 질문도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을 잘 읽고 정확하고 솔직하게 응답해 주세요.

만일 이해가 되지 않거나 궁금한 것이 있으면 앞에 계신 면접원께 손을 들고 질문해도 좋습니다.

♣ 표시하는 방법

질문 다음에는 대개 1에서 4까지의 숫자 중 하나를 골라 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문장을 읽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 ‘매우 그렇다’ 면 4에, ‘그렇다’ 면 3에, ‘그렇지 않다’ 면 2에, ‘전혀 그렇지 않다’ 면 1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세요.

〈보기1〉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a	나는 국어 과목을 좋아한다	④	3	2	1

☞ 나는 국어 과목을 매우 좋아하기 때문에 ‘④’에 표시했습니다.

♣ 표시한 것을 바꾸고 싶을 때

〈보기2〉와 같이 처음 답을 한 곳에 가위표(X)를 하고 바꾸고 싶은 번호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세요. 지우개 또는 볼펜으로 지우지 않아도 됩니다.

〈보기2〉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a	나는 국어 과목을 좋아한다	4	3	2	①

[사고력]

※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분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해 주세요.

문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나는 어떤 행동이 가져올 전체적인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	4	3	2	1
2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있을 때 그 일의 부분적인 사항들과 최종 목표와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4	3	2	1
3	나는 다른 사람들이 말을 할 때 그 말이 논리적인지 또는 앞뒤가 맞는지를 따져본다.	4	3	2	1
4	복잡한 글을 읽고 이해하려는 노력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4	3	2	1
5	나는 어떤 사태에 대해 객관적이고 알맞은 근거를 바탕으로 판단하고 평가한다.	4	3	2	1
6	나는 어떤 주장에 대해서 판단할 때 다양한 방향(관점)에서 생각해 본다.	4	3	2	1
7	같은 물건이라면, 나는 브랜드와 상관없이 지적장애우들이 만든 상품으로 사겠다.	4	3	2	1
8	나는 다른 사람의 표정이나 말투만으로도 기분이나 감정을 잘 알아차리는 편이다.	4	3	2	1
9	나는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 그 일이 가치 있는 일이라면, 논리적인 판단보다는 감정과 느낌에 따라 판단한다.	4	3	2	1

[지적도구활용능력]_언어능력

※ 언어능력에 관한 각 문항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해 주세요.

	문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나는 공식적·비공식적인 상황에서 상대방의 말을 정리하여 듣고, 자신의 의견을 조리 있게 말한다.	4	3	2	1
2	나는 글의 중심내용을 찾아 글쓴이의 의도나 숨겨진 주제를 파악하며 읽는다.	4	3	2	1
3	나의 의견이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나는 다양한 표현 방법을 활용하여 글을 쓸 수 있다.	4	3	2	1
4	나는 국어를 좋아하기 때문에 국어 수업시간이 기다려진다.	4	3	2	1
5	나는 국어에서 배우는 것들에 대해 흥미가 있다.	4	3	2	1

[지적도구활용능력]_수학능력

※ 수학능력에 관한 각 문항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해 주세요.

	문항	매우 그렇 다	그렇 다	그렇 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6	나는 수학의 기본적인 개념, 원리, 법칙을 활용하여 다양한 계산을 할 수 있다.	4	3	2	1
7	나는 신문, 잡지, 또는 인터넷 등 우리 주위에서 흔히 관찰할 수 있는 자료를 표나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다.	4	3	2	1
8	나는 신문, 잡지, 또는 인터넷 등 우리 주위에서 흔히 관찰할 수 있는 표나 그래프를 이해할 수 있다.	4	3	2	1
9	나는 수학을 좋아하기 때문에 수학 수업 시간이 기다려진다.	4	3	2	1
10	나는 수학에서 배우는 것들에 대해 흥미가 있다.	4	3	2	1

[지적도구활용능력]_과학능력

※ 과학능력에 관한 각 문항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해 주세요.

문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1	나는 자연이나 과학적 현상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을 갖고 관찰, 실험, 조사 등 다양한 탐구활동을 한다.	4	3	2	1
12	나는 일상생활에서 적용되고 있는 과학적 원리를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	4	3	2	1
13	나는 자연현상에 대해 과학지식을 활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	4	3	2	1
14	나는 과학을 좋아하기 때문에 과학 수업시간이 기다려진다.	4	3	2	1
15	나는 과학에서 배우는 것들에 대해 흥미가 있다.	4	3	2	1
16	나는 과학 과목을 배울 때, 그 개념을 아주 잘 이해할 수 있다.	4	3	2	1
17	나는 과학 과목을 금방 배운다.	4	3	2	1

[지적도구활용능력]_정보통신활용능력

※ 컴퓨터 및 인터넷 활용에 관한 각 문항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해주세요.

	문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8	나는 컴퓨터와 인터넷의 활용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4	3	2	1
19	나는 컴퓨터나 인터넷상의 다양한 학습자료(인터넷 강의, 유튜브·TED 동영상, 웹문서 등)를 활용하여 학습할 수 있다.	4	3	2	1
20	나는 한글, 워드, 파워포인트, 엑셀, 포토샵, 그림판 등을 이용해 문서, 그림, 동영상 등을 작성 하거나 편집할 수 있다.	4	3	2	1
21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SNS(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등)를 통해 공유할 수 있다.	4	3	2	1

[학습적응성]

※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분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해 주세요.

문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나는 학습할 때 내 주변에서 발생하는 변화를 주도적으로 받아들인다.	4	3	2	1
2	새로 출시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지 않더라도, 나는 사용한다.	4	3	2	1
3	나는 무언가를 새롭게 배우거나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을 좋아한다.	4	3	2	1
4	나는 궁금한 것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질문한다.	4	3	2	1
5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이후에도 그 성공요인을 찾아낸다.	4	3	2	1
6	어떤 일을 하는데 있어서 실패했다면, 그 실패 원인을 분석한다.	4	3	2	1
7	나는 내가 한 일에 대해 다른 사람의 피드백을 받는다.	4	3	2	1

[진로설계]

※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분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해 주세요.

	문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평소에 관심을 갖고 생각하는 편이다.	4	3	2	1
3	나는 나에 대하여 좀 더 잘 알기 위해서 노력한다.	4	3	2	1
4	나의 성격에서 좋은 점이 무엇인지 안다.	4	3	2	1
5	내가 관심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안다.	4	3	2	1
7	관심있는 직업에서 성공한 사람의 삶을 소개한 책을 읽어보았다.	4	3	2	1
8	관심있는 직업을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인터넷에서 여러 정보를 검색하였다.	4	3	2	1
9	나의 장래희망과 관련된 직업에는 무엇이 있는지 조사해 보았다.	4	3	2	1
10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조사해 보았다.	4	3	2	1
11	돈과 관계없이 일을 하는 것 자체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다.	4	3	2	1
12	자신의 직업에 대하여 자랑스러움을 느끼는 사람이 많았다.	4	3	2	1
14	현실이 어렵더라도 하고 싶은 일을 위해 도전하는 삶이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	4	3	2	1
16	나는 부모님이 내 장래에 대해 무엇을 기대하는지 안다.	4	3	2	1
18	내가 원하는 직업인이 되기 위해서 관련된 과목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4	3	2	1
19	내가 원하는 직업(전공)을 갖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4	3	2	1
21	나는 나의 할 일을 스스로 해내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	4	3	2	1

※ 여러분들은 자신의 적성이나 성격을 알아보기 위해 검사에 참여해본 적이 있습니까?

없음	1회	2회	3회 이상
0	1	2	3

[여가활용]

※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분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해 주세요.

문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여가(취미)활동은 내가 더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이다.	4	3	2	1
2 여가(취미)활동은 중요하다.	4	3	2	1
3 여가(취미)활동은 내게 즐거운 경험들을 제공해준다.	4	3	2	1
4 여가(취미)활동은 상쾌함을 느끼게 한다.	4	3	2	1
5 바쁘더라도 여가(취미)활동에 참여한다.	4	3	2	1
6 나의 여가(취미)활동을 배우고 준비하는데 시간을 보내고 싶다.	4	3	2	1
7 여가시간에 친구들과끼리 모여 스포츠활동을 할 때 나는 그 무리를 중에 가장 대표하는 사람이라 생각한다.	4	3	2	1
8 내가 특별히 여가시간에 즐겨 할 만한 운동기술이 있다.	4	3	2	1
9 나는 내가 하는 거의 모든 여가스포츠활동에 능숙하다.	4	3	2	1
10 친구들과끼리 스포츠경기를 하게 되면 나는 보통 이기는 편이다.	4	3	2	1
11 내가 하고 있는 여가활동은 매우 흥미롭다.	4	3	2	1
12 나에게 무엇인가 이루어냈다는 마음을 가지게 한다.	4	3	2	1
13 나는 스포츠활동을 하는 동안 내 생각과 행동이 일치되는 것을 느낀다.	4	3	2	1
14 나는 여가스포츠활동을 할 때 정신집중이 잘 된다.	4	3	2	1
15 나는 여가스포츠활동을 하는 동안 상당히 몰입하게 된다.	4	3	2	1
16 나는 여가스포츠활동을 너무 열심히 한 나머지 가끔 시간 감각을 잃어버리기도 한다.	4	3	2	1

※ 여러분들은 취미활동(여가스포츠활동)을 일주일에 몇 시간정도 합니까?

없음	1시간 이내	1시간에서 2시간이내	2시간에서 3시간 이내	4시간 이상
0	1	2	3	4

[개척정신]

※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분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해 주세요.

문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내가 문제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내면 다른 사람들이 독특하다는 소리 자주 듣는다.	4	3	2	1
2	같은 사물, 현상을 다른 사람과 동일하게 바라볼 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때가 많다.	4	3	2	1
3	나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고 말하는 것을 쉽게 따라하지 않는다.	4	3	2	1
4	나는 늘 다른 사람이나 대상에 맞서 대들거나 반대하는 편이다	4	3	2	1
5	나는 문제를 혼자서 해결할 수 있다.	4	3	2	1
6	나는 전혀 경험이 없는 새로운 과제와 임무에 도전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4	3	2	1
7	나는 계속적으로 변하거나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일을 좋아하지 않는다.	4	3	2	1
8	나는 변화가 별로 없는 안정적인 환경을 좋아한다.	4	3	2	1

[관계형성]

※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분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해 주세요.

문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나는 친한 친구에게 나의 고민에 대해 의논할 수 있다.	4	3	2	1
2	나는 친한 친구에게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이야기할 수 있다.	4	3	2	1
3	나는 친한 친구에게 내 행동을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나로써 행동한다.	4	3	2	1
4	나는 새로운 친구에게 있는 그대로의 나에 대해 말할 수 있다.	4	3	2	1
5	나는 모르는 사람과도 쉽게 친해질 수 있다.	4	3	2	1
6	나는 친해지고 싶은 사람들에게 나 자신을 직접 소개한다.	4	3	2	1
7	나는 관심 있는 새로운 사람에게 어떤 일을 함께 하자고 제안하기도 한다.	4	3	2	1
8	나는 새로운 사람을 알아 가는 것이 재미있다.	4	3	2	1
9	나는 상대방의 눈을 보며 대화한다.	4	3	2	1
10	나는 상대방의 말이 이해가 안 되면 정확하게 알기 위해 질문을 한다.	4	3	2	1
11	나는 상대방의 몸짓이나 표정을 살피며 듣는다.	4	3	2	1
12	나는 상대방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내용을 요약하여 확인한다.	4	3	2	1
13	나는 다른 사람에게 말할 것이 있을 때, 주저하지 않고 바로 이야기 한다.	4	3	2	1
14	나는 상대방과 의견차이가 있을 때, 그것에 대해 좀 더 깊이 이야기 나눌 수 있다.	4	3	2	1
15	나는 다른 사람이 문제를 겪고 있을 때,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4	3	2	1
16	나는 상대방이 나의 말과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생각하면서 말하고 행동한다.	4	3	2	1
17	나는 바쁜 일이 있어도, 화가 난 친구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준다.	4	3	2	1
18	나는 나와 생각이 다르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선택을 존중한다.	4	3	2	1

[리더십]

※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분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해 주세요.

	문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9	나는 내가 속한 그룹의 의사결정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 본다.	4	3	2	1
20	나는 내가 속한 그룹의 의사결정을 위한 여러 방법 중 어떤 방법을 선택할지 기준을 정한다.	4	3	2	1
21	나는 내가 속한 그룹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우선순위를 생각하여 의사결정을 한다.	4	3	2	1
22	나는 내가 속한 그룹의 의사결정을 할 때, 어떤 방법이 더 좋은 지 비교해 본다.	4	3	2	1
23	나는 여러 사람들을 모아서 모임 또는 활동을 할 때, 주로 이끌어 나가는 편이다.	4	3	2	1
24	나는 그룹활동을 할 때, 각 구성원들의 역할을 골고루 잘 나누는 편이다.	4	3	2	1
25	나는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효과적으로 조화롭게 조정한다.	4	3	2	1
26	나는 그룹활동을 할 때, 활동목표를 제시하고 친구들을 이끌 수 있다.	4	3	2	1
27	나는 내가 속한 그룹의 목표를 완수하는 데 필요한 단계를 정할 수 있다.	4	3	2	1
28	나는 내가 속한 그룹의 계획을 실행할 때 발생할 어려움에 철저히 대비한다.	4	3	2	1
29	나는 내가 속한 그룹의 계획을 실행할 때,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밀고 나간다.	4	3	2	1
30	나는 그룹활동을 할 때, 문제를 해결할 시간을 명확하게 정하고 일을 추진한다.	4	3	2	1
31	나는 그룹활동을 할 때, 친구들의 능력과 의지를 생각하며 일을 추진한다.	4	3	2	1
32	나는 그룹활동을 할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본다.	4	3	2	1

[협동]

※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분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해 주세요.

문항		매우 그렇 다	그렇 다	그렇 지 않다	전혀 그렇 지않 다
33	나는 그룹활동을 할 때, 친구의 장점이나 능력을 적극적으로 알려 준다.	4	3	2	1
34	나는 그룹활동을 할 때, 친구가 어려워하면 기꺼이 돕는다.	4	3	2	1
35	나는 그룹활동을 할 때, 친구들이 의견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한다.	4	3	2	1
36	나는 그룹활동을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한다.	4	3	2	1
37	나는 그룹에서 하고 있는 활동이 의미있는 일이라는 것을 친구에게 이야기 한다.	4	3	2	1
38	나는 그룹활동을 할 때, 친구가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4	3	2	1
39	나는 그룹 활동을 할 때, 나의 역할에 최선을 다한다.	4	3	2	1
40	나는 그룹의 리더가 아니더라도 맡은 일보다 많은 일을 하여 그룹 활동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4	3	2	1
41	나는 내가 속한 그룹에서 가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한다.	4	3	2	1
42	나는 그룹에서 발생한 문제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한다.	4	3	2	1
43	나는 그룹의 문제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내용을 친구들과 공유한다.	4	3	2	1
44	나는 그룹에서 발생한 문제를 친구들과 자주 이야기한다.	4	3	2	1
45	나는 그룹활동을 할 때 중요한 사항이나 문제점이 생기면 친구들과 함께 해결한다.	4	3	2	1
46	나는 그룹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잘잘못을 따지기 보다는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4	3	2	1

[건강관리]

※ 자신의 건강과 관련하여 여러분들의 태도와 일치하는 곳에 ○표 해 주세요.

	문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식사 전이나 외출 후, 화장실에 다녀온 후 비누로 손을 씻는다.	4	3	2	1
2	속옷을 1~2일에 한 번씩 규칙적으로 갈아입는다.	4	3	2	1
3	식사 후에는 대부분 양치질을 한다.	4	3	2	1
4	건강을 위해 음식이나 운동, 생활 습관 등을 조절한다.	4	3	2	1
5	땀이 날 정도로 운동을 하거나 걷는다.	4	3	2	1
6	몸에 난 상처에 대한 응급치료 방법을 알고 있다.	4	3	2	1
7	병 유형에 따라 가야할 병원의 종류(예: 외과, 내과, 피부과, 이비인후과 등)를 알고 있다.	4	3	2	1
8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수칙이나 규칙을 잘 지킨다.	4	3	2	1
9	화재 발생 시 대처 요령에 대해 잘 알고 있다.	4	3	2	1
10	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일이나 공부를 하는 중간 중간 적당한 휴식을 취한다.	4	3	2	1
11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적절한 여가 생활을 가지고 있다.	4	3	2	1

[과제관리]

※ 어떤 일을 할 때에 여러분들의 행동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해 주세요.

문항		매우 그렇 다	그렇 다	그렇 지 않다	전혀 그렇 지않 다
1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내가 이루어야 할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운다.	4	3	2	1
2	목표를 세울 때 주변의 어른이나 친구들의 의견을 참고한다.	4	3	2	1
3	목표를 세우기 위해 주변의 다양한 정보를 참고한다.	4	3	2	1
4	이루어야 할 목표가 여러 가지일 때 먼저 이루어야 하는 목표들의 순서를 정한다.	4	3	2	1
5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해야 할 일들에 대한 계획을 스스로 세운다.	4	3	2	1
6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해야 할 일들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운다.	4	3	2	1
7	예상치 못한 상황에 부딪히거나 필요가 있다면 그에 따라 계획을 수정한다.	4	3	2	1
8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환경을 고려하여 계획을 세운다.	4	3	2	1
9	나는 일을 하는 중간 중간 목표에 맞게 하고 있는지 진행상황을 점검해 본다.	4	3	2	1
10	어떤 일을 마치고 난 후 내가 세웠던 목표를 이루었는지 스스로 확인해 본다.	4	3	2	1
11	어떤 일을 마치고 난 후 내가 세운 계획에 맞게 일을 했는지 스스로 평가해 본다.	4	3	2	1
12	어떤 일을 마치고 난 후 그 일의 결과에서 부족한 부분을 다음 할 일에 반영한다.	4	3	2	1

[상황대처]

문 32. 술, 담배, 금지된 약물, 미디어(컴퓨터, 스마트폰) 사용 등에서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해 주세요.

	문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중독성이 있다.	4	3	2	1
2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	4	3	2	1
3	친구들과 어울리는데 도움이 된다.	4	3	2	1
4	지나치게 자주 또는 오래한다고 가족이나 친구들로부터 지적을 받은 적이 있다.	4	3	2	1
5	하지 않을 때는 자꾸 생각이 난다.	4	3	2	1
6	그만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중에도 어쩔 수 없이 계속 하게 된다.	4	3	2	1
7	한 번 시작하면 시간가는 줄 모른다.	4	3	2	1
8	이로 인해 내 생활(일, 공부, 수면 등)이 방해를 받을 때가 있다.	4	3	2	1
9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 몰래한다.	4	3	2	1
10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하게 된다.	4	3	2	1

※ 인터넷이나 일상생활 속에서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한 적이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분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해 주세요.

문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내 힘을 자랑하거나 필요한 돈이나 물건을 갖기 위해 다른 사람을 괴롭힌 적이 있다(인터넷에 악플을 달거나 욕을 한 적이 있다).	4	3	2	1
2	별다른 이유 없이 단지 재미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다른 사람을 괴롭힌 적이 있다(인터넷에 악플을 달거나 욕을 한 적이 있다).	4	3	2	1
3	폭력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상대방에게 맞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4	3	2	1
4	내가 피해를 볼까봐 친구가 다른 친구를 괴롭히는 것을 모른 척 한 적이 있다.	4	3	2	1
5	누군가 나(또는 다른 친구)를 괴롭힐 때 그 사람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이 두려워 참은 적이 있다.	4	3	2	1
6	누군가 나를 괴롭힐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다.	4	3	2	1

[정서조절]

※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분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해 주세요.

	문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화가 나거나 기분이 상하면 욕을 하거나 소리를 지른다.	4	3	2	1
2	화가 나거나 기분이 상하면 물건을 집어던진다.	4	3	2	1
3	화가 나거나 기분이 상할 때에도 지나친 표현이나 행동은 자제한다.	4	3	2	1
4	나는 갑자기 슬프거나 힘든 일을 당해도 침착하게 잘 이겨내는 편이다.	4	3	2	1
5	작은 일에도 나의 기분은 쉽게 변한다.	4	3	2	1
6	기분에 따라 행동이 크게 변한다.	4	3	2	1
7	내 기분에 휩싸여 내 말이나 행동을 통제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	4	3	2	1
8	나는 내 기분이나 감정을 분명히 알고 있다.	4	3	2	1
9	나는 내 기분이나 감정 상태에 주의를 기울인다.	4	3	2	1

다음은 설문 조사의 결과분석을 위한 질문입니다.
응답 내용에 대한 비밀은 보장되오니 솔직하게 응답해 주세요.

배경질문 1. 응답자(학생)가 태어난 년도는? _____ 년도

배경질문 2. 응답자(학생)의 거주지역은 어디입니까?

① _____ 광역시/도 ② _____ 시/군/구 ③ _____ 동/읍/면

- ☞ 살고 있는 곳이 대도시인 서울시 서초구라면 (서울) 시/도 (서초)시/군/구 (우면)동/읍/면으로 표기
- ☞ 살고 있는 곳이 중소도시나 읍면지역인 충청남도 아산시라면 (충청남)시/도 (아산)시/군/구 (배방)동/읍/면으로 표기

배경질문 3. 현재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을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직장 또는 학교 때문에 따로 떨어져 살고 있는 가족도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단,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는 가족은 제외).

- | | |
|--------------------|----------|
| ① (외)할아버지 | ② (외)할머니 |
| ③ 아버지 | ④ 어머니 |
| ⑤ 새아버지 | ⑥ 새어머니 |
| ⑦ 형제 또는 자매 | ⑧ 친척 |
| ⑨ 기타(구체적으로: _____) | ⑩ 없음 |

배경질문 4. 부모님(보호자)은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나요?

부모님(보호자)께서 학교를 완전히 마치신(졸업하신) 학교를 표시해 주세요.

- ☞ 중간에 학교를 그만 둔 경우는 ‘졸업’ 이 아닙니다.
예) 중학교를 다니다가 졸업하지 않고 중간에 그만둔 경우 초등학교 졸업(2)에 표시합니다.

	부/모님 (보호자) 안 계심	학교 안다님	초등학 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 교 졸업	2-3년 제 대학 졸업	4년제 대학 졸업	대학원졸업 (석사·박사)	잘 모르겠음
1. 아버지	0	1	2	3	4	5	6	7	8
2. 어머니	0	1	2	3	4	5	6	7	8
3. 보호자	0	1	2	3	4	5	6	7	8

배경질문 5. 부모님(보호자)께서는 현재 직업을 갖고 계십니까? 각각에 대하여 응답해 주세요.

	부/모님(보호자) 안 계심	현재 직업을 갖고 있는지 여부	
		있음	없음
1. 아버지	0	1	2
2. 어머니	0	1	2
3. 보호자	0	1	2

배경질문 6. 여러분은 생활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나는 걱정거리가 없이 즐겁다.	4	3	2	1
2) 나는 내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4	3	2	1
3) 나는 사는 게 즐겁다.	4	3	2	1
3) 나는 학업성적에 대해 만족한다.	4	3	2	1

배경질문 7. 여러분의 2014년 1학기 중간고사 평균 점수는 다음의 어디에 해당합니까?

☞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으므로 솔직하게 응답해 주세요.

60점 이하	61~65점	66~70점	71~75점	76~80점	81~85점	86~90점	91~95점	96~100 점
1	2	3	4	5	6	7	8	9

배경질문 8. 학생 가정의 형편(경제 수준)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까?

매우 잘 산다 ← 보통 수준 → 매우 못 산다						
7	6	5	4	3	2	1

🌸 끝까지 성의 있게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develop and validate of the Korean Youth Competency Questionnaire (KYCQ) for IEA 2016 ICCS to make an international comparative study. To address this goal, there were reviewed and analyzed previous research and study for youth competencies such as DeCeCo project, Learning Matrix of UNESCO, Competency-based learning system of advanced countries, 2013 adult competencies, report of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and etc. Based on literature review, KYCQs were developed the 5 competency clusters, 16 sub-competency ; life-long learning competency(thinking, intellectual tool use, learning adaptability), life management competency(health management, task management, situation management, emotional management), carrier development competency(carrier design, leisure use, profiteer sprit), inter-personal relationship competency(relationship, leadership, collaboration), and social participant competency(personal citizenship, community citizenship, global citizenship). The beginning KYCQ in 5 competency clusters, 16 sub-competency were 332. In order to validate 332 items of the KYCQ, 6,758 youths were participated a validation survey. There were 1,248 elementary school students, 2,558 muddle school students, and 2,952 high school students. As a result, there were developed and validated 232 items of the KYCQ, reliability coefficient were over 0.7 ; 37 items of life-long learning competency, 48 items of life management competency, 40 items of carrier development competency, 46 items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competency, and 63 items of social participant competency. Also, to validate the structure of KYCQ as goodness-of-it fit statistics, the overall fit of model had a good model fit. Based on the results, some youth policies were suggested to increase the youth competency

2014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기관고유과제

- 14-R01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Ⅰ / 안선영·황여정·이수정·이로사
- 14-R02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Ⅰ / 임희진·송병국
- 14-R03 미래 환경변화 및 청소년정책 전망 연구Ⅱ / 이경상·박선영·조남익
- 14-R04 자유학기제를 통한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 임지연·김정주·김정숙
- 14-R05 아동·청소년 영향평가제도 도입 방안 연구 / 박영균·조흥식
- 14-R06 남북한 청소년 교류 및 상호이해에 대한 연구 (1) : 총괄보고서 / 김형주·권재기
- 14-R06-1 남북한 청소년 교류 및 상호이해에 대한 연구 (2) : 조사결과 자료집 / 김형주
- 14-R07 청소년 사이버불링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 이창호·신나민
- 14-R08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회복적 정의모델 도입방안 연구 / 이유진·이창훈·강지명
- 14-R09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 김승경·송미경
- 14-R10 가출청소년 보호지원 실태 및 정책과제 연구 / 김지연·정소연
- 14-R11 디지털 시대의 청소년 미디어교육 제도화 방안 연구 / 배상률
- 14-R12 청소년 국제개발협력 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 / 김정숙·조혜영·이태주·이덕난
- 13-R13 스마트시대 대중매체를 통한 청소년의 성 상품화 대응방안 연구 / 성윤숙·손병덕
- 14-R14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Ⅳ : 총괄보고서 / 김경준·김희진·이민희·김유나
- 14-R14-1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Ⅳ : 한국의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국가보고서 권고사항 이행실태 / 김경준·이호균·서여정·김광혁·김형욱·윤상석·박병식·이석구
- 14-R14-2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Ⅳ : 2014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통계 / 김경준·김희진
- 14-R14-3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Ⅳ : 청소년 인권 의식에 관한 구조 분석 / 천정웅
- 14-R15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Ⅱ : 지역사회 진단·분석 / 김지경·하현주·김옥태
- 14-R15-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Ⅱ : 청소년 행복도시 조성사업 추진 계획 수립 / 김영한·임영식·김민
- 14-R16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Ⅱ : 총괄보고서 / 양계민·신현옥·박주희
- 14-R16-1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Ⅱ : 기초분석보고서 / 양계민·박주희
- 14-R17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Ⅰ / 오해섭·맹영임
- 14-R17-1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Ⅰ : 기업가정신 및 창업관련 의견조사 / 오해섭·맹영임·문호영
- 14-R18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Ⅴ : 사업보고서 / 이종원·황진구·모상현·정은주·강현철·한영근·허효주·문은옥·이영화
- 14-R18-1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Ⅴ : 기초분석보고서Ⅰ - 청소년 생활시간 추이 분석 / 정은주
- 14-R18-2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Ⅴ : 기초분석보고서Ⅱ - 청소년 매체이용 실태 및 추이 분석 / 모상현
- 14-R18-3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Ⅴ : 기초분석보고서Ⅲ - 청소년 체험활동 및 문화활동 참여 실태와 추이 분석 / 황진구·허효주

협동연구과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4-62-01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Ⅱ / 윤철경·서정아·유성렬·조아미 (자체번호 14-R19)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4-62-02 학업중단 청소년의 특성과 중단 후 경로 :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Ⅰ 데이터 분석 보고서 / 윤철경·서정아·유성렬·조아미 (자체번호 14-R19-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4-62-03 비행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Ⅱ / 김지영·전영실·박성훈 (자체번호 14-R19-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4-63-01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Ⅰ : IEA ICCS 2016 - 총괄보고서 / 성은모·백혜정·진성희 (자체번호 14-R20)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4-63-02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Ⅰ : IEA ICCS 2016 - 기초통계분석보고서 / 성은모·백혜정·진성희 (자체번호 14-R20-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4-63-03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Ⅰ : IEA ICCS 2016 - 사회참여역량측정 도구개발 / 김태준 (자체번호 14-R20-2)

수 시 과 제

- 14-R21 청소년보호의 시대적 중요성과 미래의 바람직한 방향 / 이유진·배규한
- 14-R22 청소년분야 자격제도 개선 방안 연구 / 모상현·이진숙
- 14-R23 청소년지도자 인권의식 함양방안 / 김희진
- 14-R24 학교 밖 청소년 건강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정책리포트 발간) / 백혜정·임희진
- 14-R25 아동·청소년 대상 연구윤리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 배상률
- 14-R26 청소년수련시설 종사 청소년지도사 처우개선 방안 연구 (정책리포트 발간) / 황진구
- 14-R27 청소년정책연구 동향 분석 및 과제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5년간의 연구과제 분석을 중심으로 / 김정숙

수 탁 과 제

- 14-R28 디지털교과서 활용 행태 및 사용자에게 미치는 영향 분석 연구 / 성은모
- 14-R29 근로청소년 유형 분석 및 유형별 정책지원 방안 연구 / 김지경·박창남
- 14-R30 학교 밖 위기청소년 취약계층 청소년진로 실태조사 / 김지경·이상준
- 14-R31 아산시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기본계획 수립연구 / 김영한
- 14-R32-1 청소년 경찰학교 시범운영 지원 / 성윤숙·안선영·정은주
- 14-R32-2 청소년 경찰학교 시범운영 인프라 구축 지원 / 성윤숙·안선영·정은주
- 14-R33 템플스테이 가족 및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 연구보고서 / 조혜영·양계민
- 14-R33-1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활용편 : 템플스테이 가족 및 청소년 프로그램 매뉴얼 / 조혜영·양계민
- 14-R34 2014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 김경준·김영한·이유진

- 14-R3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개발 연구 / 김지경 · 김지연 · 김정주
- 14-R36 위기청소년 성장 지원을 위한 숲(탐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방안 연구 / 윤철경 · 김혁진 · 김범구 · 정다정
- 14-R36-1 위기청소년 성장 지원을 위한 숲(탐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방안 연구 : 위기청소년 성장 지원을 위한 숲(체험) 프로그램 / 윤철경 · 하시연
- 14-R37 청소년 통일체험캠프 프로그램 개발 총괄보고서 / 성은모
- 14-R37-1 청소년 통일체험캠프 프로그램 개발 통일체험 활동 운영매뉴얼 / 성은모
- 14-R38 지역다문화프로그램 공모사업 운영평가 체계개발 및 프로그램 분석 / 양계민
- 14-R39 지역아동센터아동패널조사2014 / 황진구 · 이종원 · 김희진
- 14-R40 2014년도 공동생활가정평가 사후관리 / 김지연 · 이경상
- 14-R41-1 학업중단 대책 매뉴얼 및 진단도구 개발 : 학업중단 예방매뉴얼(1-1) / 윤철경 · 황여정 · 김승경 · 맹영임
- 14-R41-2 학업중단 대책 매뉴얼 및 진단도구 개발 : 학업중단 숙려제 매뉴얼(1-2) / 윤철경 · 황여정 · 김승경 · 맹영임
- 14-R41-3 학업중단 대책 매뉴얼 및 진단도구 개발 : 학교 밖 진로 가이드북(1-3) / 윤철경 · 황여정 · 김승경 · 맹영임
- 14-R41-4 학업중단 대책 매뉴얼 및 진단도구 개발 : 학업중단 진단도구 개발(1-4) / 정제영 · 강태훈 · 류성창 · 변수용
- 14-R42 2014 행복교육 학생모니터단 운영 / 오해섭 · 김경준
- 14-R43 대안교육포럼 / 윤철경 · 오해섭 · 백혜정 · 김희진
- 14-R44 2014년 청소년유해환경접촉 종합실태조사 / 임희진 · 백혜정 · 김희진 · 황여정
- 14-R45 삼성전자 임직원과 함께하는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모델 확대 방안 / 황진구
- 14-R46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제도개선 방안 연구 / 김지연 · 김동일 · 김태완 · 윤철경
- 14-R47 고용차별예방교육 프로그램 매뉴얼 / 성은모
- 14-R48 한중 청소년의 온라인게임 이용 및 정책에 관한 연구 / 이창호 · 윤철경 · 최금해 · 김옥태
- 14-R49 2014년 포래조정사업 / 서정아 · 김영한 · 이유진
- 14-R50 2014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지역돌봄 연계 모형 개발 연구 / 양계민
- 14-R51 청소년우대정책관련 하위법령 개정추진 기초연구 / 이창호 · 조혜영 · 김용훈
- 14-R52 신고 · 인증제 정착을 위한 청소년수련활동 개념 정립 및 분류 체계 연구 / 임지연 · 김민
- 14-R53 멘토링 프로그램 효과성 측정도구 개발 / 성은모
- 14-R54 약물사이버중독 안전내용체계안 개발연구 / 이창호 · 왕석순
- 14-R55 청소년지도사 자격제도 개선을 위한 검정교과목정비 및 표준교수요목에 관한 연구 / 김경준 · 오해섭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14-S01 2014년 진로진학상담교사 부전공 자격 동계합숙연수Ⅰ (1/6~10)
- 14-S02 2014년 진로진학상담교사 부전공 자격 동계합숙연수Ⅱ (1/13~17)
- 14-S03 청소년 역량지수 개발을 위한 공청회 (1/21)
- 14-S04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교원집중 연수 (2/4~7)
- 14-S05 미래연구에서의 시나리오 방법론 (2/20)
- 14-S06 제1차 2013년도 고유과제 연구성과발표회 (3/4)
- 14-S07 제2차 2013년도 고유과제 연구성과발표회 (3/11)

- 14-S08 학업중단 및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생생활지도 : 일본의 최근동향 (3/13)
- 14-S09 STATA를 이용한 공간분석의 기초 (3/21)
- 14-S10 역량 측정도구 개발 방법론 (3/26)
- 14-S11 청소년경찰학교 시범운영 워크숍 (4/3~4)
- 14-S12 2014년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교 학교장 특별연수 (4/14~16)
- 14-S13 학업중단예방 시·도 담당자 워크숍 (4/11~12)
- 14-S14 자유학기제와 청소년체험활동의 의미와 연계과제 (4/23)
- 14-S15 행복한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환경진단지표 (4/29)
- 14-S16 복잡표본조사에서 가치치 산출 (5/8)
- 14-S17 다문화시대 아동·청소년의 인권과 시민교육 (5/12)
- 14-S18 시군구 꿈키움 멘토단 운영 담당자 연수 (5/27)
- 14-S19 지역사회 지표를 통한 청소년 정책개발 및 정책의 실제 활용 (5/26)
- 14-S20 청소년 통일체험캠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플릿트러닝의 적용 가능성 (5/26)
- 14-S21 청소년보호의 시대적 중요성과 미래의 바람직한 방향모색을 위한 정책워크숍 (5/30)
- 14-S22 위기청소년을 위한 숲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방안 모색 (5/30)
- 14-S23 청소년 통일 체험캠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Action Learning의 적용가능성 (5/29)
- 14-S24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활성화 방안 모색 (6/13)
- 14-S25 Mplus를 활용한 자료분석 (7/4)
- 14-S26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I 데이터 분석 세미나 학업중단 청소년의 특성과 중단 후 경로 (7/11)
- 14-S27 질적연구방법론 : CQR (7/21)
- 14-S28 가정폭력사건의 회복적사법 도입가능성 (7/29)
- 14-S29 2014 진로진학상담교사 부전공자격 하계합숙연수 (7/22~25)
- 14-S30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우수사례(중등) 발표 워크숍 (8/7, 8/10)
- 14-S31 자유학기제를 통한 학교연계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 (8/29)
- 14-S32 표본조사의 올바른 모수 추정법 (8/14)
- 14-S33 학업중단 다수발생 학교 컨설팅위원 워크숍 (8/21)
- 14-S34 청소년경찰학교 시범운영 담당자 2차 워크숍 (8/28~29)
- 14-S35 대안교실 담당 교원 심화연수 (8/18~22)
- 14-S36 질적연구방법론 : 근거이론 (8/29)
- 14-S37 청소년 기업가 정신 함양을 위한 영역별 정책방안 도출 (9/19)
- 14-S38 학교 밖 청소년 및 가출 청소년의 실태와 정책과제 (9/19)
- 14-S39 청소년 기업가 정신 함양 및 창업 역량 강화 방안 (9/30)
- 14-S40 대안교육 국제포럼 2014 대안교육의 국제적 동향과 발전방향 : 정책과 실천 (9/25~26)
- 14-S41 자유학기제 운영 활성화 방안 탐색 공동세미나 (9/25)
- 14-S42 학교 사이버불링 실태와 대책방안 토론회 (11/3)
- 14-S43 제4회 한국아동·청소년 패널 학술대회 (10/30)
- 14-S44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중간평가 및 정책토론회 (11/12)
- 14-S45 아동·청소년 인권 정책과제 개발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 (11/7)
- 14-S46 학교 밖 청소년지원사업 (11/17)
- 14-S47 국회다정다감포럼 <사회통합을 위한 다문화청소년 정책의 방향과 과제> (11/07)
- 14-S48 미래 환경변화 및 청소년정책 전망에 대한 전문가워크숍 (11/29)

학 술 지

「한국청소년연구」 제25권 제1호(통권 제72호)

「한국청소년연구」 제25권 제2호(통권 제73호)

「한국청소년연구」 제25권 제3호(통권 제74호)

「한국청소년연구」 제25권 제4호(통권 제75호)

청소년지도총서

- 청소년지도총서① 「청소년정책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② 「청소년수련활동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③ 「청소년지도방법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④ 「청소년문제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⑤ 「청소년교류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⑥ 「청소년환경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⑦ 「청소년심리학」,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⑨ 「청소년상담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⑩ 「청소년복지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⑪ 「청소년문화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⑫ 「청소년 프로그램개발 및 평가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⑬ 「청소년 자원봉사 및 동아리활동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⑭ 「청소년기관운영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⑮ 「청소년육성제도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연구방법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개론」,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1 「좋은교사와 제자의 만남」, 교육과학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2 「행복한 십대 만들기 10가지」, 교육과학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3 「집나간 아이들 - 독일 청소년 중심」, 교육과학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4 「청소년학 용어집」, 교육과학사

기타 발간물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51호 : 청소년 한부모의 생활실태 및 자립지원 방안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52호 : 아동·청소년 민주시민역량 강화 방안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53호 : 아동·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54호 : 학교 밖 청소년 건강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55호 : 청소년수련시설 종사 청소년지도사 처우 개선방안 연구 - 보수체계를 중심으로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56호 :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 I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13호 :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I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14호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Ⅲ : 2013 한국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실태조사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15호 :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연구 I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16호 :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17호 : 청소년의 사이버불링 실태조사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18호 : 한중일미 4개국 청소년의 과학에 관한 의식조사 : 주요 연구결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4-63-01
연구보고 14-R20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 I: IEA ICCS 2016
-총괄보고서-

인 쇄 2014년 12월 24일

발 행 2014년 12월 30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노 혁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사)한국장애인이워크협회 전화 02)2263-3887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44) 415-2125(학술정보관)

ISBN 979-11-5654-046-5 94330

979-11-5654-045-8 (세트)